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2018-2022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2018-2022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6월

연구기관 : (사)문화다움

책임연구원 :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공동연구원 : 김효정 (지역문화관광 네트워크 대표)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원장)

윤진현 (인문학연구실 오만가지 대표)

조아영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실장)

연구원 : 김보배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연구원)

최문석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연구원)

정원희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연구원)

보조연구원 : 박상준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팀장)

곽혜영 (문화다움 기획연구실 연구원)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관점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문화도시 개념은 오랜 시간을 통해 실체를 만들어가는 도시의 지향가치입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유럽문화수도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공동체도 최근 문화도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문화도시란 도시 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 감성을 강화하며, 도시발전과 문화적 표현에 있어 시민들의 역할을 꾸준히 높여감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도시문화,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2000년 전후로 현재까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책적 오류를 수정하며 추진 중인 국내 문화도시 정책도 최근에는 국제적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그 도시의 고유문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현상과 효과가 창출되어, 발전과 성장을 지속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흐름의 저변에는 사회발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물적·양적 경제성장 위주의 사회발전의 한계를 인간의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통해 극복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럽 시민의 통합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문화수도 제도를 통해서, 또 한국 지역의 문화가치를 브랜드화 하는 문화도시 전략에서 공히 문화를 통한 인간과 도시의 통합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지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문화도시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추진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성숙되는 궁극의 지향가치입니다.

문화, 도시, 사회발전을 둘러싼 국내외적 흐름은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이 5개년에 완성되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을 5개년만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주목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인천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고, 향후 인천 문화도시를 실천할 제 주체들이 만들어갈 것을 전제한 정책내용과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고:
EU 문화도시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도시 포럼 자료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계획 1988~1997, UN

목 차

제1장 | 서장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3
1. 계획수립 배경	3
2. 계획수립 목적	6
제2절 계획수립 범위 및 성격	7
1. 계획수립 범위	7
2. 계획의 성격	8
제3절 계획수립 방법 및 과정	9
1. 계획수립 방법	9
2. 계획수립 과정	12

제2장 | 인천 문화도시 정책의 지향가치

제1절 지역문화 패러다임 변화 및 문화도시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17
1. 지역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도시	17
2. 문화도시 관련 국제 동향 및 주요 이슈	23
3. 문화도시 관련 국내 동향 및 주요 이슈	29
제2절 인천 문화도시 관련 선행계획 및 타 도시 계획 검토	34
1. 인천 문화도시 선행계획 검토	34
2. 문화도시 관련 타 도시 계획 검토	41
제3절 인천 문화도시 개념 및 정책추진 프레임	51
1. 인천 문화도시 개념	51
2. 인천 문화도시 정책추진 프레임	54

제3장

인천 문화도시 환경분석 및 비전 수립

제1절 인천시 문화환경 및 문화수요 분석	59
1. 인천시 문화환경 분석	60
2. 인천시 문화수요 분석	147
3.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환경 및 문화수요 분석	179
제2절 인천 문화도시 환경분석 종합 및 시사점	212
1. 환경분석 종합	212
2. 범주별 종합 시사점	238
제3절 인천 문화도시 비전 및 구성체계	246
1. 인천 문화도시 비전 설정	246
2. 인천 문화도시 비전체계도	248

제4장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세부내용

제1절 문화주체	253
1. 계획방향	253
2. 정책과제	254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255
4. 세부사업 내용	256
제2절 문화활동	274
1. 계획방향	274
2. 정책과제	275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276
4. 세부사업 내용	278
제3절 문화공간	308
1. 계획방향	308
2. 정책과제	309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310
4. 세부사업 내용	311

제4절 문화공동체	326
1. 계획방향	326
2. 정책과제	327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327
4. 세부사업 내용	328
제5절 문화산업	334
1. 계획방향	334
2. 정책과제	335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335
4. 세부사업 내용	336
제6절 문화연동	344
1. 계획방향	344
2. 정책과제	345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346
4. 세부사업 내용	347
제7절 문화협영	358
1. 계획방향	358
2. 정책과제	359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359
4. 세부사업 내용	360
제8절 문화재원	367
1. 계획방향	367
2. 정책과제	368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368
4. 세부사업 내용	369

제5장

추진 로드맵 및 자원조성 계획(안)

제1절 인천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구축을 위한 사례검토	375
1. 요코하마 창조도시 사업 추진체계	375
2. 빌바오 도시재생 사업 추진체계	378
3. 인천 문화도시 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시사점	381

제2절 인천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383
1.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축방향	383
2. 인천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383
제3절 인천 문화도시 자원조성 계획(안)	395
1. 인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자원조성 계획(안)	395
2. 인천 문화도시 범주별 자원조성 계획(안)	397

참고문헌	405
-------------------	-----

부 록	413
------------------	-----

<인천 문화도시 판>에 참여한 사람들	415
----------------------------	-----

표목차

<표 1> 계획수립 과정별 진행내용 개요	12
<표 2> 유럽문화수도 문화도시 총족조건(선정기준)	25
<표 3>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참여 도시 현황	26
<표 4>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29
<표 5>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개요	30
<표 6>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존 계획 검토	37
<표 7> 5개 범주별 투자계획 개요	43
<표 8>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25개 추진과제	44
<표 9> 인천시 행정구역 변천사	60
<표 10> 인천시 주요 연혁	61
<표 11> 7개 특·광역시대비 인천시 주민등록인구 비율	62
<표 12> 인천 인구수, 세대 증가율	63
<표 13> 인천시 행정구역별 면적 및 해안선	64
<표 14> 인천 이미지 분석자료 개요	70
<표 15> 7개 특·광역시 예술인 분포(2015)	74
<표 16> 7개 특·광역시 연간 예술활동 수준(2014)	75
<표 17> 7개 특·광역시 연간 예술활동 수입 수준(2014)	76
<표 18> 7개 특·광역시 예술활동 주 수입원 (2014)	77
<표 19> 7개 특·광역시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2014)	78
<표 20> 7개 특·광역시 개인 창작공간 소유 형태 (2014)	78
<표 21> 7개 특·광역시 공적연금 가입 형태(2014년말 기준)	78
<표 22> 7개 특·광역시 예술인 지원금 수혜 경험(2014)	79
<표 23> 7개 특·광역시 예술인 지원금 수혜 미경험 이유(2015)	79
<표 24> 인천시 청년예술가 및 단체, 관련학과 대학생 현황	80
<표 25> 광역문화재단 인력고용 형태 및 현황	81
<표 26> 특·광역시 대비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평균 규모(2014)	82
<표 27> 타 광역시 및 인천시 문화예술인력 교육기관 현황	82
<표 28> 인천 문화매개인력 양성 관련 기관 및 학과	83
<표 29>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현황	84
<표 30> 강도의 꿈 세부 프로젝트	89
<표 31> 근대문화유산/ 산업유산의 정의	90
<표 32> 근대시기 지역 특화산업별 주요 산업유산 목록	91
<표 33> 주요 산업관광(근대 산업유산)지	92
<표 34>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2015)	92
<표 35> 인천 문화예술행사 변동 추이	94

<표 36>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	94
<표 37> 인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 수	96
<표 38> 특·광역시 공연예술단체 규모 추이(2008~2015)	96
<표 39> 공연단체 재정자립도(2015)	96
<표 40> 인천 시립예술단 현황	97
<표 41> 2017 시립예술단 공연계획	98
<표 42> 학교문화예술교육 3개년 강좌 수	99
<표 43> 사회문화예술교육 3개년 강좌 수	99
<표 44> 7개 특·광역시 지역축제 현황(2014)	100
<표 45> 2017년 인천시 지역축제 주요 현황	101
<표 4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만족도(2016)	10
<표 47> 7개 특·광역시 지역축제 육성제도 현황(2015)	103
<표 48> 7개 특·광역시 지역축제 지원선정 개요(2015)	104
<표 49> 타 도시 생활문화 관련 조례 현황(2015)	105
<표 50>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 관련 주요사업	105
<표 51> 7개 특·광역시 문화시설 현황(2015)	107
<표 52> 7개 특·광역시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2016)	108
<표 53> 7개 특·광역시 문예회관 현황(2015)	109
<표 54> 전국 국립 문화시설 수	109
<표 55> 생활문화센터 유형 구분	110
<표 56> 지역별 등록 외국인 현황 추이	111
<표 57> 지역별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추이	112
<표 58>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2017)	112
<표 59> 다문화가구 분포(2015)	112
<표 60> 특·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예산 평균	113
<표 61> 인천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현황(2014-2015)	113
<표 62> 예술단체 장르별 현황(2015)	115
<표 63> 인천시 자치구별 지리·역사적 환경	116
<표 64> 인천시 자치구별 행정·인프라 환경	117
<표 65> 7개 특·광역시 콘텐츠산업 업체 수(2015)	119
<표 66> 7개 특·광역시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2015)	119
<표 67> 인천관광 마스터플랜 핵심전략과 세부과제	122
<표 68> 인천시 경관유형별 목표	123
<표 69> 인천시 도시재생전략 기본방향	124
<표 70>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125
<표 71>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25
<표 72>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주요 내용	126
<표 73> 7개 특·광역시 주요 관광자원 수(2015)	128

<표 74> 특·광역시별 국내여행 참가자 수(2015)	129
<표 75> 특·광역시별 관광 만족도(2015)	129
<표 76> 국적별 방문지 비율(2015)	130
<표 77> 연도별 인천시 관광사업체 수(2011~2015)	131
<표 78> 연도별 인천시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131
<표 79> 연도별 인천시 관광사업체 매출액(2011~2015)	132
<표 80> 7개 특·광역시 MICE산업 매출액 현황(2015)	133
<표 81> 인천시 관광사업체 종사자 통계(2015)	134
<표 82> 인천시 MICE분야 필요인력(연간)	135
<표 83> MICE분야 대학전문인력 현황(연간)	135
<표 84> 광역시별 문화관련 부서 및 주요 정책과제 비교	137
<표 85>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정책목표(2017)	139
<표 86> 최근 인천 문화정책의 주요 시사점	142
<표 87> 중앙정부 문화재정 총액과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2007~2014)	143
<표 88> 전국 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 부문 예산 규모 비교(2013~2015)	144
<표 89> 인천광역시 본청 문화예술 부문별 예산 규모(2013~2015)	144
<표 90> 인천 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만족도(2016)	152
<표 91> 인천 예술인 활동기간별 문화예술 지원사업 만족도(2016)	153
<표 92> 인천 예술인 활동기간별/ 연령별 지원사업 인식 차이(2016)	154
<표 93> “인천 문화도시 판” 개요	170
<표 94> 인천시 자치구별 주요 사회문화 지표	179
<표 95> 인천시 자치구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비전 및 목표	180
<표 96> 자치구별 문화시설 현황(2015)	182
<표 97> 인천시 자치구별 삶의 질 평가(자치구별 긍정응답 비율)	183
<표 98> 인천시 자치구별 최근 1년간 여가활동 경험(상위항목)	184
<표 99> 인천시 자치구별 최근 1년간 여가활동 경험(하위항목)	184
<표 100> 인천시 자치구별 향후 희망 여가활동(상위항목)	185
<표 101> 인천시 자치구별 향후 희망 여가활동(하위항목)	185
<표 102>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참여 계기	189
<표 103>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191
<표 104> 인천시 자치구별 선호 문화예술교육 방식	192
<표 105>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애로사항	193
<표 106>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우선사항	194
<표 107> 인천시 자치구별 동호회 활동 참여 애로사항	195
<표 108> 인천시 자치구별 생활 속 문화활동 필요사항	197
<표 109>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 연상 단어	198
<표 110> 인천시 자치구별 시민 문화역량 평가	199
<표 111>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인식(상위항목)	201

<표 112>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진입 부족사항	202
<표 113>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진입 필요사항	203
<표 114> 인천시 자치구별 거주 자치구/군 문화역량 평가(긍정응답 비율)	204
<표 115>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역량 평가(긍정응답 비율)	206
<표 116>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207
<표 117>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를 위한 중점사항(상위항목)	208
<표 118>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를 위한 중점사항(하위항목)	208
<표 119> 자치구별 주요 여건 및 시사점	210
<표 120> 인천시 사회문화예술교육 3개년 강좌 수	216
<표 121> 인천시 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217
<표 122> 인천문화재단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217
<표 123> 2017 인천 시립예술단 공연계획 및 현황	220
<표 124> 문화주체 범주 세부사업 개요	255
<표 125> 문화활동 범주 세부사업 개요	276
<표 126> 문화공간 범주 세부사업 개요	310
<표 127> 문화공동체 범주 세부사업 개요	327
<표 128> 문화산업 범주 세부사업 개요	335
<표 129> 문화연동 범주 세부사업 개요	346
<표 130> 문화협영 범주 세부사업 개요	359
<표 131> 문화재원 범주 세부사업 개요	368
<표 132> 인천 문화도시 신규사업 및 확대사업 추진예산(안)	395
<표 133> 인천 문화도시 범주별 추정예산(안)	396
<표 134> 문화주체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397
<표 135> 문화활동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397
<표 136> 문화공간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399
<표 137> 문화공동체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399
<표 138> 문화산업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400
<표 139> 문화연동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400
<표 140> 문화협영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401
<표 141> 문화재원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401

그림목차

[그림 1] 인천 문화도시 판 구조도	10
[그림 2] 인천 문화도시 연구협력체계	11
[그림 3]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변화 양상	18
[그림 4] 도시환경의 화두로서 문화환경	18
[그림 5] 지역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19
[그림 6]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비전체계도	20
[그림 7] 유럽문화수도 개요	23
[그림 8] 유럽문화 수도 사례	24
[그림 9]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비전과 가치	27
[그림 10] 유럽문화수도+세계도시문화포럼 등 국외 문화도시 정책의 흐름	28
[그림 11] 국내 문화도시 정책 흐름	31
[그림 12] 국내 문화도시 정책 흐름 대비 인천 문화도시 정책 흐름	32
[그림 13] 인천시 문화도시 선행계획 검토	34
[그림 14] 인천 시정 및 문화분야 중기 재정계획 검토	38
[그림 15] 인천문화주권의 주요 이슈	39
[그림 16] ‘비전 2030, 문화도시 서울’ 비전체계도	41
[그림 17] 서울 문화도시계획 과정 및 투자계획	43
[그림 18] 요코하마 창조도시 전경	45
[그림 19]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사업 추진도	46
[그림 20] 요코하마 창조도시 주요 거점시설	47
[그림 21] 창조지구 프로젝트 구상도	48
[그림 22] 요코하마 창조도시 도시재생 비전 구상	49
[그림 23] 요코하마 창조도시 정책기구	50
[그림 24] 인천 문화도시 개념 도출 과정	51
[그림 25] 문화도시 구성도	54
[그림 26] 인천 문화환경 도출과정	59
[그림 27] 인천 문화수요 도출과정 - 2016 인천문화지표조사 개요	59
[그림 28] 인천광역시 위치도	63
[그림 29] 인천의 국제적 입지요건	64
[그림 30] 인천시 권역 구분	65
[그림 31] 인천의 경제적 환경 지표	67
[그림 32] 인천의 인구학적 환경 지표	68
[그림 33] 인천의 사회심리학적 환경 지표	69
[그림 34] 주요 키워드로 보는 인천의 도시 이미지	70
[그림 35] 언론 키워드 속 인천의 인구·환경적 이슈	71

[그림 36] 언론 키워드 속 인천의 역사·문화적 이슈	72
[그림 37] 언론 키워드 속 인천의 지역문화예술 이슈	72
[그림 38] 언론 키워드 속 인천의 지역문화주체 이슈	73
[그림 39] 7개 특·광역시 전업 예술인 현황(2015)	76
[그림 40] 7개 특·광역시 예술인 수입 현황(2014)	77
[그림 41] 특·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추세(2008~2016)	86
[그림 42] 특·광역시 시지정문화재 추세(2008~2016)	87
[그림 43] 인천시 국가지정문화재 현황(2017)	87
[그림 44] 인천시 시지정문화재 현황(2017)	87
[그림 45] 인천시 자치구별 지정문화재 현황(2017)	88
[그림 46] 인천시 자치구별 국가지정문화재 분포현황도(2017)	88
[그림 47] 전국 전문예술법인 단체 현황	95
[그림 48] 최근 시립예술단 공연 포스터	98
[그림 49] 인천문화재단의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	115
[그림 50] 7개 특·광역시 대비 인천시 콘텐츠산업 업체 수 및 매출액 비중	118
[그림 51] 인천 장르별 콘텐츠산업 업체 수 및 매출액 비중	120
[그림 52]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비전 및 분야별 정책목표(2015년)	121
[그림 53]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문화분야 정책방향 및 실천계획	122
[그림 54] 인천시 국내여행 참가자 추이(2010~2015)	128
[그림 55] 인천 방문 주요 5개국 국적별 외국인 방문객	130
[그림 56] 인천시 관광사업체 수 추이(2011~2015)	131
[그림 57] 인천시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2011~2015)	132
[그림 58] 인천시 관광사업체 매출액 추이(2011~2015)	133
[그림 59] 인천시 MICE산업 매출액 추이(2014~2015)	134
[그림 60] 인천 개항창조도시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안	136
[그림 61] 민선 6기 시정 비전	138
[그림 62] 인천 문화주권의 필요성과 3대 추진방향	140
[그림 63] 인천 문화주권계획 주요내용 및 이슈	141
[그림 64] 정부 총 재정 대비 문화재정 증가 추이(2005~2014)	142
[그림 65] 중앙정부 분야별 문화재정 추이(2007~2014)	143
[그림 66] 2011-2015 연도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145
[그림 67] 인천시민이 지각하는 문화/여가활동의 중요성과 삶의질에서 현재수준	147
[그림 68] 2012년 대비 2016년 문화활동 비교	147
[그림 69] 인천시민 문화예술교육 참여 애로사항	148
[그림 70] 인천시민 문화예술교육 참여계기	148
[그림 71] 인천시민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149
[그림 72] 문화도시 관련 필요인력	149
[그림 73] 인천 예술인 활동 분야	149

[그림 74] 인천 예술인 주요 예술활동 형태	150
[그림 75] 인천 예술인 주요 예술활동 방식	150
[그림 76] 창작공간 형태	150
[그림 77] 예술 활동에 가장 필요한 공간	150
[그림 78] 인천지역 내 예술활동 주된 이유	151
[그림 79] 인천 예술분야에서 가장 발전한 분야	151
[그림 80] 인천 예술분야에서 가장 낙후한 분야	151
[그림 81] 인천 예술인 지원 수혜 경험(3년간)	152
[그림 82] 인천 예술인 지원 수혜 횟수(3년간)	152
[그림 83] 인천 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만족도(2016)	153
[그림 84] 인천 예술인 지원사업 형평성 인식	154
[그림 85] 인천 예술인 지원사업 지원분야 인식	154
[그림 86] 인천 예술인 지원방식 우선순위	155
[그림 87] 인천 예술인 지원사업 개선사항	155
[그림 88]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문화재단이 해야 할 우선순위	155
[그림 89] 특·광역시 및 인천 자치구내 문화유산 순위 대비 이용규모	156
[그림 90] 인천시민 문화예술행사 및 활동참여의 현재와 향후 의향	156
[그림 91] 인천시민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 참여분야	157
[그림 92] 인천시민 지역 외 문화예술활동 이유	157
[그림 93] 인천시민 문화예술활동 참여 계기	157
[그림 94] 인천시민 문화예술활동 포기경험 이유	158
[그림 95] 인천시민 문화예술행사 정보수집 경로	158
[그림 96] 인천시민 문화예술활동 관련 개선사항	159
[그림 97] 지역축제 관련 경험 및 인식	159
[그림 98] 인천시민 특정 지역축제 선호 이유	160
[그림 99] 인천시민 문화예술동아리 현황 및 수요	160
[그림 100] 인천시민 문화예술동아리 지속기간	161
[그림 101] 인천시민 동아리 정기모임 장소	161
[그림 102] 인천시민 동아리 장소이용 불편사항	161
[그림 103] 인천시민 동호회 교육주기	161
[그림 104] 인천시민 동호회 교육진행 방식	161
[그림 105] 인천시민 동호회 예술활동 지원 만족도	162
[그림 106] 인천시민 동호회 관련 지원 필요사항	162
[그림 107] 특·광역시 대비 인천시 문화시설 운영현황 비교	163
[그림 108] 인천시민 문화시설 이용추이(2012~2016)	163
[그림 109] 인천시민 문화예술시설 이용의 현재와 향후 이용 의향	164
[그림 110] 인천 자치구별 문화/여가 만족도	164
[그림 111] 인천 자치구별 문화시설, 문화행사, 문화활동 관련 수요	165

[그림 112]	인천 자치구별 문화환경 우선 개선사항	166
[그림 113]	인천시민 타 동호회와의 교류주기	167
[그림 114]	인천시민 타 동호회와의 교류방법	167
[그림 115]	인천 내 예술인/단체 교류 여부	167
[그림 116]	인천 내 예술인/단체 교류방법	167
[그림 117]	거주군/구 문화정책 인지도	168
[그림 118]	인천시 문화정책 인지도	168
[그림 119]	인천시 문화정책 수립/추진 중점 사항(1+2+3순위)	169
[그림 120]	거주군/구가 문화도시로 가기위해 부족한 부분	169
[그림 121]	인천시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	169
[그림 122]	자치구별 문화관광 예산	181
[그림 123]	영역별 삶의 질 평가(연수구/남구 긍정응답 비율)	183
[그림 124]	문화/여가활동 삶의 질 평가(자치구별 긍정응답 비율)	183
[그림 125]	인천시 자치구별 공연/전시관람 경험 및 향후 의도	186
[그림 126]	인천시 자치구별 생활문화활동 경험 및 향후 의도	186
[그림 127]	인천시 자치구별 여가활동 만족도	187
[그림 128]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시설 이용경험 및 향후의도	187
[그림 129]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 및 향후의도	188
[그림 130]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및 향후의도	188
[그림 131]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참여 계기(상위항목)	189
[그림 132]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190
[그림 133]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활동을 위한 개선사항(상위항목)	191
[그림 134]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예상 빈도	192
[그림 135]	인천시 자치구별 선호 문화예술교육 방식(문항선별)	193
[그림 136]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 교육참여 애로사항(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194
[그림 137]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우선사항(상위항목)	195
[그림 138]	인천시 자치구별 동호회활동 참여 애로사항(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196
[그림 139]	인천시 자치구별 생활 속 문화활동 필요사항(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197
[그림 140]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 연상 단어(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198
[그림 141]	인천시 자치구별 본인 문화역량 평가	199
[그림 142]	인천시 자치구별 시민 문화역량 평가	199
[그림 143]	인천시 자치구별 소속 구/군 문화정책 인지도	200
[그림 144]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인식(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201
[그림 145]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진입 부족사항(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202
[그림 146]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진입 필요사항	203
[그림 147]	인천시 자치구별 거주지 문화환경 만족도	204
[그림 148]	인천시 자치구별 거주 자치구 문화역량 평가(일부 자치구별 긍정응답비율)	205
[그림 149]	인천시 자치구별 인천 전체 문화환경 만족도	205

[그림 150]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역량 평가(일부 자치구별 긍정응답 비율)	206
[그림 151]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207
[그림 152]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를 위한 중점사항(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209
[그림 153]	인천시민 일상생활 문화 중요도 대비 실제 문화/여가 만족도	213
[그림 154]	2012년 대비 2016년 인천시민 문화활동 비교	213
[그림 155]	인천시민 문화예술활동 포기경험 이유	214
[그림 156]	인천시민 문화예술행사 수요	214
[그림 157]	인천시민 문화예술행사 수요 영역	214
[그림 158]	문화예술활동 수요	215
[그림 159]	향후 문화시설 수요	215
[그림 160]	인천시민 선호 문화시설	215
[그림 161]	인천시민 문화예술활동 수요 영역	216
[그림 162]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2위	216
[그림 163]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1위	217
[그림 164]	전국 예술인 분포 현황	218
[그림 165]	인천시 장르별 예술인 현황	218
[그림 166]	인천 내 예술인/단체 교류 여부	218
[그림 167]	인천 내 예술인/단체 교류 방법	218
[그림 168]	특·광역시 전업 예술인 비율	218
[그림 169]	인천 지역 내 예술활동 이유	218
[그림 170]	특·광역시별 국가지정문화재 분포현황	219
[그림 171]	특·광역시별 시지정문화재 분포현황	219
[그림 172]	인천시 자치구별 국가지정문화재 분포현황	219
[그림 173]	7개 특·광역시 문화유산 이용규모	219
[그림 174]	7개 특·광역시 예술관련 단체 현황(2015)	221
[그림 175]	인천시 장르별 예술단체 현황(2015)	221
[그림 176]	인천 예술인 창작공간 보유 형태	221
[그림 177]	인천 예술인이 원하는 지원 방식	221
[그림 178]	2014 전국 지역축제 현황	222
[그림 179]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만족도	222
[그림 180]	인천시민 지역 내 문화활동 비중	223
[그림 181]	7개 특·광역시 여가활동 만족도	224
[그림 182]	인천시민의 최근 1년간 여가활동 경험(상위권)	224
[그림 183]	인천시민의 향후 희망 여가활동(상위권)	224
[그림 184]	OECD 회원국 연간 노동시간(2015)	225
[그림 185]	인천시민 근로조건 만족도	225
[그림 186]	문화활동 기회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225
[그림 187]	인천시민 문화환경 개선사항 수요 영역	225

[그림 188]	전국 국립문화시설 분포 현황	226
[그림 189]	인천시 주요 문화시설 현황	226
[그림 190]	자치구별 이용경험 대비 문화시설 현황	226
[그림 191]	자치구별 이용의도 대비 문화시설 현황	226
[그림 192]	인천 문예회관 재정자립도	227
[그림 193]	인천 외 지역 문화활동 이유	227
[그림 194]	인천시민 관심 대비 문화예술 활동 여부	227
[그림 195]	인천시민 문화활동 포기 이유	227
[그림 196]	7개 특·광역시 작은도서관 현황	228
[그림 197]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문화도시를 위한 중점사항	228
[그림 198]	플로리다의 창의도시 3T	228
[그림 199]	전국 지역별 등록외국인 분포	229
[그림 200]	외국인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비율	229
[그림 201]	인천시민 세대별 문화 중요도 인식	229
[그림 202]	세대별 인천시 문화환경 만족도	229
[그림 203]	인천시민이 이용을 원하는 문화시설	230
[그림 204]	인천시민이 참여를 원하는 문화활동	230
[그림 205]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환경 만족도	230
[그림 206]	인천시 자치구별 행복 정도	230
[그림 207]	지속가능한 개발의 3요소	231
[그림 208]	전국 지역별 콘텐츠산업체 수	231
[그림 209]	인천시 장르별 콘텐츠 산업 매출액 비율	231
[그림 210]	전국 지역별 국내 여행자 수(2015)	234
[그림 211]	인천시 MICE산업 매출액 분포(2015)	234
[그림 212]	인천시민의 인천문화수립/추진 중점 우선순위 사항(1+2+3순위)	236
[그림 213]	인천시민이 보는 문화도시 필요 사항	237
[그림 214]	인천시민이 보는 문화도시정책 우선순위(1+2+3순위)	237
[그림 215]	전국 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 부문 예산(2013~2015)	237
[그림 216]	문화주체 범주 종합 시사점	238
[그림 217]	문화활동 범주 종합 시사점	239
[그림 218]	문화공간 범주 종합 시사점	240
[그림 219]	문화공동체 범주 종합 시사점	241
[그림 220]	문화산업 범주 종합 시사점	242
[그림 221]	문화연동 범주 종합 시사점	243
[그림 222]	문화협영 범주 종합 시사점	244
[그림 223]	문화재원 범주 종합 시사점	245
[그림 224]	인천 문화도시 비전 설정을 위한 정책적 중점요소 도출	246
[그림 225]	인천 문화도시 비전	247

[그림 226]	인천 문화도시 비전에 따른 실천범주별 추진목표	248
[그림 227]	인천 문화도시 비전체계도	249
[그림 228]	문화주체 범주 계획방향	253
[그림 229]	문화예술타운 조성 전략 구성도(인천시 계획(안))	268
[그림 230]	문화활동 범주 계획방향	274
[그림 231]	문화공간 범주 계획방향	308
[그림 232]	문화공동체 범주 계획방향	326
[그림 233]	문화산업 범주 계획방향	334
[그림 234]	문화연동 범주 계획방향	344
[그림 235]	문화협영 범주 계획방향	358
[그림 236]	문화재원 범주 계획방향	367
[그림 237]	창조도시 요코하마 사업 추진체계	376
[그림 238]	창조도시 요코하마 거버넌스 체계	377
[그림 239]	빌바오 도시재생의 연도별 주요 사건	379
[그림 240]	빌바오 리아 2000의 점유율 분포	380
[그림 241]	인천 문화도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384
[그림 242]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1: 민간-공공 파트너십	385
[그림 243]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2: 정책실행체계	385
[그림 244]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3: 소통협력체계	386
[그림 245]	인천 문화도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387
[그림 246]	문화주체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388
[그림 247]	문화활동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388
[그림 248]	문화공간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389
[그림 249]	문화공동체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389
[그림 250]	문화산업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390
[그림 251]	문화연동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390
[그림 252]	문화협영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391
[그림 253]	문화재원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391
[그림 254]	인천 문화도시 신규/확대 사업 실행구조	392
[그림 255]	인천 문화도시 추진사업 성과관리 프로세스	393
[그림 256]	인천 문화도시 5개년(2018~2022년) 단계별 추진 로드맵	394

1 서장

-
-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제2절 계획수립 범위 및 성격
 - 제3절 계획수립 방법 및 과정

제1절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 배경

□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대응한 문화도시 패러다임의 능동적 수용

-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서비스산업 등이 도시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과 전통적 개념의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있는 전 지구적 지역화(Glocalization) 현상 속에서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문화를 매개한 도시발전 전략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음.
-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도시마다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는 문화도시 패러다임이 확산됨. 유럽문화도시는 2005년 이후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유럽도시 간 선정 경쟁을 유발하며 문화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벤트성 문화 프로젝트로 경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음. 그러나 점차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지역문화 창조 등의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지정제도 자체의 진화와 함께 유럽문화수도 브랜드를 구축해가고 있음.
-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전략이 광범위하게 논의, 추진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음. 경주, 부여공주, 부산, 광주 등에서 추진된 초창기 국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주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며 지역에 내재된 문화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활용·확산의 제고보다는 문화시설 등 인프라 조성 및 축제 개최·육성 등 이벤트 중심의 경로에 의존한 경향이 컸음. 때문에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나 특성을 발현시키는데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기도 함.
- 최근에는 그동안의 문화도시 관련 정책적 시행착오를 개선, 보완하고 빠르게 변하는 지역문화환경 및 지역현장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중앙정부, 지역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도시 전략은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도시를 인간주의적으로 재생하는 것이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환경을 구성하여 도시 자체를 문화화·예술화하는 관점으로 수정되고 있음. 즉 산업적 관점을 넘어 문화적 관점으로, 외생

적 관점을 넘어 내생적 관점으로 문화도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확산됨. 인천이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국내외 문화도시 관련 패러다임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 지역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법적 연계기반 구축**

- 2014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한국 문화지형은 정책적 분기점을 형성하게 됨.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한국의 문화지형 속에서 지역문화로 정책적 관심이 확장되기 시작한 지 20여년이 경과하면서 비로소 지역문화정책의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임.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문화활동력 증가, 생활 속 문화의 확산,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증가 등 꾸준히 성장, 진화하고 있는 지역문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되었음.
- 현재 시점에서 문화도시에 관한 논의는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지역문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과 맥을 같이함.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적 가치에 기반을 둔 매력적 도시문화 생태계 구성을 통해 미래적 관점의 도시발전 성장동력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서 본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지역문화진흥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인천시 정책적 노력의 지속 및 구체화**

- 인천광역시는 항만, 도서, 공항 등 지역의 특수한 장소성에 기인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과 보존,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지속적 인구유입 등으로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하면서 시민의 문화참여 욕구와 활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도시임. 때문에 인천 지역에 내재한 문화적 가치와 잠재력을 활용한 문화자원 발굴과 문화예술 및 관광의 여건과 전망, 시민의 문화수요와 문화활동 잠재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인천시는 변화하는 지역문화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 문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지방자치제도가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서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03)>을 필두로 <인천광역시 문화지표 작성 및 조사연구(2004)>, <인천문화지표 조사(2008)>,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2010)>, <인천문화지표 조사(2012)>에 이르기 까지 인천의 문화예술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 인천 문화현장에 활용해 왔음.
- 지난 십여 년 이상 인천시는 문화도시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문화지표 조사, 이에 기초한 문화도시 정책추진의 경험과 성과, 시행착오를 동시에 축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경험적 시행착오와 시간적 요소는 문화도시로의 진화 단계에서 중요한 자산이자 성과임. 때문에 인천시가 추진해 왔던 문화도시를 향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변화된 지역문화지형에 맞게 구체화하여 보다 미래적 관점에서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함.

✓ 첫째, 변화하는 문화도시 패러다임의 능동적 수용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 속 국내외 도시마다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고, 문화를 통한 인간과 도시의 통합적 발전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는 문화도시 패러다임의 수용
도시발전전략으로 문화도시 패러다임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인천 미래가치 기반 창출

✓ 둘째, 지역문화정책의 법제적 기반 연계

지역문화 성장에 부합하여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2014년)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문화활동력 증가, 생활 속 문화의 확산,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증가 등 꾸준히 성장, 진화하고 있는 지역문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 셋째,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적 노력의 지속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03)>, <인천문화지표 조사(2004, 2008, 2012)>,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2010)> 등에 기초, 문화도시로의 진화단계에 중요한 경험적 자산 및 성과 축적

2. 계획수립 목적

□ 지역문화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천 문화도시 추진여건 분석

- 인천을 둘러싼 지역문화환경 변화와 그동안 인천이 추진해왔던 문화도시 관련 정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성장한 인천의 문화관련 전반적 현황을 현재의 시점에서 조사·분석하여 문화도시 추진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함.
- 이를 위해 인천의 대내외적 문화환경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2016년 인천 문화지표를 조사하고,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시민 문화수요 조사를 통해 계획 수립의 실질적인 근거를 확보함.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정을 연계한 인천 문화주체의 공감대 확산

- 본 계획은 종합계획이자 기본계획으로서 향후 각 영역별 주체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실천할 때 완성되므로 계획수립 과정부터 인천의 다양한 문화주체와의 소통 및 공감대를 다각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인천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수요, 10개 자치구의 차별적 문화정책 수요 등을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다양한 논의 및 소통의 장을 연구과정과 연계하여 문화도시 추진의 실질적 주체들과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정을 공문화함.

□ 건강한 도시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 최근 내생적이고 문화적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문화도시 추진전략의 동향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인천의 문화가치가 도시문화로 선순환되며 인천이 문화적으로 재지역화되도록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
- 이를 위해 인천에 내재된 문화가치에 근간을 두고 인천의 문화주체가 중심이 되어 건강한 도시문화를 구축해갈 수 있는 문화도시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

제2절 계획수립 범위 및 성격

1. 계획수립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2018년~2022년(5개년)
- 기준년도: 2017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 행정구역(배후지역 경기, 서울)

□ 내용적 범위

-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적 범위는 본 계획수립을 위해 제시된 7개 영역을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함.

주요 과업	과업내용의 단계별 재구성
1. 인천 문화자원 및 문화예술실태 조사 분석	⇒ [1단계] 2016 문화지표 조사, 2016 문화수요 조사
2. 인천의 가치와 연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전·목표 설정	⇒ [2단계] 인천문화도시 개념, 정책지향가치 및 비전
3.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복지 확충 방안	
4. 문화기반시설·문화환경의 정비·확충, 문화자원개발 및 활성화	⇒ [3단계]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5.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역량 강화	
6. 인천가치를 실현할 문화관광산업 육성 방안	
7.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전략 및 자원조달 방안	⇒ [4단계] 추진 로드맵 및 자원조성 계획

2. 계획의 성격

□ 인천 문화도시 발전 기초를 담은 전략계획

- 본 계획은 인천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 이념과 지향가치를 정책의 기초로 담아내는 인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임. 따라서 본 계획은 인천이 장기적으로 추구할 문화도시 개념과 정책적 지향가치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영역별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임.

□ 문화+도시 내 연관요소를 엮어내는 종합계획

- 본 계획은 문화예술 진흥 자체를 넘어 문화가 도시 전반에 스며들어 도시문화로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종합계획임. 문화가 도시의 각 영역에서 질적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문화와 연동된 다양한 상위계획, 연관계획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 5개년 시행을 전제한 중기적 관점의 정책계획

- 본 계획은 인천 문화도시를 향한 장기적 관점의 지향가치를 염두에 둔 5개년 계획으로서 중기적 관점의 정책계획임. 따라서 5개년에 문화도시를 완성하는 실행계획이 아니라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5개년 동안 인천 내 다양한 주체들과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해가는 정책내용과 추진체계를 다루는 중기 정책계획임.

1. 인천 문화도시 발전기초를 담은 전략계획

인천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 이념과 지향가치를 정책의 기초로 담아내는 인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2. 문화+도시 내 연관요소를 엮어내는 종합계획

인천 문화의 가치가 도시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는 도시계획, 상위계획, 연관계획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종합계획

3. 5개년 시행을 전제한 중기적 관점의 정책계획

인천 문화도시를 중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개년 동안 인천 내 다양한 주체들과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과 체계에 대한 정책계획

제3절 계획수립 방법 및 과정

1. 계획수립 방법

- 문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관련 자료 문헌분석
 - 국내외 문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유럽문화수도 및 일본 요코하마 창조도시 등 국외 문화도시, 창조도시 관련 문헌자료 및 도시사례 검토
 - 국내 문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검토
 - 인천 문화도시 관련 계획 및 타 도시 계획 검토
 -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계획 검토
 - 국내 타 도시 문화도시 관련 계획 검토
- 2016 인천 문화지표 및 문화수요 조사를 통한 현 단계 인천 문화여건 분석
 - 2008, 2012년 문화지표 조사의 연속성상에서 2016년 인천 문화지표 조사
 - 변화된 인천 문화환경을 반영한 문화지표 구성체계 보완
 -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동호회 실태조사를 비롯해 인천시민의 문화예술행사/축제, 문화예술교육 이용실태 조사
 - 유의미한 결과도출을 위해 교차분석 진행
 - 조사전문기관 월드리서치 협력으로 조사의 전문성 제고
- 인천 내외 다양한 문화주체와의 소통을 위한 <인천 문화도시 판¹⁾> 운영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인천 내 다양한 문화주체와의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계획 실행과정에서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소통이 펼쳐지는 문화도시 공론 형성의 장(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 문화도시 판>을 운영함.
 - 이를 위해 자치구 워크숍, 열린 집담회, 인천 문화도시 관련 이해관계자 인터뷰, 분야별 관계자회의, 정책토론회, 시민공청회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함.

1) '판' 은 순 우리말로 바로 현재 구체적인 일 등이 벌어지는 현장을 의미함. 인천 문화도시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와 대화가 벌어지는 인천문화의 공론 현장을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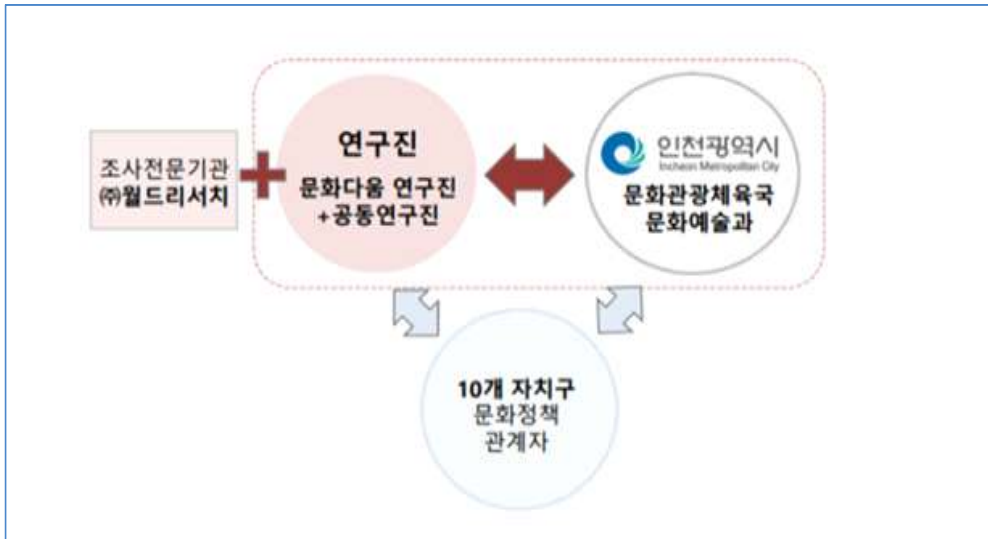
- 인천 문화도시 비전 및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주요 문화기관장 <심층인터뷰> 운영
 - 인천광역시 및 10개 구·군 문화예술분야 담당 공무원 대상 1박 2일 <자치구 워크숍> 운영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주요 영역 주제별 5차례 <열린 집담회> 운영
 - 인천 문화도시 정책 관련 4차례 주요 <관계자 인터뷰> 진행
 - 문화도시 비전 및 정책과제 확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
 - 문화도시 비전 및 종합발전계획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공청회> 진행
- 인천시 문화도시 정책추진 담당공무원 및 인천시 주요 문화기관 관계자와 <관계자회의> 진행
 - 연구추진 주요 단계별 연구 성과의 공유와 의견 개진을 위한 회의 운영
 - 인천 문화도시 비전 도출 및 주요 영역별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 인천 10개 자치구 문화원 관계자, 자치구 문화예술분야 담당자, 문화예술기획자 및 예술가, 문화산업 분야 전문가 대상 4차례 자문회의의 운영

[그림 1] 인천 문화도시 판 구조도



- 연구주관기관, 조사기관, 인천시 및 자치구와 긴밀한 연구협력체계 구축
 - 연구주관기관인 문화다움과 조사협력기관 월드리서치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체계 운영
 - 인천광역시 협력지원과 더불어 연구추진 전반에 걸쳐 긴밀한 연계구조 구축
 -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문화정책 담당자 간 와 쌍방향 소통 기반 마련
 - 인천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의 유기적인 참여구조 기반 마련

[그림 2] 인천 문화도시 연구협력체계



2. 계획수립 과정

- 과업수행기간: 2016년 5월 ~ 2017년 6월(12개월)
- 계획수립 과정별 진행내용

〈표 1〉 계획수립 과정별 진행내용 개요

계획수립 과정		연구 진행내용 (최종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	
시기	주요 단계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인천 문화지표 및 문화수요 조사
6월	환경분석 문헌분석 문화지표 분석 조사체계 설계	문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인천시 문화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국내·외 문화도시 관련 자료 및 관련 도시사례 검토	조사체계 기획 - 2004~2012 인천문화지표 분류체계, 평가 항목 분석 - 국내·외 문화도시 관련 지표 분류체계와 평가 항목 분석
7월		인천 내·외 환경분석 - 인천 문화도시 여건 및 환경분석 - 자치구별 현황 및 이슈 분석 - 문화도시 관련 인천 여론 검토	
8월	현장조사 및 인터뷰 자치구 워크숍	인천 현장답사 및 문화도시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10개 자치구 문화도시 현황 및 이슈, 의견 수렴 - 자치구 워크숍: 10개 군구 공무원 및 문화관련 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 및 자치구별 현안 공유	현장답사 및 지역현황 파악 심층조사 추진방향 도출 및 세부 조사내용 설계 - 자치구 주민,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 등 의견 수렴으로 현장 수요 파악, 정책적 요구 및 지향점 반영한 설문조사 문항 확정
9월	열린집담회 문화지표 설계 및 조사실행	인천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 - 열린집담회: 인천 문화가치 및 비전, 자치구 및 영역별 이슈 관련 전문가 패넌과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연구 단계별 추진성과 종합 및 계획수립 세부방향 확정 - 연구추진결과 및 현장 의견수렴 내용 종합분석 - 계획의 세부 영역 및 세부추진내용 정리	2016 문화지표 조사항목 확정 및 심층조사 실행 - 2016년도 문화지표 설계 초안 설계 - 조사일정, 조사대상, 표집방식, 배포 및 수집방법 등 설문조사 계획 및 실시

계획수립 과정		연구 진행내용 (최종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	
시기	주요 단계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인천 문화지표 및 문화수요 조사
10월	1차 중간보고	연구추진 1차 결과 도출 - 인천 문화가치 비전 및 추진방향 도출	심층조사 1차 결과 도출 - 조사결과 수집 및 분석, 시사점 도출
11월		- 계획수립의 구체적 영역 및 세부내용 기반 확정	- 2차 심층조사 내용 도출 및 조사세부설계
12월	관계자회의 자문회의	문화도시 비전 및 정책과제 도출 - 인천시 및 주요문화기관 관계자 회의	2016 인천 문화지표 / 문화수요·실태조사 완료 - 문화지표조사 결과 정리 - 자치구별 문화환경 추가분석
1월		정책과제 세부도출을 위한 자문회의/관계자회의 운영	
2월			
3월	정책토론회	연구추진 내용 공유 및 정책적 공감, 의견 반영	2016 문화지표조사 결과 분석 - 2016 조사 종합결과 정리 2016 문화지표조사 결과 종합 - 조사결과 수집 및 분석, 시사점 도출
4월		- 종합발전계획 추진내용 공유 및 보완방향 도출 - 정책적 공감대 형성 및 공론 형성의 자리	
5월	2차 중간보고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초안 공유 - 문화도시 비전 및 가치 수립 - 문화도시 범주별 추진목표 및 정책과제 수립	최종 의견수렴 및 보고서 집필 - 의견수렴 내용 보완 - 정책제언 내용 도출 - 보고서 집필
	시민공청회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시민 공유 - 시민공청회를 통해 문화도시 계획 공개 및 최종 의견수렴	
6월	최종보고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및 재원조성계획 수립 -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축 및 재원조성 계획(안) 수립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완성	인천 문화지표 및 문화수요 조사 완료

2 인천 문화도시 정책의 지향가치

-
- 제1절 지역문화 패러다임 변화 및 문화도시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 제2절 인천 문화도시 관련 선행계획 및 타 도시 계획 검토
 - 제3절 인천 문화도시 개념 및 정책추진 프레임

제1절

지역문화 패러다임 변화 및 문화도시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1. 지역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도시

1.1.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질적인 지역발전으로의 인식 전환

- 한국사회에서 지역발전 패러다임은 이미 제조업 기반의 양적, 물적인 개발성장시대를 지나 사회와 경제, 문화 등이 선순환하는 통합적 사회발전, 질적인 성장시대로 전환하고자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인구증가의 정체 등 사회경제적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는 현상이 갈수록 짙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악화,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증가로 인한 양극화 심화 현상, 다양한 사회공동체의 분열과 파편화 등 많은 과제들이 전체적으로 노정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질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살펴보기 위해 1990년대 유엔이 정하고 유네스코가 주도한 ‘세계문화발전 10개년(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1988~1997) 계획’의 핵심 개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유엔이 새로운 개념의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기존에 서구사회가 내세운 발전방법론이 결과적으로 문화 획일화, 전통문화 말살, 환경 파괴, 가치상실을 야기해 충분한 경제적 성장에도 미달하면서 문화 주체성마저 상실하고 선진국과 격차만 키웠다는 근본적인 성찰에서 비롯됨.
- 이러한 변화의 핵심 개념이 ‘문화’인데,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므로 인간적 요소를 모두 모은 문화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임. 여기서 문화란 예술이나 장식적 요소를 뜻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관계, 신념, 전통, 가치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임. 이러한 생각은 지금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물질적 경제성장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 인류는 종전 후 약 40여 년 동안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임.

[그림 3]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변화 양상



- 이제 지역, 도시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과거와 같이 경제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성, 정신적 가치가 담긴 공간의 장소성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삶의 공간으로서 도시의 문화가치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그림 4] 도시환경의 화두로서 문화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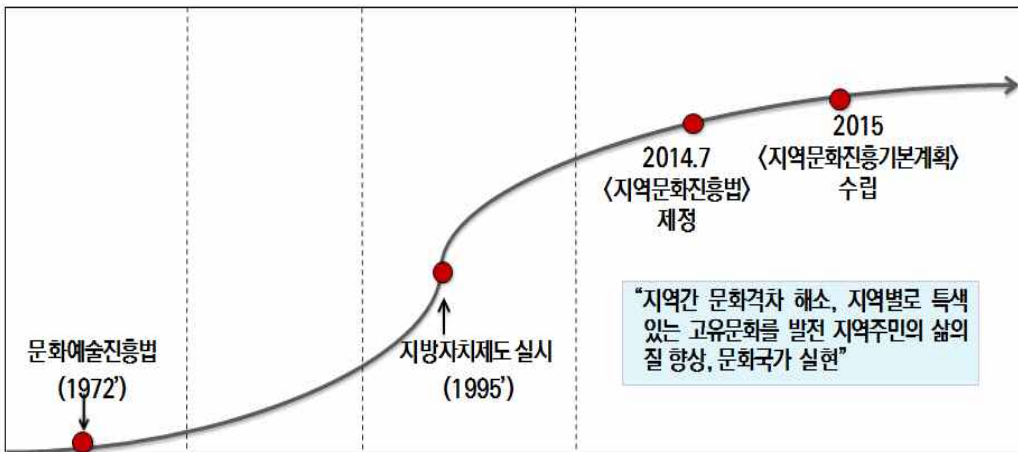


1.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필요성

- 한국의 지역문화발전 흐름도 크게는 이러한 맥락 속에 있음. 1995년 지방자치가 처음 실행되고 2000년 즈음에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20여년 사이 전국 지역에서 문화예술 인프라가 확충되고, 지역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력이 증가함. 또한 지역문화기획 및 문화정책 관련 주체가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생활 속 문화의 확산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문화수요와 시민 문화창조 활동이 다변화 되는 등 지역문화의 양적, 질적 성장이 꾸준히 진행되었음.
- 이러한 지역문화 환경변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자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되었고,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지역문화지형이 지역으로 분산되는 정책적 분기점을 형성하게 됨. 1972년에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을 넘어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지역문화발전이 예술 장르 중심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차원을 넘어 보다 통합적 개념의 지역문화 발전의 법제적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음.

[그림 5] 지역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지역문화 패러다임 전환 및 한국 지역문화의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시행(2014.7.29)됨으로써 수도권 중심이던 한국 지역문화지형에 정책적 분기점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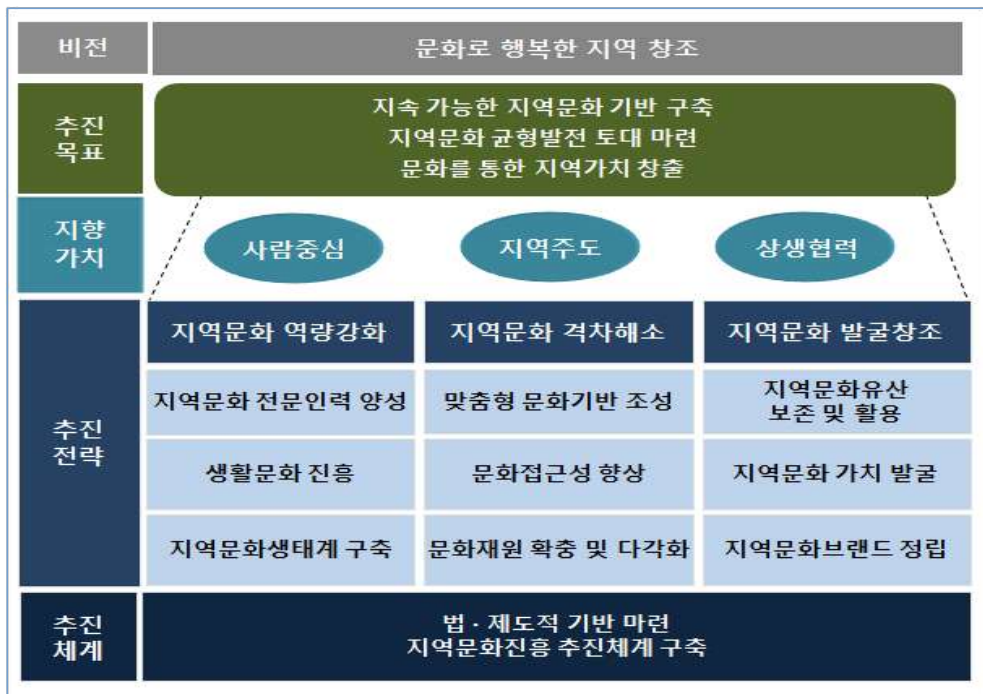
○ 지역문화진흥법 1장 2조(정의)에서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문화 개념은 지리적, 행정적 지역 기반 외에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의 기반을 포함하는 인문적 요소를 포함하고 그 범위는 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등을 망라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규정됨.

-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국가 차원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²⁾에서는 그 수립배경을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 하에 문화자치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문화자치의 기조는 다음 비전체계도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중심의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주도의 문화격차 해소, 문화를 통한 상생협력의 추진전략으로 구체화 됨.

[그림 6]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비전체계도



2) 문화체육관광부(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 그러나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 이후 민선 단계를 여러 번 거치면서 지방자치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지만 형식적 지방자치에서 내용적 지방자치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음.
- 더구나 문화자치 기반은 지역적 편차가 큼. 한국의 지역문화는 큰 차원에서 는 동일한 역사적 맥락 속에 있지만 지역별로 접근할 경우 어떤 곳도 동일한 진화 단계에 있지 않음. 지역마다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고, 지역문화 인프라 현황 및 발전 정도, 지역문화 관련 인력이나 활동, 지역가치의 문화적 활용방법 등에서 개성과 차별성이 존재함.
- 문화자치도 지방자치와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함.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분권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자치의 요소를 구축해야 함. 그러나 지역의 현실은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접점 형성이 미흡함. 문화의 민주화는 중앙의 문화를 지방으로 보급,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지만 문화민주주의는 지방의 문화가 주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있음.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은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의 법제적 기반을 만들기 시작한 첫 단계임. 그리고 각 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를 향한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도입된 후 곧바로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열지 못하고 상당 기간 수동적이거나 미온적 단계를 거치며 점차 그 실체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 또한 법이나 제도를 통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추진하는 주체의 인식전환과 의지,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함.

1.3. 시사점

-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개개인의 삶의 질, 인간 중심의 문화를 통한 질적 성장에 주목하는 국내외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분권에 따른 문화자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의 한국 지역문화발전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좁은 의미의 예술의 발전을 넘어 지역구성원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모색하는 계획이자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 기반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수립함.

2. 문화도시 관련 국제 동향 및 주요 이슈

2.1.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s of Culture, EC) 동향

- 국제적 맥락에서도 문화를 통한 도시와 지역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21세기 현대도시는 이미 사회·경제적 변화, 인간의 욕구변화 등으로 인해 정치·경제 논리의 기능성에 중점을 둔 도시에서 인간 행태나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가 중요시되는 도시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음. 또한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시환경의 주요 요소로 문화가 강조되면서 문화가 도시의 기본이 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문화가치에 중점을 둠.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은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발전과 도시재생, 문화복지의 향상 등을 위해 1985년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매년 1~2곳의 도시를 문화수도로 선정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함. 31주년을 맞이한 2016년까지 유럽문화수도로는 총 54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아메리카 또한 아메리카문화수도를 지정하여 11개국 17개 도시를 선정하였음.

[그림 7] 유럽문화수도 개요

●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s of Culture, EC) 개요

배경: 유럽연합(EU)은 1985년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매년 1~2곳의 문화수도 선정, 문화활동을 전개

목표: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과 도시재생, 문화복지의 확장
문화를 통한 유럽의 통합, 경제발전 토대 마련

유럽문화수도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문화도시 확산:
 유럽문화수도: 2016년 31주년, 현재까지 54개 도시 선정
 아메리카문화수도: 11개국, 17개 도시 선정

<유럽 문화수도 사업의 성과>

-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
- 개최 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평균 12%에 달하는 관광산업의 성장
- 일자리 창출
- 예술가와 문화공간간의 창조와 발전
- 도시 주민의 자긍심 고취
- 문화생활의 활력 제공
- 투자금 1유로 당 10유로에 달하는 수익 창출



유럽문화수도



(프랑스 마르세유)



(영국 리버풀)

- 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는 그동안 운영되는 동안 여러 형태의 시행착오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31년이라는 장기간의 정책 추진을 통해 유럽의 많은 도시들의 기존의 도시 이미지와 선입견에서 탈피하여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적 관점의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공업도시 이미지 탈피(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전쟁도시 이미지 탈피(네덜란드 로테르담), 과거 독재정치의 역사를 이용한 문화거점 도시로의 이미지 쇄신(오스트리아 린츠) 등 유럽 각국의 여러 도시가 문화도시로 변모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림 8] 유럽문화 수도 사례

●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s of Culture, EC) 사례

유럽문화수도 사례

[199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조선공업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침체를 겪었지만 1990년 유럽 문화수도로 탈바꿈하면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모

[2001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초토화된 도시가 문화수도를 거치면서 문화도시로 변모

[2009년] 오스트리아 린츠
나치의 거점이었다는 오명을 거꾸로 활용한 케이스
히틀러가 제국의 문화거점으로 삼았던 과거사를 '린츠 2009' 프로젝트로 바꾸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



- 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는 선정된 도시에 대해 1년간 다양한 문화행사 및 활동을 유럽공동체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한 도시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차원과는 접근방법이 다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되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살펴볼 때,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대내외적으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도시문화를 표현하는 예술적 창조역량과 시민의 문화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 유럽문화수도 문화도시 충족조건(선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문화도시 충족조건 (선정기준)	① 유럽인들이 공유하면서 공헌하고 영감을 준 예술동향과 스타일 강조 ② EU의 다른 개별 국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문화협력을 이끌며 EU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배양할 것 ③ 시정부가 창작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 ④ 도시 주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가능한 넓은 범위의 관객 접근 촉진 ⑤ 유럽 문화와 다른 지역 문화 간의 대화를 장려할 것 ⑥ 도시의 역사적 유산, 도시건축, 도시의 삶의 질을 강화할 것 ⑦ 보다 넓은 범위의 참여와 이동을 보장할 것

- 유럽문화수도는 일회적이고 행사성 위주의 사업방식, 인프라 중심의 접근, 유럽중심주의 관점 등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받기도 하고 유럽사회의 정치적 이슈로 2000년에는 9개의 도시가 선정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년간 중단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진화해가고 있음. 무엇보다 해당도시별 6년의 철저한 준비기간, 엄격한 심사, 도시 스스로의 투자와 노력,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꾸준한 도전과 노력 등이 성공적 요인으로 평가됨.
- 초기 유럽문화수도는 전통적 문화유산 중심의 외부지향적 도시문화 정체성 구축과 유럽시민의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됨.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문화와 예술이 도시의 내생적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 추진방향 및 문화도시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과 사회적 통합, 문화다양성 존중과 공동체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는 2013년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된 프랑스 마르세유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마르세유 지역적 특성인 지중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을 촉진하며 문화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소를 선정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2.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주요 이슈

-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은 세계 주요 도시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류를 목적으로 영국 런던 시장이 주도하여

2012년 세계 9개 도시가 모여 출범하였음. 현재 32개 주요 도시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한국에서는 서울이 참여하고 있음.

〈표 3〉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 참여 도시 현황

구분	참여 도시
아시아 (6개국 8개 도시)	대한민국(서울), 일본(도쿄), 중국(상하이, 홍콩, 선전), 대만(타이페이), 싱가포르(싱가폴), 아랍에미리트연합(두바이)
오세아니아 (1개국 2개 도시)	오스트레일리아(시드니, 멜버른)
아프리카 (1개국, 1개 도시)	나이지리아(라고스)
유럽 (12개국, 13개 도시)	영국(런던, 에든버러),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벨기에(브뤼셀), 독일(함부르크), 프랑스(파리), 터키(이스탄불), 스웨덴(스톡홀름), 스페인(마드리드), 러시아(모스크바), 이탈리아(로마), 오스트리아(비엔나), 폴란드(바르샤바)
북아메리카 (2개국, 6개 도시)	미국(로스엔젤레스, 뉴욕,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캐나다(몬트리올, 토론토)
남아메리카 (3개국, 3개 도시)	브라질(리오데자네이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콜롬비아(보고타)

출처: 서울문화재단(2015)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이 추구하는 비전과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³⁾.
 - **리더십**: WCCF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문화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를 보다 활기차고, 포용적이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함과 동시에 문화를 도시 정책의 중심에 놓고자 함.
 - **국제적 협력**: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문화를 진흥시키고자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및 문화의 역할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심포지엄, 지역별회의, 정책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중 개최함.
 - **객관적 증거**: 시민에게 미치는 문화의 다각적인 영향과 같이 정량하기 어려운 문화의 파급효과와 관련한 정책적 증거기반을 구축하며 문화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함.
 - **상호 자극과 영감**: 정부와 기업, 교육 및 보건정책 담당자 등 도시 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시의 변명과 삶의 질에 있어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저변 확대를 도모함.

3) 서울문화재단(2015), 『세계도시문화리포트_2015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그림 9]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비전과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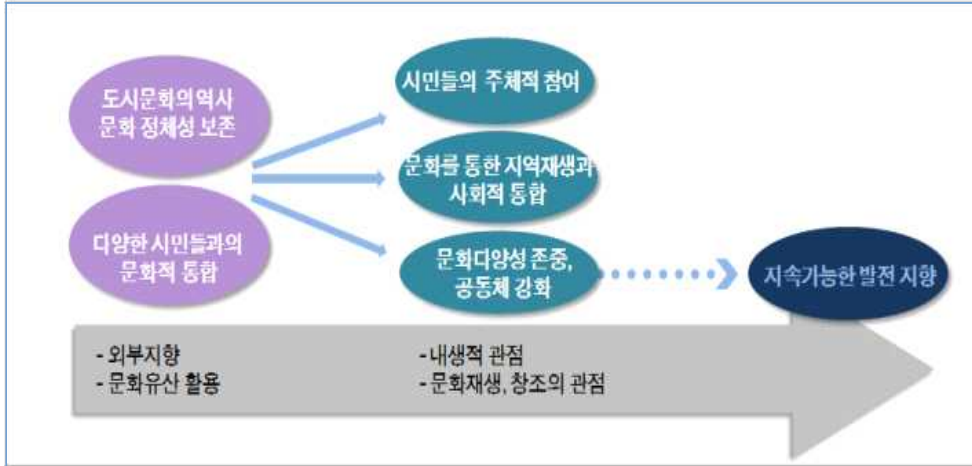
-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은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으로 인해 표준화, 획일화되고 있는 현대 도시환경에서 ‘문화’가 차별적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공공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음.
- 이 포럼에서는 유네스코가 정의한 다음의 ‘문화’ 개념을 수용하고 있음.

“문화란 어떤 사회나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

- 한편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은 포용적인 문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21세기 도시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장 효과적인 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주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⁴⁾. 또한 이 포럼에서는 유명인을 앞세운 거창한 계획은 언론의 이목을 끌 수 있지만 자칫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공간이 활용되는 방식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잘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문화가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성장, 교육, 도시계획, 삶의 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과 세심하게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①도시의 공간과 장소 ②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③문화적 신념과 관행)를 묶어 주는 역할이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음⁵⁾.

4) 서울문화재단(2015), 『세계도시문화리포트_2015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그림 10] 유럽문화수도+세계도시문화포럼 등 국외 문화도시 정책의 흐름



2.3. 시사점

- 유럽문화수도 지정제도의 경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유럽의 역사문화 정체성 보존과 유럽인들의 문화적 통합에 중점을 두었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주체적 참여,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문화 다양성 존중과 공동체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쪽으로 주안점이 이동하고 있음. 또한 일회적 행사,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 등을 수용하며 31년간 중단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시작된 세계도시문화포럼이 확산하고 있는 주요 이슈 중에서 주목하는 것은 포용적인 문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21세기 도시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장 효과적인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주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경제성장, 교육, 도시계획, 삶의 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과 세심하게 통합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임.

3. 문화도시 관련 국내 동향 및 주요 이슈

3.1. 국내 문화도시 정책의 흐름

- 국내 문화도시 정책은 1995년 지자체 실행 이후 부천시를 비롯해 서울, 춘천, 강릉 등 지자체 단위로 문화도시 전략이 구사되는 가운데, 국가의 정책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임.
-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가 시범도시 유형으로 처음 정책적으로 등장하였고,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 참여정부 시기에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2004년~)가 추진되면서 국가의 정책으로 본격화됨. 이에 따라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지역거점 문화도시가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⁶⁾.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은 전주, 경주, 공주부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부산은 종료된 상황임.

〈표 4〉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구분	광주	부산	경주	전주	공주 부여
법적근거	특별법 (2006.9.)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비전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영상문화 도시	역사문화 도시	전통문화 도시	역사문화 도시
계획수립	종합계획 (2007.10.)	종합계획 (2005.10.)	기본계획 (2007.12.)	기본계획 (2007.12.)	기본계획 (2009.12.)
계획기간	20년 (2004~23)	8년 (2004~11)	30년 (2006~35)	20년 (2007~26)	22년 (2009~30)
사업비	5.3조원	1천6백억원	3.4조원	1.7조원	1.3조원
주요사업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및 7대 문화권 특화발전	4대 핵심과제	4대 선도사업군 (65개 사업)	4대 선도사업군 (64개 사업)	5대 선도사업군 (57개 사업)

출처: 이순자 외(2012)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 그러나 중앙주도형인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중심-중앙지원형인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모두 지역사회로부터의 내발적 필요가 아닌 외부적 정책 요구에 의한 하향식 정책으

6) 추미경(2013), 「문화도시의 실현을 위한 핵심구조와 그 추진양상」, 문화도시·문화마을 포럼자료, p.9.

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지역의 문화자원에 기초하지만 주체로서의 사람과 프로그램으로서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은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 위주로 사업이 접근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행과 함께 한국 지역문화지형에 문화도시 담론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데, 지난 15년 이상의 문화도시 관련 사업추진에서의 시행착오와 관련 패러다임 변화 등을 수용하여 그동안 국가가 나서서 문화도시를 조성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지역 스스로 문화도시 기반을 만들고 이를 국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 정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2013년)되면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구체화되었음. 2014년에 남원을 시작으로 2015년 기준 7개 문화도시와 13개의 문화마을이 선정되었고, 2016년에도 다수의 문화도시, 문화마을이 선정된 상태이며 인천시 부평구가 음악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과정에 있음.

〈표 5〉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개요

구분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추진 제도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정부의 문화부분 국정과제 : 과제번호 78.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화진흥법 : 제 15조. 문화도시의 지정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
사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시범) : 1개소 - 2015년 : 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시범) : 2개소 - 2015년 : 13개소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사업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특 보조(40%)+지자체 자체예산(60%) - 연 7.5억원(국비 3억원+지방비4.5억원) - 본 사업 5년간 약 40억원 - 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본 사업 인센티브 2억원 별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특 보조(40%)+지자체 자체예산(60%) - 연 2억원(국비 0.8억원+지방비 1.2억원) - 본 사업 3년간 약 6억원 - 사업 중간컨설팅을 통해 본 사업 인센티브 1억원 별도 지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문화 및 장소특색에 따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문화 및 주민특성에 따른 총체적

<p>총체적 사업비 지원(S.W.+H.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사업 · 도시의 문화장소 구축을 위한 사업비(장소가치 재창조 중심) · 휴먼웨어 구축을 통한 문화 일자리창출 가능 사업 	<p>사업비 지원(S.W.+H.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소프트웨어 중심사업 · 마을의 문화적 핵심가치를 발현하는 문화사업 선정, 지원 · 휴먼웨어 구축을 통한 문화 일자리창출 가능 사업
---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4. 표로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현황」, 2015. 표로 재구성.
 최종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관련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pp.91~93. 표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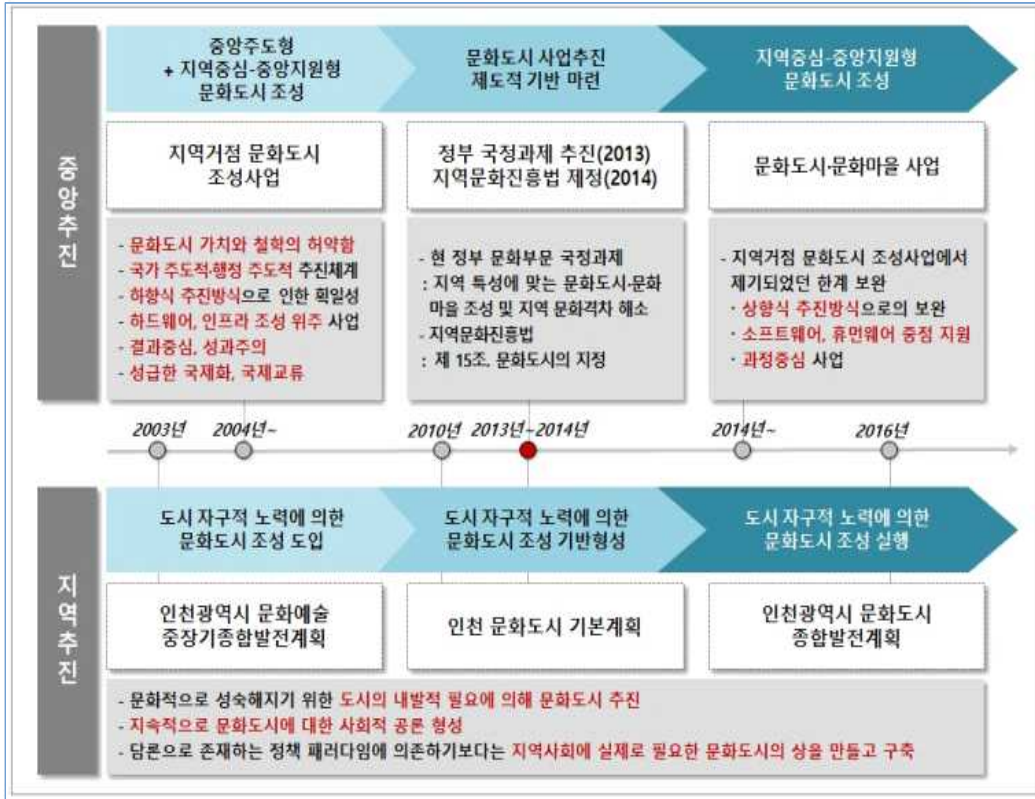
- 위의 표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과거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시설물 건립, 경관 조성 등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중점 지원했던 하향식 정책인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도시 또는 마을이 스스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에 중점 지원함.

[그림 11] 국내 문화도시 정책 흐름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화도시 조성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에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같이 정부의 정책으로 문화도시가 추진되는 게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으로는 문화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도시의 내발적 필요에 의해 문화도시가 추진되고 있음.
-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을 꼽을 수 있으며, 문화도시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도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내부로부터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작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2] 국내 문화도시 정책 흐름 대비 인천 문화도시 정책 흐름



- 국내에서 문화도시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지역 내 자구적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진화의 과정 속에 있음. 도시의 복합적 가치를 문화적으로 묶어내고 구현하고자 문화도시로서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도시 스스로의 정립 노력, 지역사회와의 공유와 확산, 도시 외부와의 소통 등과 관련한 과정을 긴 호흡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임.
- 이처럼 최근에는 문화도시 개념이 지역문화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음. 그 핵심가치에서 장르적 특화나 차별적 문화자원 개발을 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도시문화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3.3. 시사점

- 국내 문화도시 관련 정책은 초기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점차 ‘지역정부 주도-중앙정부 지원’ 형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문화도시 지정에 앞선 예비사업으로 지역의 주체적 준비과정에 초점을 둬.
 - 초기 하드웨어 중심, 하향식 사업추진방식에서 점차 소프트웨어 중심, 시민주체 중심의 상향식 정책추진으로 전환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문화도시 추진에 대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도시가 거의 없으며, 15년 이상의 정책적 시도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문화도시 정책은 각 도시 안에서 기반을 구축해가는 초기과정임.

- 국내에서 문화도시 정책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 시행에 따라 지역문화 발굴창조를 위한 지역문화 브랜드 정립 영역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됨. 이에 따라 문화도시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며 각 도시별로 지역의 내발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문화도시 전략을 추진하는 현상이 확산될 것임.

-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이러한 국내 문화도시 관련 정책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천 지역문화 가치를 중심으로 인천시민을 근간에 둔 다양한 지역문화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추진과정을 만듦으로써 한국형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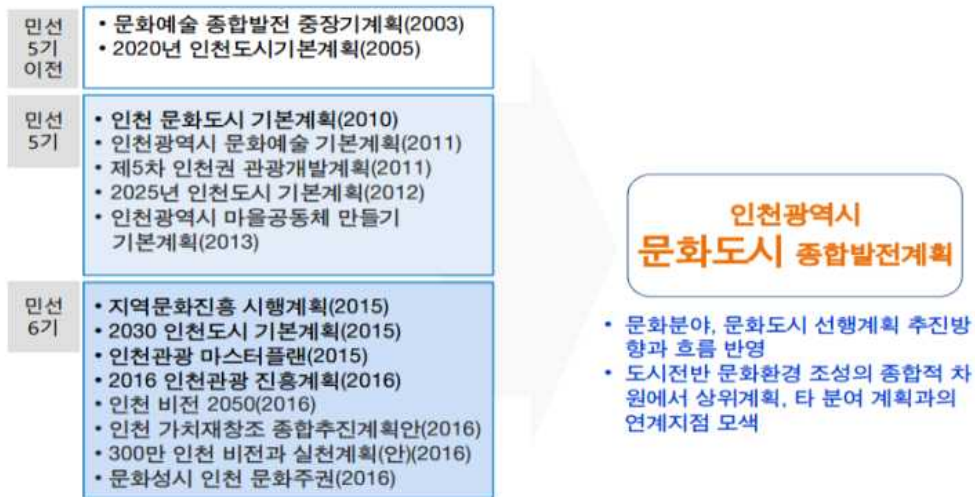
제2절 인천 문화도시 관련 선행계획 및 타 도시 계획 검토

1. 인천 문화도시 선행계획 검토

1.1. 인천시 문화도시 정책 수립 현 단계

- 인천시 문화예술분야 선행계획과의 연계선상에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계획 및 도시계획 분야 계획의 추진방향과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그림 13] 인천시 문화도시 선행계획 검토



- 민선 5기 이전까지는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관점의 문화도시 계획이 아니라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별개로 문화예술 분야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음. 민선 5기 이후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2010)이 처음 수립되었고, 문화예술 분야, 관광개발 분야,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별 계획이 일차적으로 수립되었음.
- 민선 6기에 이르러서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인천관광 진흥계획이 본격화되고 인천시 차원에서 문화성시 인천 문화주권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천시 도시발전계획과 문화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단계임.

1.2. 문화도시 관련 선행계획 검토

-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제 실행 이후, 도시계획, 지역경제, 환경, 사회복지, 교통, 관광, 여성 등의 분야별 계획 및 시정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며 인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형태의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종합계획에서 ‘문화’ 부문은 기반시설 건립 위주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관광 분야나 사회분야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⁷⁾.
- 이에 인천광역시는 2003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문화 분야의 중·장기적 종합 계획(2003년~2012년)을 본격적으로 수립, 인천을 국제적 수준의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①문화의 정체성 및 전통문화의 발전, ②문화예술 창조력 제고, ③문화복지의 확충, ④첨단문화산업의 육성, ⑤문화행정 기반 조성과 같은 실천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함.
- 특히 발전전략 중 하나인 ‘문화복지의 확충’에서 ‘참여적 문화활동의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생활문화의 활성화’처럼 도시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저변 확대에 관련된 사업은 계획 수립 이후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음. 그런데 이 영역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각종 계획과 그 계획의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행정 기반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도 시도되어야 할 것임.
- 2004년에는 인천 문화의 현 단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문화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인천광역시 문화지표 작성 및 조사연구』를 진행, 이는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광역 지자체 단위 지역문화 지표항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분석을 진행한 사례임. 2004년에 이어 2008년에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천 문화의 각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조사와 심층 분석 등을 통해 인천 문화의 변화양상과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마련함.
- 또한 2010년에는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발전방안과 재정투자방안을 마련하는데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의 강력한 추진과 제도화, 문화적 가치의 확산, 국제도시로의 지향, 관련 인프라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는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2010

7) 인천광역시·인천문화재단(2010),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 p.35.

년~2020년)』을 수립하였음. 세부적으로는 인천이 지향하는 문화비전을 ‘행복한 변화,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 ①문화 다양성 존중, ②문화 공공성 확대, ③문화 자생성 강화라는 3개의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세부사업을 제시함.

- 특히 핵심가치 중 하나인 ‘문화 다양성 존중’에서 ‘다양한 문화향유 세대 지원’처럼 생애주기 및 문화수요의 다원화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책 마련, 시설과 제도 등의 정비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인천을 잘 이해하고 시민들의 문화수요에 부응하며 품격 있고 성숙한 문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기획, 문화정책, 문화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매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매개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은 향후에도 강화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2012년에는 2004년, 2008년에 이어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인문사회 영역과 같은 기초적 지역 현황 분석부터 문화자원, 문화활동에 이르기까지 인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현실을 광범위하게 진단함. 이 조사연구에서 일부 지표는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문화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인천의 문화지형을 살펴보는 데 기초분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천시 문화환경을 반영한 문화지표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조사로 이어지게 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2016년 문화지표 조사에서는 인천의 변화된 문화지형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화지표 조사체계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기조로 지역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인천에서도 문화진흥 흐름과 정책기조에 맞춘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하였음. 2015년 인천시는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크게는 ①지역문화역량강화, ②지역문화격차해소, ③지역문화발굴창조라는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여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자치구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이 처음으로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의 과정에 대한 경험이 약하기 때문에 아

직까지는 실천력을 갖춘 지역문화진흥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함. 향후 본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자치구별 문화환경 및 문화수요에 적합한 지역문화진흥계획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함.

〈표 6〉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존 계획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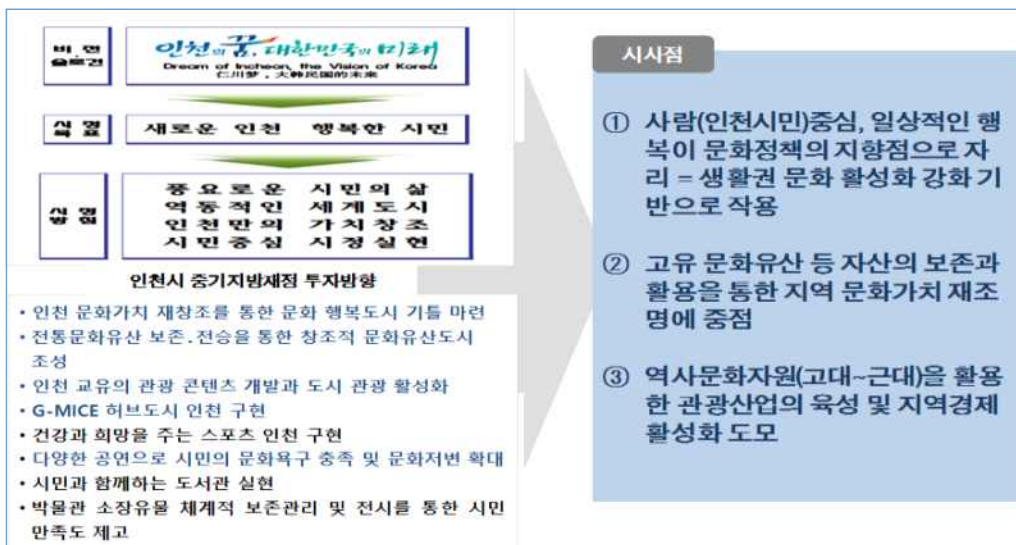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분야 중·장기적 종합 계획의 본격적 수립(2003년~2012년) - 국제적 수준의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 발전전략 제시 : ①문화의 정체성 및 전통문화의 발전, ②문화예술 창조력 제고, ③문화복지의 확충, ④첨단문화산업의 육성, ⑤문화행정 기반 조성 - 주요 이슈 : 문화복지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 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책 우선 고려 : 문화행정 기반 조성에 대한 적극적 변화 시도 필요
인천광역시 문화지표 작성 및 조사연구 (2004) 인천문화지표 조사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문화의 현 단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 - 인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조사와 심층분석 등을 통해 인천 문화의 변화양상과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적 기반 마련 - 2010년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발전방안과 재정투자방안을 마련하는데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함께 인천광역시의 미래 문화비전 및 핵심가치 제시(2010년~2020년) : ①문화 다양성 존중, ②문화 공공성 확대, ③문화 자생성 강화 - 주요 이슈 : 지역생활문화의 활성화,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환경의 정비·확충, 문화예술 활동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 필요
민선 5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기본계획(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영역(인력, 조직, 프로그램, 시설, 유산, 사업)별 내용설계 실제적인 계획 수립 - 비전: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문화도시 - 6대 미션 ① 인력: 문화시민공동체의 형성과 문화매개자 교육 강화 ② 조직: 개방과 참여를 통한 창의적 조직 구현 ③ 프로그램: 문화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④ 시설: 효율적 시설 운영, 시민밀착형 시설 확충 ⑤ 유산: 기억과 보존에서 창조의 원천으로 ⑥ 산업: 기초예술에 기반한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p>인천문화지표 조사 (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화지표조사 수정·보완 - 인문사회 영역 등 기초적 지역 현황 분석에서 문화자원, 문화활동에 이르기까지 인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현실에 대한 진단 - 주요 이슈 : 인천시를 둘러싼 문화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지표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에는 한계 : 향후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굴하는 조사 실행 필요
<p>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10개 군·구 (20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 지역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인천에서도 문화진흥 흐름과 정책기조에 맞춘 지역문화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2015년 인천시 10개 군·구 대상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 ①지역문화역량강화, ②지역문화격차해소, ③지역문화발굴창조 - 주요 이슈 : 지역별로 기획 및 시행역량, 자원 활용성 등의 편차가 커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3.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도시 관련 주요계획 검토

-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도시 관련 정책계획을 꾸준히 제시해 왔고 2016년 문화성시 인천 문화주권계획으로 구체화됨. 먼저, 2016년(민선6기) 인천광역시 시정 및 문화 분야 중기 재정계획 중에서 문화 분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그림 14] 인천 시정 및 문화분야 중기 재정계획 검토



- 또한 인천시는 2016년 10월 “300만 시민행복을 위한 문화성시 인천 문화주권”을 발표하여 정책적 의지를 구체화함. 문화성시 인천 문화주권 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본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 유기적으로 반영함.

[그림 15] 인천문화주권의 주요 이슈

분야	과제	이슈
인천가치 재창조로 문화주권 실현	1.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①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공간의 활용 ② 문화적 공간의 활용 확대 및 활용 주체에 따른 공간가치의 재생산 ③ 일상 속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문화활성화 ④ 문화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실천 방안수행 ⑤ 재정적 기반 마련
	2. 새로운 인천고유 역사공간 확대 ① 문학산성 복원 및 산상음악회 개최 ② 계양산성 복원 및 박물관 건립 ③ 한국천주교역사문화체험관 설립 및 담당성당 성역화	
	3. 인천 역사문화공간 국립화 격상	
	4. 강화해양관방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화인프라 확대	5. 시립미술관 건립과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6. 청년문화창작소 건립	
	7. 문화예술의 본산 집적화 및 이전	
	8. 국립문화공간 유치	
	9. 아트센터 인천 국가대표 전용홀 조성	
	10. 작은 문화공간 설립 및 지원 확대	
생활문화 활성화	11. 생활문화센터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	
	12. 상설 인천대표 공연 창작	
	13. 글로벌 음악축제도시 추진	
	14. 생활문화 기반 콘텐츠 확대	
	15. 인력양성 및 교육	
	16. 예술인 복지 및 문화다양성 존중	
실천방안 등	17. 문화예산 3.0 단계적 달성	
	18. 실천추진체계 구축	
	19. 문화관광산업 육성	

1.4. 시사점

- 인천은 2003년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시작으로 <2010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와 자족적 문화도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행복한 변화, 함께 만드는 문화 도시”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문화다양성 존중, 문화공공성 확대, 문화자생성 강화라는 핵심가치를 설정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계획, 추진하였음.
- 인천시가 2016년 발표한 문화주권계획에서는 “문화성시 인천”이라는 비전 속에서 시민을 중심에 두고 도시, 문화경제 범주에 따른 3대 추진목표를 수립하였음.
 - ① (시 민)생활문화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적 권리 실현
 - ② (도 시)세계수준의 문화공간 조성
 - ③ (문화경제)인천가치로 세계유일 문화콘텐츠 창조
- 이와 같이 인천은 시정책으로 문화도시 전략을 추진해왔고, 관련 정책 추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그 성과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인천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추진체계 및 실행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지금까지 인천시가 추진해 온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정책성과를 계승하며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변화된 인천에 맞추어 시민을 문화향유 주체로 인식하던 차원을 넘어 문화활동 주체로 확장함.
- 따라서 인천 문화도시 정책은 국내외 지역문화환경 변화와 문화도시 정책동향, 인천 시민들의 문화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문화를 통한 도시의 발전이라는 복합적 맥락에서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적 문화계획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2. 문화도시 관련 타 도시 계획 검토

2.1. 서울 문화시민도시

□ 계획수립 과정 및 구성

- 서울시는 2006년 최초 수립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5개 분야 27개 과제)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문화도시 계획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수립하고, 2016년 6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 서울시 문화도시 계획은 총 3년에 걸쳐 수립되었는데, 2013년 기본구상에 착수하여 약 1천명의 전문가와 시민 5천명의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쳤으며, 문화관련 단체, 시민, 실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문화계획위원회”의 주도로 문화도시 계획을 최종 수립하였음.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은 ‘시민이 행복한 삶’, ‘삶을 위한 문화발전’이라는 방향 아래 생활 속 개개인의 문화권 보장과 확대에 중점을 둬. 계획의 구성은 시민들을 둘러싸고 있는 5개 범주별(개인/공동체/지역/도시/행정)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추진목표, 2030년까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할 25개 추진과제, 96개 세부이행과제를 담고 있음.

[그림 16] ‘비전 2030, 문화도시 서울’ 비전체계도



□ 5개 범주별 계획의 주요 내용

○ 개인(문화주권) 범주

- 서울시민 누구나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16년)
- 서울문화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문화시민도시기본조례」 제정('17년)
- 인구 10만 명당 27.3개소인 시민 생활문화 공간을 '20년 30개소로 확충하고, 아마추어 동아리 축제를 올해 5개 자치구에서 '20년 전 자치구로 확대 지원

○ 공동체(문화공생) 범주

- 장르 기반의 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동아리 네트워크 확대
-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미디어 등 지역 기반 문화 플랫폼 구축
-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 수립 등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기반 조성, 문화다양성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국제문화원(2018년) 설치
- 예술을 통해 소통, 공감하고 힐링하는 예술치유센터 서울 시내 4개소(권역별) 설치·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집단 따돌림 피해자 등 사회적 일탈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 동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시민청 확대 조성

○ 지역(문화재생) 범주

- 시민 여가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천개의 공원 천개의 숲'('18년) 조성 및 골목길, 공원, 거리가 무대가 되는 '만개(滿開)의 무대' 3천 회 이상 개최('20년)
- 상징성 있는 공공공간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18년) 추진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3년 단위로 문화자원생태조사 실시
- 이를 바탕으로 서울문화지도를 작성,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미술관, 도서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화환경 개선(ex. 서서울지역 시립미술관 분관 건립)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문화업소쿼터제 도입 검토

○ 도시(문화창조) 범주

- 봄(서울드림페스티벌), 여름(서울문화의 밤), 가을(서울거리예술축제), 겨울(서울김장문화제) 4계절 서울 대표축제 육성
- 시민생활사박물관, 봉제박물관 등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 13개소 조성
- 예술인들의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한 예술인공공임대주택 조성,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예술가 단체 입주 지원

- 인사동 등 예술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서울예술청’ 조성, 예술인간 교류 기반 마련

○ 행정(문화창조) 범주

- 관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고 전문가,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의 문화행정 패러다임 구축

○ 서울시는 문화도시 계획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5개년) 3조 6546억 원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문화예산 점유비율을 시 예산의 3% 이상(1조)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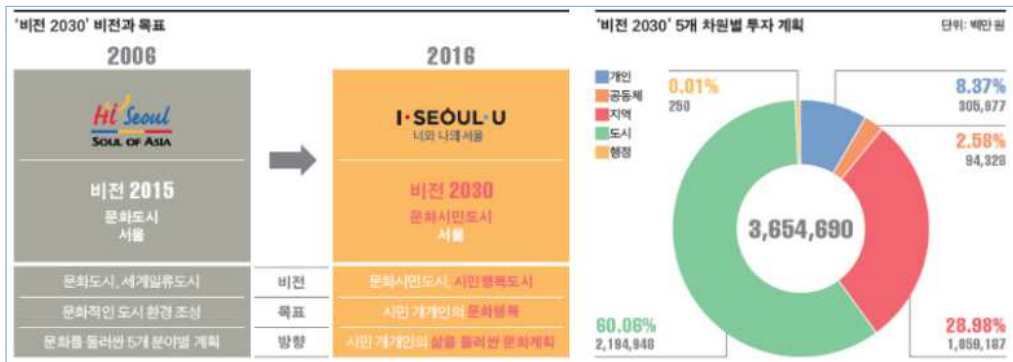
- 2016년 문화예산은 5,535억 원으로 순계예산의 2.3% 점유
- 2017년부터 매년 평균 7,309억 원 투자 계획

〈표 7〉 5개 범주별 투자계획 개요

(단위: 백만 원)

분야	총계		2016	2017~2020
개인	305,977	8.37%	51,910	254,067
공동체	94,328	2.58%	17,639	76,689
지역	1,059,187	28.98%	142,194	916,993
도시	2,194,948	60.06%	350,122	1,844,826
행정	250	0.01%	20	230
총합	3,654,690	100%	561,885	3,092,805

〈그림 17〉 서울 문화도시계획 과정 및 투자계획



- 또한 서울시는 계획 실행을 위해 2016년 ‘시민문화권위원회’를 설치, 분야별 협치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화시민도시조례, 예술인복지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등 3대 조례를 제정해 제도 기반을 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서울은 <비

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발표 이후 〈서울예술인플랜〉, 〈생활문화도시 서울〉 등 영역별 발전계획을 별도로 구체화하고, 예산을 수립함으로써 영역별 실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표 8〉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25개 추진과제

추진과제	계	2016	2017~2020
계	3,654,690	561,885	3,092,805
1.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2,140	110	2,030
2. 시민의 문화권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5,032	15,738	69,294
3. 시민의 문화역량을 키우겠습니다	123,021	19,136	103,885
4. 생활 속 문화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85,159	15,661	69,498
5. 곳곳에 생활문화의 장(場)을 만들겠습니다	10,625	1,265	9,360
6.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2,008	6,448	15,560
7. 함께 나누는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1,750	1,100	10,650
8.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겠습니다	35,140	7,875	27,265
9.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5,430	2,216	23,214
10. 일상의 생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62,719	13,305	49,414
11. 지역 간 문화격차를 없애겠습니다	24,713	703	24,010
12. 지역의 문화자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400	80	1,320
13.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163,375	53,852	109,523
14.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육성하겠습니다	3,970	-	3,970
15. 권역별 문화특화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겠습니다	803,010	74,254	728,756
16.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567,678	131,150	436,528
17. 모든 시민이 서울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5,256	61,859	623,397
18. 세계로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62,365	8,975	53,390
19. 문화창조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367,692	85,770	281,922
20.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38,857	59,358	379,499
21. 예술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550	1,950	27,600
22. 성장단계에 맞춘 예술인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650	-	1,650
23. 양질의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예술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1,900	1,060	40,840
24. 민관협치를 실질화하겠습니다	200	20	180
25. 문화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0	-	50

2.2. 요코하마 창조도시 사례 검토

□ 요코하마 창조도시 사례 개요

- 2016년 기준 인구 360만 명인 요코하마는 일본 최초로 개항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물류, 항구도시로 인천과 역사·지리적으로 유사한 환경을 가진 도시임. 2004년부터 근대역사건축물과 많은 산업시설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창조도시” 정책 추진으로 현재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창조도시, 상업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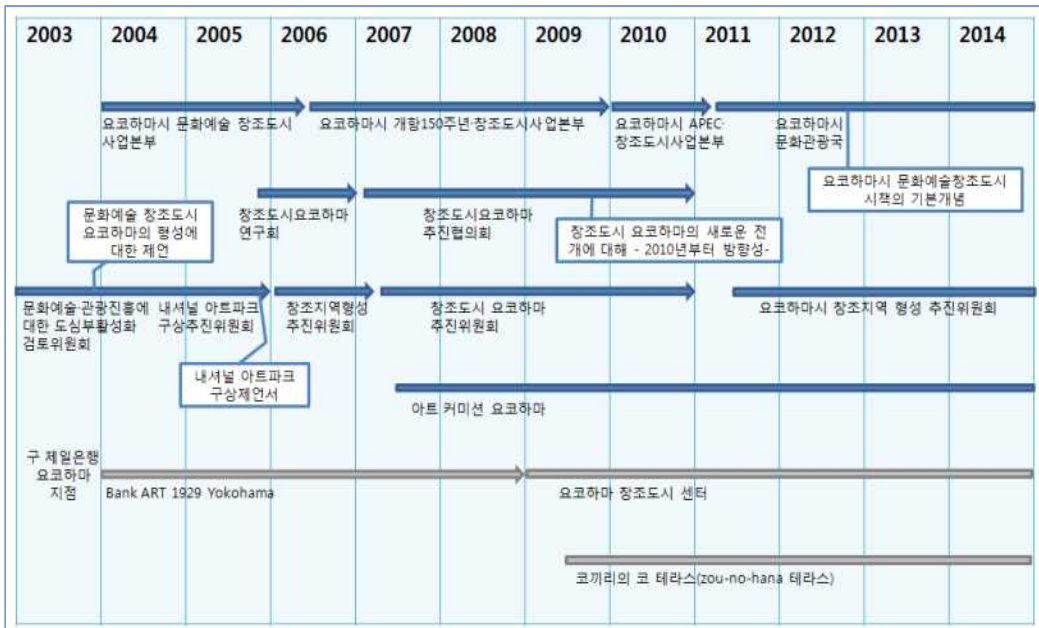
[그림 18] 요코하마 창조도시 전경



- 1960년대 <미나토미라이 21> 재개발과 <모토마치> 상점가 형성으로 원래 중심시가지였던 칸나이·야마시타마치가 쇠락하자 2002년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에 의한 도심부 활성화검토위원회’를 통해 중심시가지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유럽의 도시재생사업에 착안, 2004년 1월 문화예술도시를 형성하는 “창조도시(Creative City)” 정책을 추진하며, 기본방향으로 ①예술인과 창조자가 살고 싶은 창조적 환경 실현, ②창조적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③매력 있는 지역자원의 활용, ④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창조도시 만들기를 제시하였음.
- 2010년부터 새로운 4개 목표로 Space(공간), People(사람), Relation(교류), Community(지역사회)를 설정, ‘역사와 수변 환경을 살린 도시공간’,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일 기회가 있는 마을’, ‘요코하마를 세계에 알려 교류 활성화’, ‘시민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지역사회’를 지향함.

- 새로운 목표의 달성을 위해 ①문화예술·마을만들기·창조산업의 삼위일체에 의한 도심부 복구, ②아시아의 허브와 세계 홍보의 강화, ③시 전역에서 사람과 지역의 창의성 향상, ④사람을 키우는 영상문화도시, ⑤트리엔날레를 통한 예술의 확장의 신 5개 프로젝트를 설정 물리적·비물리적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음.
- 2012년부터는 <요코하마시 문화예술 창조도시 시책의 기본 방침>에 따라 ‘①시민 개개인은 활력과 창의성의 원천이며, 시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을 진흥할 필요가 있음, ②문화예술이 가진 창의성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살려,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창의적 마을만들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③요코하마의 사회자원을 살린 창의성에 대응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을 전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3개의 기본 이념을 토대로 창조도시 사업을 진행함.
- 기본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 ‘①시민문화예술활동을 지원, 풍부한 시민생활의 실현, ②아이들을 시작으로 하는 차세대 육성, ③예술가·창작자 지원과 창의성을 살린 마을만들기 진행, ④활력 생산·관광 MICE진흥으로 이어지는 요코하마의 선진적 문화예술 홍보’라는 4개 방침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림 19]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사업 추진도



출처: 創造都市横浜(2014)

- 특히 요코하마시에서는 창조지구 내 거점시설 운영을 통해 집적효과의 유발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요코하마 창조지역 형성 추진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또한 거점시설에는 예술가들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발휘하는 창조성에 토대를 둔 도시 활성화를 도모함.
- 주요 거점시설로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구 일본제일은행 요코하마지점, 第一銀行横浜支店), BankART Studio NYK(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요코하마 창고, 本郵船横浜海岸通倉庫), 급한 언덕(急な坂, steep slope) 스튜디오(구 노송회관, 旧老松会館), 코끼리의 코 테라스(象の鼻テラス), 코가네 지구(黄金町 area) 매니지먼트 센터(NPO 기구), THE BAYS(구 관동재무국 요코하마 재무사무소, 関東財務局横浜財務事務所) 등이 존재함.
- 각 시설의 통합적 관리는 요코하마시 부속기관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요코하마 창조지역 형성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짐. 해당 위원회에서는 ‘대상시설이 실시하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대상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대상시설의 구체적인 사업운영을 하는 단체(사업운영단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대상시설 사업운영단체의 활동 평가 및 조언에 관한 사항’, ‘대상시설의 활용방침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지역형성의 추진을 조언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함.

[그림 20] 요코하마 창조도시 주요 거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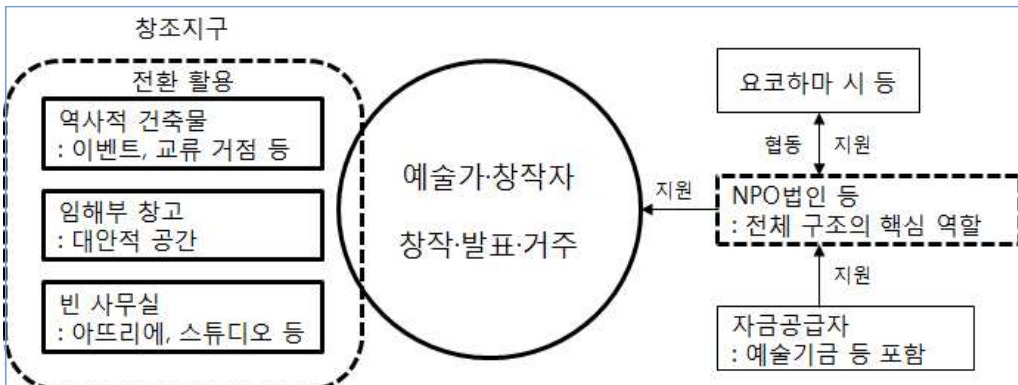
출처: 요코하마시 문화관광국(<http://www.city.yokohama.lg.jp/bunka/>)

- 요코하마 창조도시 프로젝트 중 대표적인 사례인 <BankArt 1929>는 역사적 건축물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1929년 설립한 다이이치 은행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해 비영리조직이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운영하게 함. 이 공간은 국제 레지던시 공간, 전시장, 카페, 레스토랑, 서점 등으로 구성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BankArt 1929 Yokohama>는 2009년 이후 요코하마 창조도시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구 일본우선주식회사의 창조를 개조한 <BankArt 1929 NYK> 등이 운영되고 있음.
- <BankArt 1929>사업은 역사적 건축물에 입주하여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은 운영할 민간단체를 공모하는 방식의 추진체계와 운영 특성,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등의 성과로 많은 주목을 받는 사례임.

□ 요코하마 창조도시 정책 주요내용

-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추진
 - 창조환경 실현, 경제 활성화, 시민주도의 도시조성을 목표
 - 해안공간과 역사적 건축물 등 옛 도심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 활력 있는 도심공간 형성
- 매력 있는 지역자원의 활용
 - 해안공간과 역사적 건축물 등 요코하마 도심부의 풍부한 자원 활용
 - 구도심의 박물관, 미술관, 역사적 건축물, 옛 창고, 빈 사무실 등을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재활용

[그림 21] 창조지구 프로젝트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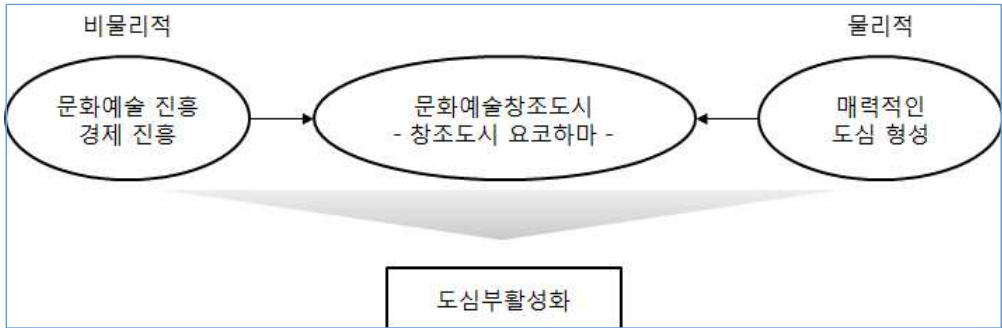
출처: 文化藝術創造都市-クリエイティブシティ・ヨコハラの形成に向けた提言(2004)

- 예술창작자가 살고 싶어 하는 창조환경 실현
 - 창조활동을 담당할 예술창작자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창조환경 조성은 산업기반 조성으로 연계, 산업정책 및 도시조성으로 연결하여 추진

- 요코하마 창조도시 사례 특징
 - 시민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문화예술창조도시 조성
 -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창조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개발과 제공
 - 시민이 문화예술의 감상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예술과 사회를 이어주는 문화예술활동 주체로 개입하게 하는 것에 주목함

 -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비물리적 사업 동시 추진
 - 핵심·거점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도시 전체로 사업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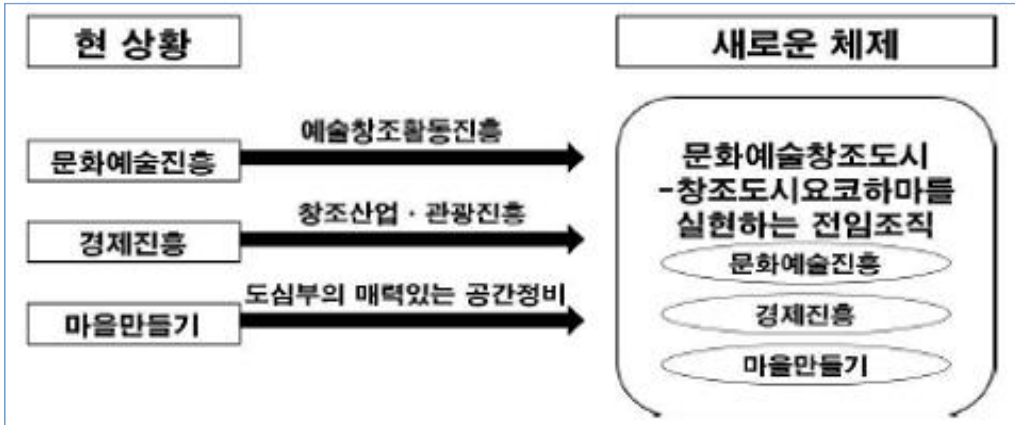
[그림 22] 요코하마 창조도시 도시재생 비전 구상



출처: 文化藝術創造都市-クリエイティブシティ・ヨコハマの形成に向けた提言(2004)

- 요코하마 창조도시 추진전략과 정책추진기구
 - 창조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문화정책 담당기구를 확대해 문화, 경제, 도시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입안과 실시를 담당할 기구 설치
 - 이를 위해 빠른 의사결정, 효율적인 정책의 실행기구로서 문화예술도시 창조사업본부 설립
 - 전문 지식의 담보를 위해 민간인/단체의 적극적 참여 및 등용

[그림 23] 요코하마 창조도시 정책기구



출처: 文化藝術創造都市-クリエイティブシティ・ヨコハマの形成に向けた提言(2004)

2.3. 시사점

- 서울은 총 3년의 준비과정을 통해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한 문화도시 계획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수립함.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장르나 분야 중심의 기존 문화도시 정책의 접근방법을 탈피하여 생활 속 개개인의 문화권 보장과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임. 이에 따라 계획의 구성은 시민들을 둘러싸고 있는 5개 범주별(개인/공동체/지역/도시/행정) 미래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함. 또한 문화도시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설정, 예술인, 생활문화 등 각 분야별 실행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요코하마의 경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의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예술진흥, 경제진흥, 마을만들기의 정책구조 속에서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는 점이 중요함. 특히 창조도시 정책추진의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문화예술도시 창조사업본부를 설립하여 기존 문화정책 담당기구를 확대하고 문화, 경제, 도시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입안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약 20여년 동안 창조도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문화예술의 향유자가 아닌 활동주체로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영역과의 협력구조를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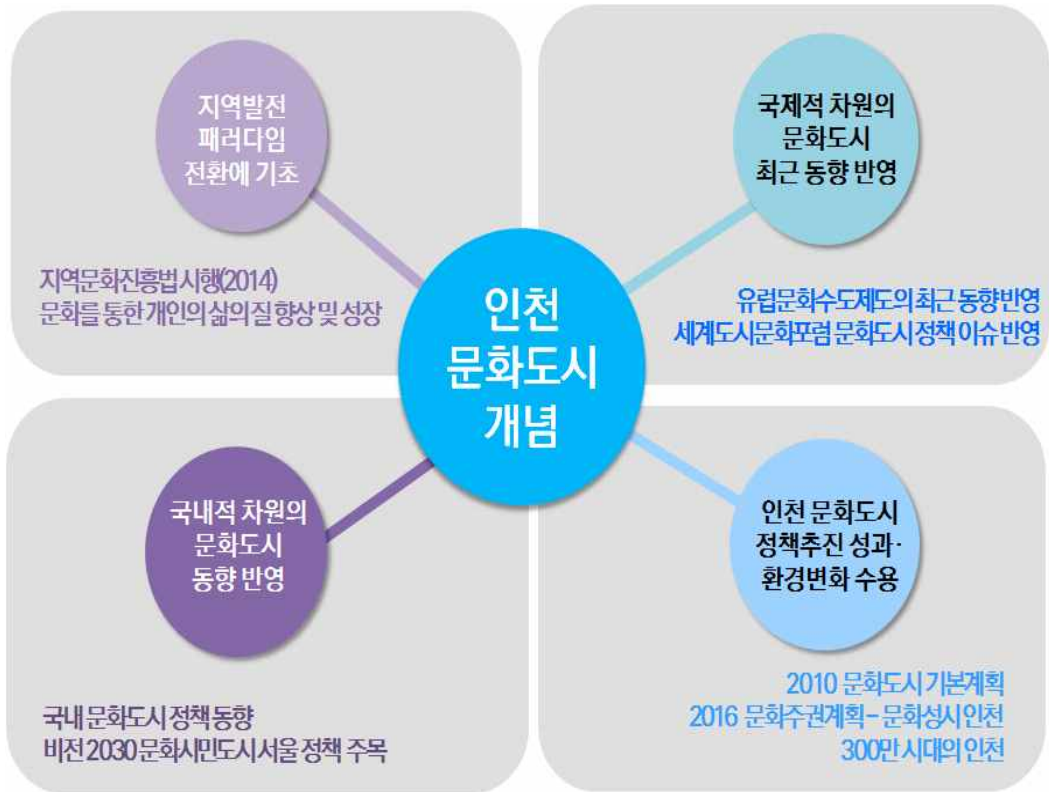
제3절 인천 문화도시 개념 및 정책추진 프레임

1. 인천 문화도시 개념

1.1. 인천 문화도시 개념 도출근거

-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문화도시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도시 개념은 국내외 문화도시 관련 패러다임 변화와 경험적 이슈, 인천 문화도시 정책추진의 흐름 등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관점에서 도출함.

[그림 24] 인천 문화도시 개념 도출 과정



□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의 수용

- 인천 문화도시의 개념은 개인의 삶의 질, 인간 중심의 문화를 통한 질적 성장에 주목하는 국내외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분권에 따른 문화자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의 한국 지역문화발전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인천 문화도시 개념은 좁은 의미의 예술의 발전을

넘어 지역구성원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모색하고 성장하기 위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의 확장과 연동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차원에서의 문화도시 관련 동향의 반영

- 국제적으로 유럽에서부터 시작한 문화도시 담론은 31년간의 꾸준한 시행을 통해 점차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2012년 시작된 세계도시문화포럼에서도 도시문화는 21세기 도시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적인 가치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요소라고 보고 있음. 인천 문화도시의 상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문화도시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적 차원에서의 문화도시 관련 동향의 반영

- 국내적으로 문화도시는 초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에서 점차 지역정부 주도로 시민중심형 상향식 정책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현재 추진 중인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문화도시 지정에 앞선 예비사업형으로 지역의 주체적 준비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국내 문화도시 정책은 초기 장르적 특성화에 기반을 하드웨어중심, 하향식 추진방식에서 통합적 문화도시 개념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시민주체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되는 단계임. 인천의 문화도시 개념도 이러한 국내 문화도시 정책 동향과 연계하여 도출함.

□ 인천 문화도시 정책추진 경험과 성과의 반영

- 인천의 경우, <2010 문화도시 기본계획>과 <2016 문화주권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을 중심으로 인천의 가치와 문화정체성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하는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 옴. 지금까지 인천시가 추진해 왔던 시민중심의 문화도시 정책성과는 계승하고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변화된 인천에 맞추어 시민을 문화향유 주체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활동주체로 확장하는 차원에서 문화도시 개념을 도출함.

1.2. 인천 문화도시 개념

-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앞서 분석한 도시, 지역의 미래에 대한 국내 외적 환경변화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수용하면서 인천만의 문화도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계기임. 때문에 인천 문화도시 개념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지역문화 패러다임 이슈, 국내외 문화도시 관련 동향, 국내 문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을 전반적으로 참조하고 인천의 실질적 문화여건을 바탕으로 인천 문화도시 개념을 정의함.
-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 문화도시는 장르적 개념이나 분야 범위로 한정하여 지역문화의 대표 장르,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가치와 신념, 공동체의 생활양식 자체를 문화적으로 고양하고자 하는 원리로서 접근함.
- 한편, 인천의 가치는 풍요로운 역사문화를 비롯해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인문 사회자원, 근현대를 아우르는 산업적 가치 등 내재적 가치가 다양하며 아울러 현재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음. 인천이 지닌 역사성, 개방성, 다양성 등과 같이 수많은 인천의 가치를 특성화하여 규정하기보다는 무궁무진한 가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열어놓고 각 영역에서 저마다 그 가치를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이상에 근거해서 인천 문화도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인천 문화도시 개념은 인천 ‘시민들의 현재 삶’을 중심으로 인천의 다양한 ‘가치’를 문화적으로 표현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감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무형의 문화도시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시 전반의 활력을 다각적으로 이끌어내고, 그 에너지가 인천의 사회, 문화, 경제적 발전의 토양으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가는 지속적 ‘과정’으로서의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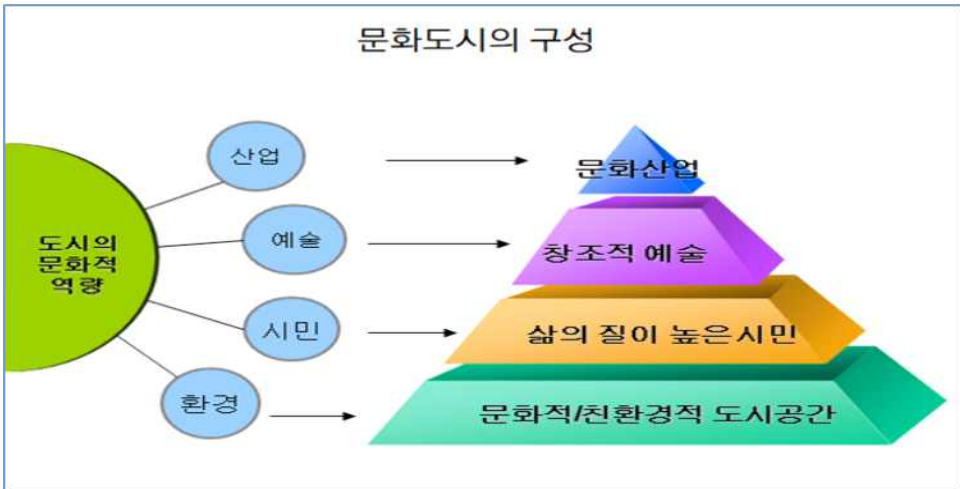
“역사성, 개방성, 다양성 등 인천가치를
 시민의 삶으로 연계하여
 문화적 표현과 공동체의 감성을 높여,
 도시의 활력과 문화·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

2. 인천 문화도시 정책추진 프레임

2.1. 인천 문화도시 정책추진 주안점

- 인천 문화도시는 장르적 개념이나 분야 범위로 한정하여 지역문화의 대표 장르,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가치와 신념, 공동체의 생활양식 자체를 문화적으로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하므로 인천 시민의 현재 삶을 둘러싼 도시 전반의 문화적 여건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임.
- 따라서 문화도시는 문화적이고 친환경적 도시공간, 시민의 높은 삶의 질, 창조적 예술과 문화, 경제적 산업 영역 등 도시를 구성하는 총체적 기능과 요소에서 문화적 상상력과 창조적 역량이 발현될 수 있는 도시임.

[그림 25] 문화도시 구성도



-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 문화도시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정책사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문화도시 개념의 실체를 만들어가는 지속적 활동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5개년 동안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단계적이고 과정적인 정책계획이자 핵심계획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또한 5개년 실행 이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천의 시민 수요, 예술적 역량, 지역문화 여건, 도시환경 등을 반영하며 문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인천이 문화도시로서 실질적 면모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임.
- 문화도시를 표방했던 국내외 많은 도시의 구체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또는 도시를 방문하는 다양한 외부인들에게 그 도

시가 문화도시로 인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여년 가량 꾸준한 과정이 수반됨. 때문에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인천이 문화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 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정책적 초점을 두어야 함.

2.2.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정책적 틀: 문화도시 생태계

- 본 계획을 통해 인천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문화도시를 실천의 핵심 요소를 설정하고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인천 문화역량으로 축적되고 성장하는 선순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본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인천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으로 인천 ‘문화도시 생태계’를 설정함.
- 일반적 생물생태계가 핵심을 이루는 생물요소와 기반을 이루는 무생물 환경요소가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면서 건강하고 유기적인 총체적 생명의 구조를 구축하고 발전해가듯이 문화도시생태계도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핵심 실천범주와 문화도시의 환경적 기반을 이루는 기반 실천범주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선순환함으로써 인천이 문화도시로 지속가능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인천 문화도시 생태계 구성에서 핵심 실천범주는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영역임. 그리고 인천 문화도시 기반 실천범주는 핵심 실천범주와 유기적인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며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 영역임.
- 핵심 실천범주는 총 5가지 영역인데 그 중심에 인천의 문화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사람’에 주목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화주체 영역을 설정함. 그리고 문화주체인 사람이 표현하고, 만들고, 확장하는 문화활동 영역, 문화주체와 문화활동이 만나서 창작, 소통, 유통이 일어나는 문화공간 영역, 다양한 문화주체와 문화단체, 자치구 지역 간의 문화적 공생으로서 문화공동체 영역, 문화와 산업이 만나는 문화경제 기반을 구축해가는 문화산업 영역을 설정함.
- 인천 문화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반 실천범주는 총 3가지 영역인데, 문화도시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 문화재원 영역, 문화도시 관련 정책적 기반 구축과 민-관 유기적 협력을 위한 문화협업 영역, 문화와 연계되

어야 하는 다양한 도시정책과의 협력을 위한 문화연동 영역으로 설정함.

- 이상의 문화도시 생태계 요소별로 인천의 현재 문화환경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5년 동안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계획함.

핵심 실천범주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범주

- 문화도시의 핵심으로 인천의 문화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사람인 문화주체 영역
- 문화주체인 사람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만들고 확장하는 문화활동 영역
- 문화주체와 문화활동이 만나서 창작, 소통, 유통이 일어나는 문화공간 영역
- 다양한 문화주체와 문화단체, 자치구 지역 간의 문화적 공생으로서의 공동체 영역
- 문화와 산업이 만나서 문화경제 기반을 구축해가는 문화산업 영역

기반 실천범주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토대 영역

- 문화도시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적 토대로서 문화재원 영역
- 문화도시 정책적 기반 구축과 민-관 유기적 협력을 위한 문화협업 영역
- 문화와 연계되어야 하는 다양한 도시정책과의 협력을 위한 문화연동 영역

→ 이상의 문화도시생태계 요소별로 인천의 현재 문화환경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5년 동안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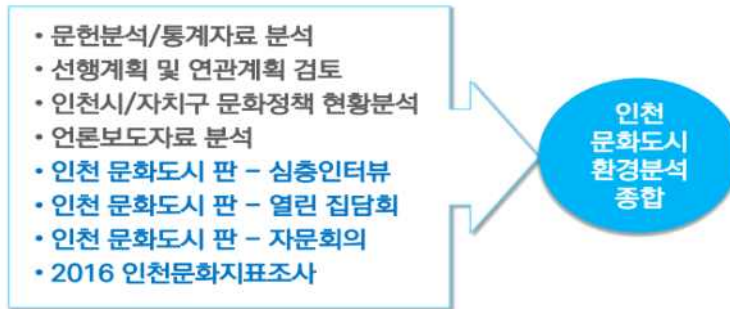
3 인천 문화도시 환경분석 및 비전 수립

-
- 제1절 인천시 문화환경 및 문화수요 분석
 - 제2절 인천 문화도시 환경분석 종합 및 시사점
 - 제3절 인천 문화도시 비전 및 구성체계

제1절 인천시 문화환경 및 문화수요 분석

- 인천 문화환경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종합하여 도출되었음. 관련 문헌분석, 관련 계획의 검토, 정책 현황분석과 더불어 인천 문화현장의 현안에 대한 지역주체들의 의견수렴 및 논의의 장으로 진행된 <인천 문화도시 판> 프로그램 16차례를 통해 총 260여명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종합 분석하였음.

[그림 26] 인천 문화환경 도출과정



- 인천 문화수요 분석은 본 연구과정을 통해 추진된 <2016 문화지표조사> 결과를 종합 반영하였음. 인천문화지표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예술인, 인천시민 대상에 한정되어있던 2012년 문화지표조사 대비, 예술동호회와 인천문화시설 이용자 대상을 신규로 추가하여 4개의 조사가 추진되었으며 총 4,249명이 참여하였음.

[그림 27] 인천 문화수요 도출과정 - 2016 인천문화지표조사 개요

인천 예술인 조사		인천 문화예술동호회 조사(신규)	
조사 대상	문화/예술인	조사 대상	동호회 회원
조사 규모	305명	조사 규모	151명
조사 방법	인터넷/이메일 조사	조사 방법	인터넷/이메일 조사
조사 기간	2016년 11월 21~12월 16일	조사 기간	2016년 11월 21~12월 16일
조사 목표	인천 내 문화예술인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	조사 목표	인천 내 문화예술 동호회 현황/활동 실태 파악
인천시민문화수요 조사		인천 문화시설 이용자 조사(신규)	
조사 대상	인천 시민	조사 대상	문화시설 교육/행사참여자
조사 규모	1,500명	조사 규모	2,293명 (1,403명/890명)
조사 방법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조사
조사 기간	2016년 11월 21~12월 16일	조사 기간	2016년 11월 21~12월 16일
조사 목표	인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 파악	조사 목표	문화시설 교육/행사 만족도 및 이용 실태 파악

↑
각종 통계자료 수집/분석

1. 인천시 문화환경 분석

1.1. 인천시 기본현황 검토

1) 인천의 유래와 연혁

- 인천의 최초 명칭은 미추홀(彌鄒忽)로, 동국여지승람은 백제 비류가 현재의 인천을 도읍지로 정착하면서 미추홀로 명명했다고 밝히고 있음. 이 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등장한 것은 고구려 장수왕 때(475년)로 매소홀현(買召忽縣)이었으며,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 소성현(召城縣)이 되었음.
- 고려 숙종(1095~1105) 때 경원군(慶源郡)으로 개칭·승격, 인종(1122~1146) 때에 인주(仁州)로 승격되었고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다시 경원부로 환원되었음. 조선왕조가 개창되면서 경원부는 다시 인주로 환원되었고, 태종 13년 주(州)자를 가진 도호부 이하의 군·현을 산(山), 천(川) 두 글자 중 하나로 개정토록 하여 현재의 “인천(仁川)”이 되었음.
- 인천은 근대 이전에 생활권을 달리하던 여러 지역이 합쳐져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재편되었음. 각각의 지역들은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내포한 지역성을 가지고 현재 인천광역시에 속하면서 권역별 인천 역사·문화의 다양성을 형성하는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원래의 인천은 인천도호부가 있던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 일대였으며, 개항 이후 인천의 중심지는 제물포 지역으로 이동되었음. 이후 부평과 강화 등이 차례로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현재 8개 구와 2개 군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을 갖추게 되었음.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의 행정구역 변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9〉 인천시 행정구역 변천사

팔도 (~1895년)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1914년)	현대 8구, 2군 (1995년~2014년 현재)
	이십삼부 (1895년)	십삼도 (1896년)		
경기도 인천도호부	인천부 인천군	경기도 인천부	경기도 인천부 (중구 내륙부, 동구 일대), 부천군(나머지)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십정동),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덕적면) 경기도 시흥시(북부), 부천시(계수동, 옥길동), 광명시(옥길동)

경기도 부평도호부	인천부 부평군	경기도 부평군	경기도 부천군	인천광역시 서구(검단 제외), 계양구, 부평구(십정동 제외), 경기도 부천시(계수동, 옥길동 제외), 서울특별시 구로구(서부)
경기도 강화유수부	인천부 강화군	경기도 강화부	경기도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교동도호부	인천부 교동군	경기도 교동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도면, 삼산면 일부
경기도 김포군	인천부 김포군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인천광역시 서구(검단 지역)

〈표 10〉 인천시 주요 연혁

시대	세부내용
개항기 ~ 일제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83년 1월 1일: 제물포 개항 -1895년: 이포면 남양군에 편입 -1896년: 인천부 설치 -1899년 9월 18일: 한반도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철도 개통 -1910년 10월 1일: 일제는 대한제국에 대한 1910년 8월 29일의 강제합병에 따른 인천부의 새 관할구역을 종래의 인천부 일원으로 유지한다는 총독부령 발표 -1914년 4월 1일: 인천부 분할, 항구 주변의 도심지만을 인천부로 지정, 인천부의 나머지 면과 부평군을 부천군으로 개편 -1936년 10월 1일: 부천군 다주면(도화리, 장의리, 용정리, 사충리)과 문학면 일부(옥련리, 학익리, 승기리)를 인천부에 재편입 -1940년 4월 1일: 부천군 문학면, 남동면, 부내면, 서곶면을 인천부에 편입
해방이후 ~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5년 10월 10일: 인천부 제물포시로 개칭 -1945년 10월 27일: 제물포시 인천부로 환원 -1949년 8월 15일: 인천부 인천시로 개칭 -1950년 7월 4일: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군에게 점령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수복 -1963년 1월 1일: 부천군 영종면 운남리 작약도 인천시로 편입 -1968년 1월 1일: 중구, 남구, 동구, 북구가 설치 -1981년 7월 1일: 경기도 인천시 일원을 관할로 인천직할시 설치 -1988년 1월 1일: 북구와 남구의 일부를 관할로 서구와 남동구 각각 설치 -1989년 1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일원이 북구에,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용유면 일원이 중구에 각각 편입
1990년대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개칭 -1995년 3월 1일: 경기도 옹진군과 강화군전역, 김포군 검단면(현재의 서구 검단 1~5동)이 인천광역시에 편입. 북구를 부평구와 계양구로, 남구의 일부를 연수구로 분리 -2000년: 강화 고인돌 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2003년: 한국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송도·청라·영종지구) -2007년: 2014년 아시안게임유치 결정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2010년: G20 재무차관회의 개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2015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 국제행사 개최

출처: 인천시청 연혁 홈페이지

2) 인천의 인구 · 지리적 현황

□ 인구 현황

- 인천시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2016년 기준 전국 인구의 12.8%인 2,943,069 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과 부산의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1〉 7개 특·광역시대비 인천시 주민등록인구 비율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 구성비		
	2016	2012	2008	2016	2012	2008
전체	23,012,659	23,224,482	22,966,828	100.0%	100.0%	100.0%
서울	9,930,616	10,195,318	10,200,827	43.2%	43.9%	44.4%
부산	3,498,529	3,538,484	3,564,577	15.2%	15.2%	15.5%
인천	2,943,069	2,843,981	2,692,696	12.8%	12.2%	11.7%
대구	2,484,557	2,505,644	2,492,724	10.8%	10.8%	10.9%
광주	1,469,214	1,469,216	1,422,702	6.4%	6.3%	6.2%
대전	1,514,370	1,524,583	1,480,895	6.6%	6.6%	6.4%
울산	1,172,304	1,147,256	1,112,407	5.1%	4.9%	4.8%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시의 인구수와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거주 외국인 59,103명을 포함한 인천의 총 인구 수는 3,002,172명으로 인구 300만 도시가 되었음.
- 인천시 자치구별로 인구 비중은 부평구(19%)>남동구(18.2%)>서구(17.3%)>남구(13.8%)>계양구(11.3%)>연수구(10.9%)>중구(4%)>동구(2.5%)>강화군(2.3%)>옹진군(0.7%) 순임.

〈표 12〉 인천 인구수, 세대 증가율

(단위: 명, %)

연도	세대	인구			인구증가율 (%)
		총수	한국인	외국인	
2006	965,302	2,663,854	2,624,391	39,463	1.2
2007	995,712	2,710,040	2,664,576	45,464	1.7
2008	1,014,755	2,741,217	2,692,696	48,521	1.2
2009	1,026,936	2,758,431	2,710,579	47,852	0.6
2010	1,059,664	2,808,288	2,758,296	49,992	1.8
2011	1,077,563	2,851,491	2,801,274	50,217	1.5
2012	1,097,491	2,891,286	2,843,981	47,305	1.4
2013	1,118,988	2,930,164	2,879,782	50,382	1.3
2014	1,136,280	2,957,931	2,902,608	55,323	0.9
2015	1,154,004	2,983,484	2,925,815	57,669	0.9
2016	1,171,399	3,002,172	2,943,069	59,10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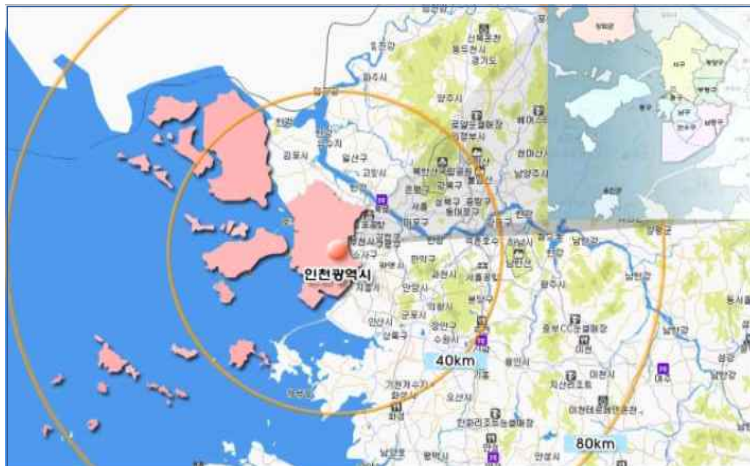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 2016년 인천통계연보의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인천시청 공식적인 최근 연보임.

□ 지리·역사·경제적 여건

- 인천시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부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공항도시이자 항구도시로, 동북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개방된 지리적 입지여건으로 인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경기권 내 김포시 서남부 지역과 동질성을 가지며, 경제적으로는 서울 서남부,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와 직접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음.

[그림 28] 인천광역시 위치도



출처: 인천시 구글지도

- 국제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제간 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확장성·다양성·연계성이 강한 지리적 특성을 가짐. 국내적으로는 서울과 인접한 국내 교통의 요지로, 경인고속도로, 아라뱃길과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등 다양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그림 29] 인천의 국제적 입지요건



출처: 인천시 내부자료

□ 행정구역 현황

- 인천시 행정구역은 2017년 1월 기준, 8개 구(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개 군(강화군, 옹진군), 1개 읍, 9개 면, 129개 동으로 구성됨.

<표 13> 인천시 행정구역별 면적 및 해안선

(단위: km², %,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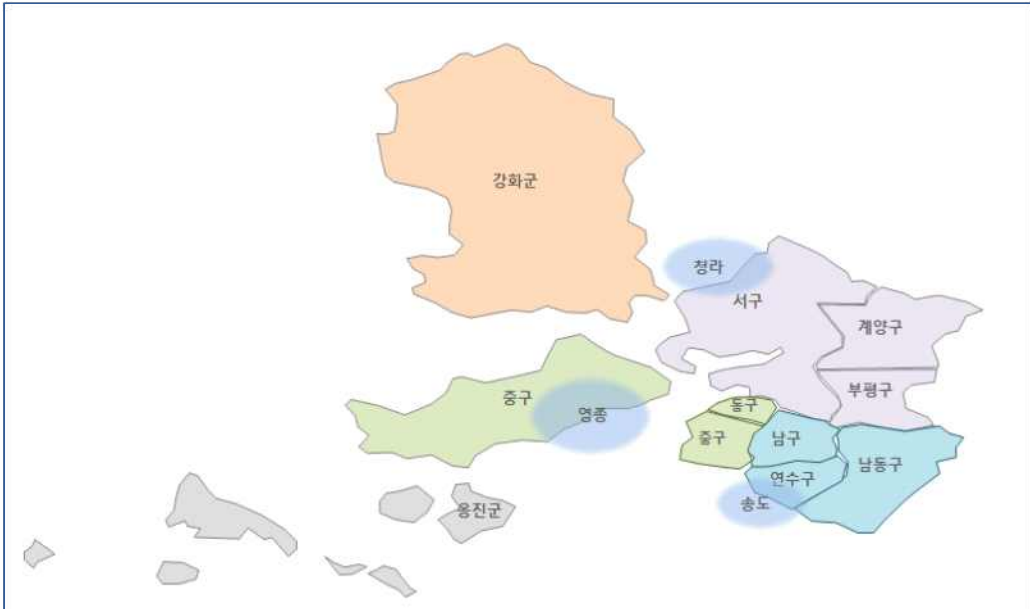
행정구역	면적(km ²)	비율(%)	해안선(km)		
			총 길이	육지부	도서부
중구	133.46	12.7	147.77	116.52	31.25
동구	7.19	0.7	11.16	10.02	1.14
남구	24.84	2.4	0.50	0.50	-
연수구	50.07	4.8	36.71	36.71	-
남동구	57.03	5.4	-	-	-
부평구	32.00	3.1	-	-	-
계양구	45.57	4.3	-	-	-
서구	115.19	11.0	29.14	21.99	7.15
강화군	411.44	39.2	264.78	111.23	153.55
옹진군	172.19	16.4	541.32	48.32	493.00
2015	1,048.98	100	1,031.38	345.29	686.09

출처: 2016 인천통계연보

□ 역사문화 권역별 특성

- 인천시 10개 자치구는 역사, 문화, 지리적 특성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각 지역의 역사와 생활권역을 감안하고, 인천 문화 지형도를 다루는 이전 연구들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이 5개 역사문화 권역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그림 30] 인천시 권역 구분



- 첫 번째 권역은 중구, 동구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인천역사의 시작 지역이라는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 권역은 경술국치 이후 일본인 도시로 재편되었던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근대성과 식민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최근 동구 원도심재생산업과 중구 개항장 역사지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관광적 요소가 결합되면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두 번째 권역은 남구, 연수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한 인천 역사의 발원지로서의 역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 권역은 문학산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인천군으로 축소 개편되었으나 인천도호부로 승격된 이후 개항 이전까지 그 역사를 이어왔음. 개항이후 제물포가 새 인천으로 개발되면서 낙후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새로운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음. 주로 공단지역이 많고, 국적이 상이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세 번째 권역은 서구, 계양구, 부평구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음. 이 권역은 인천과는 별도의 행정지역(부평도호부)으로 분류되어 왔음. 이후 경인선 부평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단을 중심으로 근대산업도시의 노동문화와 전통적인 부평평야지역의 농경문화가 이어오고 있음.
- 네 번째 권역은 강화군과 옹진군 일대로 인천 전근대 역사적 정체성(단군왕검 사적, 항몽, 병자호란, 강화학파, 39년간 고려수도)을 구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 권역은 역사적,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화적 독자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풍부한 문화재와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음.
- 다섯 번째 권역은 송도·청라·영종지구 일대로 신도심 지역임. 이 권역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자본이 유입되며 대규모 국제신도시로 건설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개발되고 있음. 인천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임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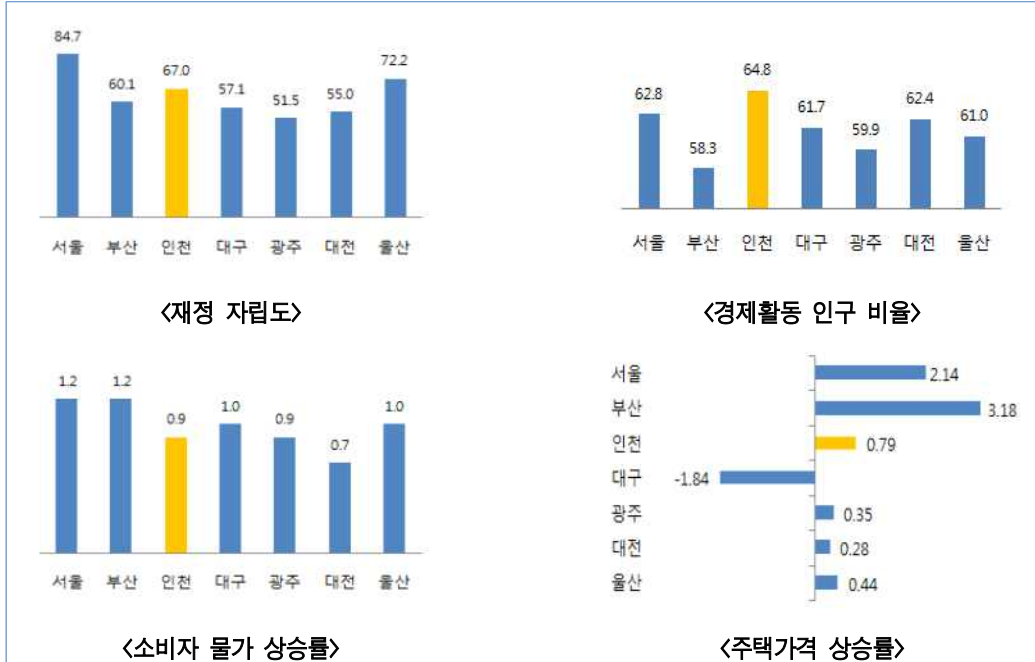
3) 인천시 사회환경 검토

□ 경제적 측면

- 인천시의 경제적 사회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7개 특·광역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지표는 재정자립도(67.0%)와 경제활동 인구비율(64.8%)임. 그리고 주택가격상승률(0.79)과 소비자물가상승률(0.9)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 인천시민의 경제활동 재정자립도나 인구비율 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는 점차 상향되어 인천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러나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는 인천만의 변화가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임.

8) 이희환(2009). 『인천 배다리 시간, 장소, 사람들』.

[그림 31] 인천의 경제적 환경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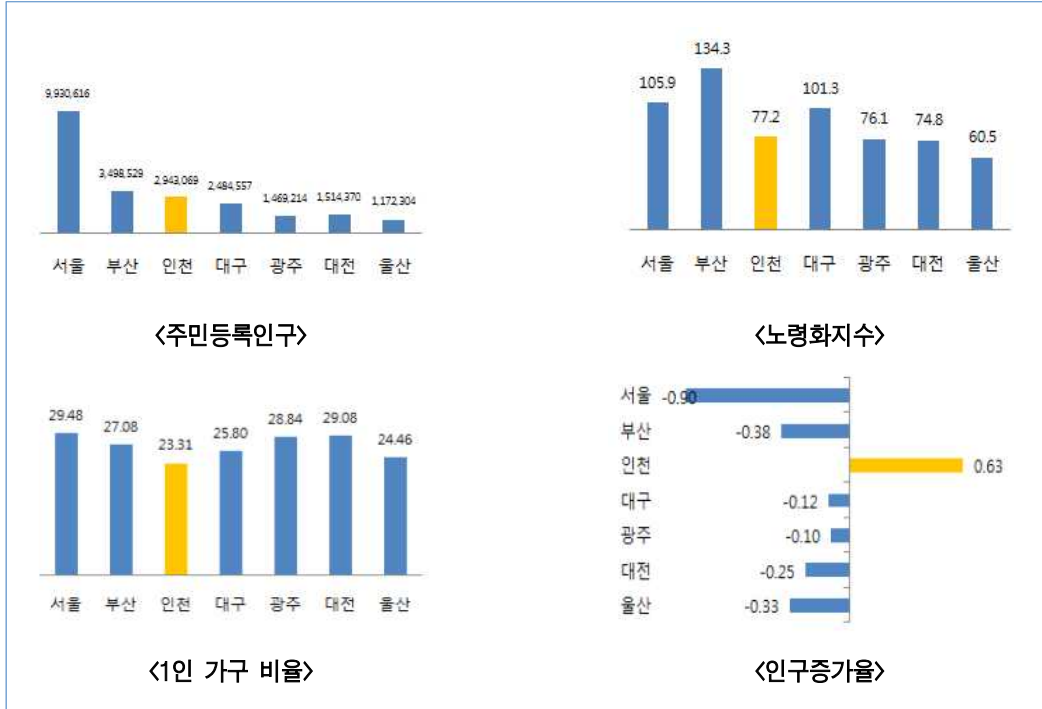


출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16), 소비자물가조사(2015), e-지방지표(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규모 * 100

□ 인구적 측면

- 7개 특·광역시 대비 인천시의 인구사회학적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노령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인천시는 인구증가율(0.63)이 가장 높고, 1인 가구비율과 노령화 지수는 비교적 낮아(2008년 44.4, 2012년 59.9, 2016년 77.2)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타 광역시 대비 1인 가구비율은 낮은 편이나 2008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율(2008년 17%, 2012년 21%, 2016년 23%)을 보이는데 이는 신도심 건설 및 공단 등 경제, 주거환경의 변화나 사회적 수요에 따른 1인 가구의 유입과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2] 인천의 인구학적 환경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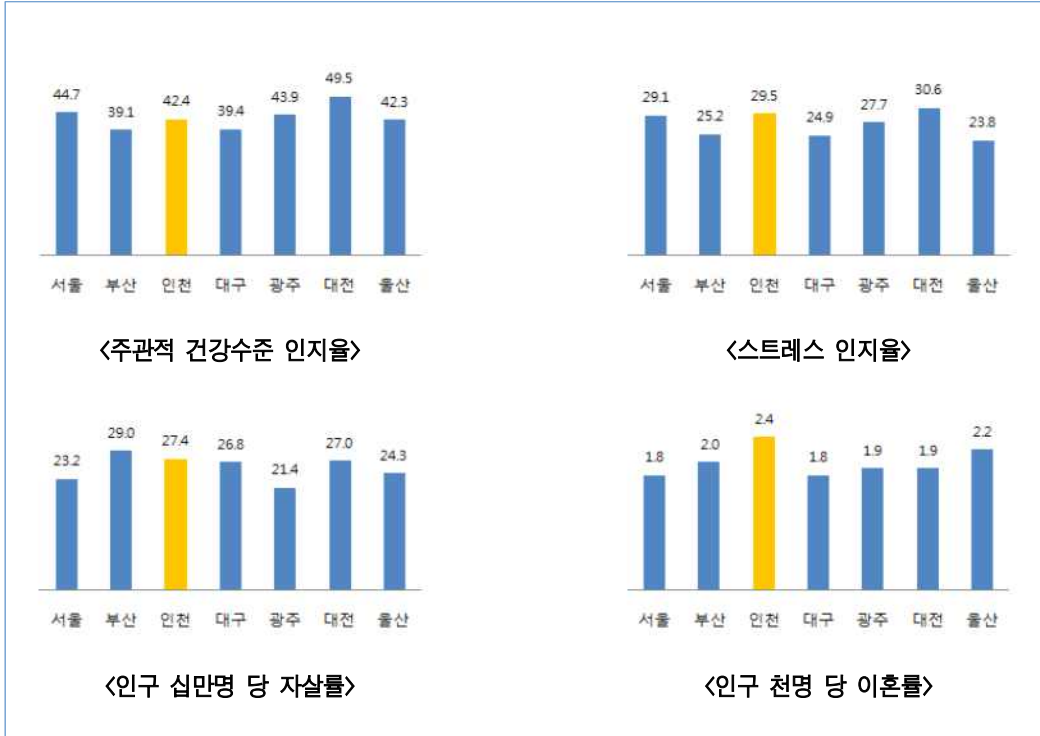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2015), 체류외국인통계(2015), 장애인구추계(2015), 인구총조사(2016)

□ 사회 심리학적 측면

- 7개 특·광역시 대비 인천시의 심리학적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하위권으로 집계됨. 주관적인 건강수준 인지율은 중간 수준이나, 스트레스 인지율,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이 2위로 높고, 인구 천 명당 이혼율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긍정적 변화가 있는 여타의 인천시 여건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민들의 사회 심리적 압박감이 높으며,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향후 이러한 요소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 인천의 사회심리학적 환경 지표



출처: 지역사회건강조사(2015), 사망원인통계(2015), 인구동향조사(2015)

4) 언론매체 분석을 통한 인천의 도시 이미지 및 이슈 검토

□ 주요 키워드 도출과정

- 도시 이미지는 도시 주민의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심상(Lynch, 1960)으로, 도시 이미지 형성은 도시 정체성 정립 및 도시 미래가치의 공유 행위(박철희·이정수, 2010)라 할 수 있음. 도시만의 고유한 이미지 정립은 도시 가치 발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이연주·김철수, 2012), 다시 말하면 도시가 내포한 고유가치가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을 말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의 인식, 지역사회 이슈와 여론에서 표면으로 드러나는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인천시 주요 일간지 및 간행물을 분석하여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관련한 공통된·중복된 키워드를 도출하였음.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관련된 키워드는 전반적인 도시 이미지, 인구·환경적 특성, 인천의 역사문화자원,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문화주체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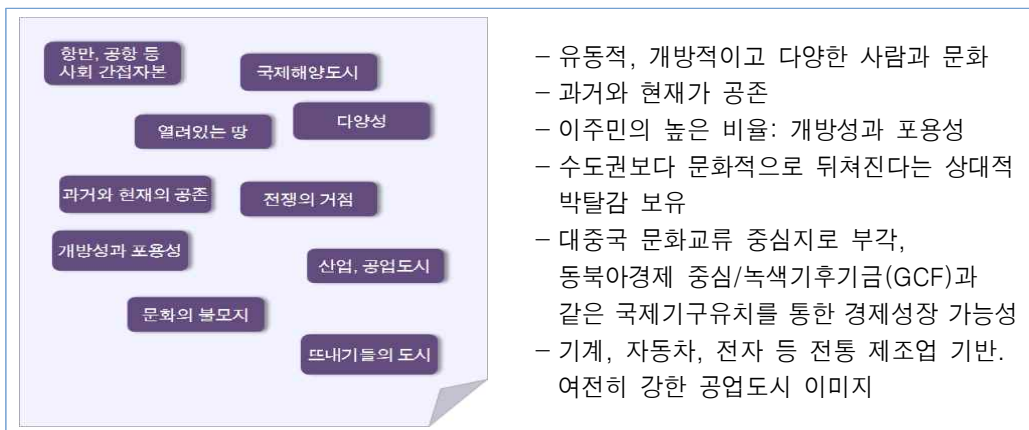
〈표 14〉 인천 이미지 분석자료 개요

구분	자료명	분석자료	구분	자료명	분석자료	전체
일간지 (2013-2016)	인천일보	33건	간행물 (2009-2016)	굿모닝인천	3건	124건
	경인일보	29건		인천문화통신 3.0	22건	
	인천in	4건		WEEKLY@예술경영	6건	
	66건			플랫폼	14건	
				Incheon Urban Newsis	13건	
				58건		

□ 인천 도시 이미지 측면

- 인천의 도시 이미지는 지리적 입지로 인한 개방성과 개방된 도시환경으로 인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인구의 유동성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공생의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또한 수도 서울의 주변부 도시로서의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제 공항과 항만의 중심지인 관문도시로서 국내외적인 교류의 중심지로서 도시가 가진 양면성이 존재함.
- 역사적으로는 제조업 기반이 강한 공업도시 이미지가 유지되면서 최근 녹색 기후기금과 같은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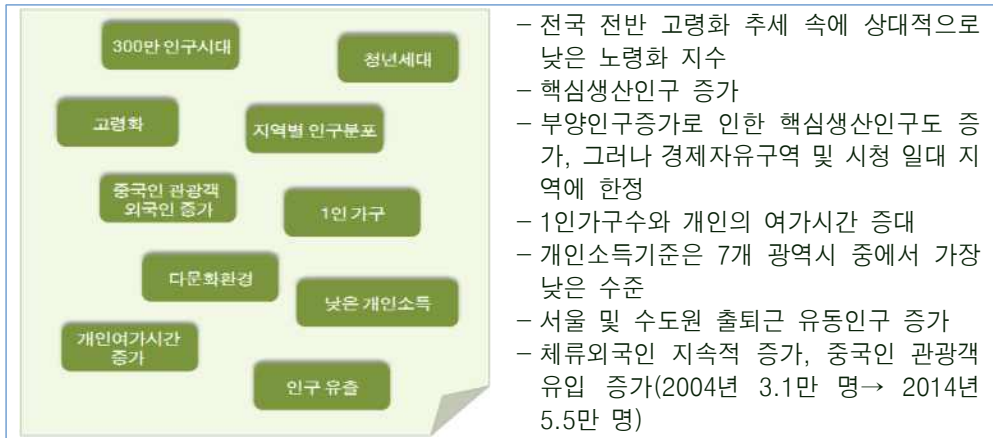
[그림 34] 주요 키워드로 보는 인천의 도시 이미지



□ 인천의 인구·환경적 측면

- 국내 전반적인 노령화 추세 속에 인천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령화 지수를 보이는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핵심 생산인구와 1인가구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다수의 유동인구, 낮은 개인소득 수준의 지표는 젊은 층의 양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10개 자치구 간 인구분포가 상이하며,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형성된 다문화환경을 비롯해 중국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음.

[그림 35] 언론 키워드 속 인천의 인구·환경적 이슈



□ 인천의 역사문화적 측면

- 인천은 개항과 관련된 근대역사문화자원, 최초·최고로 기록되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도시이며, 서해를 배경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된 도서지역은 역사적 맥락 속에 다양한 의미를 주는 문화재들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보유한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는 약한 편임.
- 현재 인천의 내재적 역사문화가치에 대한 재인식 및 가치 재창조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문화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부평의 음악융합도시, 강화도 강도의 꿈 등 각 자치구별로 여러 정책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6] 언론 키워드 속 인천의 역사문화적 이슈

- 한국 최초 상징성을 지닌 다양한 역사 문화자산(음악, 야구, 기록문화유산 등)
- 대외적으로 알려진 근대역사문화자원에 비해 유구하고 다양한 역사자원에 대한 대외적 인지는 약함
- 서해에 분포하고 있는 168개의 섬 자원
- 문화유산 관련해서 도서지역(강화 등)과 개항장 문화권(중구, 동구 배다리 지역 등)이 언급
- 음악의 경우 부평, 신포동, 관교동 등이 등장(부평음악융합도시)

□ 인천 문화예술적 측면

- 인천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 및 문화예술 인프라의 편차, 원도심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함.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역간 균형적 문화예술환경 조성, 문화복지 및 일상권 생활문화에 대한 수요가 큼.
- 수도권과 인접한 관계로 수도권으로 향하는 문화예술 관련 소비에 대응하는 인천 문화콘텐츠 발굴 및 문화 브랜드 강화에 대한 욕구가 감지되며, 풍부한 여건 대비 취약한 관광분야 활성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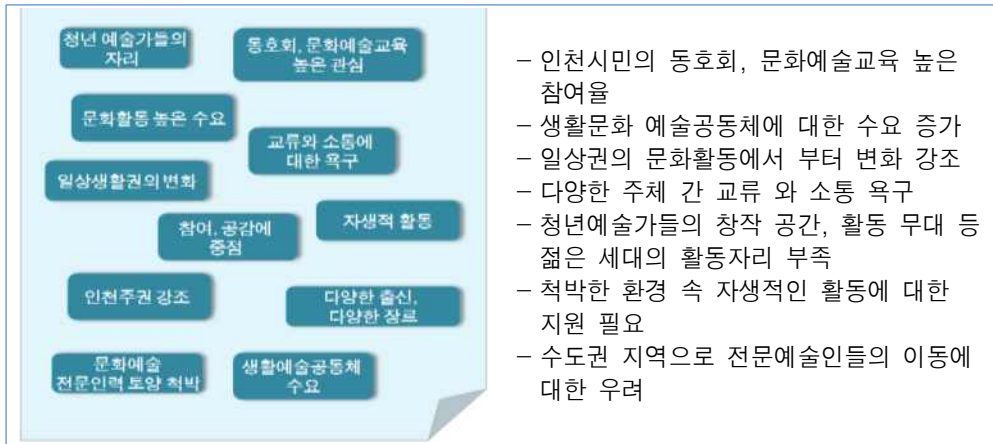
[그림 37] 언론 키워드 속 인천의 지역문화예술 이슈

- 인천만의 고유한 특성, 가치 발견에 주목
- 생활문화 활성화와 일상권 활동 확대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강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수도권과 인접하여 경제, 문화, 사회적인 직접적 교류
-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심화
- 문화시설 등 하드웨어의 지역적 편차, 소프트웨어 투자 부족
- 관광의 풍부한 여건, 그러나 활용 부족

□ 인천 문화예술주체 관련 측면

- 인천은 시민 중심의 동호회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으며, 생활 예술공동체에 대한 교류와 소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주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반면 인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은 열악한 수준으로, 예술인의 수도권 유출, 특히 청년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및 활동여건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인천지역 전문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그림 38] 언론 키워드 속 인천의 지역문화주체 이슈



1.2. 주요 문화환경 분석

1) 문화주체

□ 문화주체는 인천 문화도시를 추진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인천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요 주체임. 문화주체는 문화예술을 핵심으로 하는 창작인력, 지역 문화 매개인력, 문화향유자이자 인천문화의 생산자인 시민으로 구분하여 관련 주요 현황을 검토함.

□ 인천 예술인 분포 현황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에 의한 지역별 예술인 모집단 분포⁹⁾를 통해 살펴봤을 때, 인천시 예술인은 4,148명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5위 수준임.
 - 활동 분야에 따른 예술인 수는 미술, 문학, 대중음악, 연극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공예,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예술인 수는 적게 나타남.
 - 자세히 살펴보면, 예술인 수가 가장 많은 미술 분야는 특·광역시 대비하여 적은 수준(1,193명, 6위)인 반면 영화(128명) 및 방송(248명) 분야 예술인은 서울 제외 가장 많은 인력이 분포하고 있음.

〈표 15〉 7개 특·광역시 예술인 분포(2015)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
문학	5,832	1,177	584	785	688	445	402	3,931	19,381
미술	10,069	1,809	1,193	2,060	1,850	1,350	834	7,594	39,393
공예	562	121	26	41	51	50	12	308	1,582
사진	289	31	23	44	46	25	155	169	1,200
건축	1,367	186	26	159	52	82	76	246	2,853
음악	2,329	431	149	277	229	212	71	946	5,970
대중음악	6,829	174	538	102	85	125	21	3,121	11,578
국악	1,920	322	341	331	352	71	253	1,002	5,870

9) 지역별 예술인 분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 및 단체 회원으로 구성됨(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무용	2,386	247	285	171	118	129	84	926	6,364
연극	8,167	458	422	486	259	277	150	2,423	15,744
영화	1,965	52	128	23	55	13	4	900	3,548
방송	3,374	33	248	19	17	30	5	1,713	5,840
만화	456	11	25	11	10	6	1	532	1,488
기타	3,772	985	160	563	346	304	131	1,203	10,521
합계	49,317	6,037	4,148	5,072	4,158	3,119	2,199	25,014	131,332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 전국 - 지역 미상 6,266명 포함

- 인천 예술인의 연간 예술활동 횟수는 약 9회(표준편차 13.83)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횟수별로는 3~5회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3.2%), 1~2회(23.7%), 16회 이상(16.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작품 참여 횟수가 0회인 경우도 6.5%에 달함¹⁰⁾.
- 특·광역시 대비 연간 3~5회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미활동 예술인의 수는 가장 적게 나타남. 반면 연간 예술활동 평균 수치는 9.02회로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표 16〉 7개 특·광역시 연간 예술활동 수준(2014)

(단위 : %, 회)

구분	특광역시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0회	11.2	15.7	6.5	14.2	28.6	16.4	12.5	15.0
1~2회	29.6	24.7	23.7	16.2	15.2	22.9	17.7	21.0
3~5회	28.7	23.6	33.2	27.3	19.8	25.9	25.0	26.2
6~10회	14.3	14.3	15.1	19.4	16.1	14.4	22.9	17.9
11~15회	4.3	4.1	4.7	3.2	3.2	4.5	4.2	4.4
16회 이상	10.0	16.2	16.4	18.2	13.8	13.4	17.7	13.9
모름/무응답	1.8	1.4	0.4	1.6	3.2	2.5	0.0	1.5
평균	7.07	10.72	9.02	9.79	9.46	7.94	9.16	9.10
표준편차	12.62	19.84	13.83	13.76	18.66	13.57	12.58	1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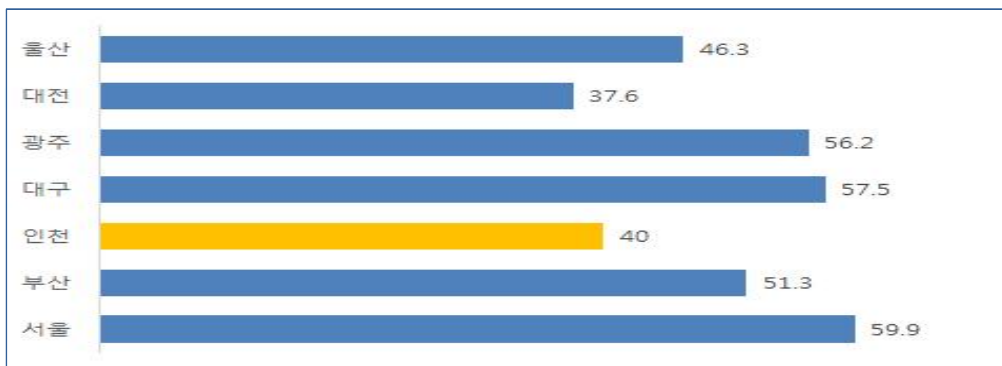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10) 이후 자료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인 자료는 2015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의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며, 원 보고서와 결측치 처리방식의 차이 및 가중치 부여 방식에 차이가 있음. 또한 지난 1년간(2014년) 활동에 대한 보고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임.

□ 인천 예술인 복지 현황

- 인천지역 예술가들의 약 40%만이 전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어 특·광역시 대비 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인천 예술인들이 예술에 전념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예술활동 외 다른 생업과 연계한 겸업 예술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39] 7개 특·광역시 전업 예술인 현황(2015)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 인천 예술인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연간 수입 평균은 약 1천 8백만 원 수준으로 특·광역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나, 지역별 예술인 수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므로 평균 수입에 따른 비교는 객관성을 갖기 어려움.
- 인천시 거주 예술가들의 약 85%는 예술활동으로 인한 연간 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이며, 수입이 없는 경우도 약 30%에 달하고 있어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만으로 경제기반과 창작활동을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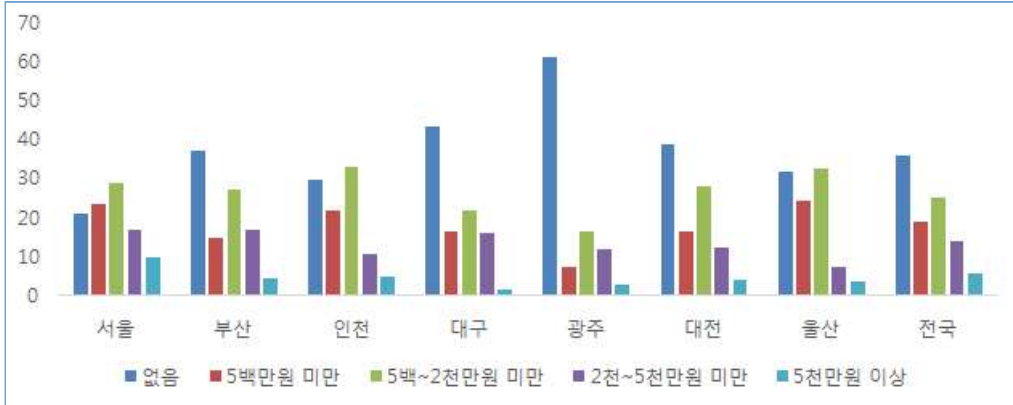
<표 17> 7개 특·광역시 연간 예술활동 수입 수준(2014)

(단위 : %)

구분	특광역시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없음	21.0	37.1	29.9	43.6	61.2	38.8	32.0	36.1
5백만 원 미만	23.5	14.8	21.7	16.7	7.4	16.5	24.2	18.9
5백~2천만 원 미만	28.8	27.1	32.9	22.1	16.6	28.3	32.5	25.1
2천~5천만 원 미만	16.9	16.8	10.5	16.2	11.8	12.5	7.5	14.1
5천만 원 이상	9.8	4.4	5.0	1.6	3.0	3.9	3.7	5.7
평균(만원)	1819.1	1016.9	1871.9	809.3	1002.1	939.7	842.7	1254.6
표준편차	4868.6	1549.6	7208.8	1320.1	4384.9	1515.9	1411.5	3606.9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그림 40] 7개 특·광역시 예술인 수입 현황(2014)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 인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주 수입원은 출연료가 가장 높은 비중(31.8%)을 차지하며, 특·광역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영화 및 방송 관련 예술인들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많은 것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판단됨. 반면 급여에 의한 수입은 최하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겸업 예술인의 비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겸업 예술인들의 급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8〉 7개 특·광역시 예술활동 주 수입원 (2014)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원고료	9.5	8.7	5.8	5.2	1.8	6.3	7.9	7.3
출연료	20.5	21.4	31.8	29.6	15.5	29.9	20.4	23.2
작품판매료	15.7	13.1	17.8	5.4	10.7	17.1	12.6	15.2
저작권 수입	4.8	2.5	1.1	0.0	0.5	0.8	1.8	2.5
급여	19.2	14.5	9.7	14.5	9.8	5.9	23.7	15.2
기타	11.1	5.3	4.5	2.7	0.5	2.3	4.6	5.5
없음	19.5	35.0	29.2	42.9	61.1	37.8	30.1	34.5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 인천시 예술인들의 63.3%는 창작, 연습, 집필 등을 위한 자택 외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개인 창작공간이 없는 비율이 특·광역시중 1위로 전국 대비 17.6% 높은 수치인데, 인천 예술인의 개인 창작공간 보유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표 19〉 7개 특·광역시 개인 창작공간 보유 여부(2014)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보유	집 안(별도 공간)	22.5	16.9	6.7	17.3	17.9	26.6	23.7	19.4
	집 밖(별도 공간)	31.9	35.0	30.0	39.3	45.7	43.1	37.5	34.9
미보유		45.6	48.0	63.3	43.4	36.5	30.2	38.8	45.7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에도 29.7%만 자가 형태의 창작공간을 소유하고 있어 특·광역시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무상임대 형태의 창작공간 보유도 5.3%로 낮게 나타남. 특히 월세 형태의 창작공간 보유가 서울에 이은 2위 수준(41.6%), 전국 대비 7% 높게 나타나 인천 예술인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0〉 7개 특·광역시 개인 창작공간 소유 형태 (2014)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자가	31.4	39.4	29.7	42.0	44.8	43.5	40.7	40.7
전세	15.7	12.9	23.3	15.9	18.9	14.6	9.0	17.1
월세	48.1	34.7	41.6	35.7	19.7	37.4	37.6	34.6
무상임대	4.9	12.9*	5.3	6.4	16.6	4.6	12.7	7.6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 인천 예술인은 공적 연금 미가입자의 비율이 45.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광역시중 울산에 2위 수준임.

〈표 21〉 7개 특·광역시 공적연금 가입 형태(2014년말 기준)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국민연금(직장)	24.8	29.3	19.1	20.2	23.7	20.7	19.7	21.7
국민연금(지역)	23.9	220.1	26.2	22.3	20.8	30.7	19.9	22.3
기타연금	5.4	4.4	1.2	5.6	2.9	7.9	12.9	6.4
납부예외자	3.9	1.3	2.3	6.9	9.4	2.3	0.0	3.5
적용제외자	1.4	0.8	5.8	2.4	9.7	2.7	0.0	2.8
미가입자	40.7	44.2	45.5	42.6	33.5	35.5	47.5	43.2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 기타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별정 우체국 연금), 사학연금

- 인천 예술인의 지원금 수혜 경험은 20.1%로 서울, 부산에 이은 3위 수준임. 지원 기관은 공공기관(52.6%), 중앙정부 및 지자체(45.7%), 개인(13.8%) 기업(2.4%)의 순으로 나타나 타 지자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다만 기업으로부터의 지원금 수혜 경험이 2.4%로 낮게 나타나 기업의 예술인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및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2〉 7개 특·광역시 예술인 지원금 수혜 경험(2014)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경험 여부	있음	24.7	21.9	20.1	11.6	10.1	13.7	35.1	19.0
	없음	75.3	78.1	79.9	88.4	89.9	86.3	64.9	81.0
지원 기관	중앙/지자체	24.0	32.9	45.7	41.1	17.5	33.2	57.1	36.2
	공공기관	71.2	61.9	52.6	48.8	82.5	66.4	33.6	61.3
	기업	9.2	4.7	2.4	0.0	0.0	6.8	17.2	7.1
	개인	19.6	14.1	13.8	13.4	0.0	13.4	14.9	13.4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 지원기관별 수치는 수혜경험 있는 인원 대비 비율임

* 공공기관: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 인천 예술인의 지원금 수혜 미경험 이유는 지원정책 미인지(38.3%), 지원 불필요(20.4%), 지원 탈락(17.0%), 지원정책 실효성 의문(15.8%)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임.

〈표 23〉 7개 특·광역시 예술인 지원금 수혜 미경험 이유(2015)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지원정책 미인지	41.2	19.6	38.3	47.2	53.4	52.9	50.7	43.0
지원정책 실효성 없음	9.1	11.6	15.8	37.9	20.9	15.8	11.0	17.6
지원 불필요	18.7	27.3	20.4	9.0	9.1	17.4	16.1	18.4
지원 신청했으나 탈락	24.9	40.9	17.0	4.3	8.2	12.0	14.8	16.7
기타	6.2	0.6	8.5	1.7	8.5	2.0	7.4	4.2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2016)

□ 인천시 청년 문화예술인력

- 현재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0~40세 예술인 즉, 청년 문화예술인력은 다음과 같이 2,913명으로 집계되며 청년예술가가 258명, 예술단체 및 예술가가 155명으로 집계됨. 매년 관련 학과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은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

〈표 24〉 인천시 청년예술가 및 단체, 관련학과 대학생 현황

(단위: 명)

계	청년예술가	청년예술단체 예술가	관련학과 대학생
2,913	258	155	2,500

출처: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계획(2017)

* 문화예술 관련학과: 인하대·인천대 등 7개 대학 19개(음악대학 없음)

□ 인천 문화매개인력 현황

- 일반적으로 문화매개인력은 시민과 문화예술을 연결하고, 지역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매개하는 문화촉매자로서 이러한 활동을 전문적/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 정책적으로는 공공문화정책이 국민에게 실현되게 하는 역할 대부분을 칭하고 있음¹¹⁾. 문화매개인력은 지역문화전문인력(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기획자, 지역문화활동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는 문화재단의 전문인력 등과 같이 공공 부문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다양한 문화예술 현장,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부문의 인력이 있음.
- 공공 부문의 문화매개인력 현황은 광역문화재단 인력 현황을 통해 파악되는데, 2014년 13개 시도 문화재단에 고용된 총 인원은 1,031명, 기관 당 평균 79.3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은 47.4%, 계약직은 42.5%, 무기 계약직은 약 9.7%로 집계되었음.
- 각 광역시마다 문화재단의 문화매개인력 관련 정원이 정해져있으나 실제 현장 및 사업의 운영환경에 따라 계약직 및 무기 계약직의 형태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문화매개인력의 경우, 공공기관 외에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수요가 있으며, 지역문화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문화매개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11) 김규원(2014), 『지역문화 매개인력 현황조사』, p.8

실제 문화현장 배치가 중요한 사안임.

- 인천의 경우, 현재 공공-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매개인력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임. 향후 인천 내 문화매개인력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인 양성을 비롯해서 수요가 있는 문화현장과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표 25〉 광역문화재단 인력고용 형태 및 현황

(단위: 명)

구분	정규직		무기 및 계약직		총 현원	현원의 고용형태				비고
	정원	현원	정수	현수		정규 직	계약 직	무기 계약 직	기 타	
강원문화재단	64	34		10	44	34	10			①+②=33
경기문화재단	191	168		186	354	157	197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3	18	2	13	31	18	13			
광주문화재단	58	58	26	23	81	57	12	12		
대구문화재단	17	13	8	21	34	11	18	5		①+④=10
대전문화재단	41	40	11	11	51	38	13			
부산문화재단	25	24	15	30	54	23	23	8		①+④=23
서울문화재단	98	71	47	141	212	70	100	42		
인천문화재단	40	34	45	46	80	33	24	23		
전남문화예술재단	21	20		10	30	19	5	5	1	①+②=9
제주문화예술재단	18	14	11	10	24	12	9	2	1	
충남문화재단	21	7	7	4	11	7	4			①+④=6
충북문화재단	12	12	3	13	25	10	10	3	2	①+④=10
소계	629	513	175	518	1,031	489	438	100	4	1,031

출처: 김규원(2014)의 자료 재인용

□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예술교육사 현황

-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예술교육사는 크게는 문화매개인력에 속하겠지만 현재는 별도의 문화인력군으로 분류되고 있음. 인천의 경우, 타 특·광역시 대비 문화관광해설사의 인력 수가 많은 반면 문화예술교육사의 경우, 평균인력 수가 다소 낮은 편으로 파악됨.

-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예술교육사는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 매개인력으로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 지역별 균형적인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표 26〉 특·광역시 대비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평균 규모(2014)

(단위: 명)

구분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예술교육사
서울	2.72	21.40
부산	4.44	5.06
대구	0.38	11.75
인천	7.30	9.70
광주	3.00	38.00
대전	0	11.40
울산	0	6.40

출처: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활동한 인력에 한함)

※ 총계에서 소속된 자치구로 나눈 평균값임.

□ 인천시 문화예술인력 양성기관

- 현재 인천시는 타 특·광역시 대비 문화예술인력 양성기관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 및 전공 수¹²⁾는 7개로 광역시 합계 64개 학과 중 10.9%를 차지하며, 교수는 87명으로 광역시 합계 1,254명 중 6.9%에 해당됨. 7개 특·광역시 중 울산이 가장 낮으며, 인천이 두 번째로 문화예술인력 관련학과, 교수, 입학정원이 낮음.

〈표 27〉 타 광역시 및 인천시 문화예술인력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명)

광역시도	문화예술 관련학과 수	교수 수(전임)	정원(입학)
인천광역시	7	87	899
부산광역시	18	469	3,830
대구광역시	10	188	1,878
광주광역시	12	211	1,510
대전광역시	15	250	2,259
울산광역시	2	49	471
합계	64	1254	10,847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12) 해당 자료는 '2010년 성별 문화인력 통계 DB내용'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문화인력 관련 전공분류를 활용, 2016년 시점에 맞는 학과를 재구성하여 내용을 구성함. 본서의 문화예술 교육기관 및 각 정원수와 교수 수는 교육통계서비스의 통계결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한 것임.

□ 인천시 문화매개인력 양성 관련 학과 현황

- 인천은 문화매개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대학원, 문화예술교육원 등 총 5개의 기관에서 관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각 학과는 인문학과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장실무의 균형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8〉 인천 문화매개인력 양성 관련 기관 및 학과

구분	학과/과정	개설일	목적	교육과정
인하대 문화대학	문화 콘텐츠	2006년 1학기	창작 및 생산, 문화비평 능력 함양, 문화기획·콘텐츠 경영 에 중점을 둔 인재 양성	4개 영역(스토리창작, 문화콘텐츠이론, 문화콘텐츠 응용 등) 58개 교과과정
	문화경영	2012년	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 실 용적 영역에서 필요한 통찰력, 분석력, 표현력, 비판력, 응용 력을 갖춘 창의적 통섭지식인 의 양성	5개 영역(문화마케팅, 문화브랜딩, 문 화연구, 지역문화경영, 계열교양) 59개 교육과정
인하대 대학원	문화경영 융합과정	2006년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운영할 문화경영 전문인 력과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	5개 영역으로 창작, 제작, 마케팅 영역 의 전공기초와 문화정책, 문화산업 영 역의 전공심화 과정 구성 석사과정: 23개 교과과정 박사과정: 34개 교과과정
인천대 문화 대학원	지역문화 기획학과	2013년 1학기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지역밀 착형 문화기획과 현장 실무를 교육하며 창의력과 현장경험 을 갖춘 실무형 인재육성	학기 중 문화대학원 전문가 초청 특강, 문화기획 현장실습 행사, 문화산업특강 현장방문 등 현장과의 밀착력이 돋보이 는 과정이 다수 배치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 대학	회화/ 환경조각/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2008년 대학 승격	이론과 실기, 아날로그와 디지 털을 통합하는 디지로그적 현 장중심 교육과 지성적이고 모 범적인 인재 양성	1997년 전통종교미술학과 신설 이후 현재 조형예술대학의 회화, 환경조각,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문화예술콘텐 츠학과와 총 5개 학과로 구성되며 스테 인드클래스 등 종교예술에 특화. 학부 에서의 기본기 강화과정 이후 대학원에 서 종교미술 특화·심화교육과정 운영
	문화예술콘 텐츠	2011년		
인하대 문화 예술 교육원	직무역량/ 예술 전문성	2013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연극, 디자인, 미술,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분야로 나누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직무역량(정규과정 1/2학기) 예술전문성(예술, 전문성 1/2학기)로 교과 영역 구분

출처: 손동혁(2015)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

- 전국적으로 문화매개인력 양성사업은 지역별 문화지형도에 따른 필요인력의 체계적 발굴 및 양성, 코칭·멘토링·해외파견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력 양성 단계에 따라 필요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기초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매개인력 양성은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거나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경력단계별로 구분되기 보다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한 지원사업(66.7%)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은 2007년부터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로는 정부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지원사업 형태로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음.

〈표 29〉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현황

연도	사업명	담당 부서	비고	목적	성과 및 한계
2007	문화인턴 지원사업 (특별공모 지원)	예술지원팀	동일 사업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기반시설의 예술행정,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문화예술기획인력 운용 비용 지원 문화예술 행정 및 기획 분야 전문인력의 활용과 양성, 실무훈련 기회의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기반 시설의 기획 전문성 강화, 전문예술활동의 집중 도모	상근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어 단체와 시설에 호응이 매우 높았으나 사업이 지속되면서 동일인/단체 연속 근무, 인력과 단체 간 인재상 및 비전의 차이, 신규인력 고용 대신 기존 인력 대체 등 인력 고용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
2008 ~ 2010	문화예술 기획인력 운영지원 사업	예술지원팀			4년간의 연평균 25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25인의 새로운 문화인력이 지역 문화예술현장에 유입,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문화재단 행정 인턴’을 선발했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기도 이와 일치함. 당시 문화예술기획인력운영 지원사업과 행정인턴, 지역문화비평활성화사업(젊은비평그룹) 등을 통해 활동하던 인력의 상당수가 현재도 인천 문화예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
2012 ~ 2015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과정	문화교육팀			장소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예술교육자와 교육에 관심 있는 예술가, 청년기획자를 대상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기획자 발굴과 기획역량 강화, 인천지역 문화예술교육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질적 제고와 인식 확대

2013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 교육팀	국 비, 시 비 매 칭 사 업	인천문화재단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인 천지역 거점 주관기관으로 선정 사회복지 및 문화기반시설 의 문화복지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와, 기관의 역 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인력과 기관이 함 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년 미만 단기채용과 저임금, 인 력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전문인력의 연속성 미비 배치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하는 한편 지역 문화수요를 맞춤 형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획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활동 한 문화복지 전문인력들의 상당 수가 이 경력을 바탕으로 타 지 역의 문화기관으로 취업하거나, 인천 내의 문화예술분야에서 활 동 중
2014 ~ 2015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획 사업팀			
2014	문화 이모작사업 (경인권)	기획 사업팀	국비 80% 지원	경인권 지역(도시형) 고유의 문화 및 인력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문화콘텐츠의 생산과 확대에 기여	교육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학습모임 지원과 집중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에 현장 실습 기회 및 멘토링 지원을 통해 총 41명의 지역문화예술기획자 발굴

출처: 손동혁(2015)의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 재구성

- 그런데, 인천문화재단이 추진해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인천시의 독립적 예산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됨에 따라 인천 지역문화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음.
- 때문에 각 팀(예술지원팀, 문화교육팀, 기획사업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 양성은 문화인천, 문화예술기획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문화복지 전문인력, 시민문화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은 되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용적 체계와 연속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인천 지역문화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실제 현장 배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약한 편임.
- 향후 인천 내 문화매개인력 실태조사에 근거한 필요 인력군에 대한 체계적 양성과 직무 및 보수기준 규정, 지속적 역량 강화에 필요한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양성된 전문인력의 현장배치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수립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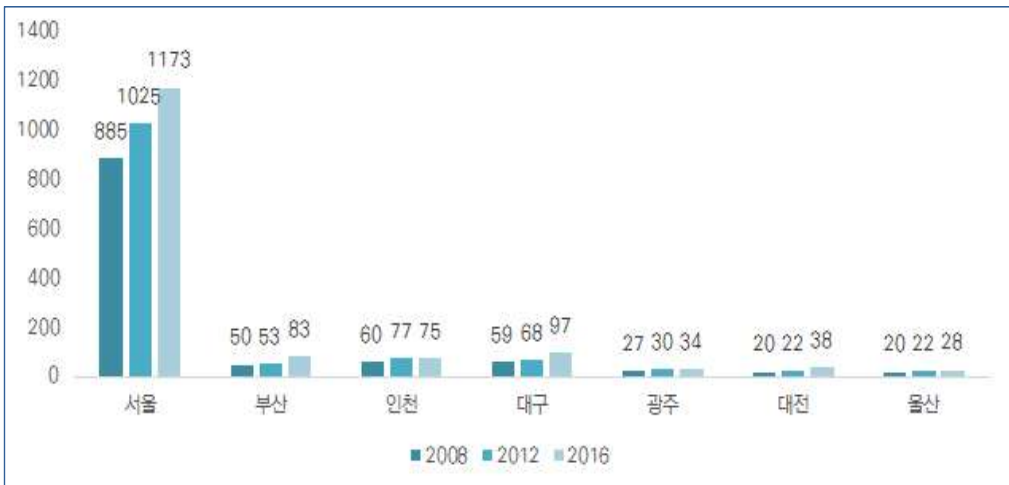
2) 문화활동

- 문화활동은 인천 도시문화를 표현하는 콘텐츠이자 프로그램으로서 문화적 목적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가는 제반의 활동임. 문화활동은 인천의 역사문화를 근간으로 해서 예술창작, 문화예술교육, 각종 문화행사/축제, 시민들의 동아리 및 공동체 활동이 포함된 생활문화 영역 등을 검토함.
- 특히 역사문화유적 관련 영역을 문화활동에서 검토하는 이유는 문화유산자원을 보존과 관람이라는 시각을 넘어 인천 문화가치의 중요한 콘텐츠이자 주체적 활동으로서 접근하기 위해서임.

□ 인천 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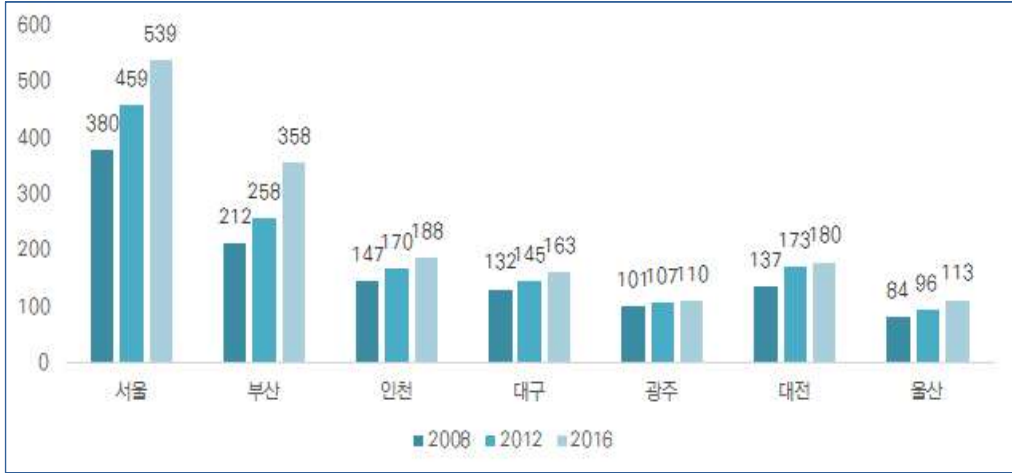
- 인천의 국가지정 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는 2008년 60개, 2012년 77개, 2016년 75개로 타 광역시 대비 국가지정문화재 비율이 중간 정도 수준임. 시 지정 문화재(문화재자료 포함)는 2008년 147개, 2012년 170개, 2016년 18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에 이은 3위 수준으로 나타나 인천지역 문화재는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문화재 관리 현황, 각 연도; 인천시 내부자료, 2017).

[그림 41] 특·광역시 국가지정문화재 추세(2008~2016)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관리현황(각년도 자료), 인천시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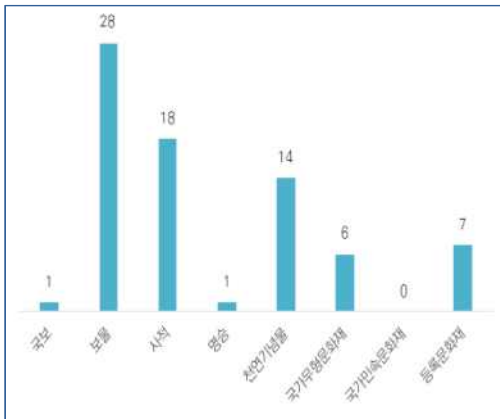
[그림 42] 특·광역시 시지정문화재 추세(2008~2016)



출처: 문화재청 문화재관리현황(각년도 자료), 인천시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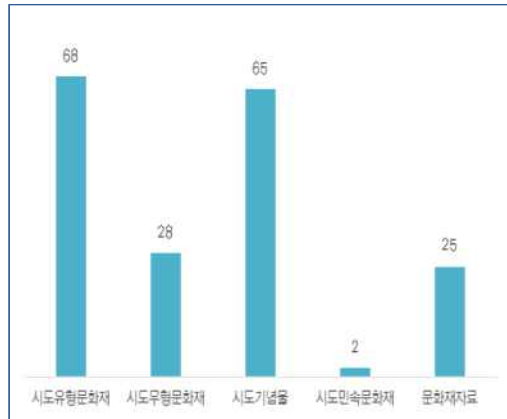
- 2017년 2월 기준, 인천 내 지정문화재는 총 263개이며 이 중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75개, 문화재자료를 포함한 시지정 문화재는 188개로 집계됨(인천시 내부자료, 2017).

[그림 43] 인천시 국가지정문화재 현황(2017)



출처: 인천시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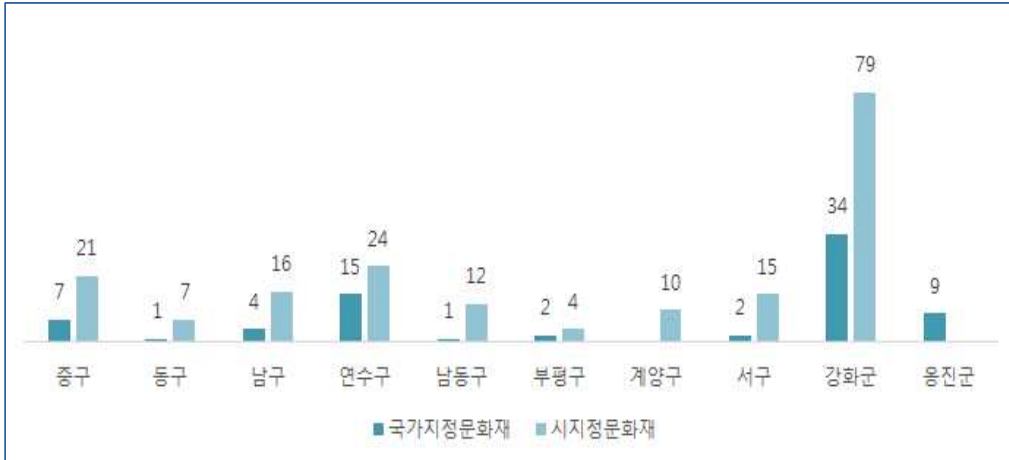
[그림 44] 인천시 시지정문화재 현황(2017)



출처: 인천시 내부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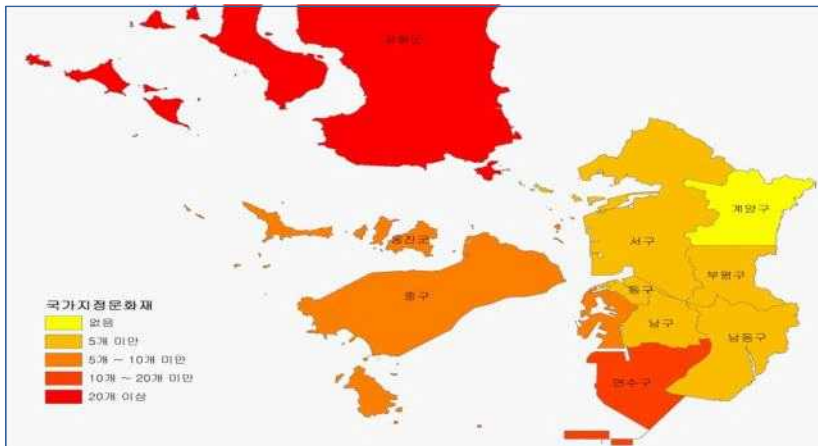
- 국가문화재는 강화군(34개), 연수구(15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문화재 또한 강화군(79개), 연수구(24개), 중구(21개) 위주로 분포하고 있음. 강화군을 제외하고는 전체 구·군에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임(인천시 내부자료, 2017).

[그림 45] 인천시 자치구별 지정문화재 현황(2017)



출처: 인천시 내부자료(2017)

[그림 46] 인천시 자치구별 국가지정문화재 분포현황도(2017)



- 인천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근대역사문화자원 외에도 한국 최초 상징성을 지닌 역사문화자산(음악, 야구, 기록문화유산 등) 등 지역적으로 유구하고 다양한 역사자원이 분포하고 있음. 특히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문화자원(강화군 등)과 개항장 문화권(중구, 동구 배다리 지역 등)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인천시는 강화도에 남아있는 고려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강도(江都)의 꿈’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음.
 - 사업 목적: 고려궁지 및 팔만대장경 판당의 발굴재건 등을 통해 고도 고려

강화도성(江都)의 모습을 실현함으로써 고려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인천의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함.

- 사업 주체: 인천시 주관 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강화군,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외교부, 국회, 민간단체, 북측 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
- 비전: 문화재 가치창조를 통한 고품격 역사문화도시 인천
- 강도(江都)의 꿈 실현을 목표로 5대 분야, 21개 프로젝트로 구성됨.

〈표 30〉 강도의 꿈 세부 프로젝트

(단위: 백만원)

분야	프로젝트	기간	예산
고려궁궐 재건활용	고려강도 전시관 조성	단기	6,000
	고려궁지 정궁 발굴 및 재건	장기	(미정)
	고려역사문화단지 조성	장기	(미정)
고려 기록유산 활용	팔만대장경 판당을 찾기 위한 학술조사	단기	70
	평화대장경 간경	장기	45,000
	고려 “상정고금예문을 찾아라” 다큐멘터리 제작	단기	120
	강화 세계기록유산 자료관 운영	장기	2,500
강화 역사건조물 활용	지붕없는 국립강화박물관 설립·운영	장기	비예산
	근대건축물 활용가치 도모	단기	비예산
	송암 박두성 생가 복원	장기	1,300
강화역사유적 가치창조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장기	589('17)
	중요문화재 「국보」 승격 추진	단기	비예산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사업	강화 고려궁지 범위 조사	단기	500
	강화 고려왕릉 및 고분 종합 학술조사	단기	1,500
	강화 - 개설 유물 교류전	단기	1,000
	강화 - 개성 고려왕릉 사진전	단기	150
	UN 주최 남북 학생 강화·개성 교차 수학여행	단기	300
	강도시기 불교문화유산 종합 조사연구	장기	2,000
	강화와 개성 간 자매결연 추진	장기	비예산
	“아시아 속의 고려, 고려 속의 인천” 국제학술회의	단기	60
통일고려와 강화 - 개성의 연계 전략 남북학술회의	단기	150	

출처: 강화역사문화센터 내부자료

- 한 도시의 역사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는 내적으로는 체계적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재 보존 매뉴얼과 지속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 관리체계를 통한 내실 있는 보존을 넘어 외연적으로 타 광역시 대비 인천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인천 문화가치를 확산하는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또한 각 자치구별로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다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근대문화유산/산업유산

- 인천은 역동적인 도시형성 역사를 통해 다양한 근대문화유산과 산업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역사유적인 문화재 외에도 근대 역사를 통해 형성된 근대문화유산 및 산업유산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십여년 사이 중요한 지역문화자원으로 인지하고 지역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음.
- 근대문화유산 관련하여 기관과 학자에 따라 정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문화재청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개화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건축물, 기념물, 구조물 등 우리의 삶과 함께 했던 근현대 시기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31〉 근대문화유산/ 산업유산의 정의

구분	내 용	출처
산업기념물 (industrial monument)	건물이나 고정된 구조물을 말하며 특히 산업혁명기간에 조성된 것을 말한다. 개별 또는 초기의 공장이나 기계장치와 연계되어 존재하며, 산업의 시작과 발전, 기술의 과정을 잘 알려주며, 통신수단도 포함	IAMMW (1959)
산업유산 (Industrial Heritage)	산업유산은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건축적 또는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는 문화산업유적으로 구성되며, 이 같은 유적은 건물과 기계, 작업장, 제분소, 공장, 광산 제련소, 상점, 그리고 에너지 발전과 송전, 이용 및 수송에 관련된 장소 또는 이에 관한 모든 기반시설, 아울러 주거, 종교, 교육 등에 관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장소들로 구성됨	TICCIH (2003)
	사회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산업의 총체적인 것	스페인문화유산기구(2008)
근대화유산	에도막부 말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건설되어 일본의 근대화에 공헌한 산업·교통·토목과 관련되는 건조물	일본, 문화청 (1990)
근대화 산업유산	에도막부 말기, 메이지부터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공장, 탄광 등의 산업 건조물, 제조품, 제조기와 교육 매뉴얼 등 일본 산업 근대화에 공헌한 유산	일본, 경제산업성 (2007)
근대문화유산	개화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건축물, 기념물, 구조물 등 우리의 삶과 함께 했던 근·현대 시기의 문화적 소산	한국, 문화재청 (2001)

출처: 박재민·성종상(2011)의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자 재구성

- 인천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근대시기 문화유산과 산업유산이 분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정지원·최종화, 2016).

〈표 32〉 근대시기 지역 특화산업별 주요 산업유산 목록

구분	주요 산업유산
농업	인천미두취인소, 재미전거리터, 수인곡물시장,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곡물검사소, 야마토노동조합 등
어업	만석부두, 북성포구, 화수부두, 남동구 간수저장 시설, 중구 늘목염전, 동양염전, 소래염전, 중구 운남동 염전 및 염부속소, 부평 천일시험염전터(표시석), 한들방죽, 부평 함봉산 새우젓굴 등
정미업	인천정미소, 타운센트 정미소, 고려정미소, 주명기정미소, 김태훈정미소 등
양조업	대동양조조합터, 강화 양조장, 금품양조장, 아사히양조회사 등
방직업	조양직물 건물, 심도직물 터, 이화직물, 동양방직 기업체와 사택 등
금융업	일본계 은행(인천일본18은행지점, 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인천일본58은행인천지점 등), 대한천일은행(조선상업은행)등
기타 식음료업	조선인촌주식회사(성냥공장), 인천탄산수제조소(스타사이다), 신흥동크라온 소세지공장, 애경사 터 공장건물 등
기계, 금속, 화학 등 중공업	조선피혁주식회사/왕자제지/소아전시멘트회사 등 기업, 삼천리자전거/동양전선 등 기업체와 사택, 부평 미쓰비시 사택군, 한국유리 만석동 공장, 부평 폐광산 등
군수산업	일본고주파중공업, 인천조폐창, 조선기계제작소, 조선목재공업 등
소매 및 서비스업	화교마을, 조선인마을, 공화춘, 풍미반점, 평양홀 건물, 표관터, 협률사터, 옛 무라타니 선구점, 신광인쇄, 일본우선주식회사, 강화예식장, 삼우인쇄소, 송월(가축)시장 등
기반시설	개항장, 경인철도(인천역, 인천기관차사무소 주차소 등), 인천항(인천항갑문 등), 월미도 조탕터, 팔미도 등대, 소월미도 등대터, 수인선(소래철교, 송도역사, 용현역 터 등), 송도유원지, 축항선, 구 인천세관 창고와 부속동, 인천관측소, 인천전기발전지, 경인고속도로, 한국수출산업공단 등

출처: 정지원·최종화(2016)

- 인천시는 이미 인천아트플랫폼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콘텐츠화 전략에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시설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도시임.
- 이러한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산업유산 관련 지역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여행정보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 산업관광(근대산업유산)소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다만, 4개 시설 모두 중구 개항장 주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산업유산 시설의 활용 확산이 필요한 시점임.

〈표 33〉 주요 산업관광(근대 산업유산)지

시설	산업 유산	운영주체	위치
인천 아트플랫폼	舊일본우선주식회사(등록문화재 제248호)를 비롯 근대 개항기 건물 과 1930~40년대 건설 건축물 리모델링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짜장면 박물관	공화춘 (共和春, 등록문화재 제246호)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6-14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舊일본제18은행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77
인천개항박물관	舊일본제1은행 인천지점 (조선은행 인천지점)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 중구 신포로 23번길 89

출처: 대한민국구석구석 여행정보 홈페이지, 각 시설 홈페이지

□ 장르별 예술활동 현황

- 2015년 인천시에서 개최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분야의 문화예술행사는 총 1,084회로 이는 광역시 대비 중간 이하 수준으로 장르별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각 장르별 예술활동은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공연예술행사의 경우 시각예술 전시의 2배 정도 개최되어 인천시 예술활동 중 공연예술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시각예술행사는 인천시 문화예술활동에서 약 32.4%를 차지하고 있고, 2012년 대비 2015년 약 89.7%의 높은 증감률을 보임.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건수는 12.2회로 특·광역시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표 34〉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2015)

(단위: 회)

구분	시각 예술	공연예술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서울	5,516	502	3,821	1,635	537	454	6,949	12,465
부산	851	100	827	509	118	65	1,619	2,470
대구	788	66	706	281	50	33	1,136	1,924
인천	351	57	313	269	62	32	733	1,084

광주	559	51	274	220	22	42	609	1,168
대전	338	41	347	196	38	31	653	991
울산	355	33	262	183	36	18	532	887
세종	21	4	18	9	1	1	33	54
경기	1,464	127	1,236	728	111	149	2,351	3,815
강원	454	112	301	206	44	34	697	1,151
충북	352	47	96	106	17	13	279	631
충남	173	48	242	206	21	42	559	732
전북	508	125	429	198	97	65	914	1,422
전남	260	53	217	189	32	48	539	799
경북	380	73	260	236	41	31	641	1,021
경남	554	82	601	448	74	42	1,247	1,801
제주	283	26	240	102	29	8	405	688
계	13,207	1,547	10,190	5,721	1,330	1,108	19,896	33,103

출처 : 문예연감 2016(2017)

- 공연예술행사 중 국악 장르의 경우, 인천시 문화예술활동의 약 5.3%로 매우 적은 비중인데 2012년 대비 2015년 약 96.6%의 높은 증감률을 보임.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건수는 2회로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함.
- 공연예술행사 중 양악 장르의 경우, 인천시 문화예술활동의 약 28.9%를 차지하며, 2012년 대비 2015년 약 347.1%의 매우 높은 증감률을 보임.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건수는 10.8회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공연예술행사 중 연극 장르의 경우, 인천시 문화예술활동의 약 24.8%를 차지하며, 2012년 대비 2015년 약 85.5%의 매우 높은 증감률을 보임.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건수는 9.3회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임.
- 공연예술행사 중 무용 장르의 경우, 인천시 문화예술활동의 약 5.7%를 차지하여 국악 장르와 마찬가지로 비중이 낮은 편임. 2012년 대비 2015년 약 158.3%로 높은 증감률을 보임.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건수는 2.1회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음.
- 종합하면, 인천시 문화예술활동은 2012년 대비 2015년 모든 장르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타 광역시 대비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건수는 전국평균 대비 대체적으로 낮은 양상을 보임. 또한 인천 문화예술활동이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타 특·광역시 대비 상대적으로 활동성은 아직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음.

〈표 35〉 인천 문화예술행사 변동 추이

(단위: 회, %)

구분	시각예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문화예술행사 비율	32.4%	5.3%	28.9%	24.8%	5.7%
2015	351	57	313	269	62
2012	185	29	70	145	24
증감율	89.7%	96.6%	347.1%	85.5%	158.3%
증감	166	28	243	124	38

출처 : 문예연감 2016(2017), 문예연감 2013(2013)

〈표 36〉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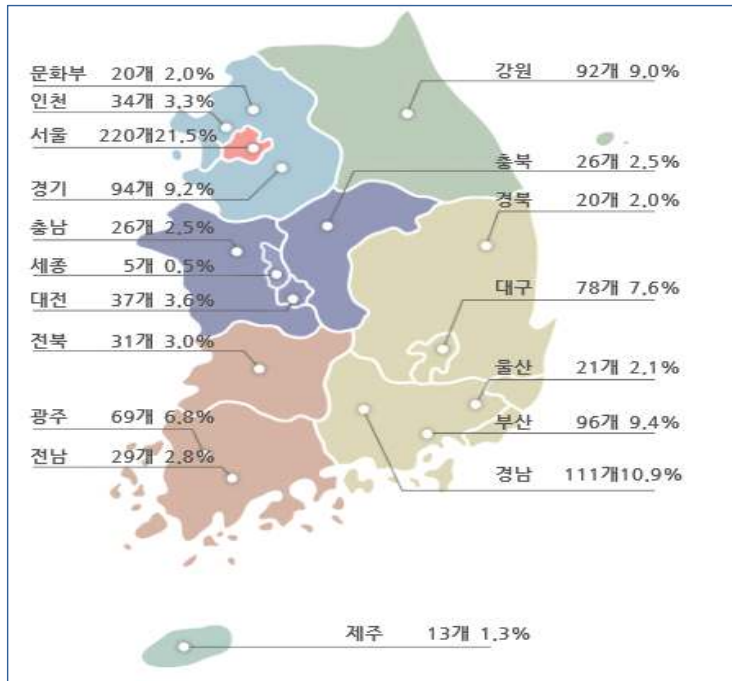
지역(인구 수)	시각예술	공연예술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서울(9,860)	55.9	5.1	38.8	16.6	5.4	4.6	70.5	126.4
부산(3,400)	25.0	2.9	24.3	15.0	3.5	1.9	47.6	72.6
대구(2,455)	31.5	2.7	28.8	11.4	2.0	1.3	46.3	77.8
인천(2,886)	12.2	2.0	10.8	9.3	2.1	1.1	25.4	37.6
광주(1,517)	36.8	3.4	18.1	14.5	1.5	2.8	40.1	76.9
대전(1,536)	23.0	2.7	22.6	12.8	2.5	2.0	42.5	65.5
울산(1,142)	31.1	2.9	22.9	16.0	3.2	1.6	46.6	77.7
세종(197)	10.7	2.0	9.1	4.6	0.5	0.5	16.8	27.5
경기(12,398)	11.8	1.0	10.0	5.9	0.9	1.2	19.0	30.8
강원(1,506)	30.1	7.4	20.0	13.7	2.9	2.3	46.3	76.4
충북(1,561)	22.0	3.0	6.1	6.8	1.1	0.8	17.9	39.9
충남(2,089)	8.7	2.3	11.6	9.9	1.0	2.0	26.8	35.5
전북(1,798)	28.3	7.0	23.9	11.0	5.4	3.6	50.8	79.1
전남(1,757)	14.7	3.0	12.4	10.8	1.8	2.7	30.7	45.4
경북(2,642)	14.4	2.8	9.8	8.8	1.5	1.1	24.1	38.5
경남(3,285)	16.9	2.5	18.3	13.7	2.3	1.3	38.1	55.0
제주(587)	48.2	4.4	40.9	17.4	4.9	1.4	69.0	117.2
전체 평균	26.1	3.1	20.1	11.3	2.6	2.2	39.3	65.4

출처 : 문예연감 2016(2017)

□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는 예술활동이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도시의 문화예술활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현황 지표 중 하나임.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인천 사회구조 안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¹³⁾.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의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 현황을 살펴봄.
- 인천의 전문예술법인 단체는 2017년 기준 34개로 전국대비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 220개(21.5%), 부산 96개(9.4%), 광주 69개(6.8%)로 상대적으로 타 특·광역시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님.

[그림 47] 전국 전문예술법인 단체 현황



출처: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

- 인천 내 비영리 문화예술법인은 총 173개 이며, 이중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86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3) 예술경영지원센터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 (2017. 2월기준).

〈표 37〉 인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 수

단위(개)				
계	문화예술	종교	문화재	영화·영상
173	86	57	29	1

출처: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계획(2017)

- 2008년 이후 공연예술단체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서울이 대폭 상승세를 보이거나 다른 광역시들은 대략적으로 감소 후 회복국면에 있음. 인천시 또한 2008년 이후 공연단체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5년 기준 광역시 평균 공연예술단체 수가 86개인 것에 비해 인천의 공연예술단체 수는 65개로 평균에 미치지 않는 규모임.(각년도 공연예술실태조사).

〈표 38〉 특·광역시 공연예술단체 규모 추이(2008~2015)

(단위: 개)				
지역	2008	2010	2012	2015
서울	903	985	944	1,016
부산	163	156	153	156
인천	84	66	68	65
대구	108	80	88	102
광주	67	67	67	77
대전	88	65	59	73
울산	42	33	33	41
평균(광역시)	92	78	78	86

출처: 각년도 공연예술실태조사

- 2015년 기준 공연예술단체 재정자립도의 전국 평균은 3.6%로 나타남. 인천시 공연예술단체의 재정자립도는 0.4%로 7개 특·광역시 대비 최하 수준으로 재정운영 수준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9〉 공연단체 재정자립도(2015)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단체 수	1,016	156	65	102	77	73	41	308
재정자립도	7.9	3.4	0.4	1.6	3.0	1.1	1.2	3.6

출처: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2016)

- 전반적으로 인천의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는 타 특·광역시 대비 규모 면에서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재정 운영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인천시 시립예술단 현황

- 국제사회에서 문화도시로 알려진 수많은 도시에는 국제적 수준의 명성을 가진 시립예술단(버밍엄 시립교향악단, 베를린 시립교향악단, 시카고 시립교향악단 등)이 존재함. 문화도시로서의 예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위 중 하나인 시립예술단은 예술적인 권위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방식에서도 문화적인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국제적 명성을 확대해가고 있음.
- 2017년 현재 인천 시립예술단은 4개 예술단 및 기획홍보마케팅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4명의 상임인원이 재직 중임.
- 1966년 설립된 교향악단은 2015년 8월 지휘자 정치용이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로 부임하였으며, 설립 이후 총 350여회의 정기연주회와 3천여 회의 기획연주회, 다양한 해외연주를 통해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음악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
- 1981년 창단된 합창단은 2015년 8월 지휘자 김종현이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였으며, 2015년 61건/61회의 공연 38,947명의 인원이 공연을 관람하였음. 2017년 3월 154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인천을 대표하는 대중가요를 공연하였으며, 연 5회의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기획공연 및 많은 초청공연을 통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이어나가고 있음.
- 1981년 창단된 무용단은 연 3회의 정기공연 및 다양한 기획공연과 해외공연 등을 실시하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무용단으로서 관객 친화적 공연 개발과 댄스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예술에 공헌하고자 함. 다만, 현재 예술감독은 공석이며 홈페이지에서 최근 공연 실적 확인이 불가능하여 관리가 필요함.
- 1990년 창단된 극단은 공립극단으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창단되었으며, 인천 연극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표 40〉 인천 시립예술단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기획홍보
인원	234(상임)	99	59	44	27	5
창단		1966.6	1981.4	1981.4	1990.7	2012.11

자료: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2017)

* 남 85명(36%), 여 149명(64%)

인천시립극단이 제 72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일본 현대 연극의 거장 히라타 오리자의 원작을 각색한 ‘인천노트’ 를 오는 20~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인천노트’ 는 1990년대 일본 연극계에 ‘조용한 연극’ 붐을 일으킨 ‘도쿄노트’ 가 원작으로,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인천 송도의 한 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의 대화를 무대위로 옮긴 작품이다. (중략)
 예술감독이 공석이어서 이번 작품의 연출은 극단 동의 강량원 연출이 맡았다.
 -경인일보(2016.08.16.). 미술관 온 관람객들의 소소한 대화 ‘인천노트’ -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따르면 소년소녀합창단(6명), 국악단(52명) 설립 근거가 있으나,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지는 않음.
- 인천 시립예술단의 2017년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 예산은 1,344백만 원이며, 총 237회 179건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음.
 - 2016년 운영계획은 1,162백만 원 예산으로, 4개 예술단 총 254회 218건의 공연이 계획된 바 있음(2016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 가장 많은 공연이 계획된 ‘찾아가는 공연’은 문화예술공연을 쉽게 접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시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 수준 높은 연주와 공연을 펼치는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4개 예술단 모두 참여하고 있음(2016년도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안내문).

〈표 41〉 2017 시립예술단 공연계획

(단위: 건/회)

구분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	기타공연	계
교향악단	9/9	11/11	22/22	8/8	50/50
합창단	5/5	9/11	30/30	11/11	55/57
무용단	1/2	6/24	25/25	10/10	42/61
극단	3/33	2/7	25/25	2/4	32/69
합계	18/49	28/53	102/102	31/33	179/237

출처: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2017)

[그림 48] 최근 시립예술단 공연 포스터



□ 문화예술교육

- 인천의 문화예술교육은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인천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예술 장르에 기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초기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국악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탓에 현재까지도 전통(국악) 분야에 편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다음으로 무용과 연극/뮤지컬 분야 강좌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미디어와 연극/뮤지컬 장르 강좌 수는 2013~2015년 3개년 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표 42〉 학교문화예술교육 3개년 강좌 수

(단위: 개)

구분	2015	2014	2013	총합
무용	66	78	52	196
미디어	26	24	12	62
시각예술	23	30	29	82
음악	36	41	27	104
연극/뮤지컬	79	66	42	187
전통(국악)	166	184	185	535
만화/애니메이션	28	33	29	90
복합	8	9	6	23
합계	432	465	382	1,279

출처: 인천문화예술연감(2015), 인천문화재단

- 인천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장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나 2015년 대비 3년 연속 전체 강좌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특히 미디어와 음악, 문학 장르의 강좌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43〉 사회문화예술교육 3개년 강좌 수

(단위: 개)

구분	2015	2014	2013	총합
미디어	12	13	27	52
시각예술	14	25	20	59
음악	15	20	23	58
연극/뮤지컬	20	15	17	52
전통	7	10	6	23
기타	8	3	21	32
문학	5	4	14	23
복합	21	45	27	93
무용	15	19	18	52
합계	117	154	173	444

출처: 인천문화예술연감(2015), 인천문화재단

- 국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이 사회발전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도 2004년 이후 전국 각 지역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확산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음. 최근에는 중앙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외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문화예술교육을 확장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천의 문화예술교육은 도시 인구 규모, 인천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수요 등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단계임.

□ 인천 지역축제

- 2014년 기준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 수는 1,214개이며, 총 예산규모는 2,914억 원, 총 방문객 규모는 1억 3,125만 명 수준임. 이러한 전국 축제지형 속에서 인천시 지역축제 개최 수는 32회로 타 특·광역시 대비 적은 수준이며, 방문객 수 역시 104만 명 수준으로 전국 대비 1% 수준이 되지 않는 실정임.
- 2014년 인천 지역축제는 관 주도형¹⁴⁾ 50.0%, 민간주도형 17.9%, 민관 합동형 28.6% 비중으로 운영되었으며, 타 특·광역시 대비 민간주도 지역축제의 개최 비율이 높게 나타는 특징이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6).¹⁵⁾
- 예산 규모는 약 69억 원 수준으로 타 특·광역시 보다 낮은 규모이며, 전국 대비 2.37% 수준의 예산이 지역축제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의 확대와 효율적 분배가 필요함.

〈표 44〉 7개 특·광역시 지역축제 현황(2014)

(단위: 개, 만 명, %, 억 원)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축제 수	175	56	32	34	15	35	24	1,214

14) 운영 성격은 예산 비중을 기준으로 관의 예산 비중이 100%인 경우 관 주도형, 민간의 예산 비중이 100%인 경우 민간 주도형, 민간과 관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 경우 민간 합동형으로 분류됨.

15) 한국 지역축제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

방문객 수	1,796	862	104	209	394	85	376	13,125	
운영 성격	관 주도	57.1	27.3	50.0	53.1	76.9	50.0	69.6	52.6
	민간주도	3.8	-	17.9	3.1	-	3.8	-	3.3
	민관합동	39.1	72.7	28.6	43.8	23.1	46.2	30.4	43.8
예산 규모	229	245	69	82	110	36	77	2,914	

출처: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2016)

- 2017년 개최 예정인 인천시 지역축제¹⁶⁾는 총 19건이며, 문화예술 9건, 생태 자연 1건, 전통역사 6건, 주민화합 1건, 지역특산물 2건으로 확인됨. 주로 중구(3건), 강화군(5건) 등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이 한정적이고, 옹진군, 계양구 등은 해당되는 축제가 없는 실정임. 또한 축제가 8월부터 10월까지 주로 이뤄지고 있어 축제개최 시기가 다소 집중되어 있음.
- 2017년 인천시 축제의 총 예산은 6,357백만 원인데,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예산 투입이 약 1,200백만 원(국비 400백만 원, 시·도비 800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 중에서 군구의 축제예산 비율이 45.6%(2,898백만 원), 시·도비 30.1% (1,912백만 원), 기타지원금 17.8% (1,132백만 원), 국비 6.5%(415백만 원)으로 자치구별 축제예산 비율이 높은 구조임.

〈표 45〉 2017년 인천시 지역축제 주요 현황

(단위: 회, 백만 원)

구분	축제명	2017년 개최기간	축제소재	축제종류	개최년(횟수)	2017년 예산(안)
본청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8.12~8.14	음악	문화예술	2006년 (12회)	1200
본청	송도세계 문화관광축제	8.25~9.2	맥주, 노래	문화예술	2011년 (7회)	1130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2017.10월중	스토리텔링, 특산물	전통역사	2001년 (16회)	460
부평구	부평풍물대축제	9.22~9.24	풍물	전통역사	1997년 (21회)	380
남구	주안미디어문화축제	9.1~9.30	미디어	문화예술	2004년 (14회)	297
본청	인천음식문화박람회	9.8-9.10	음식	주민화합	2003년	290

16) 문화체육관광부 집계 기준 2017년 지역축제 개최계획(2017)에 의한 것으로, 일정기간(2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를 집계한 자료임.

					(14회)	
강화군	고려산진달래축제	4.15.~4.23. (예정)	진달래	생태자연	2008년 (10회)	290
동구	화도진축제	5월중	화도진지 (인천광역시 기념물제2호)	전통역사	1990년 (28회)	285
본청	도시해변 문화기획전	7월~8월	해변, 섬 등	문화예술	2016년 (1회)	280
연수구	능허대문화축제	9.23.~9.24. (예정)	능허대 (인천시지정 기념물제8호)	전통역사	2004년 (제8회)	280
강화군	삼량성역사문화축제	10.14.~ 10.22.(예정)	삼량성, 전등사	전통역사	2001년 (17회)	232
강화군	개천대축제	10.1.~10.3 (예정)	단군과개천 (開天)	전통역사	2008년 (10회)	230
본청	인천불빛축제	10월	LED 및 전구	문화예술	2015년 (제3회)	200
중구	9.15인천상륙작전 축제	9.15~17	인천상륙작전	문화예술	2015년 (3회)	200
강화군	강화도새우젓축제	10.13~10.1 5	새우젓	지역 특산물	2004년 (12회)	167
강화군	강화고려인삼축제	10.14~10.1 5	인삼	지역 특산물	2013년 (5회)	125
서구	서곶문화예술제 (녹청자축제)	9.16.~9.17.	도자기 및 예술	문화예술	1996년 (22회)	116
중구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	4월중	벚꽃	문화예술	2012년 (6회)	115
중구	연안부두축제	10월중	꽃게	문화예술	2001년 (17회)	80

출처: 문체부 지역축제 개최계획 통계(2017)

- 인천시 축제지원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유망 등급의 문화관광축제로 2016년 해당 축제의 만족도 평균은 5.13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축제 재미(5.52)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4.35) 항목으로 나타남(문화체육관광부, 2017)¹⁷⁾. 해당 축제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지역과의 연계성은 부족한 실정으로, 주 행사에 인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확장하고 개최 시기 동안 인천 시내의 분위기를 동시에 조성하는 등 축제와 지역문화와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7)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축제별 200명 이상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23개 항목의 설문지를 분석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임.

〈표 4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만족도(2016)

세부 항목	2015년	2016년	전체축제 평균
축제 재미	6.00	5.52	5.45
축제 프로그램	5.72	5.42	5.40
축제 먹거리	5.44	5.19	5.15
축제 살거리	4.45	4.62	4.95
축제 사전홍보	5.13	4.79	5.20
축제장 내 안내해설	5.11	4.90	5.17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이해	3.65	4.35	5.32
축제장 시설안전	5.46	5.26	5.31
축제장 접근성 및 주차장	4.73	4.88	4.87
재방문 및 타인방문 유도의사	5.58	5.47	5.47
계(평균)	5.13	5.04	5.23

출처: 201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2017)

-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2016년 기준 자체 축제육성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반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통하여 축제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표 47〉 7개 특·광역시 지역축제 육성제도 현황(2015)

지역	지원사업명	최초 지원연도	지원규모
서울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2001년 이전(추정)	5,500백만원
부산	부산광역시 지정 축제지원	2011년	380백만원
대구	생활문화공동체 우수마을축제 발굴	2015년	200백만원
광주	광주광역시 축제 육성위원회 운영	2010년(12월)	개별 사업별 예산 지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표축제 선정	2013년	100백만원
울산	울산광역시 지역축제 지원	2015년	6,899백만원

출처: 한국 지역축제 실태조사(2016)

- 타 특·광역시에서는 지역축제 육성사업의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서울과 대구의 경우 개별 평가지표를 사용하나 그 외 특·광역시에서는 문체부 평가지표를 사용하며, 축제현장 및 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 위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함.

〈표 48〉 7개 특·광역시 지역축제 지원선정 개요(2015)

지역	심사 방법	평가 지표	선정 기간	선정 시기
서울	전문가 서면평가	개별	1월	1월
부산	현장평가(50%) + 전문가 서면평가(50%)	문체부	연간	1월 중
대구	전문가 서면평가	개별	3개월	1월
광주	축제육성위원회	문체부	축제 개최 시	11월
대전	현장평가(50%) + 서면평가(30%) + 축제육성위원회 심의(20%)	문체부	4~11월 현장평가 11월 서면평가	12월~ 이듬해 1월
울산	전문가 서면평가	문체부	연간	12월

출처: 한국 지역축제 실태조사(2016)

○ 인천시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2008년 이후 자치구별 축제의 시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추진 형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이는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양적 증가로 인한 비판과 반복적 축제 지원 및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인천시는 축제 통폐합, 경쟁력 없는 축제 폐지 유도 등 축제의 재조정기에 진입하였음(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인천시 축제의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 측면을 보완·보충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인천시에서는 대표축제 활성화 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인천시 내부자료), 아직 그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다른 사례를 참고하되 인천시 환경과 실정에 적합한 축제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

○ 전국적으로 생활 속 문화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타 광역시 또한 지역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관련 사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인천은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조직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별·층위별 인천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제정, 시행된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가고 있는 단계임.

○ 2015년 현재 생활문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인

천광역시, 경기 부천시, 전라북도, 부산 사하구이며, 각각 생활문화 진흥 또는 생활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생활문화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문화관광연구원, 2015).¹⁸⁾

〈표 49〉 타 도시 생활문화 관련 조례 현황(2015)

자치단체	종류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대전	조례	대전광역시 생활예술 진흥 조례	2013.12.31
경기	조례	경기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조례	2014.04.02
인천	조례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지원조례	2014.05.26
경기 부천시	조례	부천시 생활문화진흥조례	2014.10.13
전북	조례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2015.02.27
부산 사하구	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 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2015.05.13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이러한 지역문화환경 변화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참여 중심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인천시민의 생활 속 문화접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음.

〈표 50〉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 관련 주요사업

사업명	개요
시민창작뮤지컬 인천왈츠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 간다’ 라는 기초아래 최초 콘서트 형식으로, 시민이 직접 문화의 주체로 나서으로써 향유자를 넘어 창조자로 거듭나는 시민중심의 사업
섬 예술프로젝트 인천아시아 유스퀘어	섬예술프로젝트를 아름다운 섬 신·시·모도 및 트라이블에서 연습/공연 개최 -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아시아 6개국(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6인의 연합합창
문화공동체 활성화 간판제작 프로젝트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공동체와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아트 기획 공모
미리 쓰는 자서전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본인의 자서전 집필을 목표로 마인드맵, 올바른 문장쓰기 등 글쓰기의 기본부터 결과까지의 과정과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18) 문화관광연구원,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2015)

해안동아틀리에 심지 프로젝트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인천 1호 디제이 윤효중(1970년대 동인천 ‘별음악감상실’)과 함께하는 음악 감상 프로젝트
문화누리 이용권사업	저소득층 및 법정차상위계층인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가입된 공연장(계양문화회관, 남동소래아트홀, 중구문화회관, 부평아트센터, 서구문화회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과 협조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관람 기회 확대
시민문화 활동지원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문화 활동이 이뤄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하여 공간 지원사업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할 수 있도록 기획
무지개 다리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은 지역 단체/활동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

출처: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내부 보고자료(2016)

- 인천 문화도시 정책추진에서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들을 계획·실행하고, 자생적인 구조 안에 자발적으로 시민이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

3) 문화공간

□ 문화공간은 문화도시 인천의 환경을 구성하는 주요한 거점이자 문화주체와 문화활동이 만나서 창작, 소통, 유통, 연결 등이 이루어지는 활동공간임. 문화공간은 광역 및 자치구 단위의 다양한 전문 문화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함.

□ 인천 주요 문화시설 현황

- 인천시 주요 문화시설은 366개관으로 작은 도서관 218개관, 공공도서관 46개관, 공연시설(문예회관 포함) 36개관, 박물관 30개관, 영화관 23개관(14개 스크린), 미술관 4개관, 지방 문화원 8개관, 문화의 집 1개관의 문화시설이 소재해 있음(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 타 특·광역시 대비 비율은 다소 높은 시설은 공공도서관(14.2%)과 박물관(13.6%) 정도이며, 미술관(6.2%), 공연시설(5.9%), 문화의 집(4.8%)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인천 문화시설 366개 중에서 작은도서관이

218개로 가장 비중이 높지만 타 특·광역시 대비 높지는 않은 것(9.1%)으로 나타남.

- 인천시 문화시설은 민간 운영공간과 공공 운영공간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편으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에는 공공 대 민간 비율이 약 절반 정도씩의 비율로 구성(국공립 박물관 14개소, 민간 박물관 16개소)
 - 공공도서관은 관 주도(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46개소), 작은 도서관은 민 주도(공립 47개소, 사립 171개소)로 운영
 - 공연시설은 공공의 비율이 다소 높게(공공 공연장 28개관, 민간 공연장 8개관) 구성

〈표 51〉 7개 특·광역시 문화시설 현황(2015)

(단위: 개, %)

구분	특·광역시							특광역시 총합	인천시 비율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국립도서관	1	-	-	-	-	-	-	1	-	
공공 도서관	지자체	119	20	38	16	15	22	13	243	15.6
	교육청	22	14	8	11	6	2	4	67	11.9
	사립	5	2	-	6	-	-	-	13	-
	소계	146	36	46	33	21	24	17	323	14.2
작은 도서관	공립	411	73	47	50	57	38	35	711	6.6
	사립	450	250	171	166	376	157	102	1,672	10.2
	계	861	323	218	216	433	195	137	2,383	9.1
박물관	국립	12	1	-	1	1	-	-	15	-
	공립	14	6	14	6	4	4	7	55	25.5
	사립	70	6	15	6	2	5	1	105	14.3
	대학	24	6	1	3	3	7	1	45	2.2
	소계	120	19	30	16	10	16	9	220	13.6
미술관	국공립	4	1	2	2	2	2	-	13	15.4
	사립	28	3	2	-	6	3	-	42	4.8
	대학	5	2	-	2	1	-	-	10	-
	소계	37	6	4	4	9	5	-	65	6.2
영화관	극장	83	27	23	23	13	10	6	185	12.4

(2016)	(스크린)	(533)	(200)	(146)	(143)	(106)	(66)	(38)	(1,232)	(11.9)
공연시설		378	59	36	51	35	31	20	610	5.9
지방 문화원		25	14	8	8	5	5	5	70	11.4
문화의 집		8	1	1	-	4	3	4	21	4.8
계		1,659	485	366	351	530	289	198	3878	9.4

출처: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 인천시의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공공도서관 15.72개소, 박물관 10.25개소, 문예회관 및 문화원 2.73개소, 미술관 1.37개소, 문화의 집 0.34개소의 순으로 나타남. 타 특·광역시 대비 공공도서관의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개소 수는 높은 편이나, 미술관·문화의 집은 낮은 편임.

<표 52> 7개 특·광역시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2016)

단위(천명, 개)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수	10,022	3,514	2,926	2,488	1,472	1,519	1,174
공공도서관	14.57	10.25	15.72	13.26	14.26	15.80	14.49
박물관	11.97	5.41	10.25	6.43	6.79	10.53	7.67
미술관	3.69	1.71	1.37	1.61	6.11	3.29	-
문예회관	1.60	3.13	2.73	4.42	5.43	1.98	4.26
지방 문화원	2.49	3.98	2.73	3.22	3.40	3.29	4.26
문화의 집	0.80	0.28	0.34	-	2.72	1.97	3.41
문화시설 계	35.52	24.76	33.15	28.94	38.04	36.87	33.23

출처: 인천문화주권계획(2016)

- 2015년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문예회관은 총 8개소이며 13개의 공연장이 운영되고 있음.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대구 다음 순으로 많은 편이어서 양적 규모 면에서는 적은 비중은 아님. 다만, 인구 100만명당 문예회관 수로 살펴보면 7개 특·광역시 중 5위로 충분한 여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인천의 7개 문예회관 재정자립도는 19.1%로 특·광역시 대비 최하 수준으로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53〉 7개 특·광역시 문예회관 현황(2015)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시설 수	19	11	8	11	7	3	4	229
공연장 수	34	19	13	14	9	6	4	370
재정자립도	38.1	27.3	19.1	24.9	35.7	24.8	15.3	21.5
프로그램 가동률	69.2	68.8	47.2	65.6	38.0	75.5	76.4	41.5

출처: 2016 공연예술실태조사(2016)

* 재정자립도(%) = (매출액/총지출액)*100

* 프로그램 가동률(%) = $\frac{\text{공연일수} + \text{공연준비일수}}{365 - (\text{시설물점검, 설비일수} + \text{연간휴관일수})} \times 100$

- 또한 국공립 시설이 총 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대체적으로 국립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에 비해 현재 인천에는 국립 문화시설은 전무한 상황임.

〈표 54〉 전국 국립 문화시설 수

(단위: 개,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총합
0	25	2	1	2	5	2	2	5	3	3	2	3	1	2	58

출처: 인천문화주권계획(2016)

□ 생활문화시설 현황

- 시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생활 속 문화공동체 활동에 대한 실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생활문화정책이 확산되면서 기존 문화시설의 분류에서 생활문화시설이 독자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단계임.
- 기존 문화시설 구분에서는 문화의집이 생활문화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는 문화의집이 1개관으로 타 특·광역시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편임.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문화원은 8개관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대구와 동일한 3위 정도의 수준임. 그러나 지방 문화원은 본질적으로 생활문화시설이기 이전에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존 관련 정체성이 높은 곳임.
- 2014년 이후 생활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자율성을 부과하여 공공성과 자생적인 힘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지속적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생활문화시설

이 독자적으로 조성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유형에 따라 거점형·생활권형, 독립형·공동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거점형은 시, 군·구 단위로 조성되어 생활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멀티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권형은 읍면동 단위로 조성되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교류지원의 역할을 수행함.

〈표 55〉 생활문화센터 유형 구분

유형	구분		
		거점형	생활권형
역할	위치	시·군·구 단위로 조성 (인구 규모·면적에 따라 복수 설치)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조성
	기능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멀티 플랫폼 역할 수행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한 생활문화 활동공간 및 발표공간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허브기능 및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교류 지원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생활문화 동아리 형성 지원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교류의 기회 제공
운영 환경		도시형	농촌형
	인구밀도	높은 인구 밀도와 큰 인구 규모	낮은 인구 밀도와 작은 인구 규모
	중심산업	2·3차 산업 중심	1차 산업 중심
	커뮤니티	독립적인 상호 작용	지속적인 상호 작용
	인구	인구 5만 이상	인구 5만 미만
토지이용	상업지구, 주거지역 비율 높음	전답 비율 높음	
공간 조성		독립형	공동형
	특징	생활문화센터가 독립된 건물형태	생활문화센터가 다른 시설(기존 공간)에 포함

출처: 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설명회 자료집(예술경영지원센터, 2016)

- 이러한 지역문화 정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인천시도 시민의 자율적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생활문화센터를 자치구별로 조성 중에 있음(인천시 내부자료)¹⁹⁾.
 - 2015년(3개소): 동구(솔마루), 남구(학산), 인천아트플랫폼(칠동마당)
 - 2016년(4개소): 중구(개항장), 동구(송림골), 부평구(아트하우스), 연수구(청학지하)
 - 2017년(2개소): 용진군(북도면, 자월면)

19)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주권 실현계획(2016)

- 향후 문화도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며, 생활문화센터 시설 조성과 더불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4) 문화공동체

□ 문화공동체는 인천의 문화다양성 기반을 만들기 위한 도시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문화적 공생과 관련된 영역임. 문화공동체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천 시민의 존재기반, 장르별 예술단체 분포, 지역적 특성이 각기 다른 자치구로 구분하여 주요 현황을 살펴봄.

□ 인천 인구분포 중 외국 이주민 현황

- 인천시 인구 중에서 문화적 이질성이 두드러진 이주민은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유동성을 나타내는 국내 이주민들이 있음. 이 중 인천시 등록 외국인은 7개 특·광역시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상황이며,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대비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56〉 지역별 등록 외국인 현황 추이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2012	247,108 (26.49)	35,049 (3.76)	47,305 (5.07)	21,922 (2.35)	14,492 (1.55)	14,571 (1.56)	19,247 (2.06)	932,983
2013	244,410 (24.79)	35,943 (3.65)	50,382 (5.11)	23,302 (2.36)	15,557 (1.58)	14,798 (1.50)	22,427 (2.27)	985,923
2014	266,360 (24.4)	38,315 (3.51)	55,323 (5.07)	25,203 (2.31)	17,064 (1.56)	15,658 (1.43)	25,885 (2.37)	1,091,531
2015	274,957 (24.05)	39,991 (3.50)	57,669 (5.05)	26,141 (2.29)	18,455 (1.61)	16,416 (1.44)	26,183 (2.29)	1,143,087
2016	273,441 (23.54)	41,840 (3.60)	59,103 (5.09)	26,493 (2.28)	19,920 (1.71)	17,035 (1.47)	23,457 (2.02)	1,161,677

출처: 국가통계포털 체류외국인통계

- 인천시의 주민등록 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비율은 서울과 울산에 이은 3위로, 인천시 인구의 약 2%는 외국인임.

〈표 57〉 지역별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추이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2012	2.42	0.99	1.66	0.87	0.99	0.96	1.68	1.83
2013	2.41	1.02	1.75	0.93	1.06	0.97	1.94	1.93
2014	2.64	1.09	1.91	1.01	1.16	1.02	2.22	2.13
2015	2.74	1.14	1.97	1.05	1.25	1.08	2.23	2.22

출처: 국가통계포털 체류외국인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 총인구 대비 등록 외국인 수의 비율임.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경기(8,391명 29.8%), 서울(6,943명, 24.7%), 인천(2,654명, 9.4%)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8〉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2017)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남성	2,300	280	753	155	147	143	158	7,575
여성	4,643	743	1,901	540	485	445	369	20,577
합계	6,943	1,023	2,654	695	632	588	527	28,152

출처: 통일부 통계자료 ‘북한이탈주민정책’

- 인천의 경우 전국 대비 주민등록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외국인-한국인 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등 국내 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임. 이러한 경향 속에서 인천의 다문화 가구는 전국 다문화 가구의 약 6% 정도에 해당함.

〈표 59〉 다문화가구 분포(2015)

(단위: %, 가구)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국
전체	21.6	4.2	6.1	2.8	2.0	2.1	2.0	100.0 (278,036)

출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여성가족부, 2016)

-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인천은 타 특·광역시 대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운영예산이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표 60〉 특·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예산 평균

(단위 : 천원)

구분	지원운영예산 평균
서울	83,114
부산	146,244
대구	328,797
인천	334,411
광주	194,243
대전	274,301
울산	237,024

출처: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 인천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

-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정책 사업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꼽을 수 있음. 무지개다리 사업은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됨.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에는 성북,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강원, 부산, 경남, 익산, 광주, 제주, 전남 등 전국 12개 지역의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음.
- 인천의 경우,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공연과 네트워크, 교육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 디아스포라 영화제 관련된 사업을 인천영상위원회가 운영하였음. 사업의 주요대상은 지역민, 이주민, 선주민과 같이 지역 내 거주자들의 특성에 따른 사업들이 운영되었음.
- 타 기관의 사업들(‘문화다양성 지역정책 연구 및 포럼’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다양성 조사, 연구 및 학교플랫폼’ 구로문화재단, ‘걸어서 종로 속으로 우리 동네 탐험대’ 종로문화재단)의 경우 다양한 연구 및 정책개발과 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운영되었으며, 향후 인천도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할 필요가 있음.

〈표 61〉 인천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 사업현황(2014-2015)

연도	기관명	사업명	분야	사업대상자
2014	인천 문화	디아스포라 영화제	공연/전시	지역민
		이야기 더하기	교육/공연	인천 관내 초등학교, 작은도서관,

재단			지역아동센터 등
	너,나,우리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인천 거주 새터민
	어라운드 인천	네트워크	구도심 및 신도심 거주자, 아티스트
	함께 만드는 노래	네트워크	신포동 일대 구도심 외국인 상인
	여섯빛깔 무지개	네트워크	LGBT, 관심있는 청취자 누구나
	화교, 함께 사는 우리 이웃	네트워크/교육	화교중산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인천대 중국인 유학생
	지글지글수다방	교육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필리핀 문화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그룹, 동네 주민, 어머니모임 등 신청자
	문화의경계를넘어	교육	인천 관내 학교,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세계문화특강	교육	지역민
인천 문화 재단	인천에서 만나는 세계문학, 그리고 문화다양성	전시	선주민,성인
	동네방네탐사단_Re:선린동	교육	이주민
	지글지글수다방	네트워크	결혼 이주여성
	근대로 떠나는 여행 북콘서트	네트워크 /교육	선주민,성인
2015 인천 영상 위원회	제3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사전 프로그램 (영화가 책을 만났을 때)	강연, 전시	선주민,성인
	제3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사전 프로그램 (이주민 미디어 교육)	교육	결혼이주 자녀, 새터민, 화교, 유학생 등
	제3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사전 프로그램 (찾아가는 민들레극장)	공연,전시	이주민
	제3회디아스포라영화제	공연전시	선주민, 이주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무지개다리사업 운영기관 현황 리스트 (2016)

□ 주민 공동체 현황

- 인천은 주민 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1990년대 작은 공동체 활동을 시작으로 2000년대 사단법인 형태 조직이 신설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확산되었으며, 2010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구성을 통해 민간이 중심되고 공공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음. 현재는 인천형 커뮤니티 아트와 방향성이 장소성에서 공동체 소통으로 변경되고 있음.
- 2016년 기준 인천시에는 총 48개의 마을공동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마을공동체는 21개로 문화예술, 생활문화공간, 공공예술, 작은 도서

관, 목공예 등의 분야임(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림 49] 인천문화재단의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사업



출처: 인천문화재단 10주년 백서(2015)

□ 주류 예술 장르 중심의 예술단체 현황

- 특·광역시 대비 인천의 경우 연극, 무용, 양악, 국악, 장르별 예술단체가 골고루 분포한 편이며, 양악 분야 예술단체가 많음. 그러나 문화적 종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유연한 복합 장르의 비중이 제일 적은 편이어서 예술단체의 다양성 기반 마련이 필요함.

〈표 62〉 예술단체 장르별 현황(2015)

(단위: 개, %)

구분	단체 수	연극		무용		양악		국악		복합	
		단체수	비율	단체수	비율	단체수	비율	단체수	비율	단체수	비율
서울	1,016	353	34.7	158	15.6	288	28.3	145	14.3	72	7.1
부산	156	39	25.0	28	17.9	61	39.1	24	15.4	4	2.6
대구	102	22	21.6	9	8.8	39	38.2	25	24.5	7	6.9
인천	65	13	20.0	9	13.8	26	40.0	13	20.0	4	6.2
광주	77	19	24.7	6	7.8	29	37.7	19	24.7	4	5.2
대전	73	17	23.3	12	16.4	27	37.0	15	20.5	2	2.7
울산	41	6	14.6	7	17.1	14	34.1	10	24.4	4	9.8

출처: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2016)

□ 자치구별 문화적 여건의 차별성

- 인천시는 자치구별 지리적·역사적 환경이 상이함. 중구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개항 이래 근대화의 거점으로 형성된 반면, 연수구는 새로운 주거 단지로, 계양구는 평야·농경문화의 거점으로, 옹진군은 반농반어의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음.
- 지리적·역사적 특성에 따라 자치구 간 역사자원과 문화자원의 상이한 특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정책추진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자치구별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정책방안 수립을 고려해야함.

〈표 63〉 인천시 자치구별 지리·역사적 환경

구분	지리·역사적 환경
중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상업, 업무, 경제, 문화적으로 인천의 중심지역으로 형성 -개화기를 가장 앞장서서 겪은 곳으로, 1883년 개항 이래 항구중심 시가지 형성·발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당하는 역사 자원 다수(서구식 공원, 기상대, 해외 이민, 무선 전신 등)
동구	-낮은 구릉이 발달되어 있으며 구 전체가 도심과 인접한 주택지를 형성 -북부 해안 매립지는 임해공업단지로 개발되어 중공업 위주로 발달, 인천 임해공업단지의 일부를 이루며 주안·부평 공업단지와 연결 -개항을 기점으로 관련 노무자 유입, 일제강점기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로 성장
남구	-도호부 및 향교가 있던 원인천 지역 -선사유적인 고인돌이 문학산 일대에 분포 -남구의 문화·예술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백제 비류문화의 발상지
연수구	-1995년 남구에서 분리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 단지로, 자연촌락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공존, 자연 경관 보존의 복합형 전원도시로 발전 -송도 경제자유구역 위치(관할대상 아님)
남동구	-고려/조선시대까지 인천의 번두리 지역, 역사 기록 취약 -1930년 일제의 천일염 수탈 과정에서 소래포구 형성, 현재 유명 관광지로 발전 -공업 지역(남동 공단), 어촌 지역(소래 포구), 신개발 상업·행정·문화 지역(시청·종합문화예술회관), 농촌 지역(수산동·도림동 등) 공존
부평구	-부평평야 중심의 농경문화 발달 지역으로 독자적인 문화권 형성 -현재 공장 지역, 시가지, 주택지 조성 -이주민들(북한 피난민, 충청도, 전라도, 외국인 근로자 등) 정착 지역
계양구	-부평과 함께 계양역사문화권에 속함 -김포국제공항·올림픽대로와 인접하여 서울과의 교통 편리 -전체면적의 68%가 그린벨트에 해당, 계양산을 중심으로 남부 도심지/북부 미개발 지역 구분

서구	-주거·상업지역(중부), 공업지역(남부), 해안·매립지역(서부), 농경·개발지역(북부)으로 형성 -청라지구 등은 서울 여의도와 30분 거리이며, 서울에서의 인구 유입이 높음
강화군	-인천시 북서부 서해 연안에 위치,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주도인 강화도를 비롯 10개의 유인도와 8개의 무인도로 구성 -수도권에 인접한 관문으로 각종 역사유적(고인돌, 개항기 군사유적 등) 다수 존재
옹진군	-1953년 휴전협정으로 일부 도서지역만으로 군을 유지하여 유적·유물이 많지 않음 -25개의 유인도와 75개의 무인도로 구성, 다수의 해수욕장 산재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갯벌이 넓게 조성, 영흥도·백령도 등 해안에 간척지 조성으로 농경지 활용

출처: 자치구별 연혁 및 자치구워크숍을(2016)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 인천시 내에는 행정 및 사회 인프라 환경이 서로 다른 자치구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치구 간 생활수준의 차이가 발생함. 자치구 간 생활수준의 차이는 지역 간 문화발전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 인천시의 통합적인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치구간 공생을 모색하는 균형적인 문화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도입이 필수적임.

〈표 64〉 인천시 자치구별 행정·인프라 환경

구분	행정·인프라 환경
중구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용유지역은 국제공항 도시로의 변화와 함께 용유·무의 관광지 조성사업 본격화, 해양종합관광·휴양도시로의 발전 기대 -월미관광특구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 가능
동구	-대규모 공단지구 입주, 배다리 등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강함 -상업시설 상대적으로 취약
남구	-1988년 남동구, 1995년 연수구 분구 -국철이 남북으로 관통하여 균형발전 저해, 도심 교통문제 야기
연수구	-송도의 분구 요청으로 지역 내 갈등 이슈 존재, 통합적 관리 한계 존재 -막대한 기반 시설 및 인프라 투자
남동구	-대단위 관광어촌으로 발전한 소래포구와 소래포구축제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지, 지역 축제로 성장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도시전철 통과지역으로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며,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산업지역
부평구	-철성공장, 대우자동차 공장 등 공단 지역 성격 존재(전체 면적의 12.2%)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 낙후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등 지역 변화 예상
계양구	-1995년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 -계산동 일대 도로망 확충 및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서구	-1988년 북구에서 분구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고속철도, 경인운하로 지역 변화 기대

	-청라지역 중심 성장 가능성
강화군	-1997년 강화대교, 2002년 초지대교 개통으로 인근 도시와의 이동시간 단축, 수도권 지역의 주말관광·휴양지로 각광
옹진군	-해상교통을 통한 군내 도서간 자체 연결망 미약, 각 도서 내 육상교통망 발달 미약 -휴전선 인접 등 불안정한 지역 여건으로 문화시설 기반 열악

출처: 자치구별 홈페이지 지역여건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 향후 인천 문화도시 정책추진에서 각 자치구/군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인천광역시와 정책적 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5) 문화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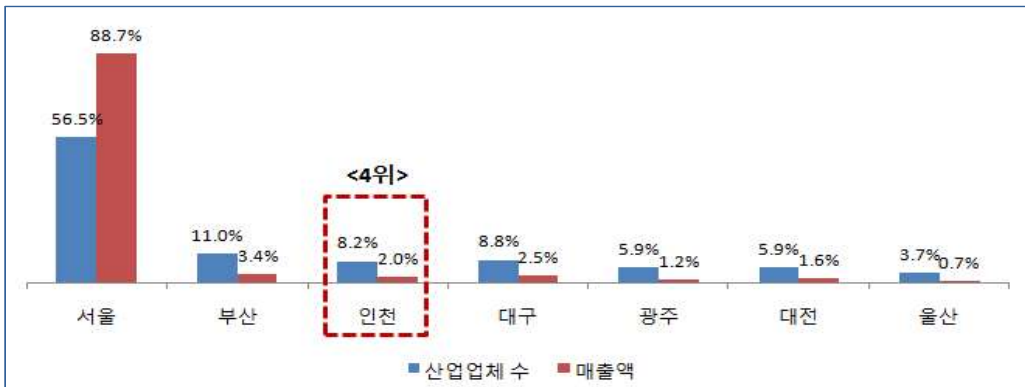
□ 문화산업은 인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문화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는 영역임. 그런데 인천 문화산업 기반이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콘텐츠 산업 관련 현황 위주로 검토함.

□ 콘텐츠 산업

- 2015년 기준 인천시 콘텐츠산업 업체 수는 총 4,901개로 총 7개 특·광역시 중 서울(33,762개), 부산(6,583개), 대구(5,236개)에 이은 4위 수준이며, 특·광역시 전체 콘텐츠산업 규모 대비 8.2%의 비중을 차지함. 또한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사업체는 20,525개로 전국의 24.8% 수준이었으며, 인천시는 전국의 4.7% 수준임.

[그림 50] 7개 특·광역시 대비 인천시 콘텐츠산업 업체 수 및 매출액 비중

(단위 : %)



- 콘텐츠산업 업종은 음악(2,458개) 산업체의 수가 가장 많으며, 특·광역시 대비 음악, 게임, 만화 산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표 65〉 7개 특·광역시 콘텐츠산업 업체 수(2015)

(단위: 개, %)

구분	특광역시							7개 특광역시 총합	인천시 비율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출판	10,409	1,398	816	1,179	786	817	360	15,765	5.18%
만화	2,137	632	392	386	312	296	193	4,348	9.02%
음악	8,160	2,356	2,458	2,215	1,339	1,424	991	18,943	12.98%
게임	2,966	919	660	709	577	428	368	6,627	9.96%
영화	666	57	20	23	19	12	5	802	2.49%
애니메이션	243	16	3	2	26	3	2	295	1.02%
방송	600	43	20	27	15	15	9	729	2.74%
광고	3,365	497	82	196	212	244	-	4,596	1.78%
캐릭터	836	130	74	78	56	36	17	1,227	6.03%
지식정보	3,283	459	342	364	146	211	254	5,059	6.76%
콘텐츠 솔루션	1,097	76	34	57	27	66	7	1,364	2.49%
계	33,762	6,583	4,901	5,236	3,515	3,552	2,206	59,755	8.20%

출처: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7)

-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430,406백만 원으로 7개 특·광역시 매출액의 1.97% 수준으로 산업체 수에 비해 매출액이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또한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1,703,998백만 원으로 전국의 21.6% 수준이었으며, 인천시는 전국의 1.4% 수준임.

〈표 66〉 7개 특·광역시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2015)

(단위: 백만 원, %)

구분	특광역시							7개 특광역시 총합	인천시 비율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출판	11,552,369	554,852	409,622	411,562	268,946	242,767	133,360	13,573,478	3.02%
만화	447,024	9,202	17,741	13,487	24,081	7,409	3,339	522,283	3.40%
음악	3,160,981	174,635	105,843	184,256	18,773	33,579	32,546	3,710,613	2.85%
게임	3,904,538	166,439	68,492	168,693	75,171	38,342	33,458	4,455,133	1.54%
영화	3,097,643	226,148	117,691	136,302	72,735	94,774	63,179	3,808,472	3.09%
애니메이션	343,536	14,809	9,591	1,929	27,456	4,213	-	401,534	2.39%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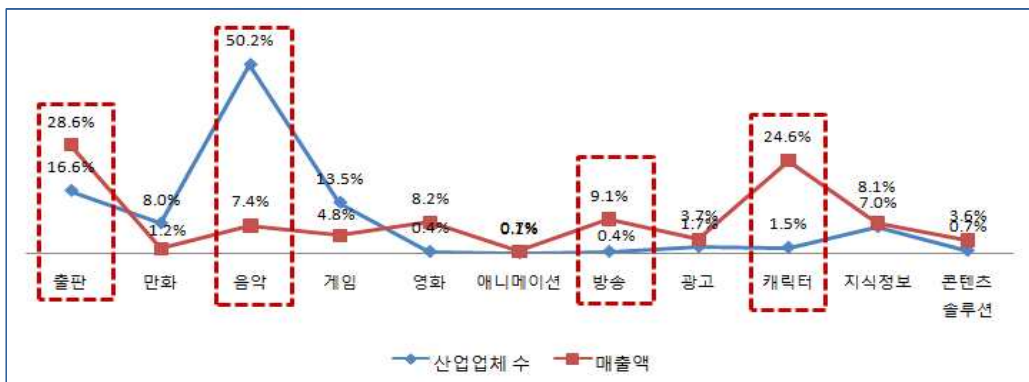
방송	13,358,058	301,016	129,475	166,613	109,528	103,122	101,610	14,269,422	0.91%
광고	12,745,208	411,259	53,347	243,076	47,386	88,989	-	13,589,265	0.39%
캐릭터	4,658,815	314,678	351,640	245,702	96,552	96,255	5,302	5,768,944	6.10%
지식정보	7,715,447	178,568	115,968	170,737	66,660	389,171	107,517	8,744,068	1.33%
콘텐츠 솔루션	3,330,432	80,139	50,996	67,100	60,156	46,416	5,733	3,610,972	1.41%
계	64,284,051	2,431,745	1,430,406	1,809,457	867,444	1,145,037	486,044	72,484,184	1.97%

출처: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7)

- 장르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캐릭터, 만화, 영화 산업의 비중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음악관련 산업체는 그 비중에 비해 매출액은 낮게 나타남. 음악 산업의 경우, 업체 수는 많으나 실질적인 매출액은 다른 분야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캐릭터 산업의 경우 업체 수는 많은 편은 아니나 실질적인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1] 인천 장르별 콘텐츠산업 업체 수 및 매출액 비중

(단위 : %)



6) 문화연동: 문화계획과 연동이 필요한 상위계획 현황

- 문화도시는 도시 전반에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적 역량을 접목하기 위해 문화계획과 도시계획의 연동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연동 범주에서는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상위계획 및 연관계획, 관광 등 연관 분야의 주요 현황을 검토함.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상위 및 관련 계획

-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과 연동이 필요한 관련 및 상위계획은 다음과 같음.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인천항 기본계획」,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 계획」 등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2015)

-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설정, 7개 하위분야에 따라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각기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그림 52]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비전 및 분야별 정책목표(2015년)



출처: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방향은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이며 정책의 기본 방향은 ‘시민형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축’,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계승’임.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됨(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2015). 인천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타당성과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계획인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음.

[그림 53]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문화분야 정책방향 및 실천계획

인천도시기본계획 문화분야	
정책방향	시민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
기본 방향	시민형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감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축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계승
실천계획	시민생활 중심의 문화공간 확충 및 기반 구축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산업 육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공간조설 및 시설확충

□ 인천관광 마스터플랜(2015)

- 인천관광 마스터플랜은 인천 관광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인천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및 「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된 비법정 계획의 성격을 가짐. ‘한국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복합 관광메카 인천’을 비전으로, ‘H/W와 S/W의 균형’, ‘신생태계 육성’, ‘창조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기조로 5대 핵심전략 및 세부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 문화예술분야와의 연관성은 융·복합 관광산업의 육성 및 차별적 콘텐츠 개발 등 H/W와 S/W전반에 걸쳐있으나, 문화기획자를 활용한 관광에서 인력 육성방안에 대한 세부적 사업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대한 연계방안 마련이 중요함.

<표 67> 인천관광 마스터플랜 핵심전략과 세부과제

핵심 전략	세부 과제
융·복합 관광산업 및 창조관광 생태계 육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전통 관광산업 고도화 창조관광 비즈니스 육성 및 관광창업 활성화 관광인력 육성 및 산·관·학 협력 활성화 전략산업 및 전통산업 연계 산업관광 육성

차별적인 관광콘텐츠와 인천 매력 개발	고유 자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강화 역사문화 관광명소 육성 예술·공연관광 중점 육성 집객공간 조성 및 정비
섬·해양 관광의 체계적 육성	주제가 있는 섬 관광 육성 항만 재개발 및 해양 관광 명소 육성 해양 레저 및 문화생태 관광 육성 크루즈 관광 육성
인천관광 브랜딩 및 마케팅	인천 관광브랜드 개발 및 관광홍보 체계 통합화 요우커 유치 마케팅 강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강화
관광수용태세 정비 및 관광교류협력 활성화	관광품질 인증 및 관광환대서비스 개선 관광수용태세 정비 지속가능한 관광관리 및 인천관광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국내·외 관광교류 협력

출처: 인천관광 마스터플랜(2015)

□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2010)

- 경관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해당 자치단체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도시의 다른 계획 및 제도들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운영되는 중점계획이자 중간계획임.
- ‘역사와 생활이 조화된 해양국제문화도시 경관 창출’을 비전으로 ‘국제도시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자연-해양-도시가 연계된 독창적 경관계획’, ‘역사·문화·삶이 연계된 경관계획’, ‘신·구도심을 접목하는 쾌적한 인간 중심형 경관계획’의 4대 목표를 설정하여 각기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인천시 경관의 특징을 반영하여 관리하기 위해 8가지 유형으로 경관을 분류, 각각의 테마를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제시함.

〈표 68〉 인천시 경관유형별 목표

유형	목표		
시가지	국제도시의 매력 있는 경관 연출	주거지	지역성을 정체성으로 연계하는 아름다운 주거지경관 형성
		상업지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상업지경관 창출
		공업지	밝고 활기찬 공업지역 경관창출
야간	Feel Good City		
수변	친수공간의 확대와 친환경적 개발유도		
역사·문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함께 기억과 경험을 담는 경관창출		

도시	서해연안도시만의 특색을 살린 경관창출
자연녹지	자연녹지의 보존과 단절녹지축의 연결
공공디자인	다양한 특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 있는 도시환경 창출
색채	인천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인천시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고유의 색채 환경 조성

출처: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함께 기억과 경험을 담는 경관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문화 경관계획은 ‘역사·문화경관의 발굴과 유지관리계획 수립’, ‘역사·문화자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테마형, 체험형 자원개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디자인 및 권역별 실생활형 경관디자인의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함.

- 인천시 기본경관계획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와 구체적 연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음. 향후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추진되면서 기본경관계획과의 정책적 연동이 필요함.

□ 2025년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

- 인천시는 도시재생 정책 비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시민과 함께 시민이 만들어 가는 사람 중심의 균형적 도시재생, 도시경쟁력 확보를 통한 가치 재창조를 천명하고 있음.

〈표 69〉 인천시 도시재생전략 기본방향

구분	내용
비전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인천 가치 재창조
기본 방향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중심 주거지 재생: 샵터 재생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일터 재생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치 재창조: 쉼터 재생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자생적 재생: 공동체 재생

출처: 2025 인천도시재생 전략계획

-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의 유형을 설정, 경제적 산업공간 및 창조적 문화공간과 균형적 생활공간을 통한 재생을 내용으로 하며, 지역별 연계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 있음.

- 특히 인천시는 다양한 지역·역사·문화자원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진단을 통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 상업공간과 유휴 부지를 기반으로 근대역사자산, 전통시장과 연계한 정체성 유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문화중심지를 육성하고자 함.

〈표 70〉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추진 전략	하위 전략	내용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재생	도시재생 유형설정	경제적 산업공간: 광역중심기능 창조적 문화공간: 지역중심지 역할 균형적 생활공간: 노후주거지 재생을 통한 지역균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우선추진	정량지표·정성평가를 통해 선도지역 선정 및 추진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단계적 추가 지정	도입·정착·확산기 단계를 통한 재생사업의 안정적 정착
지역별 복합적 연계 재생 추진	장소중심적 통합재생 추진	쇠퇴특성에 따른 재생생활권 설정 중점 재생지역에 대한 장소중심적 통합재생 추진
	재생효과의 공간적 확산 전개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변지역에 확산 경인전철축: 도심기능 회복 경인고속도로축: 산업기반 재생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확보	도시재생의 단계별 추진	도입기: 주민 및 행정역량 강화 정착기: 인천형 도시재생 추진 확산기: 인천형 재생 모델 확산
	도시재생 실행조직 및 지역역량 강화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조직 구성, 역할 분담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 및 인식 향상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자원확보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 확보

출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 인천시는 총 12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대부분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또한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가 주된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문화도시 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 71〉 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역	자치구	세부유형	재생방향
인천 개항창조도시	중구 동구	경제 기반형	해양·문화·관광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모델 도시

연안부두어시장 주변	중구	근린 재생형 (중심 시가지형)	친수·상업·관광기능 활성화를 통한 워터프론트 재생
송림5거리 주변	동구		상업·문화·예술이 융합된 중심시가지 활성화
제물포역 주변	남구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대학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공간 육성
부평역 일원	부평구		문화·생태 기존상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평구 경제 생태계 구축
신흥동 일원	중구	근린 재생형 (일반형)	수인곡물시장, 폐선로를 활용한 창조적 재생
만부구역 주변	남동구		저층주거관리사업과 연계한 공동체중심 주거지재생
부평아울렛 주변	부평구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재생
가재울마을 주변	서구		생활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재생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서구		민·관·주민 협력형 주거지 재생 모델
강화군청 주변	강화군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교동 대룡시장 주변	강화군		접경지역·도서지역의 특성과 근대문화·예술을 융합 한 재생

출처: 2025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 인천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2016년 국토부 도시재생 일반지역 공모에 선정된 인천 개항창조도시와 강화군청 주변부를 1순위, 군·구에서 활성화계획 수립에 착수한 송림5거리 주변, 제물포역 주변, 부평역 일원, SK인천석유화학삼거리 주변을 2순위,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인 나머지 6개 지역을 3순위로 선정,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 재생사업 추진 계획에 있음.
- 1순위로 결정된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마을활동가 양성·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문화주체 역량 강화사업과 공장 지원·문화예술촌·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문화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상상플랫폼·근대문화길·전시관·박물관 조성 등 문화시설 확충과 같은 문화관련 사업이 다수 배치되어 있음.

〈표 72〉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주요 내용

구분	사업 내용	
마중물 사업	상상플랫폼 조성	-계획수립 및 콘텐츠 개발 -조성공사
	지역환경 개선	-사람중심의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우회고가 철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배다리 우각리 근대문화길 조성 -월미전망대 명소화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양성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폐공간을 활용한 지역경제 지원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 -중앙시장 마을장인 공방 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반 구축
부처협력사업		-해양수산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해양복합전시체험관 조성 -국토교통부: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동인천 북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월미문화예술촌 조성 -관세청: 인천세관 역사공원 조성
지자체사업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 -인천역 주변 교통환경개선, 개항버스 운영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 -대불호텔 터 활용 근대 호텔사 전시관 조성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주거환경관리(인형동, 북성동, 송월동)
민자사업		-아니아 누들뮤지엄 조성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월미 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 -월미 스카이웨이 조성

출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 도시재생 추진전략은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공간 및 장소의 재생,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문화역량과 공동체 역량 강화 등 문화적 관점의 활동, 공간재생,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때문에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 시 인천 도시재생 추진정책과 연동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천 관광/마이스 산업 현황

- 인천광역시의 관광자원²⁰⁾은 관광단지 2개소(송도, 강화종합리조트), 관광지 2개소(마니산, 서포리), 관광특구 1개소(월미), 유관시설(산림관광자원, 관광농원, 어촌체험마을,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등) 등으로 구성됨.

20)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을 의미하며,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의미함.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함(관광진흥법 제2조).

- 인천의 경우 타 광역시 대비 산, 해양자원 등 자연자원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여,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표 73〉 7개 특·광역시 주요 관광자원 수(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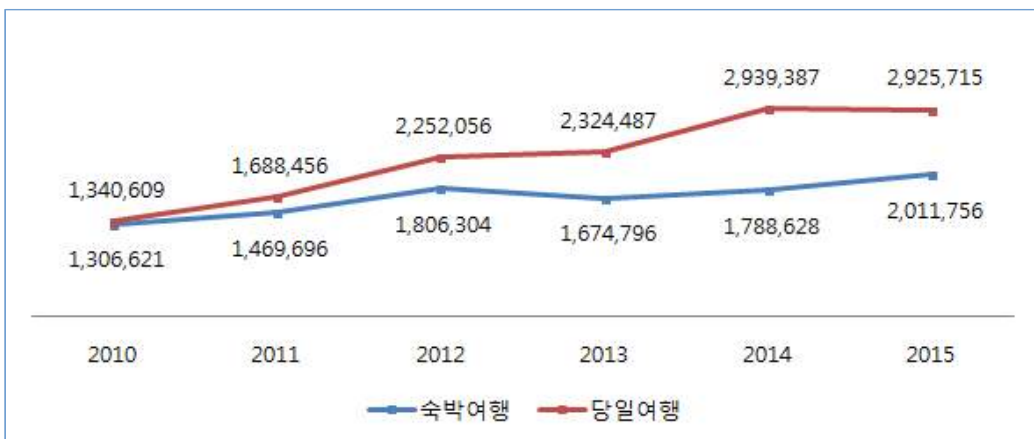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특광역시							특광역시 총합	인천시 비율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관광단지	-	1	2	-	1	-	1	5	40.0%	
관광지	-	5	2	-	-	-	-	7	28.6%	
관광특구	6	2	1	-	-	1	-	9	11.1%	
산림 관광자원	자연휴양림	-	-	1	4	-	2	1	8	12.5%
	산림욕장	-	3	4	7	-	4	-	18	22.2%
관광농원	-	-	25	-	-	-	1	26	96.2%	
어촌체험마을	-	3	3	-	-	-	3	9	33.3%	
템플스테이	9	3	2	2	2	-	-	18	11.1%	

출처: 2015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6)

-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2010년 이래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특히 숙박여행 참가자 수의 증가세 보다 당일여행 참가자 수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 인천시는 당일여행의 매력이 큰 관광지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4년 대비 2015년 당일여행 참가자 수는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탈피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임(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보고서).

[그림 54] 인천시 국내여행 참가자 추이(2010~2015)



출처: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보고서

- 지역별 국내여행 참가자 수를 추정한 결과, 특·광역시 대비 인천시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숙박, 당일여행 모두 서울, 부산에 이은 3위 수준(7개 특·광역시 대비 약 13% 수준)으로 국내 관광객 수가 적지 않은 편임.

〈표 74〉 특·광역시별 국내여행 참가자 수(2015)

(단위: 명, %)

구분	특광역시							특광역시 총합	인천시 비율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숙박여행	4,492,318	4,211,520	2,011,756	1,233,127	1,187,512	1,161,267	796,863	15,094,363	13.33%
당일여행	9,328,855	3,504,804	2,925,715	2,328,194	1,073,057	2,158,204	1,037,484	22,356,313	13.09%

출처: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2016)

- 인천 가구여행의 전반적 만족도는 7개 특·광역시 대비 1위(4.07)이며, 전국 평균(4.05)보다 높아 가구여행의 관광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가구-숙박여행의 만족도는 4.13으로 특·광역시 대비 중간 수준이나, 가구-당일여행의 만족도(4.04)는 타 특·광역시 대비 1위 수준이며, 전국 평균(3.98)보다 높게 나타남.
- 인천 개인여행의 전반적 만족도는 3.9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으며 특·광역시 대비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음. 세부적으로 개인-숙박여행의 만족도는 다른 부분의 만족도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3.76) 특·광역시 대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개인-당일여행의 만족도는 4.01점으로 전국 평균(4.00)과 유사하며 특·광역시 대비 중간 수준으로 타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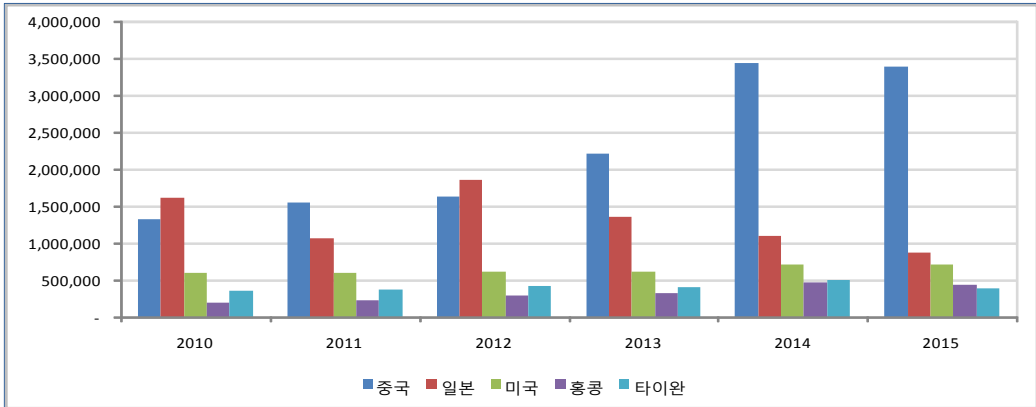
〈표 75〉 특·광역시별 관광 만족도(2015)

구분	특광역시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가구여행	4.01	3.94	4.07	3.92	3.97	4.03	4.01	4.05
숙박여행	4.12	4.05	4.13	4.18	3.90	4.27	4.05	4.12
당일여행	3.97	3.81	4.04	3.88	4.02	3.98	3.99	3.98
개인여행	3.93	4.12	3.92	3.86	4.10	3.71	3.92	4.04
숙박여행	3.79	4.22	3.76	3.82	4.00	3.69	3.92	4.11
당일여행	3.96	4.03	4.01	3.87	4.12	3.72	3.92	4.00

출처: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2016)

- 인천을 방문하는 주요 5개국 국적별 외국인 방문객은 일본인이 많았으나, 2013년부터 중국인의 인천방문이 급격하게 높아짐²¹⁾. 반대로 일본인의 인천방문은 2013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홍콩과 타이완인들이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5] 인천 방문 주요 5개국 국적별 외국인 방문객



출처: 2016 인천통계연보

-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은 중국인(40.6%), 미국인(10.2%), 일본인(6.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중국인 방문객의 다수는 인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을 제외한 다른 특·광역시 대비 중국인 방문객의 비율이 높아 외교문제 등 국가 간 변수 발생 시 외래 관광객 유치의 급감이 우려됨.

<표 76> 국적별 방문지 비율(2015)

(단위: %)

구분	특광역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중국	45.8	25.5	40.6	24.4	26.4	12.0	11.5
일본	13.4	24.5	6.3	4.4	8.9	16.2	15.7
미국	6.7	10.4	10.2	25.7	18.5	18.5	19.9
홍콩	5.1	5.6	2.8	2.6	0.8	1.2	4.7
타이완	4.8	5.8	5.2	2.5	1.5	1.4	3.6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외래관광객실태조사 통계분석

* 중복응답 문항임.

- 2015년 현재 인천시 관광사업체는 총 610개이며 주요 업종은 여행업(363

21) 2016년 인천통계연보, 인천광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집계된 국적별외국인 방문객으로 집계함.

개), 관광숙박업(92개), 관광 편의시설업(8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1년 총 471개였던 관광사업체는 2012년 이후 600개 선에서 보합세를 이루고 있음(각년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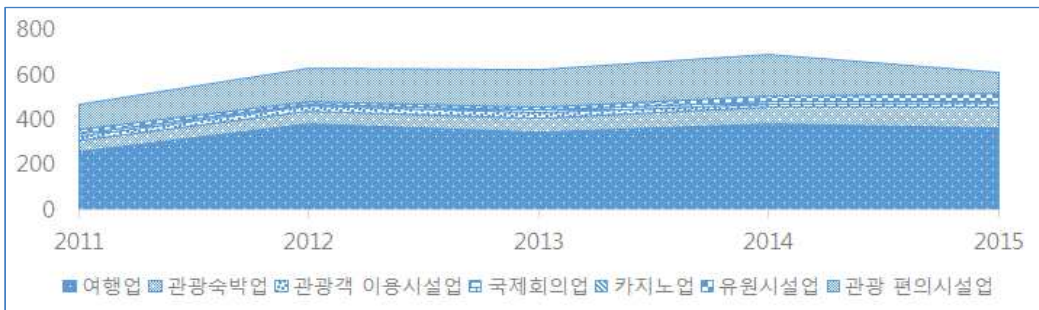
〈표 77〉 연도별 인천시 관광사업체 수(2011~2015)

(단위: 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여행업	263	382	347	385	363
관광숙박업	48	57	60	74	92
관광객 이용시설업	16	22	29	10	20
국제회의업	11	8	10	14	8
카지노업	1	1	1	1	1
유원시설업	19	13	13	21	37
관광 편의시설업	113	150	166	189	89
계	471	633	626	694	610

출처: 각년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림 56〕 인천시 관광사업체 수 추이(2011~2015)



출처: 각년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2015년 현재 인천시 관광사업체 종사자는 총 4,141명이며 주요 업종은 관광숙박업(1,739명), 여행업(1,4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관광사업체 수가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에 반해 종사자 수는 2012년(총 종사자 수 7,941명) 이후 감소세에 있음(각년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78〉 연도별 인천시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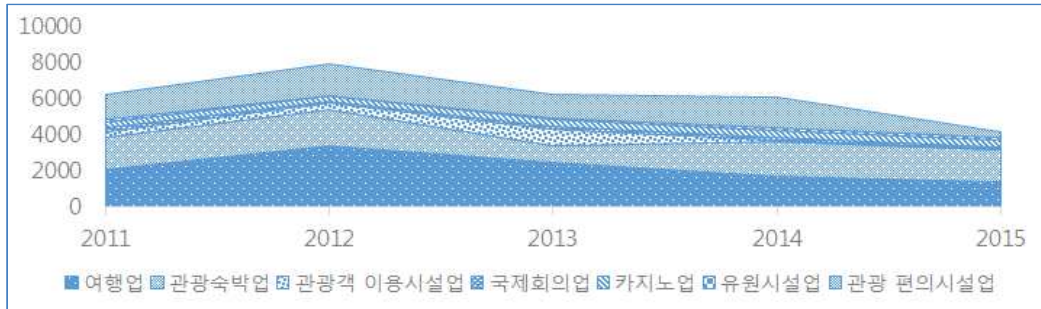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여행업	2,051	3,415	2,445	1,650	1,400
관광숙박업	1,788	1,963	926	1,937	1,739
관광객 이용시설업	303	402	957	133	88

(단위: 명)

국제회의업	253	58	126	110	47
카지노업	295	298	378	415	440
유원시설업	145	48	73	149	111
관광 편의시설업	1,380	1,757	1,355	1,678	317
계	6,215	7,941	6,260	6,072	4,141

출처: 각년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림 57] 인천시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2011~2015)



출처: 각년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2015년 현재 인천시 관광사업체 매출 총액은 482,175백만 원으로 관광숙박업(179,913백만 원)과 여행업(130,419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3년 기록적인 매출액 성장 이후 감소세에 있는 상황으로, 매출액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표 79> 연도별 인천시 관광사업체 매출액(2011~2015)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여행업	97,501	199,901	1,080,389	486,572	130,419
관광숙박업	150,877	243,073	81,572	263,518	179,913
관광객 이용시설업	91,218	70,294	211,414	14,182	4,624
국제회의업	14,600	10,012	106,575	15,160	55,935
카지노업	74,194	77,450	88,243	108,638	95,107
유원시설업	3,606	2,383	13,898	7,063	5,240
관광 편의시설업	72,503	208,220	52,037	62,378	10,937
계	504,499	811,333	1,634,128	957,511	482,175

출처: 각년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림 58] 인천시 관광사업체 매출액 추이(2011~2015)



출처: 각년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MICE산업 매출액(2015 기준)은 서울 매출액이 2조 2,41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은 그 다음 수준(4,291억 원, 전국 매출액 대비 8.6%)의 매출액을 기록함(2015 MICE 산업통계조사·연구).
- 인천시의 MICE 매출액은 대부분 시설업에 기반(4,142억 원, 전국 매출액 대비 15.0%, 인천시 내 매출액 대비 96.5%)한 것으로, 국제회의 및 전시기획업의 매출액은 낮은 수준(105억 원, 전국 매출액 대비 0.5%)에 머물러 있음.
 - 전년 대비 인천시 MICE산업의 총 매출은 38,061백만 원 증가(약 10.0%)하였으나 시설업 부분에서만 40,209백만 원 증가함.

〈표 80〉 7개 특·광역시 MICE산업 매출액 현황(2015)

(단위: 백만 원, %)

구분	특광역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시설업	586,843 (21.2)	206,775 (7.5)	414,272 (15.0)	70,504 (2.5)	25,802 (0.9)	52,642 (1.9)	40,679 (1.5)
국제회의 및 전시기획업	1,393,932 (71.2)	66,250 (3.4)	10,501 (0.5)	54,705 (2.8)	38,941 (2.0)	105,233 (5.4)	1,100 (0.1)
인센티브 여행업	260,241 (95.9)	143 (0.1)	4,390 (1.6)	396 (0.1)	1,840 (0.7)	183 (0.1)	214 (0.1)
전체	2,241,016 (44.8)	273,168 (5.5)	429,163 (8.6)	125,605 (2.5)	66,583 (1.3)	158,058 (3.2)	41,993 (0.8)

출처: 2015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한국관광공사, 2016)

[그림 59] 인천시 MICE산업 매출액 추이(2014~2015)

(단위: 백만 원)



출처: 각년도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 현재 인천시에서는 MICE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담당 조직(문화관광체육국 내 마이스산업과²²⁾)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15억 예산규모로 운영 중임(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종합하면 인천 MICE 산업은 서울 다음의 매출액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공항, 항만, 신도시(송도 등)를 기반으로 한 시설 인프라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동시에 있음. 향후 국제회의 및 활동 유치에 위한 협력기반 마련 등 관련 산업의 연계를 통한 MICE 산업 내용적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

□ 관광·MICE 인력 현황

- 2015년 기준 인천시 관광사업체 종사자는 4,141명으로 당해 신규채용 인원은 669명으로 집계되었음. 자격증 보유 종사자는 214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약 5%이며 관광통역 안내사(97명)와 국내여행 안내사(71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문화체육관광부, 2016).

<표 81> 인천시 관광사업체 종사자 통계(2015)

(단위: 명)

구분	총 인원	신규 채용	자격증 보유						소계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자	호텔 서비스사	기타	
인원	4,141	669	97	71	15	12	5	14	214

출처: 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2016)

22) 2015년 1월 이후 1과 3팀 운영 중.

- 인천시 MICE 분야에는 연간 약 6,000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천시내 교육기관(대학 등)에서 배출되는 연간 인원은 약 6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인천시 주요업무계획, 2017). MICE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개발 체계와 교육과정이 추가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시점임.

〈표 82〉 인천시 MICE분야 필요인력(연간)

(단위: 명)

업체명	합계	영종 파라다이스	강화 종합리조트	영종 푸리시저스 (미단시티)	송도 테마파크	영종 드림 아일랜드	영종 인스파이어
준공시기	-	2017.4	2017.12	2018 이후	2019.5	2020	2020
필요인력 (MICE)분 야	10,700명 (5,600)	2000명 (1,000) '16년: 500명	200명 (100)	1,000명 (500)	2,500명 (1,000)	2,000명 (1,000)	3,000명 (2,000)

자료: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계획(2017)

* 복합리조트 內 MICE분야 :관광(호텔·카지노·쇼핑 등)·컨벤션

〈표 83〉 MICE분야 대학전문인력 현황(연간)

(단위: 명)

총 인원	인천대	인하공전	재능대	경인여대
610	150 (MICE 기획과정)	100 (호텔경영)	280 (호텔외식 등)	75 (카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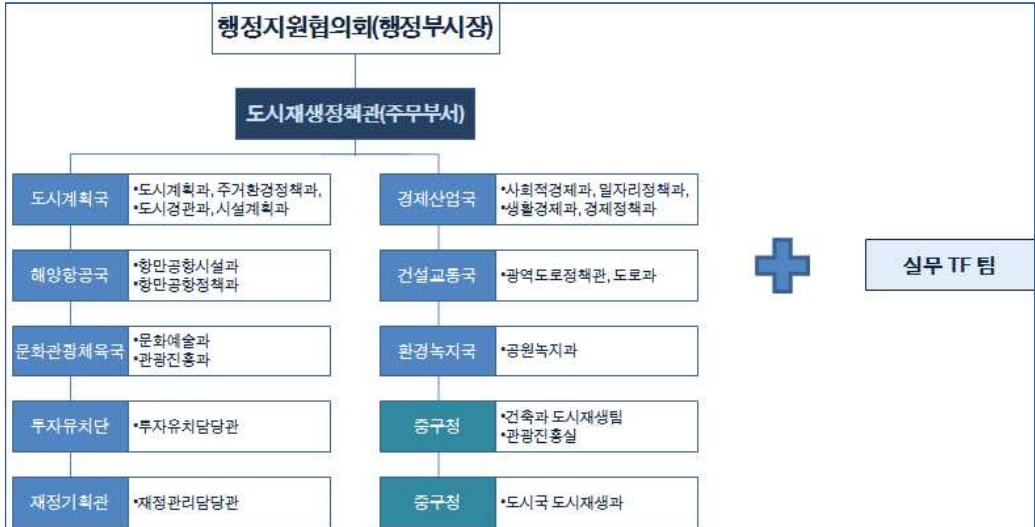
자료: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계획(2017)

□ 문화연동이 필요한 행정조직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효과적이지만 현재 각 계획을 주관하는 부서는 상이한 상황임.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균형건설국 내의 도시재생과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문화정책은 문화관광체육국 내의 문화예술과에서, 항만 주변 종합발전계획은 해양항공국 내의 항만과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우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한 사업이 추진되는 도시재생전담조직 사업추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을 계획함. 행정지원협의회를 통해 실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행정지원을 도모하고 있음(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천시 8 개국·16개 부서·2개 구청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위한 별도의 협력체계 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문화도시 정책의 안정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 간 소통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

[그림 60] 인천 개항창조도시 행정지원협의회 구성 안



출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7) 문화정책

-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인천 문화정책 환경과 조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문화정책 범주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황을 검토함.

□ 6개 광역시 문화관련 주요 정책과제 현황

-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각 광역시 마다 도시의 지역문화 가치를 문화적으로 재조직하고 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기존에 형성된 도시 이미지와 자원의 보존을 넘어 변화하는 지역문화환경에 부합하여 문화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임.

- 이를 위해 대다수 광역시는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을 둔 생활문화 활성화와 예술인 창작기반을 확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중심으로 광역시의 특색에 적합한 신산업 육성을 모색하고 있음. 울산의 ‘산업을 활용한 창조도시’, 부산의 ‘영상중심도시 더욱 특성화 및 확산’, 광주 ‘도예와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 이미지 등 주로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미래적 관점에서 문화도시 기반을 만들어내고자 함.

〈표 84〉 광역시별 문화관련 부서 및 주요 정책과제 비교

광역시	문화관련 부서	문화관련 정책
부산	문화예술과 국제협력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광진흥과 관광산업과	아시아 영상중심도시를 중점으로 부산촬영소(인프라)를 건립하고, 관련 페스티벌 및 행사들을 주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또한 항구를 끼고 있는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류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관광문화 및 연계 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인천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관광진흥과, 마이스산업과	인천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문화성시’ 계획과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도시’ 를 지향하고 있음. 또한 인천의 입지적 요건을 고려한 마이스산업과 중장기적 관점의 관광활성화 정책들이 다양하게 계획 및 실행되고 있음
대구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콘텐츠과, 관광과	문화적 비즈니스와 문화예술을 융합한 컬처노믹스를 기반으로 게임과 뮤지컬산업을 중점적으로 클러스터 산업을 구성하고 연계된 다양한 문화예술산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관광산업으로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역사가도 조성’, ‘팔공산 수목원’, ‘관광여가 휴양촌’ 과 같은 사업들을 운영계획 중에 있음.
광주	문화정책팀, 관광도예팀, 문화재팀	도예를 중심으로 핵심 문화콘텐츠 설정하고 다양한 도예관련 축제와 전통문화 산업육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대전	문화예술과, 문화재총무과, 관광진흥과	다양한 교통지로서 내부로는 지역민의 문화복지 및 생활문화 활성화와 외연적으로는 대전 내에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결합한 도시로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음
울산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창조도시 조성을 목표로 울산이 기존에 공업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art factory’, ‘산업페스티벌’ 과 같은 사업들과 창조인력이 유입할 수 있는 예술생태계 구축으로 주된 방향성을 잡고 있음

출처 : 각 광역시 홈페이지 , 각 광역시 업무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 인천 문화정책 분석

- 민선 6기 인천광역시 시정 및 문화 분야 중기지방재정 계획(~2020) 검토

- 민선 6기의 인천의 비전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라는 슬로건 과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이란 시정목표아래 ①풍요로운 시민의 삶 ②역동적인 세계도시 ③인천만의 가치창조 ④시민중심 시정실현을 4가지 시정방침으로 가지고 있음.

[그림 61] 민선 6기 시정 비전



- 2016~2020 인천시 중기지방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주된 투자 방향을 살펴볼 수 있음.
 - ① 인천 문화가치 재창조를 통한 문화 행복도시 기틀 마련
 - ②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통한 창조적 문화유산도시 조성
 - ③ 인천 교유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도시 관광 활성화
 - ④ G-MICE 허브도시 인천 구현
 - ⑤ 건강과 희망을 주는 스포츠 인천 구현
 - ⑥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저변 확대
 - ⑦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실현
 - ⑧ 박물관 소장유물 체계적 보존관리 및 전시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 2017년 기준 인천시 시정방침과 중장기 재정정책을 참조하여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람 중심의 일상생활 속 문화생활의 활성화 및 확대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인천만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가치

를 재조명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인천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①사람(인천시민)중심, 일상적인 행복이 문화정책 지향점으로 자리매김=생활권 문화 활성화 강화 기반으로 작용 ②고유문화유산 등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가치 재조명에 중점 ③역사문화자원(고대~근대)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정책 검토

- 문화도시와 연계되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국의 주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를 일상생활권 안에서 향유하는 지속적으로 시민중심의 문화예술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시민들의 당연한 주권으로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 인천만의 고유한 지역적 역사문화자원들을 보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활용하고 확산하고자 하며, 인천만의 지속적인 관광산업을 특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벤트 전시산업들을 기반으로 하는 MICE 산업의 내외연적 확대를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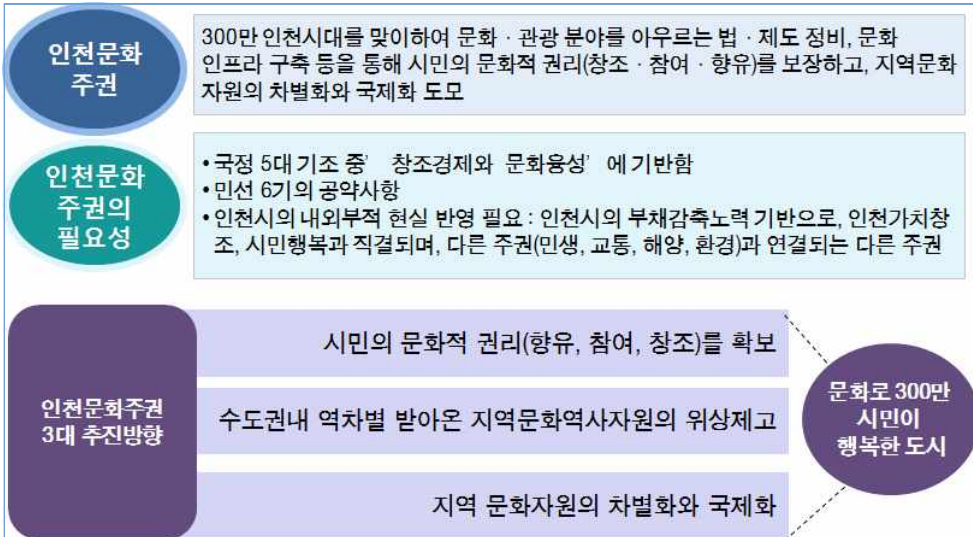
〈표 85〉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 정책목표(2017)

전략	주요과제
행복한 인천, 문화로 시민행복	인천가치 재창조로 문화주권 실현
	창작환경 조성 및 문화인프라 확대
	생활문화 활성화로 문화적 권리 실현
인천만의 창조적 문화유산 계승·발전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창출
	강도의 꿈 실현
	세계유산 등재로 명품 강화 육성
한국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복합 관광메카 인천	인천 매력 발굴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조성
	수요자 중심의 관광도시 인천 구현
	인천 가치재창조를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
G-MICE 허브도시 조성	송도유원지(테마파크) 조성 사업
	인천을 도약시킬 메가 이벤트 론칭
	고객 맞춤형 기업회의 및 이벤트 유치
	국제회의 등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스포츠를 통한 활기찬 도시 구현	지역특화 전시산업 육성
	FIFA U-20 월드컵 성공적 개최
	엘리트 체육육성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시설확충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교류 확대

- 인천 문화주권계획(2016년 10월)
 - 인천시는 시민중심 문화가치를 강조하며 인천이 앞으로 추진할 문화적 비전으로 '인천 문화성시'를 중점시책 방향으로 하는 문화주권계획(2016년 10월 발표)을 발표하였음.

[그림 62] 인천 문화주권의 필요성과 3대 추진방향



[그림 63] 인천 문화주권계획 주요내용 및 이슈

분 야	과 제	이슈
인천가치 재창조로 문화주권 실현	1. 개방문화플랫폼 확대	①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적 공간의 활용 ② 문화적 공간의 활용 확대 및 활용 주체에 따른 공간가치의 재생산 ③ 일상 속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생활문화활성화 ④ 문화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실천 방안수행 ⑤ 재정적 기반 마련
	2. 새로운 인천고유 역사공간 확대 ① 문학산성 복원 및 산성음악회 개최 ② 계양산성 복원 및 박물관 건립 ③ 한국전주고역사문화체험관 설립 및 답동성당 성역화	
	3. 인천 역사문화공간 국립화 격상	
	4. 강화해양관방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화인프라 확대	5. 시립미술관 건립과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6. 청년문화창작소 건립	
	7. 문화예술의 본산 집적화 및 이전	
	8. 국립문화공간 유치	
	9. 아트센터 인천 국가대표 전용홀 조성	
	10. 작은 문화공간 설립 및 지원 확대	
생활문화 활성화	11. 생활문화센터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	
	12. 인천대표 공연 창작	
	13. 글로벌 음악축제도시 추진	
	14. 생활문화 기반·콘텐츠 확대	
	15. 인력양성 및 교육	
	16. 예술인 복지 및 문화다양성 존중	
	17. 문화예산 3.0 단계적 달성	
실천방안 등	18. 실천추진체계 구축	
	19. 문화관광산업 육성	

출처 : 300만 시민행복을 위한 문화성시 인천 문화주권 발표자료

□ 인천 문화정책 시사점

-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 문화정책을 통해 공통된 시사점은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 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향유’ 하며, ‘다양한 인천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보존·활용·확산’하고,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인천 문화주권계획에서는 이러한 문화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재정적 기반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따라서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 기조와 큰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내용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함.

〈표 86〉 최근 인천 문화정책의 주요 시사점

구분	민선6기인천광역시 시정 및 문화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	인천문화관광체육국 주요정책 (2017년)	인천 문화주권계획
주요 시사점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일상 생활 속 시민기반의 문화예술확대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
	고유문화유산 보존 및 확산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을 통한확산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위상 제고
	인천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광 및 MICE산업 육성	문화적 공간가치의 재생산 문화주권 실현위한 실천방안 수행 재정적 기반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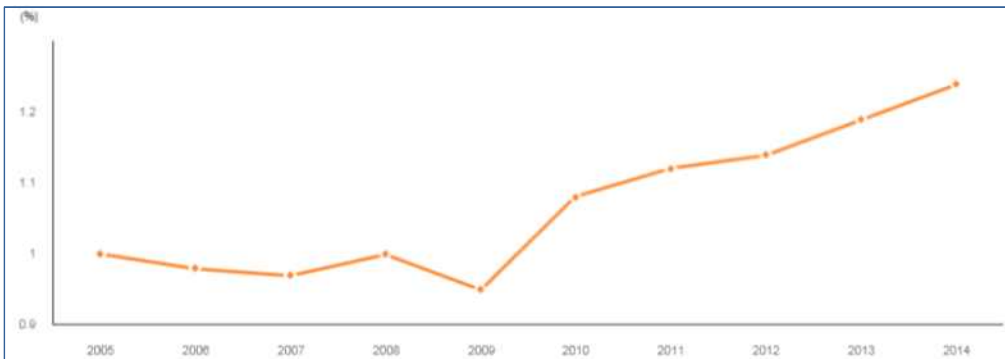
8) 문화재원

□ 문화재원은 인천 문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실천적 기반이 되는 핵심 영역임. 문화재원에서는 인천시 문화재원을 둘러싼 중앙 정부 및 타 광역시 문화재원의 변화 추이와 인천 문화재정 현황을 검토함.

□ 중앙정부 문화재정

- 문화를 핵심 동인을 하는 사회발전 패러다임 변화를 일찍이 수용한 중앙정부는 2005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 정부 총 재정 대비 문화재정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²³⁾.

[그림 64] 정부 총 재정 대비 문화재정 증가 추이(2005~2014)



2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각년도
 주석 :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지출규모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함.
 2) 재정기준: 예산+기금

- 정부의 문화재정은 문화예산부문, 관광부문, 체육부문,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인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전체 정부의 문화재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²⁴⁾. 이에 문화예술부문, 관광부문의 절대적인 예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표 87〉 중앙정부 문화재정 총액과 GDP 대비 문화재정 비율(2007~2014)

(단위: 억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문화재정(억원)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44,224
예산	12,681	15,136	16,665	18,167	19,604	20,933	22,201	23,208
기금	9,979	11,218	12,081	13,580	14,954	16,261	18,847	21,016
문화예술부문	9,440	10,709	11,275	13,266	14,552	16,225	16,793	18,782
관광부문	6,649	7,766	8,944	8,901	9,257	9,829	10,964	12,316
체육부문	4,419	5,304	6,431	7,303	8,403	8,634	10,744	10,463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152	2,575	2,096	2,277	2,346	2,506	2,548	2,663
GDP 대비 문화재정(%)	0.22	0.24	0.25	0.25	0.26	0.27	0.2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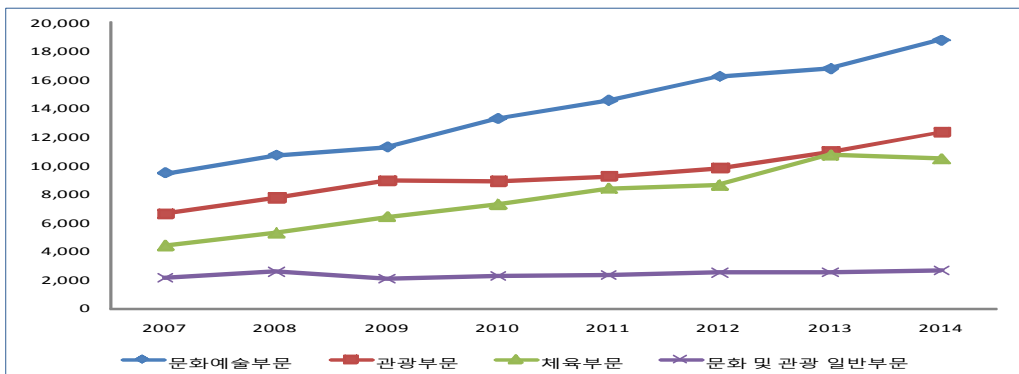
출처: 문화예술정책백서(각년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정 및 방송위원회제외,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제외된 내용임.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중무, 홍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함.

※ GDP는 2010년에 개편된 국민계정 기준 자료를 사용함.

[그림 65] 중앙정부 분야별 문화재정 추이(2007~2014)



- 전국 광역시 대비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 2013년~2015년 전국 주요 광역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문화예술 예산 규모

2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각년도,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의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예산 대비 문화예술예산의 비율은 소폭 하향하고 있음. 인천 또한 2015년 문화예술 규모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2014년 대비 2015년의 증감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광역시의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울산과 대구는 증가하였으나 대전, 광주는 대폭 감소하였음.

〈표 88〉 전국 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 부문 예산 규모 비교(2013~2015)

구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계	
2013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4,683,331	6,139,474	4,220,000	2,426,987	2,780,056	1,898,947	22,148,795	
	문화예술	규모	72,686	136,348	79,468	68,399	111,890	48,663	517,454
		비율	1.55	2.22	1.88	2.82	4.02	2.56	2.34
2014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5,263,812	6,335,242	4,414,700	2,552,150	2,894,183	2,035,264	23,495,351	
	문화예술	규모	74,407	160,100	82,680	80,038	90,991	60,435	548,651
		비율	1.41	2.53	1.87	3.14	3.14	2.97	2.34
	전년도 대비 증감률	일반회계	12.39	3.19	4.61	5.16	4.11	7.18	6.08
		문화예술	2.37	17.42	4.04	17.02	△18.68	24.19	6.03
2015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4,977,417	6,880,522	4,688,800	2,612,699	3,103,260	2,129,248	24,391,947	
	문화예술	규모	69,327	159,729	86,157	65,926	82,743	69,549	533,431
		비율	1.39	2.32	1.84	2.52	2.67	3.27	2.19
	전년도 대비 증감률	일반회계	△5.44	8.61	6.21	2.37	7.22	4.62	3.82
		문화예술	△6.83	△0.23	4.21	△17.63	△9.07	15.08	△2.78

출처: 2015 인천문화예술연감(2015), 인천문화재단

○ 2013년~2015년 인천시 문화예술 부문별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89〉 인천광역시 본청 문화예술 부문별 예산 규모(2013~2015)

부문별 문화예술 예산	2013년		2014년		2015년	
문화 인프라 구축	2,550	4.9%	2,242	3.9%	4,502	8.2%
지역문화 창달	8,997	17.2%	10,259	18.0%	9,922	18.0%
문화도시 기반 조성	16,211	31.1%	19,427	34.0%	14,095	25.6%
문화예술 공연	14,724	28.2%	15,000	26.3%	15,364	27.9%
관객친화적 공연장 조성	2,599	5.0%	2,061	3.6%	1,786	3.2%
명품도서관 실현	4,155	8.0%	3,906	6.8%	5,107	9.3%
유물관리 및 전시	1,218	2.3%	1,275	2.2%	1,297	2.4%
박물관 분관 운영	1,126	2.2%	2,175	3.8%	1,680	3.0%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307	0.6%	326	0.6%	245	0.4%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130	0.2%	201	0.4%	840	1.5%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175	0.3%	256	0.4%	256	0.5%
총합	52,192	100.0%	57,128	100.0%	55,0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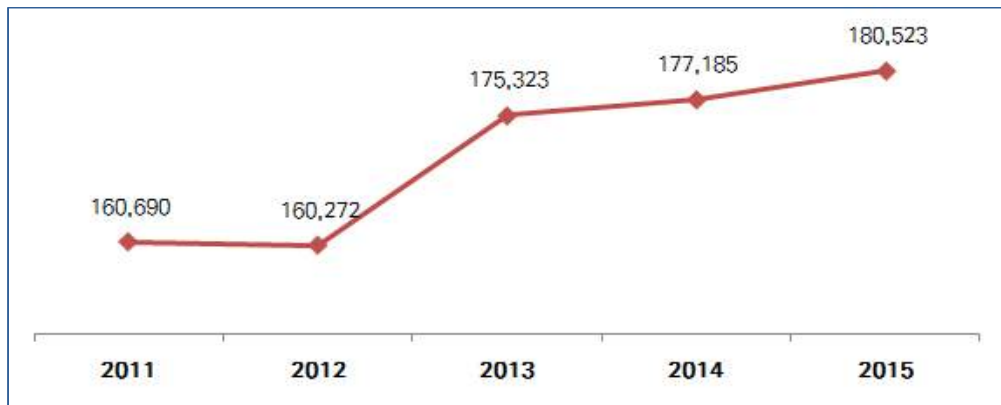
출처: 인천문화예술연감(2015)

- 전반적으로 문화 인프라 구축, 도서관이나 공연장 조성 등에 일정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문화도시 기반 조성 부문에서도 전체 예산의 30% 내외로 꾸준히 편성되어 인천시가 문화도시 관련 재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 공연, 지역문화 창달 등의 문화콘텐츠 부문에도 예산이 일정 규모로 편성되어 있어 문화기반 조성과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전통문화 및 역사문화유산 관련 예산이 비중이 적고 시민과 생활문화 등의 예산이 잘 드러나지 않아 향후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서 재고가 필요한 영역임.

□ 기업 등 민간 문화예술 지원예산 규모 추이

- 국내에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이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업이 독자적 이윤 추구만을 통해서만 지속적이 성장이 불가능하고, 법령과 사회적 윤리 등의 준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적 담론이 확산되는 것과 연동되어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5년 기업 문화예술 지원 총액은 1,805억원으로 2014년 대비 1.9% 상향됨.

[그림 66] 2011-2015 연도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출처: 한국메세나협회,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 국내에서는 1994년부터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투자를 돕는 한국메세나협회가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추진되기 시작하여 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편인데, 인천에서 이러한 흐름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음.

- 향후 인천이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사회적 환경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2. 인천시 문화수요 분석

2.1. 문화수요 조사결과

1) 문화주체

□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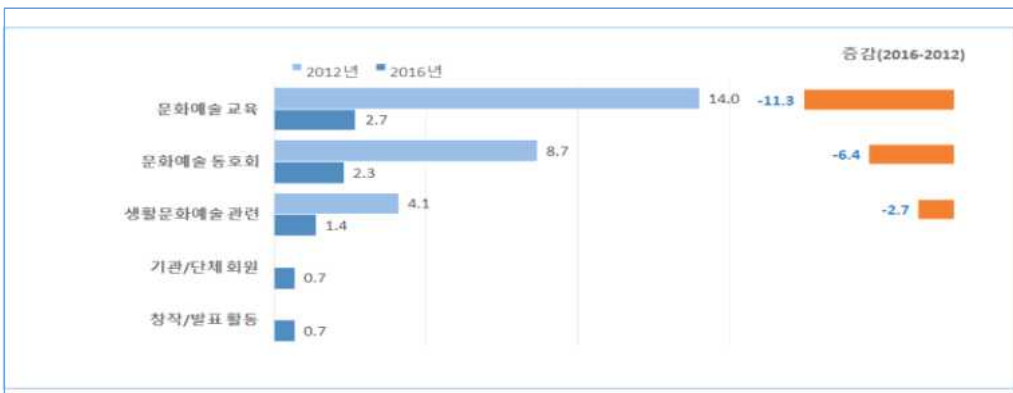
- 인천시민은 영역별 삶의 질 평가에서 문화/여가활동이 이웃과 교류(15.2), 지역소속감(15.2)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인식(12.8)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여가활동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문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적절히 즐기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그림 67] 인천시민이 지각하는 문화/여가활동의 중요성과 삶의질에서 현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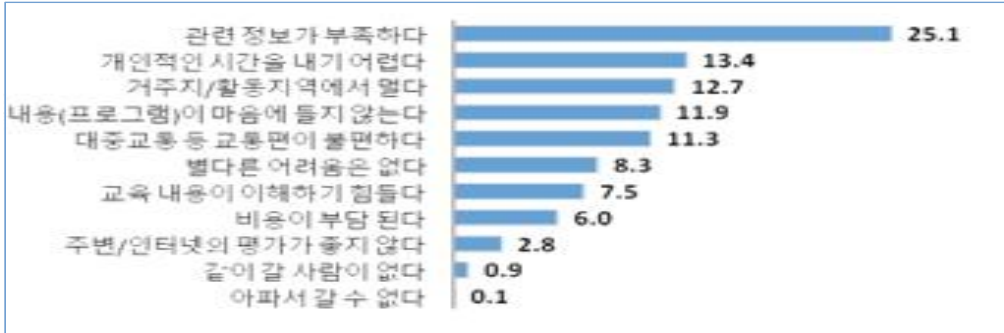
- 인천시민의 문화활동은 2012년 지표 대비 2016년 지표에서 크게 축소되었음. 문화예술 교육은 14%(2012년)에서 2.7%(2016년)로 감소하였으며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은 8.7%(2012년)에서 2.3%(2016년)로 감소하였음.

[그림 68] 2012년 대비 2016년 문화활동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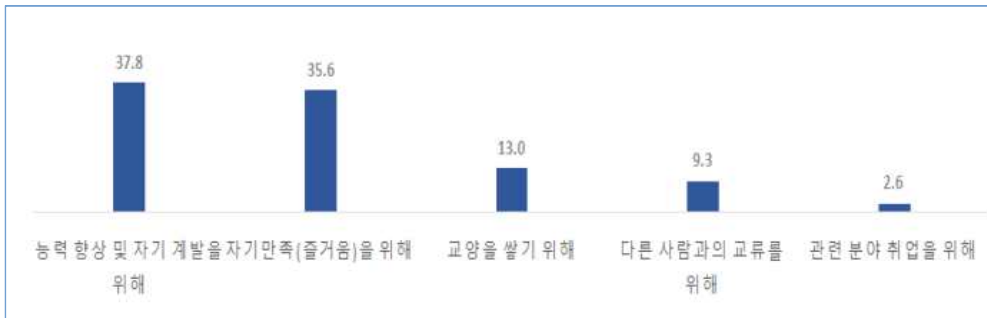
- 이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참여 애로사항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의지와 수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리적 접근성이 멀고, 정보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제 참여에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의 시민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천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69] 인천시민 문화예술교육 참여 애로사항



- 인천시민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계기는 ‘능력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해’(37.8%), ‘자기만족을 위해서’(35.6%)가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인천시민은 자기 관심에 의해 주도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보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요에 적정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공간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그림 70] 인천시민 문화예술교육 참여계기



- 인천시민의 문화예술교육 만족도는 ‘강사/진행자 전문성’(69.9%) 항목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목적과의 적합성’(61.9%),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61.2%) 순으로 나타났음. 향후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따른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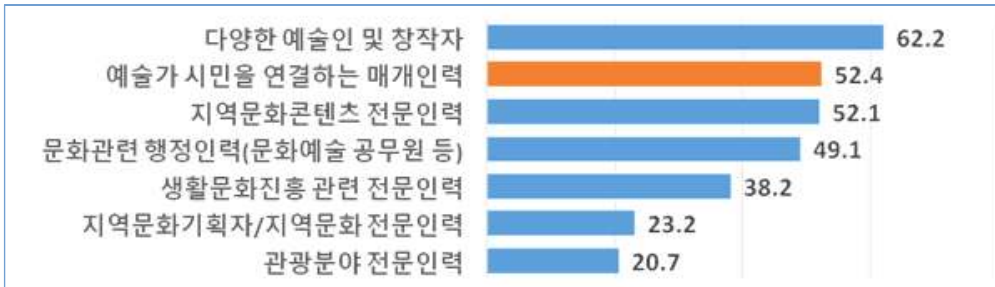
춤형 프로그램개발과 다양하고 양질인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

[그림 71] 인천시민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 인천시민은 문화도시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예술인/창작자’(62.2%)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 예술가와 시민을 연계하는 ‘매개인력’(52.4%)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향후 예술인 활동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문화매개인력군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과 배치가 필요한 상황임.

[그림 72] 문화도시 관련 필요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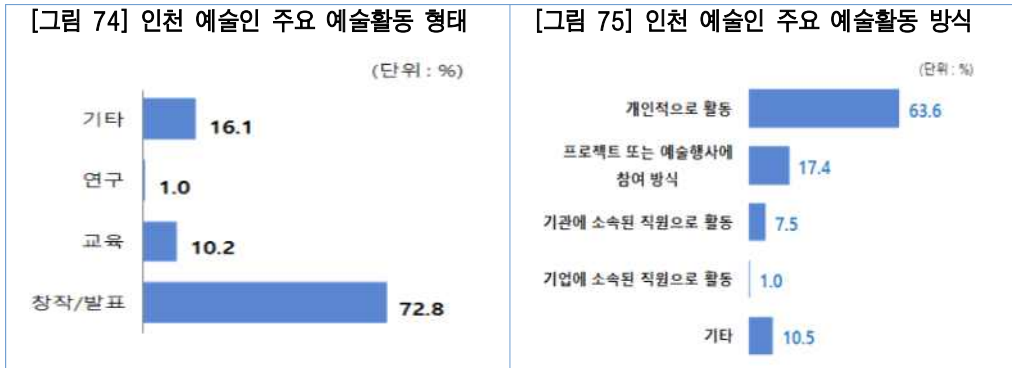
□ 인천 예술인 문화수요

- 인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활동분야는 시각예술(36.1%) > 문학(24.3%) > 공연 예술(23.6%) > 전통 예술(8.5%)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73] 인천 예술인 활동 분야



- 주요 예술활동은 창작/발표(72.8%) 참여가 대부분이며, 교육 비중은 10% 정도로 높지 않은 편으로 나타남. 활동방식은 개인활동(63.6%) > 예술행사(17.4%) > 기관 직원(7.5%) > 기업직원(1.0%)순임.



- 예술인의 창작공간 형태는 없음(39.3%)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개인 소유(23.0%) > 사설시설(20.3%) 순으로 나타남. 예술활동에 가장 필요한 공간은 좋은 접근성(30.5%)과 이용비용의 부담이 없는 곳(29.2%)으로 조사됨.



- 예술가들이 인천 내에서 활동하는 주된 이유는 거주 지역(35.4%) > 성장 지역(23.8%) > 예술활동 시작 장소(20.4%) 순이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인천이 예술창작의 인프라나 다른 지원정책의 혜택보다, 근원적인 생활공간이자 창작자에게 거주지역으로서 명목상의 의미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 생활/연고와 같은 존재적 이유 외 창작기반의 만족도, 예술교류 등의 내적 요인이 부족한 상황임.

[그림 78] 인천지역 내 예술활동 주된 이유



○ 현재 인천에서 가장 발전한 예술분야로는 미술(23.6%) > 음악(22.0%) > 문학(12.1%) 순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낙후된 예술분야는 미술(16.1%) > 문학(13.4%) > 연극(12.5%) 순으로 나타나며, 음악의 경우 발전한 분야에 대한 응답이 낙후 분야 응답보다 높은 특성을 보임. 인천 예술인의 문화수요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들이 발전되지 못하고, 미술·음악으로만 한정되어 발전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적인 발전이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그림 79] 인천 예술분야에서 가장 발전한 분야



[그림 80] 인천 예술분야에서 가장 낙후한 분야



- 인천 예술인들의 지원 수혜 경험은 지원 주체에 따라 인천문화재단(25.9%), 기초자치단체(21.6%), 문화예술진흥기금(1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혜 횟수에 따라 타 도시 지방정부로부터(3.0회), 기초자치단체(2.8회), 인천 비영리민간단체(2.7회)의 순으로 나타남.



- 인천 예술인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남.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지원기준(백분위 값 57.1)이나 분배과정(백분위 값 56.9)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규모(백분위 값 27.0)와 예술인 의사 반영(백분위 값 32.3)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아주 낮게 나타남.

〈표 90〉 인천 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만족도(2016)

구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 점수
지원사업 종류 다양성	2.40	1.397	34.9
지원사업 규모 적정성	2.08	1.082	27.0
다수 대상 금액 분배 공정성	3.28	2.275	56.9
예술성 기준 “선택과 집중” 지원 필요	3.29	2.285	57.1
시민 대상 예술작품 향유 기여도	2.63	1.626	40.7
예술인 창작활동 기여도	2.79	1.787	44.7
예술인 의사 반영 적정성	2.29	1.292	32.3

출처: 2016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 예술인 활동기간을 25년 기준²⁵⁾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 만족도를 분석하면,

25) 설문 응답자의 활동기간 평균(24.18년) 및 중위값(25.00년)을 반영, 25년으로 활동기간 구분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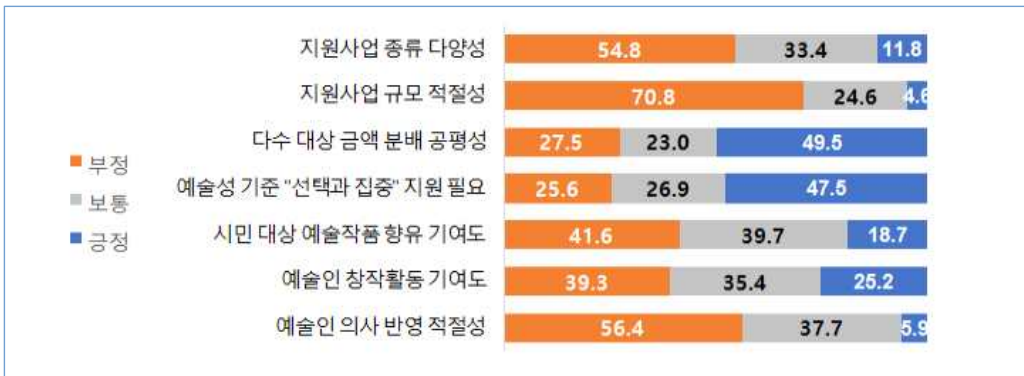
예술활동 경력이 비교적 짧은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내용적으로 지원금의 분배 공정성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지만 지원사업 종류, 규모, 창작활동 기여도, 예술인 의사 반영 항목에서는 불만이 높은 편임.

〈표 91〉 인천 예술인 활동기간별 문화예술 지원사업 만족도(2016)

구분	25년 미만	25년 이상	t값	유의확률
지원사업 종류 다양성	2.50	2.30	-1.934	.054
지원사업 규모 적절성	2.15	2.02	-1.349	.178
다수 대상 금액 분배 공정성	3.32	3.23	-0.643	.521
예술성 기준 "선택과 집중" 지원 필요	3.25	3.32	0.487	.627
시민 대상 예술작품 향유 기여도	2.79	2.46	-2.797	.005
예술인 창작활동 기여도	2.96	2.62	-2.798	.005
예술인 의사 반영 적절성	2.46	2.13	-3.386	.001

출처: 2016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그림 83] 인천 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만족도(2016)



- 또한 연령에 따라 55세 미만²⁶⁾ 예술인의 공정성 인식 평균은 2.73(표준편차 1.01)으로 고 연령대의 공정성 인식 평균(2.46, 표준편차 0.98)보다 높게 나타나 젊은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을 더 공정하게 인식하고 있음.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설정함. 표본 수는 25년 미만 150명, 25년 이상 155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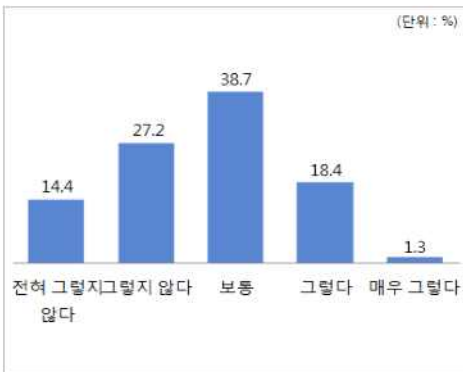
26) 설문 응답자의 연령 평균(54.34세) 및 중위값(55.33세)을 반영, 55세로 연령 구분점을 설정함. 표본 수는 55세 미만 145명, 55세 이상 160명임.

〈표 92〉 인천 예술인 활동기간별/ 연령별 지원사업 인식 차이(2016)

구분	활동 기간별				연령별			
	25년 미만	25년 이상	t값	유의 확률	55세 미만	55세 이상	t값	유의 확률
지원사업 공정성	2.77	2.41	-3.133	.002	2.73	2.46	-2.416	.016
지원사업 형평성	2.81	2.50	-2.784	.006	2.79	2.53	-2.336	.020

- 인천 예술인들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대해 부정 응답 41.6%, 보통 응답 38.7%, 긍정 응답 19.7%로 응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장르에 따라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인천 예술인들은 공연예술(45.3%)이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시각예술(13.9%), 영상/미디어(11.8%) 등의 순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함.

[그림 84] 인천 예술인 지원사업 형평성 인식



[그림 85] 인천 예술인 지원사업 지원분야 인식



- 예술인 지원방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현금 지원(60.7%)이며, 다음으로 는 수요시장 형성/홍보(21.3%) > 공간 지원(11.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반수응답자(52.8%)가 지원 예산/건수 증액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됨. 인천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대다수의 예술지원방식은 현금지원으로 경제적인 지원 정책에 동의하지만, ‘수요시장 형성’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방안과 ‘공간지원’과 같은 창작 인프라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인천시와 문화재단이 추진해야 하는 우선과제로 ‘창작지원 예산 확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2순위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나타났음. 이는 예술창작을 위한 기반인 재정적 뒷받침 속에 예술적 창작 발현을 위한 인프라의 확대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음.

[그림 88]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문화재단이 해야 할 우선순위



2) 문화활동

□ 역사유적

- 인천은 타 특·광역시에 비해 문화유산 및 자원이 많으나 실제적으로 문화유산의 활용도가 떨어지며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대체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89] 특광역시 및 인천 자치구내 문화유산 순위 대비 이용규모

구분	문화유산		문화유산 이용규모	
	2016		2016	
서울	1		1	
부산	2		3	
인천	3		6	
대구	4		2	
광주	6		4	
대전	5		5	
울산	7		7	
충구	3		1	
동구	9		7	
남구	4		9	
연수구	2		5	
남동구	6		8	
부평구	10		6	
계양구	7		4	
서구	5			
강화군	1		2	
옹진군	8		3	

□ 인천시민 문화활동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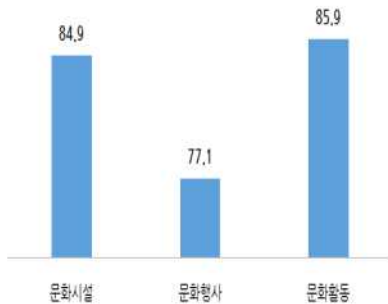
- 인천시민이 최근 참여한 문화예술행사는 '지역 축제'(72.2%), '역사문화유적'(28.7%), '연극/뮤지컬'(17.0%), '대중문화공연'(16.5%), '미술 전시회'(9.1%), '문화관련 행사'(5.9%) 순로 나타나며, 최근 참여한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교육 참여'(2.7%),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가입/활동'(2.3%)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인천시민이 향후 참여의향이 있는 문화예술행사는 역사문화유적, 대중문화공연, 연극/뮤지컬 등으로 나타나며,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90] 인천시민 문화예술행사 및 활동참여의 현재와 향후 의향

분야		현재 경험	이용 의향	(의향-경험)
행사	지역 축제	72.2	79.4	7.2
	역사문화유적	28.7	61.4	32.7
	대중문화공연	16.5	58.7	42.2
	연극/뮤지컬 등	17	52.3	35.3
	전통예술행사	3.7	32.7	29.0
	미술 전시회	9.1	31.1	22.0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합창	4.8	30.1	25.3
	문화관련 행사	5.9	28.0	22.1
	무용	2.5	22.3	19.8
활동	문화예술 관련 교육 참여	2.7	10.9	8.2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가입/활동	2.3	10.5	8.2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회원 가입/활동	0.7	9.1	8.4
	생활문화예술 관련 활동	1.4	7.6	6.2
	문화예술 관련 창작/발표 활동	0.7	6.7	6.0

- 인천지역 내 영역별 문화예술활동 비중은 '문화활동'(85.9%), '문화시설'(84.9%), '문화행사'(77.1%) 순으로 나타남.
- 인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 이유 중 '행사에 대한 홍보(안내)가 잘 되어서'(47.1%), '마음에 드는 내용(프로그램)이 있어서'(37.0%), '관람(참여)비용이 저렴해서'(26.9%), '문화 기반 시설이 많아서'(25.7%)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문화행사의 정보접근성, 수요별·지역별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인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91] 인천시민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 참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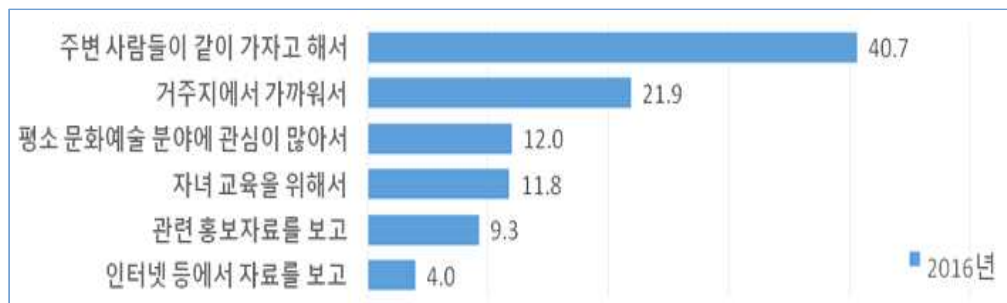


[그림 92] 인천시민 지역 외 문화예술활동 이유



- 인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계기는 '주변사람의 권유'라는 소극적 이유가 가장 높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워서'가 그 다음을 차지함.

[그림 93] 인천시민 문화예술활동 참여 계기



- 그러나 인천시민이 실제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개인적인 시간부족 외에 관련 사전정보의 부족과 거주지/활동지역과의 접근성 문제로 파악되었음.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일상생활권 문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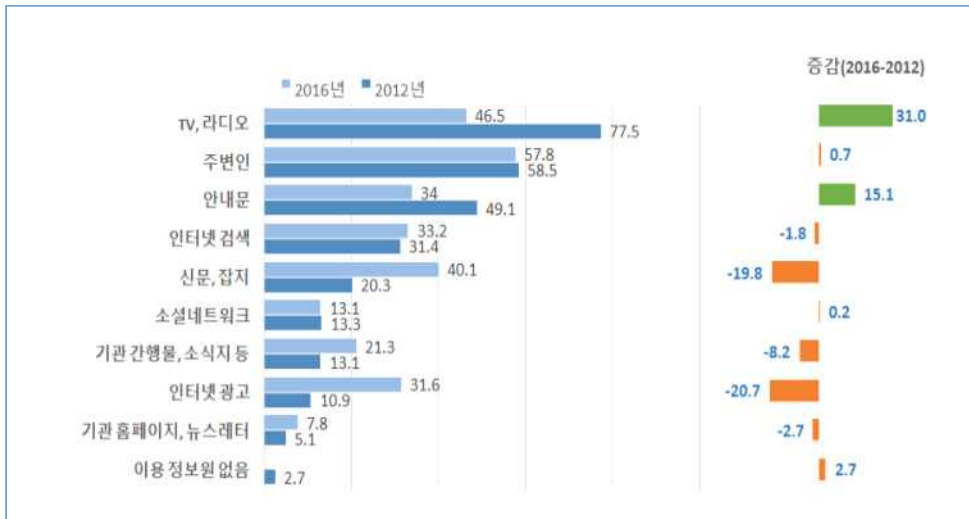
술활동의 다양화가 필요함.

[그림 94] 인천시민 문화예술활동 포기경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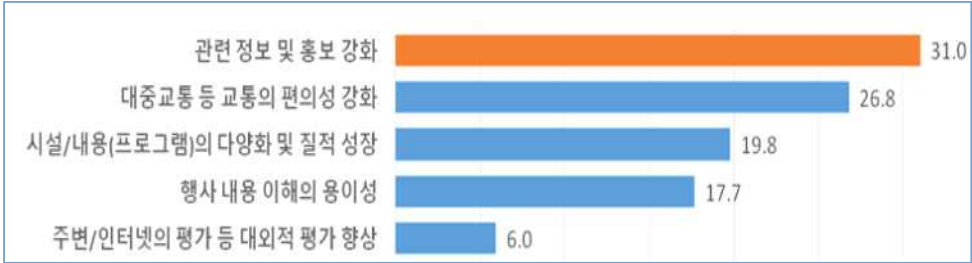
- 인천시민의 문화예술행사 정보수집 경로는 TV/라디오, 주변인, 안내문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과거 대비 TV/라디오, 안내문을 통한 정보수집 비율이 증가한 반면 인터넷 광고, 신문·잡지를 통한 정보수집 비율은 대폭 감소했음이 파악됨.

[그림 95] 인천시민 문화예술행사 정보수집 경로



- 문화예술활동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관련 정보 및 홍보 강화(3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통편의성(26.8%), 시설/내용의 다양화와 질적 성장(19.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인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 이용에 있어 정보의 접근성과 관련 홍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파악됨.

[그림 96] 인천시민 문화예술활동 관련 개선사항



□ 인천시민 지역축제 수요

- 인천시민의 지역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축제별로 고르게 나타나는 반면 축제의 인지도와 참여축제, 기억에 남는 축제는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소래포구 축제’와 ‘인천대공원 벚꽃축제’의 경우,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 경험과 함께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로 꼽히고 있음.
- ‘강화고인돌 축제’는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 대비 참여도와 기억에 적게 남는 반면 ‘부평풍물축제’의 경우, 인지도는 조금 낮지만 참여도와 기억에 남는 축제로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전반적으로 인천 지역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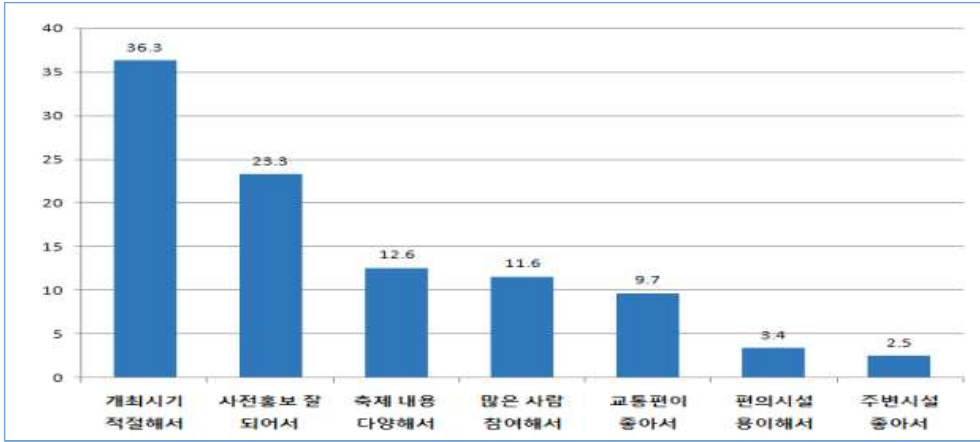
[그림 97] 지역축제 관련 경험 및 인식

축제	인지도	참여경험	만족도	기억남는 축제
소래포구축제	86.1	35.3	73.7	38.1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77.3	31.0	60.9	35.4
강화 고인돌 문화축제	63.5	10.3	75.3	10.1
부평풍물대축제	59.5	18.9	80.0	22.0
고려산 진달래 축제	53.5	13.9	70.6	14.3
강화도 약삭축제	40.6	6.2	78.8	6.2
자장면 축제	32.1	7.0	63.2	7.0
인천해양축제	28.5	3.5	71.4	3.4
서곶문화예술제	28.3	5.0	73.9	4.6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27.7	6.3	86.4	6.2
배다리 문화축전	24.8	2.3	72.1	1.8
랜드마크 락 페스티벌	19.6	3.2	76.2	3.7
무의도 어름바다 춤 축제	19.0	3.7	64.7	3.7
인천평생학습축제	15.5	1.5	75.0	0.9
인천공항 SKY MUSIC	15.2	4.4	81.8	4.9
인천 아시아 안물타리 문화제	13.7	1.3	74.5	1.0
한국공원축제	12.1	1.1	76.4	1.4
주안미디어문화축제	11.9	1.3	70.8	1.0
삼당성 역사문화축제	10.1	1.2	72.0	0.7
홍예문 예술축제	8.2	1.4	50.0	1.4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8.0	0.7	79.8	0.8
버타민 연극축제	7.3	0.7	55.6	0.7

- 특정 지역축제 선호 이유로 축제시기와 사전홍보 측면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

임. 개인별 참여시기 외에 축제에 대한 사전홍보가 참여와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축제의 내용적 측면의 다양성은 기타 선호이유와 유의미한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98] 인천시민 특정 지역축제 선호 이유



□ 인천시민 문화예술 동아리(동호회) 수요

- 인천의 문화예술 동아리는 공연 예술(40.4%) > 시각 예술(29.8%) > 전통 예술(26.5%) > 문학(5.3%) 분야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장르별 수요는 국악이 가장 많고 음악, 무용, 미술 순임. 동아리 평균 회원 수는 19명, 운영 기간은 평균적으로 6.1년이며, 10~30명 규모의 10년 미만 활동 동호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99] 인천시민 문화예술동아리 현황 및 수요



[그림 100] 인천시민 문화예술동아리 지속기간



- 동아리 정기모임 장소는 공공기관(66.7%)을 차지하며 장소이용의 불편사항으로는 이용시간대와 공간협소, 공간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보임.

[그림 101] 인천시민 동아리 정기모임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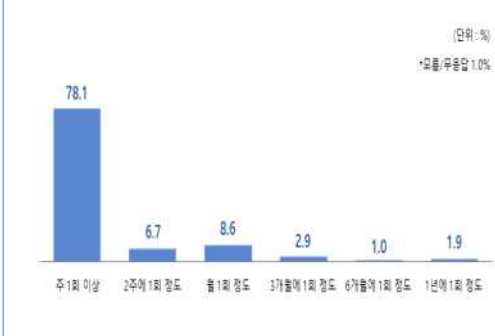


[그림 102] 인천시민 동아리 장소이용 불편사항



-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살펴보면, 동호회의 78.1%가 주 1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교육진행 방식으로 공공기관 부설기관 프로그램 활용과 외부강사 초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문화예술 동호회는 교육 중심의 활용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03] 인천시민 동호회 교육주기



[그림 104] 인천시민 동호회 교육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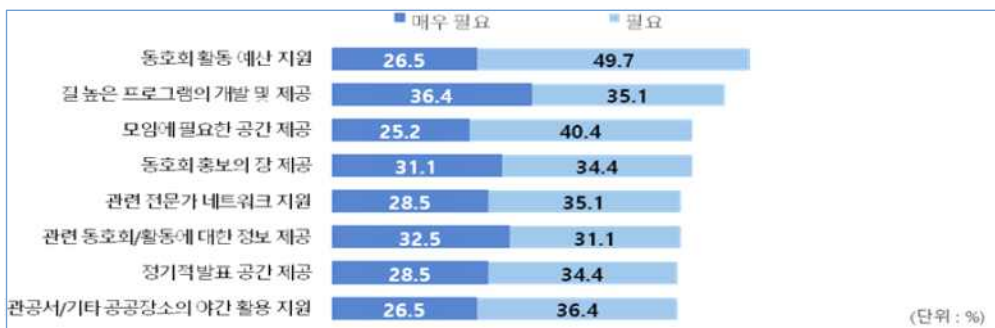
- 문화예술 동호회 예술활동 지원만족도는 ‘모임에 필요한 공간 제공’(58.8%), ‘정기적 발표 공간 제공’(41.2%),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38.5%)순으로 높고, ‘동호회 활동 예산 지원’ 및 ‘전반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직장인을 비롯해 야간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더불어 야간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가 파악되어 시간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편의성 제고방안 모색이 필요한 단계임.

[그림 105] 인천시민 동호회 예술활동 지원 만족도



- 인천시민의 동호회 관련 지원 필요사항은 ‘예산 지원’(76.2%) > ‘프로그램 개발’(71.5%) > ‘모임에 필요한 공간 제공’(64.3%)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매우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됨.

[그림 106] 인천시민 동호회 관련 지원 필요사항



3) 문화공간

□ 인천 문화시설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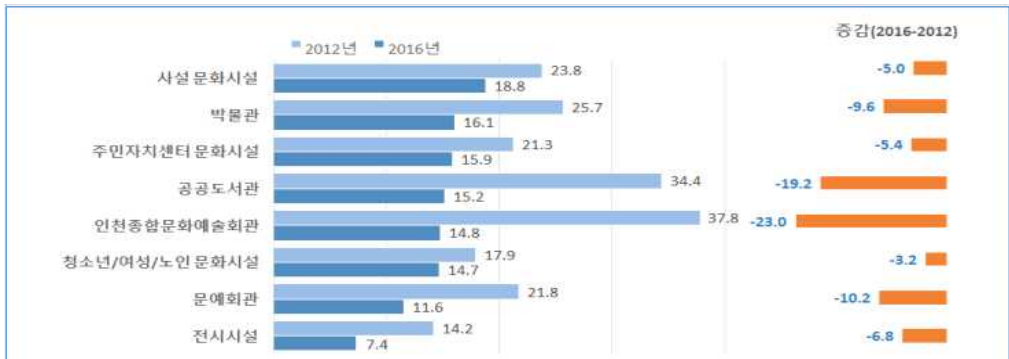
- 인천의 문화시설 현황은 타 특·광역시 대비 문화시설의 수, 관리예산, 관리인력 보유, 문화시설 이용규모 측면에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 내 프로그램의 수는 중하위권으로 약세를 보임.

[그림 107] 특·광역시 대비 인천시 문화시설 운영현황 비교

구분	강점			약점		
	문화시설	관리예산	관리인력	프로그램 개수	문화시설 이용규모	
	2015년	2016	2016	2016년	2015년	
특광역시	서울	1	1	1	1	1
	부산	3	2	2	2	2
	인천	2	3	3	5	3
	대구	4	4	4	3	4
	광주	6	5	5	6	5
	대전	5	6	6	7	6
	울산	7	7	7	4	7

- 한편, 인천시민의 문화시설 이용도는 2012년 대비 2016년에 감소하였으며 특히 인천문화예술회관(37.8%→14.8%)과 공공도서관(34.4%→15.2%) 이용도가 대폭 감소했음이 확인됨. 인천 문화시설의 경우, 공간이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운영 전문화와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양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08] 인천시민 문화시설 이용추이(2012~2016)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인천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됨

- 대체적으로 현재의 문화시설 이용률 대비 인천시민은 향후 문화시설 이용의 향과 수요가 다양한 문화시설 전반에 고르게 나타남. 2016년 인천시민문화수

요조사(1500명 조사)의 결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경우, 현재 시설 이용률은 낮지만 향후 시민들의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시민대상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다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지역별 여건과 시민의 문화시설 특성, 지역별 문화수요에 따라 공공문화 시설,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생활권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그림 109] 인천시민 문화예술시설 이용의 현재와 향후 이용 의향

분야		현재 경험	이용 의향	(의향-경험)
시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4.8	47.3	32.5
	박물관	16.1	46.4	30.3
	문예회관	11.6	45.6	34.0
	주민자치센터 문화시설	15.9	45.1	29.2
	청소년/여성/노인 문화시설	14.7	43.1	28.4
	공공도서관	15.2	38.6	23.4
	사설 문화시설	18.8	38.3	19.5
	전시시설	7.4	37.0	29.6

4) 문화공동체

□ 인천 자치구별 문화수요

- 인천시 자치구별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문화·여가 만족도는 상이한 결과를 보임. 자치구별 문화여가 만족도는 연수구가 61.0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계양구, 강화·옹진군 순으로 나타남. 반면 남구의 경우 연수구의 1/3을 못 미치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

[그림 110] 인천 자치구별 문화/여가 만족도



- 문화예술 관련 지역별 수요를 살펴본 결과, 문화시설, 문화행사,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는 자치구별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음. 전반적으로 문화시설 이용과 문화행사에 대한 수요가 자치구별 고르게 높은 반면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등에 관련된 문화활동 수요는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111] 인천 자치구별 문화시설, 문화행사, 문화활동 관련 수요

분야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옹진	
시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7.5	50.0	32	57.0	70.5	49.2	9.5	70.5	26.0
	박물관	62.5	58.6	29	58.5	53.0	55.2	10.5	63.5	26.0
	문예회관	46.2	40.0	25	56.0	30.5	52.4	21.5	49.5	18.0
	주민자치센터 문화시설	51.2	30.0	29	61.5	43.5	62.8	26.5	65.0	26.0
	청소년/여성/노인 문화시설	40	31.4	10.5	50.0	36.5	49.2	34.0	47.5	21.0
	공공도서관	63.8	71.4	25	43.5	49.0	47.2	26.0	64.5	42.0
	사설 문화시설	63.8	77.1	18	45.0	48.5	44.4	29.5	54.0	40.0
	전시시설	37.5	30.0	16	36.5	33.0	61.2	29.0	58.0	25.0
	지역 축제	22.5	20.0	14	20.5	31.5	56.8	9.5	43.0	9.0
	역사문화유적	22.5	14.3	19	31.5	37.0	53.6	12.5	44.5	15.0
행사	대중문화공연	7.5	30.0	57	41.5	77.0	70.8	35.5	63.0	29.8
	연극/뮤지컬 등	62.5	42.9	26.5	27.5	39.5	36.8	16.0	41.5	17.0
	전통예술행사	31.2	31.4	25.5	31.5	33.5	36.4	13.0	45.5	15.0
	미술 전시회	6.2	70.0	50	50.5	61.5	60.8	27.5	58.5	18.0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합창	45	34.3	9.5	29.5	23.5	22.4	11.5	30.0	10.0
	문학관련 행사	78.8	78.6	82	31.5	0	3.2	60.5	75.5	74.0
	무용	58.8	51.4	39.5	66.5	67.0	32.0	54.0	60.0	59.0
	문화예술 교육	12.5	11.4	3	10.0	8.5	10.4	4.5	18.0	4.0
	문화예술 동호회	26.2	21.4	1.5	9.0	14.0	6.8	3.5	20.5	7.0
	문화예술 기관/단체 회원	15	14.3	3	19.0	7.0	10.4	2.5	25.0	3.0
활동	생활문화예술 관련 활동	21.2	10.0	2	6.5	6.0	5.2	2.5	14.5	1.0
	문화예술 창작/발표	12.5	10.0	6	5.5	7.5	7.2	0.5	19.5	1.0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인천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됨

-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자치구별 수요는 서구와 부평구가 고르게 높은 편이며, 남구, 계양구, 강화/옹진군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낮음.
-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는 남구, 계양구, 강화/옹진군이 낮은 편이며, 이 지역을 제외한 타 자치구는 시설별 수요가 비교적 고름. 특히 인천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문예회관,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고르게 나타남.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중구, 동구, 강화/옹진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문화행사에 대한 수요는 문학 관련 행사의 수요가 자치구마다 가장 높고, 무용, 대중문화공연, 미술 전시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부평구와 서구의 경우 지역축제와 역사문화유적 관련 문화행사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낮은 수요를 보이는 문화활동은 특히 서구가 타 자치구 대비 비교적 높은 수요를 보이며 중구, 동구도 세부 활동 분야에 대한 수요가 고르게 있음이 파악됨.
- 다음으로 자치구별 문화환경 우선 개선사항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2개의 개선항

목에서 공통된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도 자치구별로 그 수요가 상이함.

[그림 112] 인천 자치구별 문화환경 우선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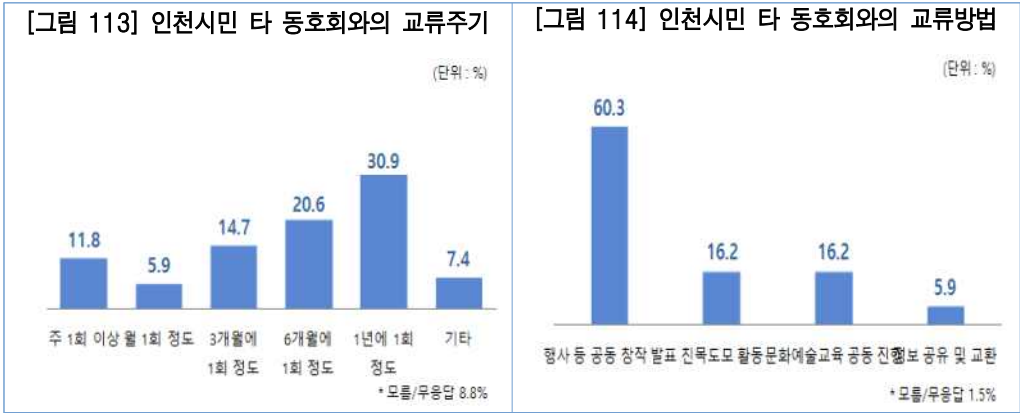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옹진
공연장/전시시설 등 문화기반 시설 보완	50.0	72.9	65.0	64.5	60.0	41.2	67.0	47.5	57.0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55.0	57.1	65.0	18.0	56.0	40.4	34.0	39.0	47.0
다양한 시간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37.5	28.6	38.5	55.0	49.0	31.2	40.0	48.5	57.0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31.3	25.7	39.5	62.0	47.0	26.8	32.5	50.5	52.0
주요 문화시설 접근 교통편 보강	28.8	25.7	12.5	32.5	23.0	24.4	22.5	23.5	32.0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16.3	8.6	24.5	18.0	22.5	35.2	28.0	26.0	9.0
취약/소의 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	32.5	28.6	11.0	18.5	14.5	22.8	23.0	15.5	21.0
거주 지역 단위 문화 활동 육성/지원	21.3	15.7	17.0	7.0	9.0	17.6	15.0	20.0	6.0
문화관련 단체 동호회 활동 지원	13.8	17.1	11.5	12.5	4.5	16.0	13.0	9.5	15.0
인천 내 예술 전문인력 육성	8.8	14.3	13.0	8.0	5.0	16.8	12.0	9.0	2.0
녹지 경관의 조성 및 활용	1.3	4.3	0.5	4.0	6.5	18.0	11.0	7.5	2.0
도시문화경관의 정비	3.8	1.4	1.0	0.0	3.0	8.4	2.0	3.5	0.0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구, 계양구, 남구, 연수구는 ‘문화기반 시설의 보완’을 우선 개선사항으로 지목하였고, 강화/옹진군, 연수구, 서구, 남동구는 ‘다양한 시간대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중구와 동구는 ‘취약/소의계층 지원제도’를 우선 개선사항으로 지목하였음. 특히 강화/옹진군과 남구는 ‘주요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를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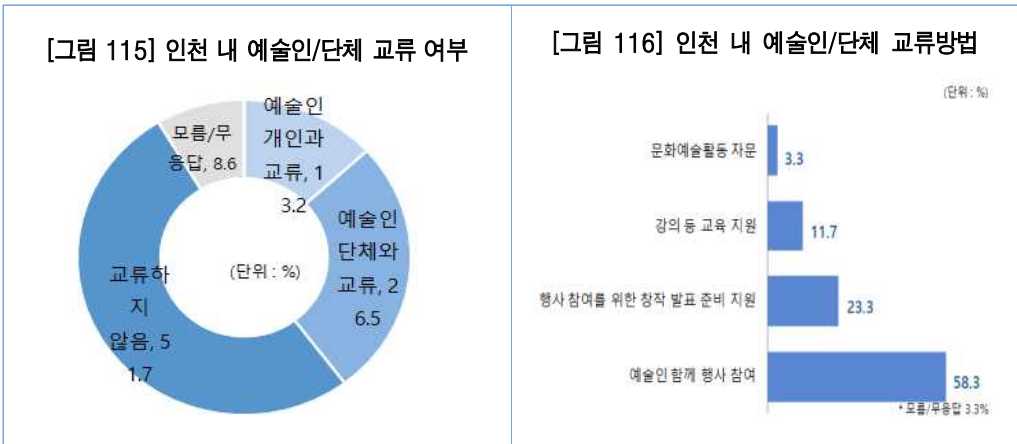
○ 이와 같이 자치구별 문화수요는 문화여건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향후 문화도시 정책추진에서 시민 중심 문화향유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자치구별 수요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할 것임.

□ 문화예술단체 간 교류에 대한 수요

○ 인천 문화예술 동호회의 약 45%는 타 동호회와 정기적인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동호회 간 교류주기는 1년에 1회 정도가 가장 많고, 6개월 > 분기별 > 주 1회 주기 순임. 동호회 간 교류방법은 절반이상(60.3%)이 ‘행사 등의 공동 창작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그 외에는 ‘친목도모 활동’(16.2%), ‘문화예술교육 공동 진행’(16.2%)의 방법으로 교류하고 있음.



○ 예술인/단체 간 교류는 절반 이상(51.7%)이 상호 교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예술인/단체 간의 교류는 예술단체 간 교류(26.5%)가 예술인 개인 교류(13.2%)보다 높게 나타남. 주된 교류방법으로는 ‘예술인 함께 행사 참여’(58.3%)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행사참여를 위한 발표준비 지원’(23.3%)과 ‘강의 등의 교육지원’(11.7%)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음이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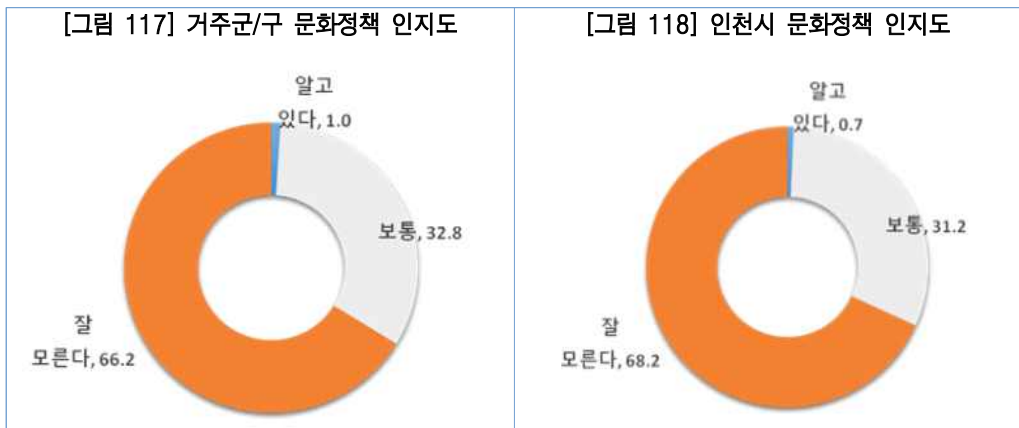


○ 종합하면, 인천 문화예술 동호회 및 예술인/단체의 상호 교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며 한정된 교류방법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파악됨. 향후 동호회 및 예술인/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 공동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다양한 교류와 활동방식에 대한 모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5) 문화정책

□ 거주군/구 및 인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지도

- 인천시민의 거주군/구 및 인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66~68% 정도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문화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인천시의 문화정책 인지도는 거주군/구의 문화정책 인지도보다 조금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인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정보습득은 주로 TV,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와 주변인을 통한 경우가 많고, 기관 홈페이지나 뉴스레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임. 조사과정에서 진행된 개별인터뷰 결과, 인천시민은 개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인천시민이 인식하는 인천시 문화정책 수립/추진의 우선순위 중점사항은 ‘문화시설 활용도 증대’(71.3%)가 1순위로 조사됨. 다음으로는 ‘문화환경 기반 조성(네트워크 강화, 각종 조례제정 등)’(57.3%), ‘문화재원 확충 및 조성’(47.3%)이 상위권을 차지면서 실질적인 문화정책 추진의 기반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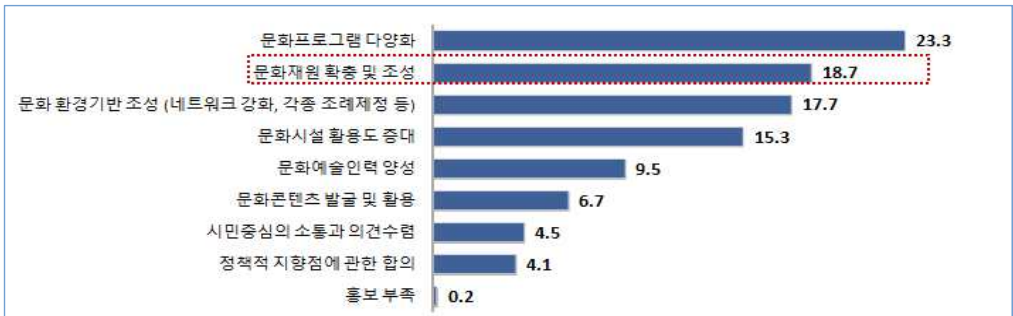
[그림 119] 인천시 문화정책 수립/추진 중점 사항(1+2+3순위)



6) 문화재원

- ‘거주군/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부족한 부분’과 ‘인천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천시민의 인식조사 결과, ‘문화재원 확충 및 조성’이 공통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함.
- 거주군/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가장 부족한 요소는 ‘문화프로그램 다양화’로 조사되었고, ‘문화재원 확충 및 조성’이 2순위로 조사되었음. 인천시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문화재원 확충 및 조성’으로 조사되었고 2순위로는 ‘각종 조례 등의 문화환경 기반조성’으로 조사됨.

[그림 120] 거주군/구가 문화도시로 가기위해 부족한 부분



[그림 121] 인천시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



2.2. “인천 문화도시 판” 시사점

1) “인천 문화도시 판” 개요

- “인천 문화도시 판”은 본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추진된 중요한 과정절차로서 인천의 다양한 문화주체 간 의견수렴과 소통·논의의 장(場)으로 ‘관계자 심층인터뷰’, ‘자치구 워크숍’, ‘열린 집담회’,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시민공청회’의 6개 프로그램이 인천 현장에서 진행되었음.
- “인천 문화도시 판”은 향후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소통이 펼쳐지는 문화도시 공론 형성의 장과 다양한 문화주체 간의 지속적인 연계·협력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연구과정으로 6개 주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6차례, 총 260여명이 인천 문화도시 판에 참여하였음.

〈표 93〉 “인천 문화도시 판” 개요

프로그램	목적	추진내용
관계자 심층인터뷰	-인천 문화도시 비전 및 가치, 추진방향 도출 -인천 문화환경 및 주요 현안 파악	-주요 문화기관 기관장 및 인천 역사·문화 분야 주요인물 심층인터뷰 -4차례 인터뷰 진행
자치구 워크숍	-10개 자치구별 문화환경 및 여건 파악 -자치구 문화정책 관계자의 정책적 공감대 및 협력관계 형성	-자치구별 문화정책 추진현황, 주요 현안 및 이슈 공유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자치구별 이슈 및 추진방향 도출 -자치구 문화정책 담당자 및 문화원 관계자 대상 1박2일 워크숍 운영
열린 집담회	-문화도시 비전 및 추진방향 도출 -인천지역 문화주체, 문화도시 영역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논의 공유	-문화 분야 원로세대, 청년세대, 자치구 관계자, 문화재단/문화원 관계자, 영역별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사전신청을 통한 시민참여 -5차례 열린 집담회 진행
자문회의	-문화도시 세부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도출	-인천지역 예술인/단체, 자치구 문화정책 담당자, 자치구 문화원 사무국장 대상 문화도시 정책과제 논의 및 확정 -4차례 자문회의 진행
정책토론회	-인천 문화도시 개념 및 추진방향 논의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영역별 이슈 공유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	-인천 문화도시 개념 및 비전체계도, 주요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 -인천지역, 전국지역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10인, 인천시 관계자, 연구진의 열린 토론
시민공청회	-인천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인천시민 공감대 형성 및 문화도시	-인천 문화도시 개념 및 비전,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주요내용 공유

	계획 공유	-열린 의견수렴 -인천문화포럼 발족식과 연계하여 진행, 인천시민 및 관계자 100여명 참여
--	-------	--

2) 시사점

□ 사람

- 인천 예술인들의 창작역량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에 대한 정확한 DB 구축이 필요함.
 - 현재 인천은 예술인의 창작실태 및 창작환경과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정확한 실태조사를 근거한 장기적인 예술인 플랜 수립이 우선과제임.
 - 원로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 대한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견예술인의 입지를 강화하고, 성장이 촉망되는 청년세대 예술인들과 중견예술인 간 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함.
 - 단순한 지원제도 강화보다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과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작역량 교육지원 등 실질적인 예술인정책 추진이 마련되어야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제도가 정립될 필요가 있음. 인천의 문화지형도에 부합하는 전문인력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역할을 규정하고 단계적인 전문인력 육성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 배치, 활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함.
 - 문화예술현장과 행정 간의 간극을 좁혀주고 다양한 현장의 예술인/단체와 기획자, 시민, 예술인/단체 간 행정과 현장의 연계의 다리역할을 하는 지역문화 매개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다양한 관점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인력에 대한 단계별, 영역별, 현장수요 맞춤형 양성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기획자의 양성은 공공기관의 영역에서 추진되는 부분과 동시에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인 활동과 실제 현장의 수요를 통해 발굴·양성되는 문화기획자들의 활동기반을 고려해야하며, 공공과 민간영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 지점이 중요함.

-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추진과 인천 현안에 부합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정책실행주체인 행정인력의 문화역량과 인식 제고가 중요함. 시, 군/구 정책관계자, 주요 문화기관장 대상 행정연수의 추진 및 지속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공감대 형성과 지속적 논의구조 구축이 필요함.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진조직이 구성되어 지속적인 논의구조 속에서 민간에서부터 정책의제가 발굴·제시되고 채택되어 실행되는 bottom-up 방식의 정책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예를 들어, 100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시민주체와 연구자, 문화예술 현장인력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되고 그 구조 안에서 정책실행의 점검과 대안 마련이 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추진체계를 시도해볼 수 있음.
 - 시민문화주체의 발굴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문화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을 통해 인천시민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시민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 등 인천형 시민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함.

□ 활동

-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단체는 분야별, 장르별, 경력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활동배경 및 창작기반 환경 또한 매우 다양한 지형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창작환경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예술인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대처방안과 함께 견고한 예술적 창조 기반 구축이 시급 과제임.
 - 예술인의 창조역량 강화와 인천의 지속 가능한 창조적 기반을 위해서는 예술인 지원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다각화를 모색해야함. 일방향 지원보다는 예술주체의 특성에 따른 입체적 지원방식과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예술인의 자생력과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창작 네트워크 기반, 예술인 복지 등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궁극적으로 창조인력의 사회적 자립성에 기반한 자생적인 창작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예술정책 아젠다 발굴을 통해 건강한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 종합적 관점에서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이 시급함.
 - 예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복지정책 등 일부 세부사업에 대한 단초적인 파일럿 실행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 창작인력의 자생력은 예술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기본요소로, 인천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창조적·문화적 생산-소비-유통-재생산의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천의 창조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근대 개항의 도시, 산업화의 도시 이미지에 가려져 인천의 유구한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는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초·최고의 인천만의 역사자원에 대한 스토리발굴과 아카이빙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함. 인천의 역사적 가치의 재창조는 인천의 도시정체성뿐만 아니라 인천의 자부심으로 연결되는 부분임.
 - 인천이 보유한 역사적 상징성을 발굴하는 문화콘텐츠 연계사업 및 인천의 역사유적을 활용한 국립문화공간화, 인천만의 특화 역사콘텐츠의 지속적 발굴과 활용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역사가치 재조명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 인천은 전국 최초의 문화원인 강화문화원을 비롯해 옹진군을 제외한 9개 자치구 문화원이 존재하며 지역별 특화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콘텐츠의 부재, 재정적 어려움과 조직체계의 한계 등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하고, 자치구마다 설립추진 중인 문화재단과의 역할 구분이 이슈가 되고 있음.
 - 문화원은 지역문화원형의 가치를 발굴·활용하는 지역별 특화콘텐츠 발굴사업에 중점을 두며, 재단은 정책과 현장을 연계하는 중간매개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원의 역할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문화원의 정체성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음.

- 같은 맥락으로 자치구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 및 발굴하고 이를 자치구 브랜드로 특색화가 필요함. 현재 인천 전체적으로 통합적 도시 이미지는 구축되고 있으나 자치구별 특화된 문화적 이미지는 다소 미흡한 편임.
 - 이를 위해 자치구별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스토리텔링에 접목시킴으로서 지역 브랜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함.
 - 예컨대 부평구는 지역적 배경으로 특성화된 ‘음악’ 콘텐츠를 발굴·활용하여 지역의 문화브랜드로 연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시 문화도시 브랜딩을 위한 대표 콘텐츠 발굴이 필요함.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축제의 지속적 육성과 발굴, 인천 축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자치구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기존의 축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축제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자치구별 특색 있는 축제콘텐츠 발굴 지원과 더불어 지역브랜드화되고 있는 대표축제 간 연계를 통해 축제인력 및 노하우를 연계지원 하는 등 전사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지역문화 패러다임은 시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한 일상권 문화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천 또한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시민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개인, 동호회, 마을공동체, 사회문화활동 등 다양한 층위의 사업개발,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함.
- 예컨대 인천이 보유한 천혜 자연자원인 섬, 해양자원과 관련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지역별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이 국제적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인천 창조인력이 활발한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제화 기반 강화정책이 필요함. 예술인별, 개인 프로젝트별 국제무대와의 교류와 같은 협소한 접근이 아닌 국제적 교류의 기회와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국제교류 전문지원기관의 역할과 지원강화가 현실적인 정책방안으로 작용할 것임.

□ 공간

- 문화공간의 확충은 그 성격과 목표에 따라 지역별 문화여건 및 시민의 생활문화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생활권 문화공간은 현재 추진 중인 생활문화센터 외에 시민의 자생적 문화활동과 직결되는 작은 문화공간의 발굴과 조성으로 일상권 문화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접근관점이 필요함.
- 지역별 문화공간의 균형적 안배와 확산 관점에서는 자치구별 특화된 민간·공공 문화시설의 전략적 특성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음. 자치구별 문화접근성을 고려한 특화 문화공간 조성과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시차원에서 인천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공공문화시설 조성계획, 예컨대 개항장플랫폼지구, 인천아트센터, 뮤지엄파크 및 인천의 랜드마크화를 지향하는 대규모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간의 차별화 전략과 공공 문화시설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가 동시에 고려되어야함.

- 문화공간 정책은 단순한 문화공간 조성 및 확대의 관점보다는 기존 문화시설의 운영 전문성과 인천만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인천 내 문화시설의 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한 정례적 조사와 점검을 통해 각 문화공간별 차별화된 운영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임.

□ 공동체

- 인천은 지리적 입지로 인해 인적 구성이 다양하고 유동이 많은 개방적인 도시인 반면 내부적인 사상과 활동이 자유롭게 표출되지 않는 양면성을 지닌 도시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고려하여 문화다양성 관점에 기반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다양성의 가치가 도시 전반에 발현될 수 있는 정책감수성이 필요함.
 - 민간과 공공 예술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 파트너십 구축 기반, 지역 간 교류, 문화적·예술적 종 다양성을 고려한 다원문화 단체의 활동지원, 전반적인 노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년문화, 세대별·세대 간 문화교류 등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인천은 지역별 인문·자연환경이 제각기 상이하고 소득격차와 같은 경제적 변수에 따른 문화적 수요 또한 상이하여 지역별 격차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별 차별화되는 문화여건에 따른 지역민들의 실제적인 문화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영하는 사업추진이 시급하며, 자치구 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교류와 연계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정책협력체계를 통해 인천의 문화환경 전반이 균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

□ 산업

- 현재 인천의 콘텐츠산업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나 인천만의 고유한 문화산업 영역으로 차별화하는 문화콘텐츠 발굴은 미흡한 실정임. 개별 사업에서 인천의 문화산업 역량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적 정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 부재와 문화산업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이 약함.
- 인천이 가진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해양자연자원과 연계되는 관광산업, 국제마이스산업 및 영상산업 분야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로 거시적 관점에서 영역별 연계를 통한 활성화체계가 구

축되기 어려운 실정임.

-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육성과 현장 배치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인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문화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문화산업 지표조사·환경분석 등의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분야별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문화산업 육성 전문기관의 배치와 더불어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할 조직·인력의 배치가 수반되어야 함.

□ 도시

- 인천시는 현재 다양한 국토개발사업과 맞물려 권역별, 지역별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문화적 관점 적용 및 문화도시 추진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 따라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문화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추진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도시경관, 관광, 산업 등의 단위계획과 도시계획과 같은 상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정책과의 연계지점에 대한 모색과 실제 연동되어 실행될 수 있는 문화도시 정책과 도시정책의 연동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문화도시 관련 영역 간 정책의 연계와 실행을 위한 정책조정 기구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인천시범부처별 정책적 협력과 원활한 조정이 가능한 실무조직의 운영을 통해 도시영역 간 실제적 연동이 가능할 것임.

□ 정책

- 인천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함. 시와 군/구 간의 정책적 합의와 협력추진체계 수립을 통해 인천 문화도시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 담보와 실행체계 전반의 점검과 조율이 가능한 정책 간 열린 소통체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300만 인천이 지향하는 문화도시는 시민을 중심으로 인천의 주체들의 다양

- 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추진될 때 그 위상과 가치를 가질 수 있음. 따라서 민관 간의 정책적 협력이 가능한 상시적 소통시스템과 민관의 정책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치구 문화재단은 설립 초기 단계로 기초문화재단의 명확한 정책적 지향점의 명시를 통해 자치구별 지역문화진흥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적 측면의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시민참여 기반의 상시적인 논의와 의제 발굴, 다양한 문화담론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소통 기반의 네트워크와 다양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다양한 층위의 시민, 동호회, 예술인·단체, 기획자,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지역의 문화주체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스스로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과감하게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인천은 문화지표연구 및 문화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지역문화에 대한 체계적으로 축적된 종합적인 조사데이터가 없고, 자치구별 문화여건과 현안, 변화하는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인천의 문화환경 변화, 지역문화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문화지표조사 추진이 필요하여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향후 인천시 차원의 조사추진과 연계하여 각 자치구별 문화지표조사, 문화환경, 예술창작환경 및 문화향유실태조사 등이 연동되어 추진될 수 있다면 인천 문화지형도 및 문화수요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임.
- 문화정책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입안·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인력의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실제 인천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인력은 정기적인 순환보직으로 인해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기 힘든 구조임.
- 문화도시 정책실행 5개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책임 있게 실행·관리할 수 있는 문화도시 정책 담당관의 배치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며,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함.

□ 재원

- 인천의 문화분야 재원은 타 광역시 대비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문화분야 재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현재 확보된 문화재원의 적절한 분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의 구체화 및 재원의 안정화와 더불어 부서별 분산된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구조가 필요함.

- 문화도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재원 조성과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 추진기관의 의지와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광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메세나사업, 문화기부, 기업의 문화후원 등의 지속가능한 재원조성 방안의 다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3.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환경 및 문화수요 분석

3.1. 문화환경 분석

□ 인구통계적 환경

- 자치구별 주민등록 인구는 부평구(549,716명), 남동구(530,982명)의 순으로 나타나며 강화군(68,010명), 옹진군(21,351명)은 낮게 나타남. 인구증가율은 남동구(3.16%), 연수구(2.95%), 중구(2.23%)의 순이며 동구의 인구 감소세가 가장 크게(-1.97%) 나타남.
-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는 강화군이 가장 크며(327.2%), 옹진군(245.3%), 동구(143.7%)의 순으로 나타나며 연수구가 52.0%로 가장 낮게 나타남. 즉, 남동구와 연수구의 상주인구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노령화 지수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동구·강화군·옹진군의 상주인구는 타 자치구 대비 낮은 수준에서 고령화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종사자 수는 중구가 738.2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양구가 219.6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역시 중구가 834,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양구가 126,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사업체 종사자가 많은 중구의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노령화가 낮고 인구성장이 예측되는 남동구에는 젊은 세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치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구성의 차별성을 반영한 문화정책 추진이 필요함.

〈표 94〉 인천시 자치구별 주요 사회문화 지표

(단위: 명, %, 천 원)

자치구/군	주민등록인구 (2016)	인구증가율 (2015)	노령화지수 (2016)	사업체종사자 (2014)	지방세부담액 (2016)
인천	2,943,069	0.86	77.20	321.03	1,249
중구	115,249	2.23	92.9	738.21	834
동구	71,014	-1.97	143.7	443.36	233
남구	417,103	-0.78	115.9	286.89	144
연수구	328,627	2.95	52.0	264.80	330
남동구	530,982	3.16	69.8	407.23	202
부평구	549,716	-0.06	87.3	271.92	143

계양구	330,284	-1.52	70.1	219.69	126
서구	510,733	1.24	51.4	315.01	290
강화군	68,010	0.94	327.2	274.16	444
옹진군	21,351	1.37	245.3	282.76	668

출처: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인구 총 조사(통계청), 자치구별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

* 사업체종사자 = 인구 천 명당 종사자 수, 지방세 부담액 = 인구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문화정책 환경

- 각 자치구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자치구/군별 지역문화진흥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검토함. 각 자치구의 비전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주된 키워드로 ‘문화’, ‘역사’, ‘행복’이 드러나며, 목표 차원에서는 ‘가치 재창조’, ‘참여’, ‘지속가능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고 특히 옹진군의 경우 ‘균형발전’이 차별적으로 언급됨.

〈표 95〉 인천시 자치구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비전 및 목표

구분	비전	목표
중구	문화로 두드리는 구민 행복의 문	-문화를 통한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문화 -지속가능한 문화기반 구축
동구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문화 발굴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지속가능한 문화기반 구축
남구	문화복지로 행복한 남구 실현	-문화를 통한 남구의 가치 재창조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 -지속가능한 문화기반 구축
연수구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문화를 통한 연수구만의 가치 재창조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 -지속가능한 문화기반 구축
남동구	문화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남동구	-문화를 통한 남동구만의 가치 재창조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 -지속가능한 문화기반 구축
부평구	-	-인천만의 문화가치 창조 -시민생활 속 문화확산 -지역문화 역량강화
계양구	구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계양	-문화를 통한 계양의 가치 재창조 -구민 생활 속 문화 확산 -지속가능한 문화기반 구축
서구	문화로 사람이 아름다운 서구	-누구나 증길 수 있는 소통과 교감으로 만나는 문화 예술 창조 -어니서나 만날 수 있는 생활문화도시 확산 -주민에 의해 언제나 자생하는 문화생태계 조성

강화군	역사문화가 숨쉬는 감성의 섬	-문화를 통한 강화만의 가치 재창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 -지속가능한 문화기반 구축
옹진군	문화가 있는 행복한 옹진	-지속가능한 문화기반 구축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 -지역문화 균형발전

출처: 연구자 정리

- 그런데 각 자치구가 수립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은 자치구의 실질적 실행 계획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는 않은 단계로 향후 문화도시 정책추진과 함께 정책적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임.
- 자치구별 문화관광 예산은 지역별 편차가 상이하여 실제 정책추진에서 동일한 선상에서 정책적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환경임.
 - 자치구별 문화/관광 예산(체육예산 제외)과 비중을 살펴보면, 자치구에 따라 전체예산의 1.2%를 반영한 지역(동구)부터 4.8%를 반영한 지역(강화군)까지 차이가 나타남.
 - 예산 비중의 차이로 인해 자치구별 정책 수행역량 및 격차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 단위 정책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함.

[그림 122] 자치구별 문화관광 예산

(단위: 억 원, %)



출처: 각 자치구별 예산공개 자료

□ 자치구별 문화시설 현황

- 인천시 자치구 중 주요 문화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남동구로 총 104개를 보유하고 있음. 그 다음이 서구 94개, 부평구 74개, 남구 72개의 순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남동구, 부평구, 서구, 남구 등에 주요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옹진군의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1개관뿐이고, 강화군 22개, 동구 17개 등 지역에 따라 문화시설의 분포 차이가 큰 편임.

- 자치구별 문화시설의 분포 차이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접근성과 문화예술활동에서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의 균형적 안배와 확산이 필요함.

〈표 96〉 자치구별 문화시설 현황(2015)

단위(개, %)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2016)		등록공연장		문화원	총합
	공공	작은			극장	스크린	공공	민간		
중구	4	6	9	1	2	7	4	4	1	38
동구	2	11	1	-	1	1	1	-	-	17
남구	8	24	4	1	4	24	6	1	1	73
연수구	5	23	2	-	2	15	-	2	1	50
남동구	4	48	3	-	4	36	7	-	1	103
부평구	8	25	3	-	4	30	2	1	1	74
계양구	5	20	1	-	1	8	3	-	1	39
서구	7	51	2	-	4	24	5	-	1	94
강화군	2	10	5	2	1	1	-	-	1	22
옹진군	1	-	-	-	-	-	-	-	-	1
총계	46	218	30	4	23	146	28	8	8	511

출처: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2015),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3.2. 문화수요 · 인식조사 결과

□ 삶의 질

- 인천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긍정응답)를 살펴본 결과 건강상태, 공동체, 주거환경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소득, 소비생활, 문화/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에 따라 연수구, 남동구의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며, 남구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삶의 질 평가에 있어서 연수구는 인천 전체 평균의 1.6배 수준의 긍정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남구는 전체평균의 약 절반 수준으로 삶의 질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
- 즉, 자치구에 따라 인천시민이 인식하는 삶의 질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적인 문화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표 97〉 인천시 자치구별 삶의 질 평가(자치구별 긍정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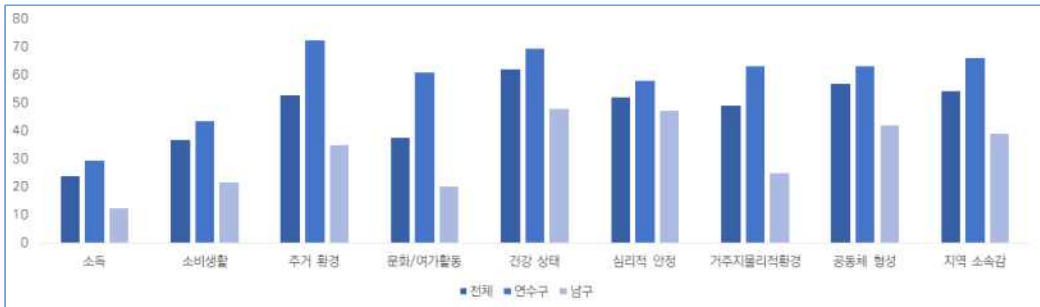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	소비생활	주거 환경	문화/여가활동	건강 상태	심리적 안정	거주지 물리적 환경	공동체 형성	지역 소속감
전체	23.8	36.9	52.9	37.7	61.8	51.9	48.9	56.8	54.3
중구	7.5	32.5	56.2	26.2	75.0	51.2	55.0	58.8	50.0
동구	10.0	41.4	55.7	37.1	67.1	47.1	54.3	58.6	42.9
남구	12.5	21.5	35.0	20.0	48.0	47.0	25.0	42.0	39.0
연수구	29.5	43.5	72.5	61.0	69.5	58.0	63.0	63.0	66.0
남동구	32.5	33.5	60.5	36.0	71.5	50.5	66.0	64.5	63.5
부평구	20.0	29.6	36.0	34.8	64.8	52.4	34.4	53.6	45.2
계양구	32.0	50.0	57.0	42.5	49.5	47.5	45.5	52.5	49.0
서구	31.0	46.5	62.0	36.5	65.0	54.0	55.0	61.0	66.5
강화/옹진군	19.0	35.0	45.0	39.0	51.0	60.0	57.0	64.0	64.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23] 영역별 삶의 질 평가(연수구/남구 긍정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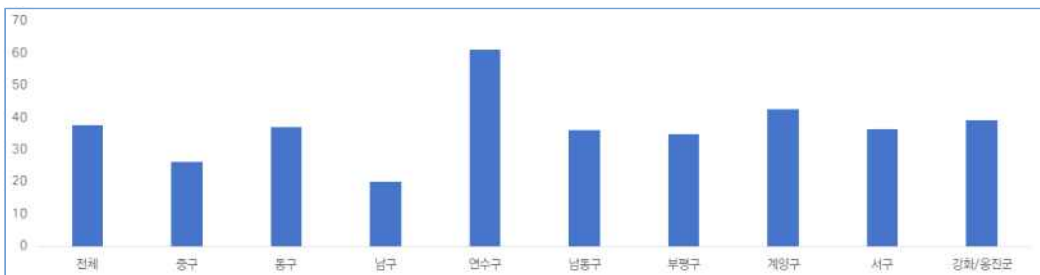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24] 문화/여가활동 삶의 질 평가(자치구별 긍정응답 비율)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여가활동

○ 여가활동 참여

- 자치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된 여가활동은 ‘TV시청’, ‘쇼핑/외식’, ‘운동’, ‘휴식/낮잠’ 등에 치중되어 있으며, ‘공연/전시 관람’을 제외한 문화예술활동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공연/전시 관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구는 서구(43.0%)와 부평구(41.2%)로 나타났으며, 강화/옹진군의 경우 25.0%의 응답자만 ‘공연/전시 관람’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 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98〉 인천시 자치구별 최근 1년간 여가활동 경험(상위항목)

(단위: %)

구분	TV 시청	쇼핑, 외식	운동	휴식, 낮잠	스마트 기기/컴퓨터	극장 영화 관람	관광/체험	사회 활동	음악 감상, 라디오	게임
전체	99.5	90.9	78.7	77.4	75.4	72.0	67.5	59.8	50.1	43.2
중구	98.8	95.0	70.0	71.2	75.0	72.5	62.5	30.0	67.5	26.2
동구	94.3	84.3	78.6	85.7	64.3	70.0	71.4	35.7	58.6	31.4
남구	99.0	94.0	84.5	78.0	81.0	74.0	59.0	56.0	48.0	33.0
연수구	100.0	90.0	92.0	85.5	74.5	86.0	68.0	70.5	38.0	45.5
남동구	99.5	88.5	63.5	78.5	72.0	70.5	75.0	53.0	67.5	46.0
부평구	100.0	96.0	76.4	48.8	82.8	76.4	73.2	54.8	59.2	44.8
계양구	100.0	92.5	76.0	82.5	82.5	77.0	61.5	87.5	49.5	44.0
서구	100.0	91.0	82.0	90.0	77.0	68.0	66.5	51.5	39.0	58.0
강화/옹진군	100.0	77.0	82.0	93.0	45.0	31.0	70.0	74.0	25.0	40.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표 99〉 인천시 자치구별 최근 1년간 여가활동 경험(하위항목)

(단위: %)

구분	공연/전시 관람	종교 활동	사진 촬영	요리, 인테리어	독서, 만화책 보기	스포츠 방문 관람	자기 계발	음악 활동	생활 문화	생활 예술	미술 활동
전체	33.7	31.6	29.3	27.9	26.3	18.2	9.7	7.3	6.8	3.1	2.4
중구	36.2	33.8	58.8	48.8	48.8	20.0	12.5	7.5	2.5	0.0	2.5
동구	34.3	30.0	54.3	48.6	34.3	17.1	7.1	7.1	4.3	0.0	7.1
남구	30.5	24.0	6.5	16.0	28.0	27.0	6.5	4.5	2.0	1.0	1.0
연수구	26.5	41.5	13.5	34.0	18.0	22.0	7.0	3.0	2.5	2.5	1.0
남동구	34.5	21.5	19.5	29.5	29.0	12.5	16.0	7.5	3.0	5.5	2.0
부평구	41.2	31.2	55.6	42.0	34.4	23.6	15.2	13.2	12.0	6.4	4.4
계양구	28.0	30.5	32.5	18.5	31.5	11.5	5.0	1.0	12.0	1.5	0.0
서구	43.0	33.5	29.0	13.5	13.5	15.0	9.0	13.0	11.0	2.5	4.5
강화/옹진군	25.0	46.0	13.0	17.0	5.0	10.0	5.0	7.0	6.0	4.0	1.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희망 여가활동

- 인천시민의 향후 희망 여가활동은 ‘관광/체험’, ‘극장영화 관람’, ‘TV시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연/전시 관람’을 제외한 음악·미술활동 등에 대한 참여 의도는 높지 않게 나타남.
- 다만 부평구의 경우 61.6%의 응답자가 향후 ‘공연/전시 관람’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25.2%의 응답자는 문화관련 자치활동, 공동체 활동 등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 의향을 보임.
- 한편 강화/옹진군, 남구, 연수구, 남동구 등의 문화관련 여가생활 참여 의도는 인천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향후 문화정책 도입 시 자치구간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표 100〉 인천시 자치구별 향후 희망 여가활동(상위항목)

(단위: %)

구분	관광/체험	극장영화관람	TV시청	운동	쇼핑, 외식	공연/전시관람	스마트기기/컴퓨터	사회활동	음악감상, 라디오	휴식, 낮잠
전체	64.7	60.9	59.1	54.5	52.7	44.8	39.0	38.1	35.9	34.2
중구	61.3	58.8	55.0	48.8	27.5	56.2	37.5	13.8	58.8	27.5
동구	47.1	50.0	57.1	48.6	31.4	54.3	41.4	12.9	45.7	38.6
남구	60.0	50.5	54.0	54.0	50.5	51.0	37.5	42.5	36.5	34.0
연수구	60.5	60.5	44.0	47.0	48.5	29.5	25.5	39.0	9.0	18.0
남동구	78.0	65.5	79.0	62.5	62.5	41.0	46.0	39.5	45.0	53.0
부평구	80.0	76.4	78.4	70.8	81.2	61.6	61.2	46.0	59.2	41.6
계양구	51.5	69.5	55.5	44.5	49.5	27.0	42.5	50.0	38.5	36.0
서구	64.5	58.0	34.0	54.5	37.5	55.5	26.5	23.0	20.5	24.5
강화/옹진군	60.0	32.0	73.0	43.0	47.0	27.0	17.0	49.0	13.0	29.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표 101〉 인천시 자치구별 향후 희망 여가활동(하위항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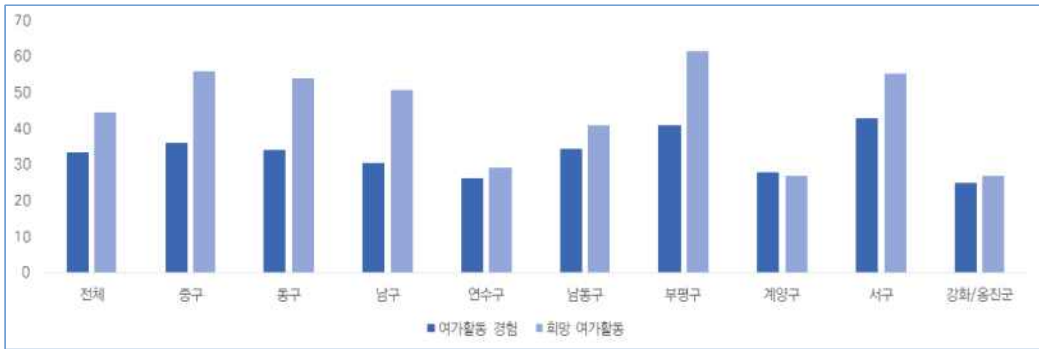
구분	게임	스포츠 방문 관람	사진 촬영	독서, 만화책 보기	요리, 인테리어	종교 활동	자기 계발	음악 활동	미술 활동	생활 문화	생활 예술
전체	26.4	23.4	20.3	19.6	18.8	17.9	15.7	15.3	9.7	9.6	6.1
중구	16.2	10.0	15.0	38.8	21.2	25.0	11.2	12.5	6.2	10.0	7.5
동구	11.4	24.3	20.0	34.3	24.3	22.9	24.3	20.0	14.3	8.6	8.6
남구	23.5	31.0	5.0	18.5	12.0	13.5	11.0	14.0	6.5	2.0	0.5
연수구	20.0	15.0	11.5	4.5	17.5	7.5	5.0	8.5	6.0	1.5	5.0

남동구	29.0	18.0	24.5	19.5	19.0	17.5	20.0	11.0	4.5	4.0	3.0
부평구	37.6	35.6	44.0	33.2	35.2	30.4	28.0	18.4	10.0	25.2	10.4
계양구	23.5	19.5	20.5	24.5	13.5	15.0	13.5	23.5	18.5	8.0	5.5
서구	28.5	30.0	16.5	7.0	12.5	18.0	16.5	21.5	16.5	15.0	10.5
강화/옹진군	32.0	10.0	13.0	8.0	11.0	14.0	7.0	3.0	1.0	6.0	5.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25] 인천시 자치구별 공연/전시관람 경험 및 향후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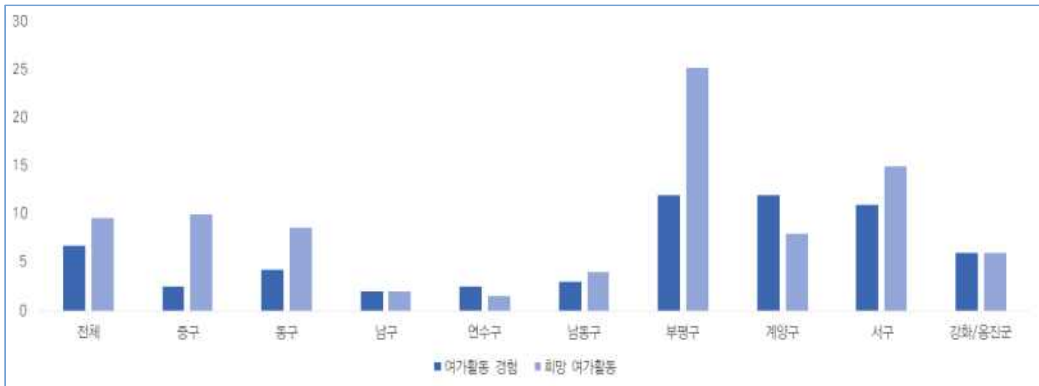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26] 인천시 자치구별 생활문화활동 경험 및 향후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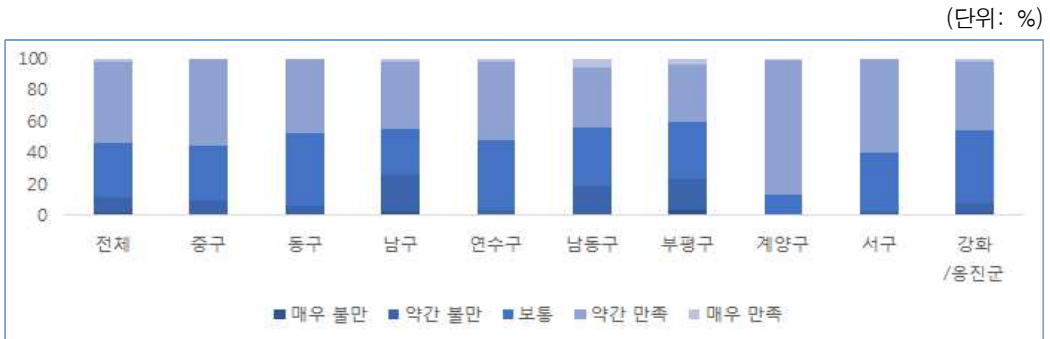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여가활동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긍정 응답이 많이 나타나며 계양구의 경우 약간 만족 응답 비율이 86.0%로 높게 나타남. 반면 남구(약간 불만 23.5%), 부평구(약간 불만 19.2%), 남동구(약간 불만 18.0%)의 여가활동 만족은 부정적인 응답이 발견되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127] 인천시 자치구별 여가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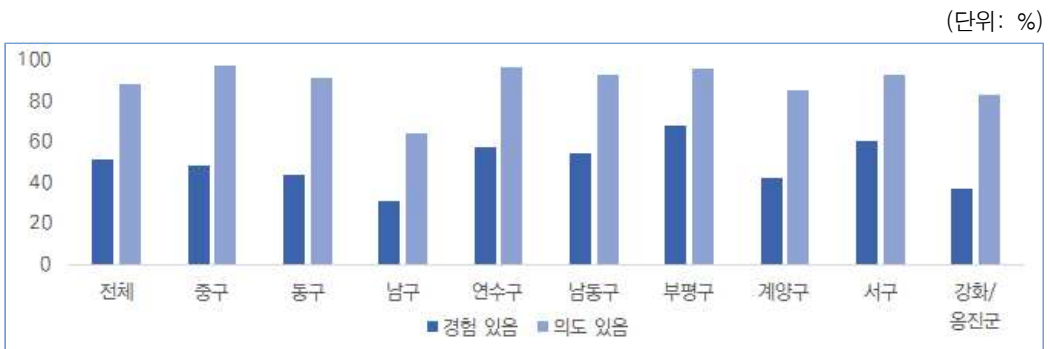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예술활동 수요

○ 문화예술활동 경험 및 향후 의도

- 문화예술시설(문화예술회관, 문화회관 등) 이용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51.4%)는 시설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9.0%의 응답자는 문화시설을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부평구의 경우 이용경험(68.4%)과 이용의도(96.4%)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요가 확인되면서 시설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남구의 경우 이용경험(31.0%)과 이용의도(64.5%) 모두 가장 낮은 수요가 확인됨.

[그림 128]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시설 이용경험 및 향후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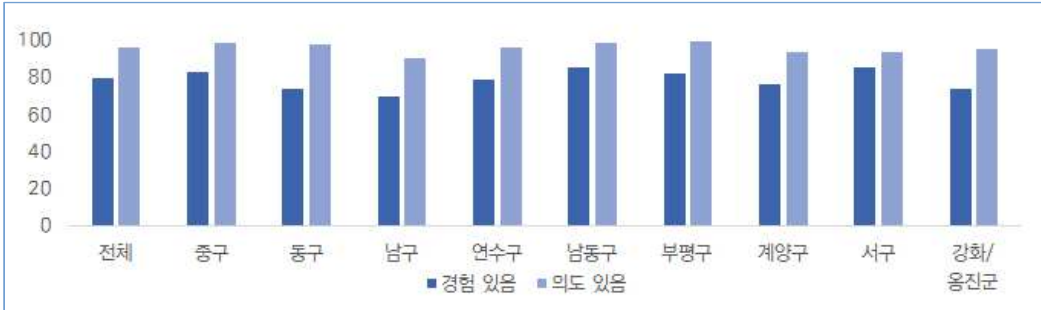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예술행사(문화관련 행사, 미술 전시회, 지역 축제 등) 참여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7%는 행사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6.3%는 참여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평구의 경우 행사 참여의도가 가장 높게(99.6%) 나타나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드러나는 반면, 남구의 경우 행사 참여경험(70.0%)과 참

여 의도(91.0%)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129]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 및 향후의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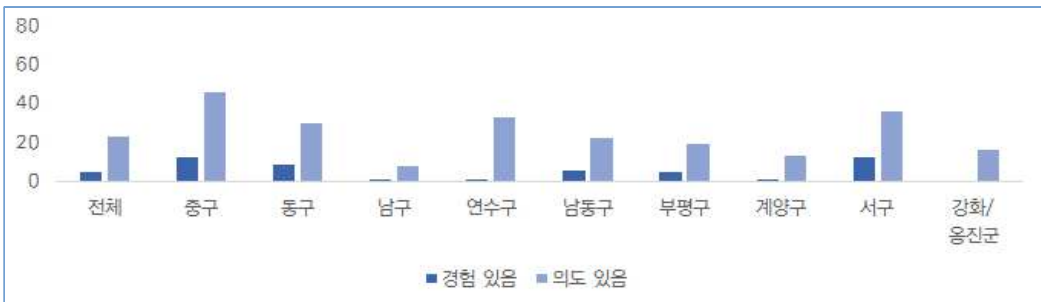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예술활동(관련 기관/단체 회원가입/활동, 관련 교육참여 등) 경험은 다른 문화예술활동 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4.7%)이며, 활동의도 역시 23.2%로 낮게 나타남.
- 중구의 활동경험은 12.5%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활동을 보이며, 향후 활동의도 역시 46.2%로 높은 반면, 남구는 단 1%만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향후 참여의도 역시 8%로 낮게 파악됨. 한편 연수구는 0.5%만이 활동경험이 있는 것에 반해 33%의 참여의도가 파악되어 향후 연수구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가능성이 확인됨.
- 문화예술활동 경험에 비해 향후 의도가 높은 경향성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자치구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남구의 경우 전반적인 경험과 향후 의도가 낮게 나타나 시민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예술 참여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중구, 연수구, 서구 등의 경우 높은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그림 130]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및 향후의도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예술활동 참여 계기

- 인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계기는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40.7%)’, ‘거주지에서 가까워서(21.9%)’, ‘평소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12.0%)’의 순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중구, 동구의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유로 참여가 더 많이 파악되었고 거주지와의 접근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남. 연수구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한 문화활동 참여율이 높고, 중구의 경우 관련 홍보자료가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강화/옹진군의 경우 평소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에 따라 경향성이 크게 구분되어지는 않으나 약간의 차별성이 파악됨. 자치구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세밀한 정책 입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02>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참여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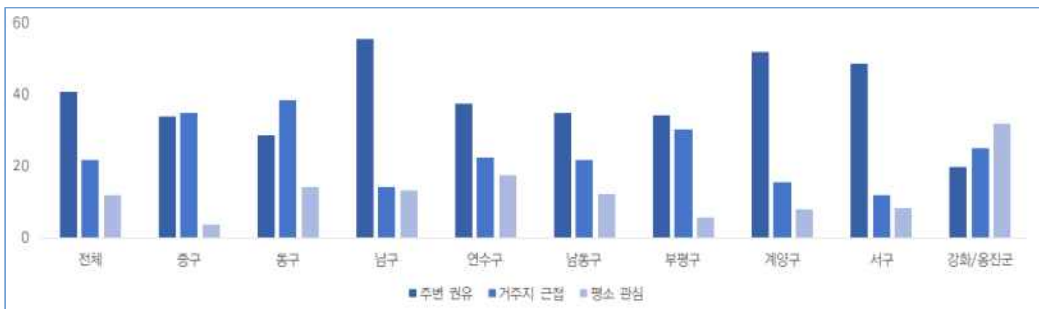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주변 권유	거주지 근접	평소 관심	자녀 교육	홍보자료	인터넷 자료	없음
전체	40.7	21.9	12.0	11.8	9.3	4.0	0.3
중구	33.8	35.0	3.8	5.0	17.5	5.0	0.0
동구	28.6	38.6	14.3	8.6	7.1	2.9	0.0
남구	55.5	14.5	13.5	6.5	8.5	1.5	0.0
연수구	37.5	22.5	17.5	18.5	1.0	3.0	0.0
남동구	35.0	22.0	12.5	15.0	13.0	2.5	0.0
부평구	34.4	30.4	6.0	10.0	14.4	4.4	0.4
계양구	52.0	15.5	8.0	10.5	6.5	6.5	1.0
서구	48.5	12.0	8.5	14.5	9.5	7.0	0.0
강화/옹진	20.0	25.0	32.0	12.0	7.0	2.0	2.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31]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참여 계기(상위 항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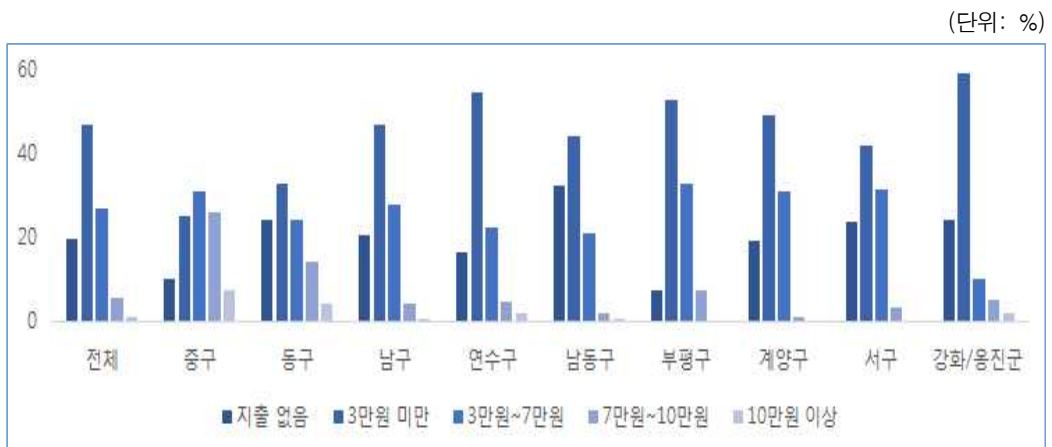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 문화예술활동 지출 비용(월 평균)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47.1%는 3만원 미만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출이 없는 경우도 19.4%에 달함.
- 자치구별로 중구 응답자의 33.7%는 7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0만 원 이상의 지출을 응답한 비율도 7.5%에 달함. 반면 남동구 응답자의 32.5%는 지출이 없으며 3만원 미만인 경우도 44.0%로 나타남.
-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이 상이하게 보고되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민들의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문화활동의 역량과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권 문화활동 및 시민문화역량 강화 관련 사업추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그림 132]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지출비용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 원활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응답은 ‘관련 정보 및 홍보 강화(31.0%)’, ‘대중교통 등 교통의 편의성 강화(26.8%)’, ‘시설/내용(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성장(19.8%)’의 순으로 나타남.
- 자치구에 따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중구(46.2%)와 강화/옹진군(43.0%)의 경우 ‘대중교통 등 교통의 편의성 강화’가 높게 나타나 교통 편의성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수구의 경우 ‘시설/내용(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성장(29.5%)’이 높아 관련 이슈의 개선이 필요함.

〈표 103〉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활동을 위한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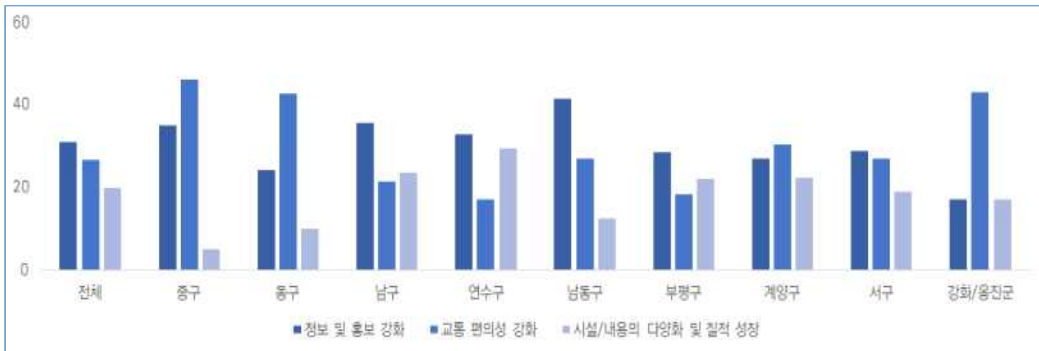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정보 및 홍보 강화	교통 편의성 강화	시설/내용의 다양화 및 질적 성장	행사 내용 이해의 용이성	대외적 평가 향상 (주변/인터넷 등)
전체	31.0	26.8	19.8	17.7	6.0
중구	35.0	46.2	5.0	26.2	5.0
동구	24.3	42.9	10.0	25.7	2.9
남구	35.5	21.5	23.5	18.5	1.5
연수구	33.0	17.0	29.5	15.0	5.5
남동구	41.5	27.0	12.5	13.0	6.0
부평구	28.4	18.4	22.0	21.6	9.6
계양구	27.0	30.5	22.5	17.5	2.5
서구	29.0	27.0	19.0	13.0	12.0
강화/옹진군	17.0	43.0	17.0	18.0	5.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33]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활동을 위한 개선사항(상위항목)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향후 문화예술활동 참여예상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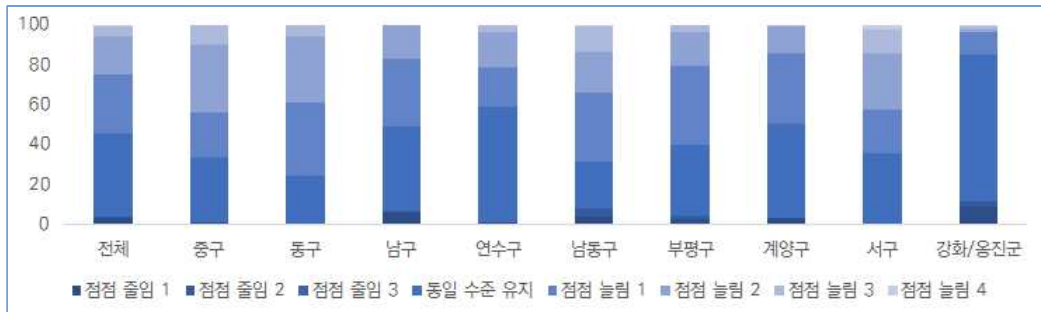
- 향후 문화예술활동 빈도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점점 늘림 1(29.5%), 점점 늘림 2(19.2%)의 순으로 보고되어, 향후 인천시의 문화예술 수요는 현재와 동일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치구에 따라 동일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화/옹진군(73.0%), 연수구(57.5%)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점점 늘림 1'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치구는 부평구(39.2%), 계양구(35.5%) 등의 순임.
- 중구의 경우 '점점 늘림 2'에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으며(33.8%), 남동구

응답자의 12.5%는 ‘점점 늘림 3’에 응답하였음.

- 자치구에 따라 동일 수준을 유지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연수구, 강화/옹진군 등)과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지역(중구, 동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이 존재하는 등 향후 문화예술 수요에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문화예술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자치구별 문화예술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함.

[그림 134]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활동 참여예상 빈도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예술활동 교육/창작 수요

○ 선호 문화예술교육 방식

-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 교육방식에 대해 박물관 등 공공기관 부설기관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6.6%), 인터넷(3.8%)과 교육방송(3.1%)에 대해서는 낮은 선호도가 파악됨.
- 자치구에 따라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부설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지만, 계양구의 경우 공공기관 부설기관(23.0%)보다 사설학원과 강습소(25.0%)에서의 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구 응답자의 26.2%와 남구 응답자의 22.5%는 사설단체 부설 문화센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

<표 104> 인천시 자치구별 선호 문화예술교육 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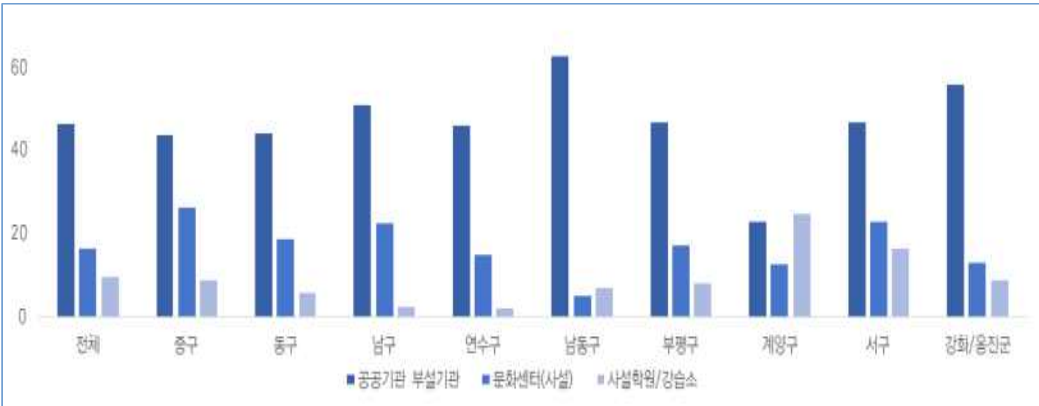
구분	공공기관 부설기관	문화센터 (사설)	사회문화 교실 (대학)	사설학원/ 강습소	동호회	개인레슨/ 아는사람	인터넷 사이트	교육방송
전체	46.6	16.4	9.7	9.7	5.5	5.1	3.8	3.1
중구	43.8	26.2	5.0	8.8	0.0	8.8	1.2	6.2
동구	44.3	18.6	4.3	5.7	2.9	7.1	5.7	11.4
남구	51.0	22.5	11.5	2.5	8.5	3.0	1.0	0.0

연수구	46.0	15.0	27.5	2.0	3.0	5.0	1.5	0.0
남동구	63.0	5.0	8.0	7.0	4.5	4.0	3.5	5.0
부평구	46.8	17.2	8.4	8.0	7.6	4.0	4.4	3.6
계양구	23.0	12.5	3.0	25.0	11.5	8.5	11.5	5.0
서구	47.0	23.0	5.0	16.5	2.5	1.5	3.0	1.5
강화/옹진	56.0	13.0	8.0	9.0	2.0	10.0	0.0	1.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35] 인천시 자치구별 선호 문화예술교육 방식(문항선별)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예술교육 참여시 애로사항

- 문화예술교육 참여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은 관련정보 부족(25.1%), 개인시간 부족(13.4%), 원거리 위치(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유사한 응답을 보이나 부평구 응답자의 20%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계양구 응답자의 22%는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응답함. 또한 강화/옹진군 응답자의 대부분은 원거리(18%)와 교통편(36%)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목함.

〈표 105〉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참여 애로사항

(단위: %)

구분	관련 정보 부족	개인 시간 부족	원거리 위치	내용 불만	교통 불편	없음	내용 이해 어려움	비용 부담	주변 평가	동반인 없음
전체	25.1	13.4	12.7	11.9	11.3	8.3	7.5	6.0	2.8	0.9
중구	26.2	15.0	11.2	5.0	18.8	1.2	12.5	2.5	7.5	0.0
동구	35.7	11.4	12.9	10.0	17.1	0.0	7.1	0.0	4.3	1.4
남구	30.0	13.0	11.0	14.0	9.0	1.0	10.0	8.5	3.0	0.5

연수구	30.5	11.5	8.5	14.0	7.5	20.0	1.5	5.5	1.0	0.0
남동구	38.5	14.0	14.5	2.5	8.0	6.5	5.0	9.5	0.0	1.5
부평구	14.0	15.2	16.8	20.0	4.4	8.8	10.0	4.8	4.0	1.6
계양구	14.0	22.0	10.5	11.0	13.5	10.0	6.5	6.5	6.0	0.0
서구	25.0	8.0	11.5	14.0	9.5	11.5	12.0	6.0	1.5	1.0
강화/옹진	19.0	6.0	18.0	7.0	36.0	4.0	3.0	4.0	0.0	3.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36]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 교육참여 애로사항(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예술교육 우선사항

- 인천시민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문화시설 환경개선(23.3%)과 홍보 활성화(21.5%)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중구 응답자의 27.5%는 홍보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동구 응답자의 다수는 저렴한 수강료(30.5%)와 교육시설의 확보(25.5%)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선호 교육방식, 교육참여 애로사항, 교육 우선사항에 있어서 자치구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자치구별 문화수요 충족 측면에 있어서 보다 섬세한 정책 입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106>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우선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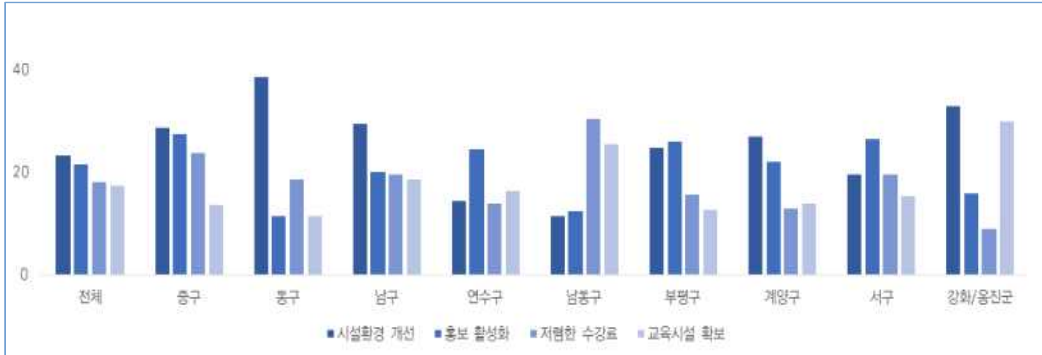
구분	시설환경 개선	홍보 활성화	저렴한 수강료	교육시설 확보	교육대상 확대	프로그램 수준 향상	교육시간 다양화
전체	23.3	21.5	18.2	17.4	7.6	7.1	4.9
중구	28.7	27.5	23.8	13.8	5.0	0.0	1.2
동구	38.6	11.4	18.6	11.4	8.6	2.9	8.6
남구	29.5	20.0	19.5	18.5	2.5	8.5	1.5
연수구	14.5	24.5	14.0	16.5	11.5	12.5	6.5

남동구	11.5	12.5	30.5	25.5	2.0	13.5	4.5
부평구	24.8	26.0	15.6	12.8	13.2	3.2	4.4
계양구	27.0	22.0	13.0	14.0	10.0	7.0	7.0
서구	19.5	26.5	19.5	15.5	7.5	5.0	6.5
강화/옹진군	33.0	16.0	9.0	30.0	4.0	4.0	4.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37]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예술교육 우선사항(상위항목)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동호회 활동 애로사항

- 동호회 활동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은 개인시간 부족(19.8%), 원거리 위치(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구 응답자는 개인시간의 부족(35.0%)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구 응답자들의 16.0%는 비용의 부담을 호소, 강화/옹진군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원거리(40.0%)와 교통 불편(20.0%)을 호소하였음.
- 이러한 경향은 각 자치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중구는 개인시간의 부족이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예산이 부족한 서구는 비용부담을,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강화/옹진군은 접근성의 불편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확인됨.

〈표 107〉 인천시 자치구별 동호회 활동 참여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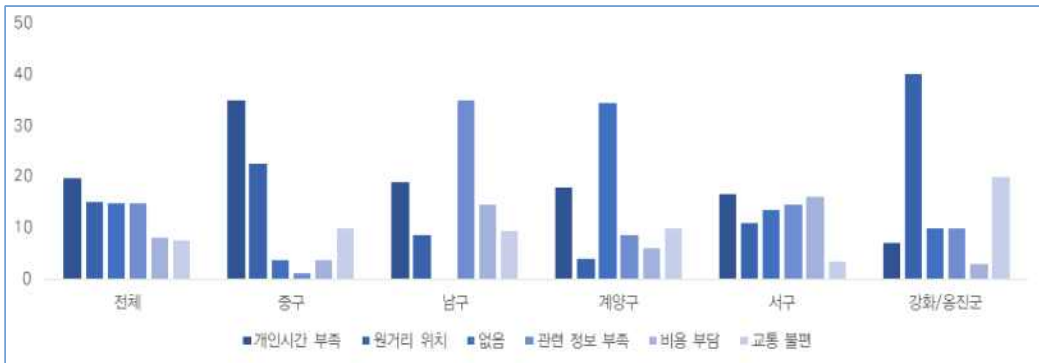
구분	개인 시간 부족	원거리 위치	없음	관련 정보 부족	비용 부담	교통 불편	주변 평가	내용 이해 어려움	운영 방식 불만	동반인 없음
전체	19.8	15.0	14.9	14.7	8.2	7.6	6.3	6.1	3.7	3.6
중구	35.0	22.5	3.8	1.2	3.8	10.0	6.2	12.5	5.0	0.0
동구	27.1	24.3	1.4	8.6	2.9	5.7	12.9	8.6	5.7	2.9

남구	19.0	8.5	0.0	35.0	14.5	9.5	0.5	6.5	4.5	2.0
연수구	21.0	20.0	25.5	11.5	1.5	8.0	2.0	3.0	2.5	5.0
남동구	21.5	16.0	13.0	23.5	11.0	5.5	3.5	2.0	0.5	3.5
부평구	20.4	12.4	14.8	6.8	6.8	3.6	16.4	6.0	4.8	7.6
계양구	18.0	4.0	34.5	8.5	6.0	10.0	7.5	7.5	3.0	1.0
서구	16.5	11.0	13.5	14.5	16.0	3.5	5.5	10.5	6.0	3.0
강화/옹진군	7.0	40.0	10.0	10.0	3.0	20.0	1.0	2.0	3.0	4.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38] 인천시 자치구별 동호회활동 참여 애로사항(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동호회 활동 필요사항

- 동호회 활동 필요사항에 대한 응답은 ‘거주지/활동지역 인근 동호회 정보 제공(37.4%)’, ‘동호회 정보 종합적으로 제공(20.9%)’, ‘금전적 보상(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 특이한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음.

○ 생활 속 문화활동 필요사항

- 생활 속 문화활동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한 응답에서 인천시 평균은 ‘거주지/활동지역에서 가까워야 한다(23.7%)’, ‘생활 문화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용이해야 한다(23.5%)’,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 적어야 한다(2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 응답을 비교해 보면 중구는 적은 비용(32.5%)을, 동구는 교통 편리성(30.0%)을, 남구는 관련 정보획득의 용이성(39.0%)을, 남동구는 근거리성(31.0%)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간 인식의 격차가 드러남.
- 문화예술활동의 일상화를 위해 생활 속 문화활동 필요사항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자치구별 인식 차이에 근거한 섬세한 정책 입안이 필요함.

〈표 108〉 인천시 자치구별 생활 속 문화활동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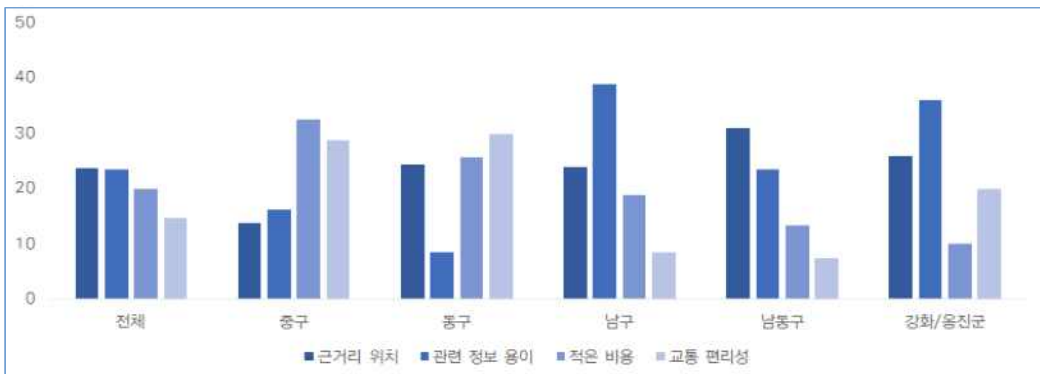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근거리 위치	관련 정보 용이	적은 비용	교통 편리성	개인적 시간 여유	동반자 다수
전체	23.7	23.5	20.0	14.7	9.5	8.5
중구	13.8	16.2	32.5	28.7	1.2	7.5
동구	24.3	8.6	25.7	30.0	0.0	11.4
남구	24.0	39.0	19.0	8.5	4.0	5.5
연수구	29.0	31.5	21.0	10.0	4.0	4.5
남동구	31.0	23.5	13.5	7.5	19.5	5.0
부평구	16.8	14.8	21.2	15.2	14.8	17.2
계양구	24.5	15.5	25.5	9.0	14.0	11.5
서구	21.0	21.0	17.5	24.5	10.0	6.0
강화/옹진군	26.0	36.0	10.0	20.0	2.0	6.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39] 인천시 자치구별 생활 속 문화활동 필요사항(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역량/환경 인식

○ 문화 연상 이미지

- 문화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대중문화(64.4%), 개별 장르(55.7%), 공간(5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계양구(69.0%), 동구(55.7%), 중구(53.8%)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공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남구는 장르(72.5%)에 대한 이미지를, 타 자치구는 대중문화로 연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자치구별 문화환경 및 여건에 따라 문화에 대한 연상 이미지 또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됨.

〈표 109〉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 연상 단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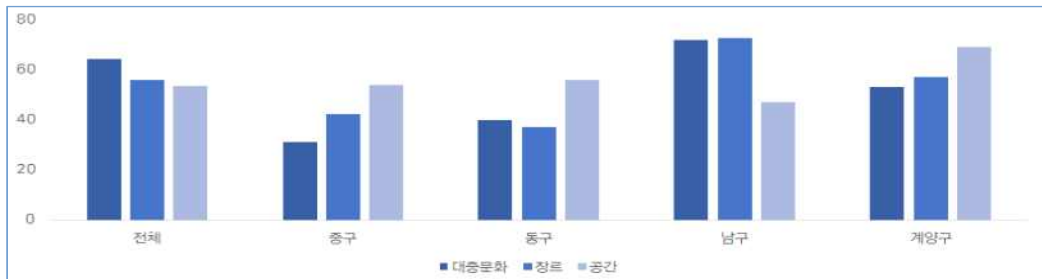
구분	대중문화	장르	공간	인력	유무형 자산	경관	생활문화 일상화
전체	64.4	55.7	53.5	49.1	29.3	25.3	21.5
중구	31.2	42.5	53.8	37.5	38.8	50.0	46.2
동구	40.0	37.1	55.7	44.3	37.1	48.6	37.1
남구	72.0	72.5	47.0	65.5	22.0	2.0	19.0
연수구	81.0	45.5	57.5	38.5	30.5	15.5	27.5
남동구	74.0	70.0	43.0	61.5	21.5	17.5	12.0
부평구	58.4	45.2	44.8	50.0	43.6	29.6	27.6
계양구	53.0	57.0	69.0	46.0	15.5	44.5	14.5
서구	67.5	67.0	58.5	47.0	29.5	19.0	11.5
강화/옹진군	72.0	39.0	58.0	34.0	36.0	34.0	21.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1, 2, 3순위에 대한 복수응답 문항임.

[그림 140]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 연상 단어(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인천시 자치구별 시민 문화역량 평가

- 인천시민의 개인 스스로에 대한 문화역량 평가와 인천시민 전체에 대한 문화역량 평가는 두 항목 모두 평균 25~30점 정도의 결과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인천시민은 ‘문화활동의 참여’보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남구의 경우 본인 및 시민의 문화역량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동구, 연수구, 계양구의 경우 문화역량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 특히 동구와 강화/옹진군은 본인의 문화활동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남동구, 중구, 동구, 강화/옹진군은 예술인의 활동역량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됨.
- 남구의 경우, 문화시설, 문화활동 및 문화행사에서도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과 같이 문화역량 항목 전반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하고 있어 시민의 문화적 근성을 고려한 문화환경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표 110〉 인천시 자치구별 시민 문화역량 평가

(단위: 백점 만점)

구분	본인 평가			시민 평가		
	문화에 관심	문화 활동 참여	높은 관심도	다양한 활동 참여	동호회 활동 활발	예술가 활동 활발
전체	30.8	29.2	31.3	27.9	26.9	25.3
중구	23.8	36.2	32.5	27.5	32.5	32.5
동구	35.7	51.4	48.6	27.1	30.0	30.0
남구	13.0	6.5	6.0	8.0	4.5	6.5
연수구	40.0	40.5	38.5	39.0	39.0	27.5
남동구	29.5	16.0	34.0	28.0	28.5	35.0
부평구	26.4	20.0	24.8	17.6	23.6	20.8
계양구	39.0	36.0	40.0	35.0	35.5	22.5
서구	35.0	35.0	38.0	36.0	22.0	32.5
강화/옹진군	39.0	55.0	35.0	41.0	39.0	32.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41〕 인천시 자치구별 본인 문화역량 평가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42〕 인천시 자치구별 시민 문화역량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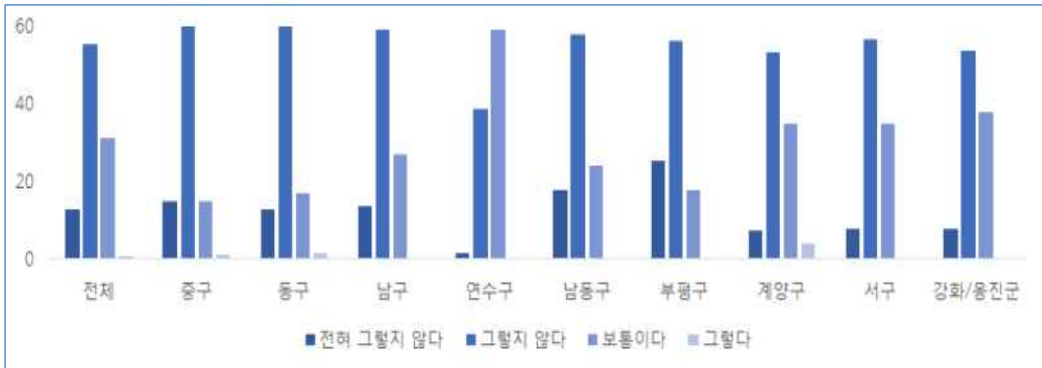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소속 자치구/군 문화정책 인지도

- 소속 자치구/군의 문화정책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의 68.2%가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자치구/군의 정책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강화/옹진군의 경우, 문화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전무한 가운데 연수구는 보통 수준의 정책 인지도(59.5%)가 파악된 반면 부평구와 남동구는 보통 이하 수준의 인지도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연수구, 계양구, 강화/옹진군이 인천시 전체 평균 정책 인지도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임.

[그림 143] 인천시 자치구별 소속 구/군 문화정책 인지도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도시 관련 인식

○ 문화도시 인식

-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은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풍부한 도시(52.5%)’, ‘시민이 활발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도시(43.0%)’, ‘도시미관이 아름답고 쾌적하게 정비된 도시(3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치구별로 비슷한 양상의 인식 수준을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중구 응답자는 문화도시를 ‘일상적 생활문화가 원활히 일어나는 도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35.0%)이며, 연수구 응답자의 57.0%는 ‘도시미관이 아름답고 쾌적하게 정비된 도시’를, 서구 응답자의 56.5%는 ‘시민이 활발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도시’라고 응답함.

〈표 111〉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인식(상위항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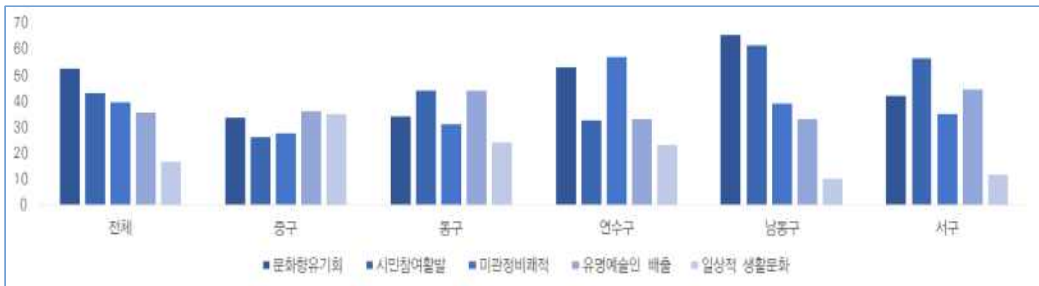
구분	문화향유기회	시민참여활발	미관정비쾌적	유명예술인배출	높은교양의식수준	특색있는지역문화	유서은사	문화인프라	일상적생활문화
전체	52.5	43.0	39.6	35.7	29.3	22.8	22.5	20.7	16.7
중구	33.8	26.2	27.5	36.2	26.2	25.0	30.0	30.0	35.0
동구	34.3	44.3	31.4	44.3	24.3	21.4	32.9	21.4	24.3
남구	60.0	49.0	42.0	35.0	33.0	18.0	10.0	22.0	17.0
연수구	53.0	32.5	57.0	33.0	40.5	18.5	20.5	9.5	23.0
남동구	65.5	61.5	39.0	33.0	23.5	19.0	18.0	20.5	10.5
부평구	44.0	33.2	35.6	18.0	34.0	33.2	26.0	23.6	20.4
계양구	62.0	35.5	30.0	45.0	17.5	24.5	27.5	34.0	7.5
서구	42.0	56.5	35.0	44.5	27.0	26.0	27.5	16.0	12.0
강화/옹진군	62.0	40.0	55.0	49.0	33.0	12.0	19.0	9.0	14.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1, 2, 3순위에 대한 복수응답 문항임.

[그림 144]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인식(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도시 진입을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식

- 소속 자치군/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화프로그램 다양화’(23.3%), ‘문화 재원확충 및 조성’(18.7%) 등의 순으로 나타나지만 자치구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보고됨.
- 중구 응답자의 경우 ‘프로그램 다양화’(35.5%)와 함께 ‘문화환경 기반 조성’(20.0%)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구(27.5%)와 남구(20.0%) 응답자들은 ‘문화 재원의 확충과 조성’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응답함. 한편 남동구 응답자는 ‘문화시설 활용도 증대’(28.5%)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응답함.

〈표 112〉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진입 부족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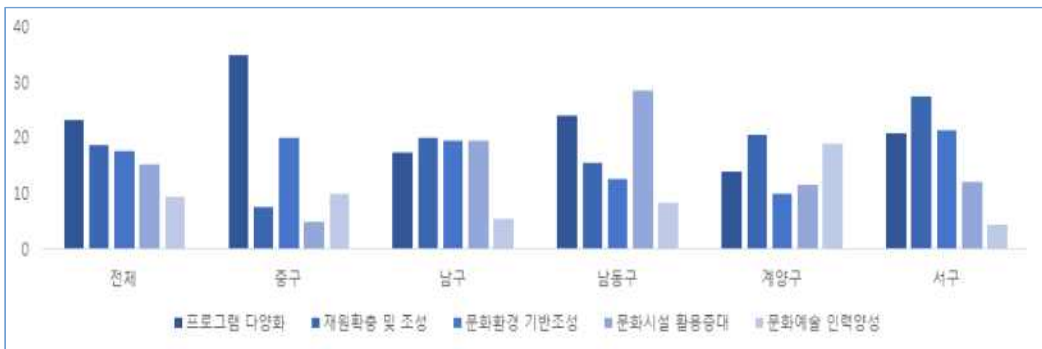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프로그램 다양화	재원확충 및 조성	문화환경 기반조성	문화시설 활용증대	문화예술 인력양성	콘텐츠 발굴과 활용	시민중심 소통과 의견수렴	정책적 합의
전체	23.3	18.7	17.7	15.3	9.5	6.7	4.5	4.1
중구	35.0	7.5	20.0	5.0	10.0	3.8	8.8	8.8
동구	30.0	12.9	22.9	7.1	10.0	1.4	5.7	10.0
남구	17.5	20.0	19.5	19.5	5.5	15.0	1.5	1.5
연수구	25.5	21.0	14.0	17.5	13.0	5.0	3.5	0.5
남동구	24.0	15.5	12.5	28.5	8.5	1.5	5.0	3.5
부평구	26.0	14.4	24.4	12.0	8.0	4.0	4.8	6.4
계양구	14.0	20.5	10.0	11.5	19.0	14.0	5.0	6.0
서구	21.0	27.5	21.5	12.0	4.5	5.0	5.0	3.5
강화/옹진군	32.0	20.0	17.0	13.0	7.0	5.0	4.0	2.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45]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진입 부족사항(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도시 진입을 위해 필요한 부분(소속 자치구)
 - 문화도시 진입에서의 필요사항은 ‘재원확충 및 조성’(20.4%), ‘문화환경 기반 조성’(18.5%)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프로그램의 다양화’(17.2%)는 4순위에 위치함. 문화도시 진입을 위해서는 재원과 기반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책적 합의’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남구 응답자의 29.0%는 ‘재원확충 및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동구 응답자의 31.4%, 중구 응답자의 21.2%, 서구 응답자의 20.5%는 ‘문화환경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한편 연수구 응답자의 30.5%와 강화/

옹진군 응답자의 33.0%는 ‘문화시설 활용도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계양구 응답자의 21.0%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113〉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진입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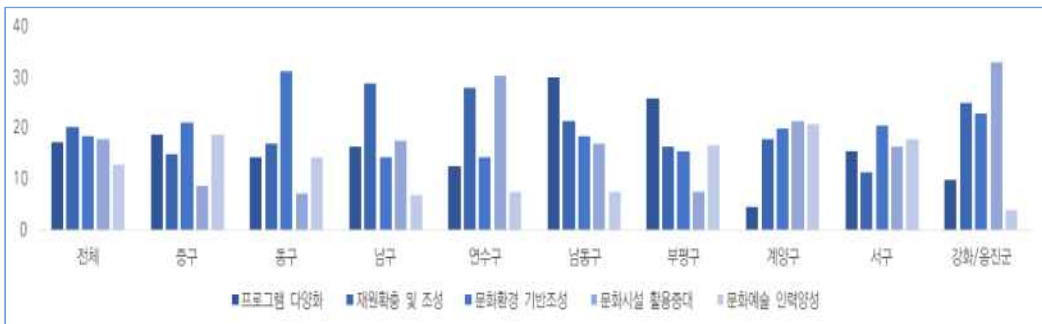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프로그램 다양화	재원확충 및 조성	문화환경 기반조성	문화시설 활용증대	문화예술 인력양성	콘텐츠 발굴과 활용	시민중심 소통과 의견수렴	정책적 합의
전체	17.2	20.4	18.5	18.0	12.9	7.1	4.0	2.0
중구	18.8	15.0	21.2	8.8	18.8	7.5	7.5	2.5
동구	14.3	17.1	31.4	7.1	14.3	2.9	8.6	4.3
남구	16.5	29.0	14.5	17.5	7.0	14.0	1.5	0.0
연수구	12.5	28.0	14.5	30.5	7.5	4.5	1.0	1.5
남동구	30.0	21.5	18.5	17.0	7.5	2.5	2.5	0.5
부평구	26.0	16.4	15.6	7.6	16.8	9.6	4.4	3.6
계양구	4.5	18.0	20.0	21.5	21.0	8.5	6.5	0.0
서구	15.5	11.5	20.5	16.5	18.0	7.0	5.0	6.0
강화/옹진군	10.0	25.0	23.0	33.0	4.0	1.0	4.0	0.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46]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 진입 필요사항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거주 자치군/구의 문화환경 만족도

- 거주 자치군/구의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보통 이상(84.5%)의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간 불만을 응답한 경우도 14.7%로 나타나 문화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남.
- 자치구별로 연수구와 남동구의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구(37.0%)와 부평구(30.0%)의 응답자들은 약간 불만이라는 답변이 인천시 평

균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자치구의 문화환경 개선이 시급함.

[그림 147] 인천시 자치구별 거주지 문화환경 만족도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거주 자치군/구 문화역량 평가

- 거주 자치군/구의 문화역량 평가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30~40%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남구 응답자들의 긍정 응답률은 2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평구 응답자들의 긍정 응답률은 모든 항목에서 인천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거주 자치구 문화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남구와 부평구의 문화역량이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남구와 부평구의 문화역량 확충을 통한 문화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균형적인 문화발전이 가능할 것임.

<표 114> 인천시 자치구별 거주 자치구/군 문화역량 평가(긍정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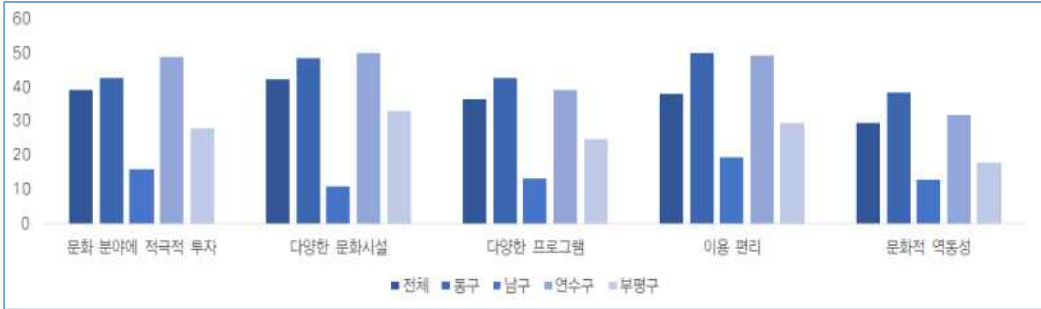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문화 분야에 적극적 투자	다양한 문화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편리	문화적 역동성
전체	39.4	42.3	36.8	38.3	29.6
중구	27.5	42.5	46.2	37.5	23.8
동구	42.9	48.6	42.9	50.0	38.6
남구	16.0	11.0	13.5	19.5	13.0
연수구	49.0	50.0	39.5	49.5	32.0
남동구	40.0	46.5	44.0	49.5	41.5
부평구	28.0	33.2	24.8	29.6	18.0
계양구	51.5	48.5	47.0	38.5	29.5
서구	55.0	58.5	44.5	38.0	40.0
강화/옹진군	46.0	55.0	46.0	45.0	41.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48] 인천시 자치구별 거주 자치구 문화역량 평가(일부 자치구별 긍정응답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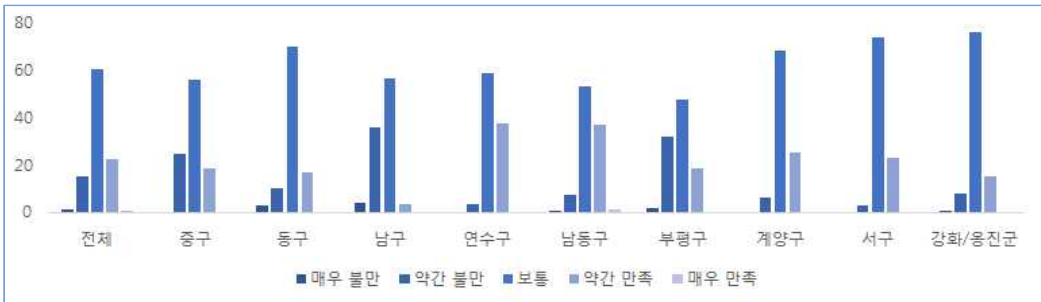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인천 전체에 대한 문화환경 만족도

- 인천시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거주 자치군/구 문화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보통 이상(83.6%)의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
- 자치구에 따른 응답 비율 역시 거주 자치군/구 문화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남구와 부평구의 응답자들은 약간 불만이라는 답변이 인천시 평균의 2개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연수구(37.5%)와 남동구(37.0%) 응답자들은 약간 만족이라는 답변이 인천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9] 인천시 자치구별 인천 전체 문화환경 만족도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역량 평가

- 인천시 문화역량 평가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35~50%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주 자치구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긍정응답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자치구별 조사결과 역시 거주 자치군/구의 문화역량 평가 결과와 유사하게 보고됨. 남구 응답자들의 긍정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함.

〈표 115〉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역량 평가(긍정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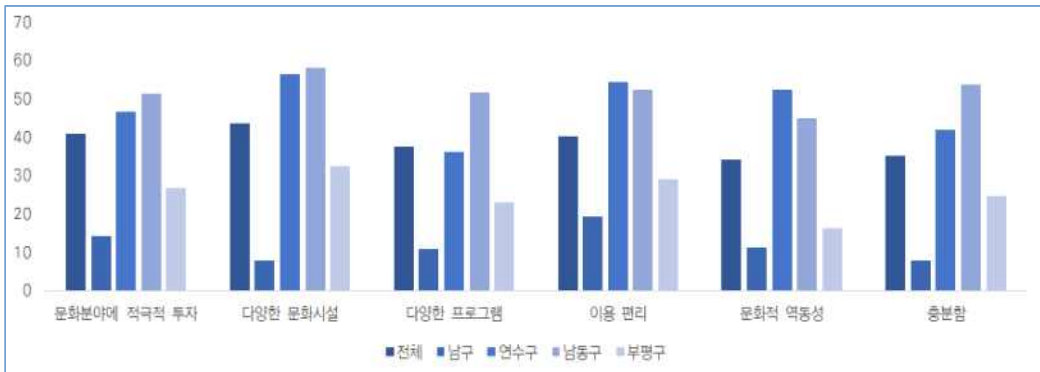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문화분야에 적극적 투자	다양한 문화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편리	문화적 역동성	충분함
전체	41.0	43.8	37.9	40.5	34.5	35.5
중구	32.5	43.8	52.5	38.8	32.5	38.8
동구	31.4	55.7	54.3	47.1	38.6	48.6
남구	14.5	8.0	11.0	19.5	11.5	8.0
연수구	47.0	56.5	36.5	54.5	52.5	42.0
남동구	51.5	58.5	52.0	52.5	45.0	54.0
부평구	26.8	32.8	23.2	29.2	16.4	24.8
계양구	57.0	39.5	46.5	44.5	36.5	33.5
서구	54.0	60.5	49.0	40.5	41.0	43.5
강화/옹진군	52.0	55.0	41.0	48.0	50.0	43.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50]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역량 평가(일부 자치구별 긍정응답 비율)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인천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 문화도시를 위한 전문인력 필요분야에 대한 응답은 ‘다양한 예술인 및 창작자(62.2%)’, ‘예술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인력(52.4%)’, ‘지역문화콘텐츠 전문인력(52.1%)’의 순으로 나타나지만, 자치구별로 다른 응답 특성을 보임.
- 계양구는 ‘다양한 예술인 및 창작자(82.0%)’의 필요성을, 중구는 ‘지역문화 콘텐츠 전문인력(50.0%)’과 ‘지역문화 기획자/전문인력(50.0%)’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으며, 동구는 ‘지역문화콘텐츠 전문인력(58.6%)’, 남구 응답자들은 ‘매개인력(64.5%)’의 필요인력으로 인식함. ‘문화관련 행정인력’의 경우 연수구(72.5%)와 강화/옹진군(72%)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각 자치구의 문화자원 이용특성 및 문화도시 인식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연수구의 경우 문화시설 이용자 대비 문화시설이 부족한 이용특성이 반영되어 문화관련 행정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개항역사유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중구의 경우 지역문화 전문인력과 관광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표 116〉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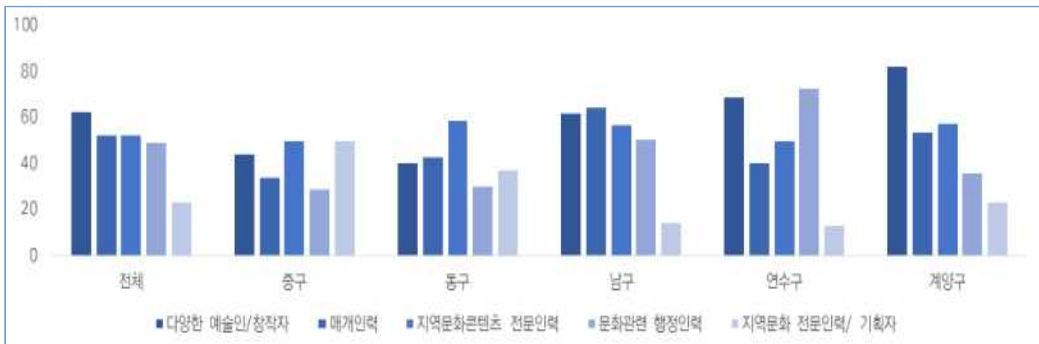
구분	다양한 예술인/창작자	매개인력	지역문화 콘텐츠 전문인력	문화관련 행정인력	생활문화 전문인력	지역문화 전문인력/기획자	관광분야 전문인력
전체	62.2	52.4	52.1	49.1	38.2	23.2	20.7
중구	43.8	33.8	50.0	28.7	47.5	50.0	43.8
동구	40.0	42.9	58.6	30.0	31.4	37.1	42.9
남구	62.0	64.5	57.0	50.5	38.0	14.0	13.5
연수구	69.0	40.5	49.5	72.5	46.0	13.0	8.0
남동구	73.5	62.0	45.5	49.5	34.0	18.5	16.5
부평구	57.2	44.8	45.6	48.8	41.6	32.0	27.2
계양구	82.0	53.5	57.5	35.5	29.5	23.0	18.0
서구	49.5	58.5	58.5	41.0	42.0	21.0	28.5
강화/옹진군	55.0	59.0	50.0	72.0	30.0	23.0	8.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1, 2, 3순위에 대한 복수응답 문항임.

[그림 151]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 문화도시를 위한 중점사항

- 문화도시를 위한 중점사항에 대해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49.1%)’,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화환경(48.7%)’, ‘인천의 가치와 문화정체성 확립(41.6%)’ 등의 순으로 나타나지만 자치구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
- 중구 응답자들은 ‘지역성과 역사 재조명(35%)’, ‘문화를 통한 인천경제 활성화(25.0%)’, ‘원도심 문화재생 및 확산(11%)’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평구 응답자들은 다른 자치구 응답자들에 비해 ‘지역공동체의 복원(13%)’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자치구별 상이한 결과는 각 자치구가 보유한 고유한 문화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중구는 원도심 복원을 통한 역사성 재조명과 경제 활성화에, 부평구는 문화정책을 통한 공동체 복원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17〉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를 위한 중점사항(상위항목)

(단위: %)

구분	문화적 다양성 공존	생활밀접 문화환경	인천 가치와 정체성	시민 문화주권 향상	지역성과 역사 재조명	시민중심 문화환경 조성	지역문화 인력육성 및 지원
전체	49.1	48.7	41.6	37.1	28.9	27.2	17.8
중구	50.0	43.8	21.2	40.0	35.0	37.5	15.0
동구	44.3	54.3	25.7	54.3	20.0	24.3	21.4
남구	50.0	49.5	55.5	31.0	18.0	17.0	20.0
연수구	41.0	50.5	46.0	30.5	32.5	36.0	19.5
남동구	66.0	56.0	47.5	34.5	26.0	27.0	12.5
부평구	39.6	44.0	33.6	37.2	32.0	27.2	20.0
계양구	66.0	38.5	32.5	42.0	32.5	16.5	25.5
서구	34.5	49.0	43.5	40.0	34.5	40.0	10.5
강화/옹진군	52.0	60.0	55.0	38.0	24.0	20.0	14.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표 118〉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를 위한 중점사항(하위항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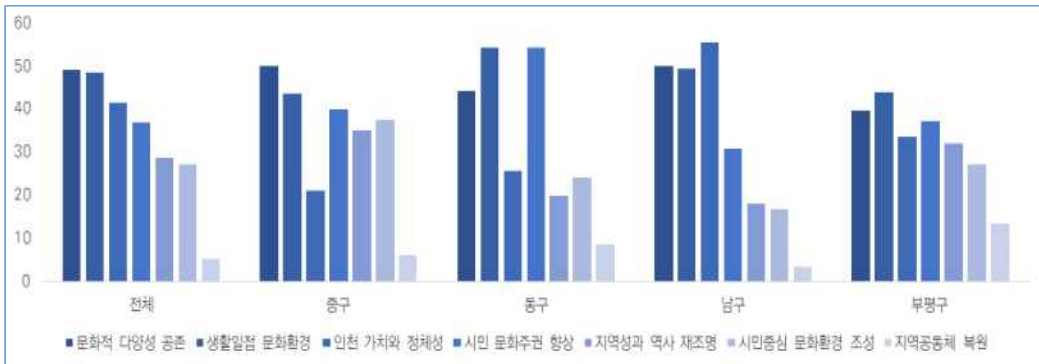
구분	문화적 교류와 조화	인천경제 활성화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	원도심 문화 재생 및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전체	14.2	13.9	5.4	5.3	5.1	4.9
중구	6.2	25.0	5.0	6.2	11.2	3.8
동구	17.1	10.0	5.7	8.6	7.1	1.4
남구	14.5	18.5	10.0	3.5	2.0	8.5

연수구	12.5	16.0	5.0	3.5	1.5	4.5
남동구	10.5	8.5	3.0	2.0	3.5	3.0
부평구	15.2	15.6	5.6	13.6	11.2	4.8
계양구	15.5	11.0	4.5	2.0	5.5	7.5
서구	17.5	10.5	7.0	6.0	3.0	4.0
강화/옹진군	17.0	14.0	0.0	1.0	3.0	2.0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그림 152] 인천시 자치구별 문화도시를 위한 중점사항(일부 자치구별 상위항목)

(단위: %)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수요조사

3.4. 시사점

- 인천은 자치구별로 인문환경, 사회환경, 문화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환경도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음. 이러한 환경 차이는 자치구별 문화예산, 문화시설과 같은 문화정책 환경에도 반영되어 자치구별 균형적 문화발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편임. 때문에 향후 문화도시 정책 추진에서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환경, 사회환경, 문화환경 등을 섬세하게 고려한 자치구 문화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자치구별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관련 인식과 수요에서도 차이를 보임. 그런데 자치구 문화인식 조사를 통해 자치구에 살고 있는 인천 시민들은 인천시 전체 및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환경에 대한 이미지나 만족도가 긍정적인 편임.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현재의 상이한 자치구 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치구별 차이와 다양성으로 인지하여 긍정적 요소로 전환할 수 있는 문화전략을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시민의 문화관련 수요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자치구별 문화환경 차이에 기반을 둔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자치구간 문화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구 상황에 필요한 문화 인프라, 프로그램(콘텐츠), 인력, 정책추진체계 개발과 운영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자치구별 주요 여건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119〉 자치구별 주요 여건 및 시사점

구분	자치구별 주요 여건	시사점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문화관련 예산비중에 비해 지역민은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는 차이 발생 -교통의 요충지로 기본적 접근성이 확보되어 다양한 계층에 대한 배려 필요 -시민중심의 문화환경, 생활문화의 일상화에 대한 높은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홍보 강화 -실질적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강화
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련 예산규모가 작으며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도 매우 취약한 상황 -구민들은 문화활동의 접근성을 중시 -주민자치센터와 공공문화시설 이용의도가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산 확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 주민자치센터 및 공공문화시설을 최대한 활용
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문화관련 예산비중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문화적 활력이 낮음 -문화역량에 대한 평가가 낮고 향후 문화활동 의향 역시 낮음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인천의 가치와 정체성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필요 -운영 중심의 예산 집행보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연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도의 분구 요청으로 지역 내 통합적 관리 한계 -가장 젊은 지역이며 삶의 질 관련 긍정적인 평가가 높음 -평균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의도를 보이지만, 지역단위 정보에 취약한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소속감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필요
남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대표 축제가 있으나 문화예산 규모는 작은 수준 -노령화가 낮고, 각종 프로그램 규모가 높게 나타남 -적극적 문화활동보다 축제/관광, TV시청 등의 여가활동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 지역이지만 문화적 취향 또는 역동성이 약한 편 -문화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필요
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정책 수행주체가 분명하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사업으로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문

	<p>예산 및 사업바양은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음</p> <p>-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문화활동 포기 경험이 많음</p> <p>-평균보다 낮은 문화역량 평가로 정책 및 개인단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p>	<p>화적 욕구가 존재</p> <p>-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p>
계양구	<p>-높은 문화관련 예산비중에 반해, 문화활동 경험과 참여 의도는 낮은 편</p> <p>-거주지역 내에서 소극적으로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경향</p> <p>-주요시설 중심의 문화활동 욕구 존재</p>	<p>-부평구에 비해 문화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남</p> <p>-기본 시설 중심의 전통적인 문화관련 활동 활성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p>
서구	<p>-젊은 지역으로 삶의 만족도와 문화적 활력 모두 높음</p> <p>-다양한 문화적 활동경험과 향후 수요 모두 높게 나타남</p> <p>-접근성 이슈로 문화활동에 장애를 겪는 비중 높음</p>	<p>-서구문화재단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p> <p>-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과 홍보활동 방식 개선 필요</p>
강화군 옹진군	<p>-문화유산 등 자원은 많으나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낮은 수준</p> <p>-높은 노령화 수준</p> <p>-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인천의 가치와 정체성 중시</p>	<p>-외래 관광객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p> <p>-노령화 추세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필요</p>

출처: 연구자 정리

제2절 인천 문화도시 환경분석 종합 및 시사점

1. 환경분석 종합

1.1. 인천 도시이미지

인천 도시이미지는 다양하며, 문화도시를 통한 새로운 지역가치와 정체성 구축이 필요합니다.

- 인천의 주된 도시이미지는 ‘공업도시’, ‘해양/관문도시’, ‘역사도시’, ‘미래도시’, ‘수도권 도시’ 등 다양
- 인천의 내생적 역사·문화적 가치 발현, 사람 중심의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창조적 활동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정책 추진으로 인천의 새로운 지역가치와 도시정체성 구축 필요

언론매체 속 인천 도시이미지

- 유동적,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람과 문화
- 과거와 현재가 공존
- 이주민의 높은 비율: 개방성과 포용성, 정체성 확보 과제를 동시에 가짐
- 수도권보다 문화적으로 뒤쳐진다는 상대적 박탈감 보유
-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여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지 기능
- 대중국 문화교류 중심지로 부각, 동북아경제 중심/녹색기후기금(GCF)와 같은 국제기구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
- 기계, 자동차, 전자 등 전통 제조업 기반. 여전히 강한 공업도시 이미지

출처: 언론기반 분석결과

인천 지역문화는 단편적으로 바다와 맞닿은 지역으로 항구도시라는 특성 속에서 근대문물의 유입, 식민지 시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 등이 축적된 역사적 산물임. 그러나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미지화 하지는 못함.(2016년 9월, 1차 열린 집담회)

다양성이 공존하는 혼합도시로서의 문화도시가 필요함. (2016년 9월, 5차 열린집담회)

인천은 인천시 전체에 대한 고유의 공통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2017년 3월, 정책토론회)

1.2. 문화주체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문화중요도는 높으나, 일상 삶에서 문화·여가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 인천 시민이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문화 중요도는 상위권
 - 문화예술의 중요도는 9개 항목 중 3위(12.8점)
- 인천 시민이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문화·여가 만족도는 하위권
 - 문화/여가 활동의 삶의 질 만족도는 9개 항목 중 7위(37.7%)

[그림 153] 인천시민 일상생활 문화 중요도 대비 실제 문화/여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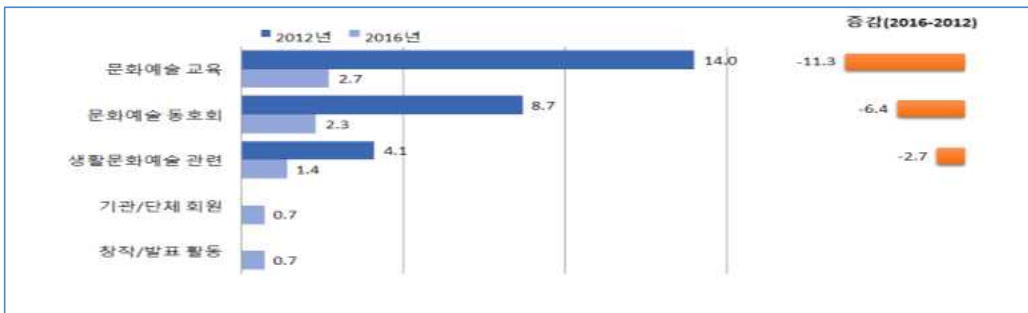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중요도는 삶의 질 평가와 행복도 간의 회귀계수와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산출됨.

인천시민의 문화활동 수요는 높으나, 실제 문화활동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 높은 문화수요에 비해 문화활동은 감소 중
 - 향후 문화예술행사 참여의도 96.3%, 문화활동 참여의도 23.2%
 - 문화예술교육 14% → 2.7%,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8.7% → 2.3%

[그림 154] 2012년 대비 2016년 인천시민 문화활동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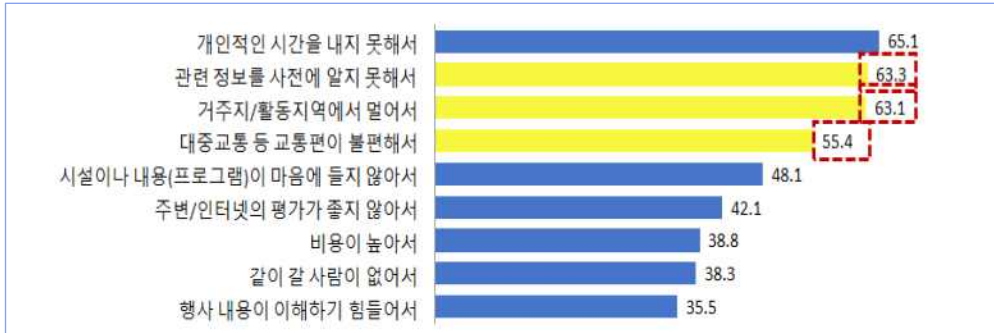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문화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접근성> 문제

- 정보부족(63.3%), 원거리(63.1%), 교통 불편(55.4%), 적절한 콘텐츠의 부재(48.1%) 등

[그림 155] 인천시민 문화예술활동 포기경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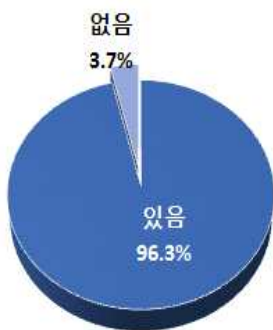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단기적 행사 위주 문화 활동 수요는 높으나,
장기적인 문화 활동 수요는 낮은 편입니다.

○ 인천시민 대부분은 단기행사 참여 수요가 높음

- 향후 문화예술행사 참여 의향 96.3%
- 지역축제(79.4%), 역사문화유적(61.4%), 대중문화공연(58.7%)에 대한 높은 수요
- 무용(22.3%), 문학행사(28.0%), 클래식(30.1%) 등 예술 장르 분야에 대한 낮은 수요

[그림 156] 인천시민 문화예술행사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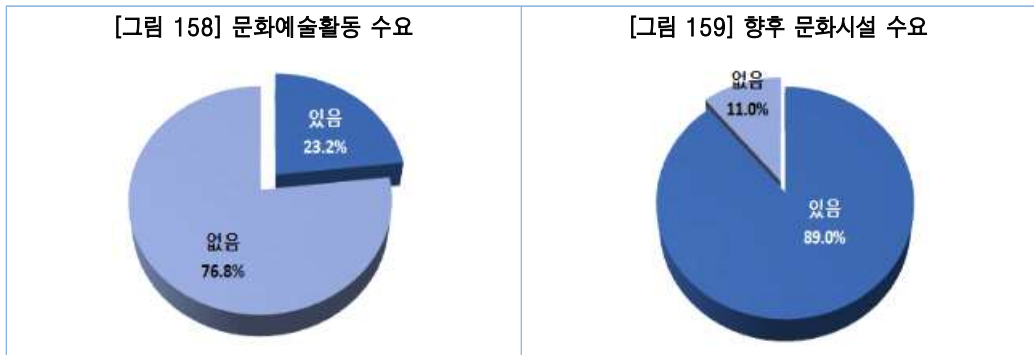


[그림 157] 인천시민 문화예술행사 수요 영역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정기적 문화활동 참여 수요는 높지 않음: 향후 문화활동 참여 의향 23.2%
-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으며(89.0%), 특정 공간에 편중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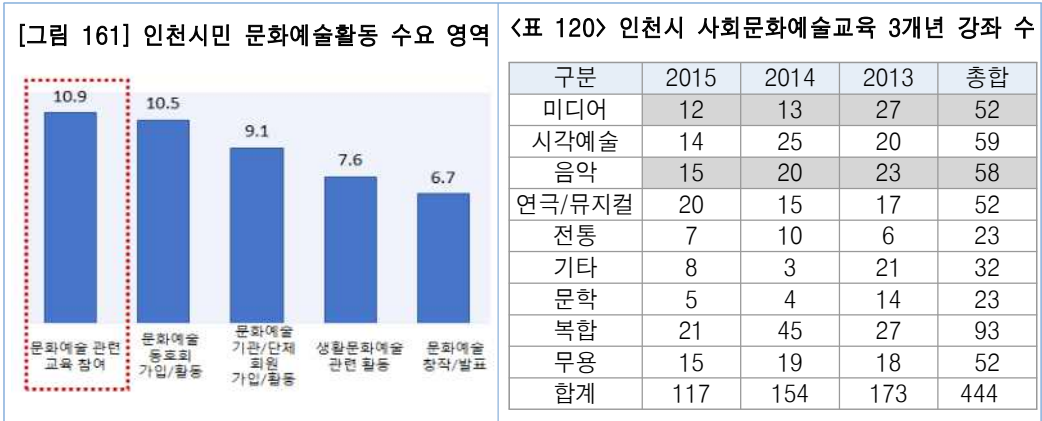
출처: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출처: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인천시민은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강좌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및 관련 동호회 활동 참여 수요 높음
 - 문화예술활동 수요 중 높은 항목은 문화예술교육 참여(10.9%)와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10.5%)
- 문화예술교육 강좌 수 감소
 - 2013년 173개 → 2015년 117개(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원 사업 범위 내)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출처 : 인천문화예술연감(2015)

인천시민은 매개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비해 기반이 약합니다.

- 문화매개자의 중요성 인식 높음
 -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2순위(52.4%)
 - ‘예술가와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인력’ 양성 필요에 대한 현장에서의 요구

[그림 162]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2위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신생 청년단체를 멘토링, 청년예술단체들 간, 행정 및 다른 분야와의 중간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매개인력이 필요한 시점(2016년 9월, 2차 열린 집담회)

- 문화매개인력 부족
 - 문화매개자 양성 초기단계(관련학과 개설 10년 내외)
 - 2007년 이후 문화매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내용적 측면에서 체계성, 연속성 부족

〈표 121〉 인천시 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표 122〉 인천문화재단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구분	학과(과정)	개설연도	년도	사업명
인하대 문화대학	문화콘텐츠학과	2006년	2007	문화인턴 지원사업(특별공모지원)
	문화경영학과	2012년	2008~2010	문화예술 기획인력 운영지원사업
인하대대학원 문화경영학전공	융합과정	2006년	2012~2015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과정 '그로잉 업!'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	2013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2008년	2014~2015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인천대 문화대학원	지역문화 기획학과	2012년 11월	2014	문화이모작사업(경인권)

출처: 손동혁(2015)

**인천시민은 창작인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창작인력이 인천에 거주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열악해
예술 창작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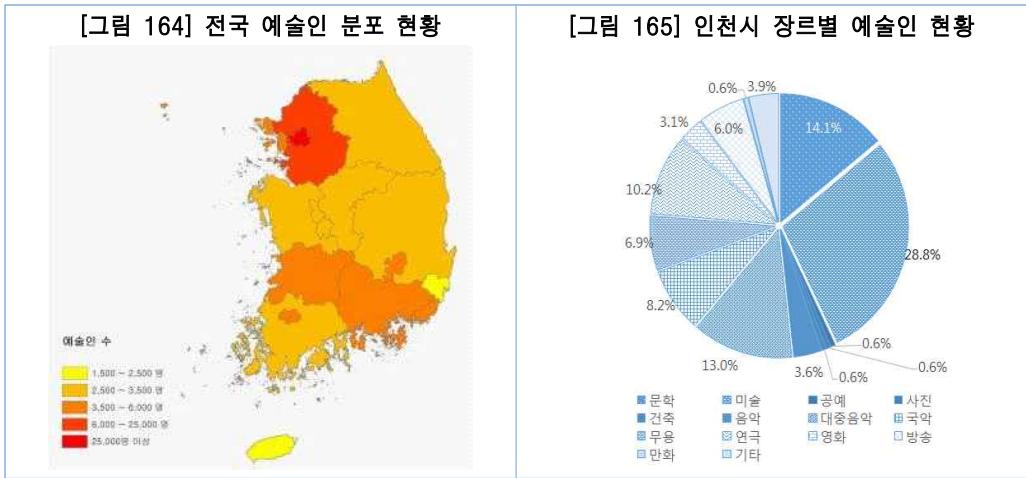
- 인천시민은 예술인 및 창작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높음
 -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1순위(62.2%)

[그림 163]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문화도시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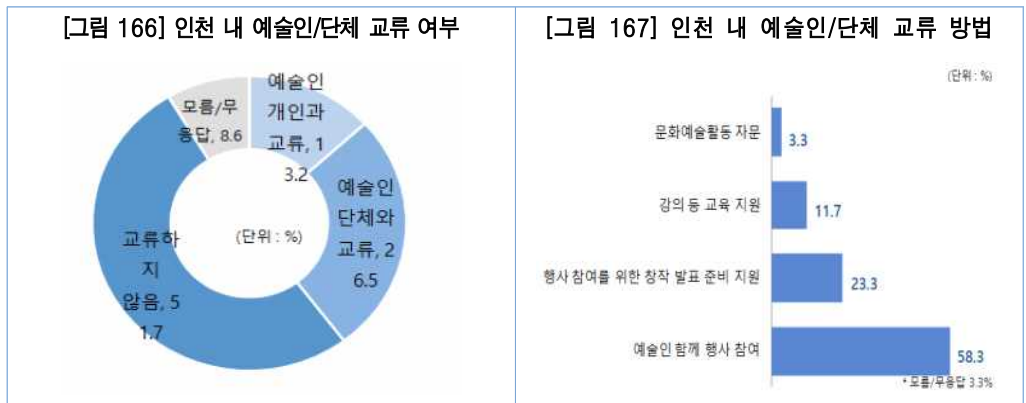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인천지역 내 예술인의 양적 분포는 양호
 - 인천 거주 예술인은 4,148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와 유사한 수준
 - 활동 분야는 미술, 문학, 대중음악, 연극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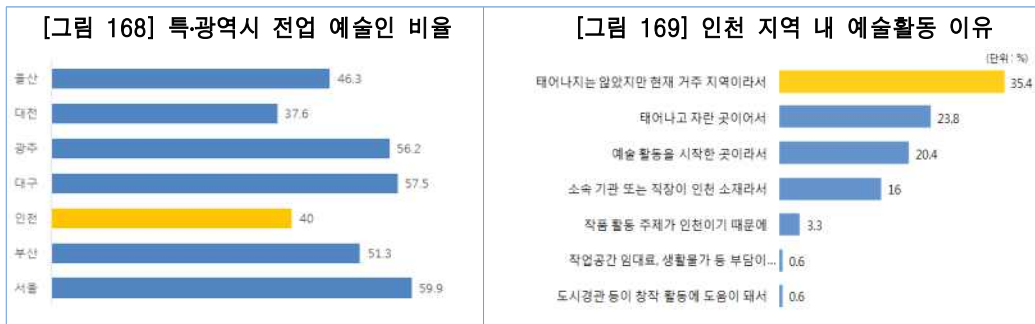


출처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인천 예술인의 열악한 경제 수준

- 타 광역시 대비 전업 예술인의 비중 낮음(40.0%)
- 인천시 거주 예술인들의 약 85%는 예술 활동 연간 수입 2천만 원 미만 수준
- 열악한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인천 내 주요활동 이유는 단순 거주지이기 때문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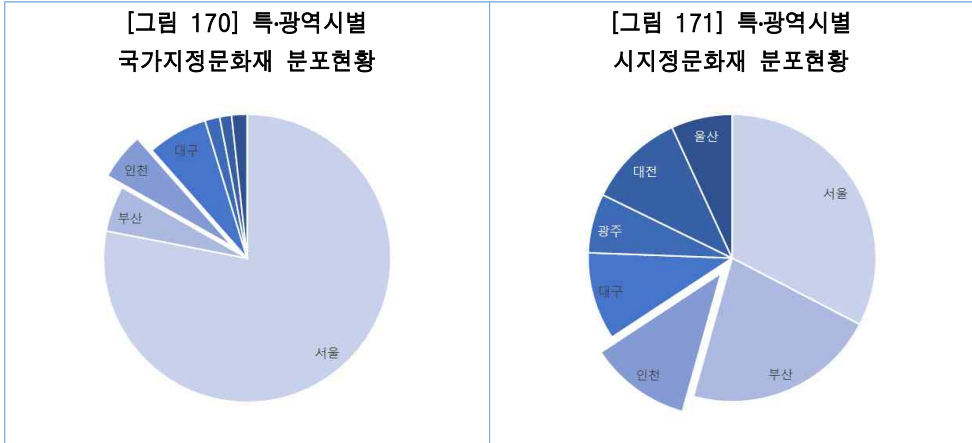
출처 : 2015 예술인 실태조사

출처 : 2016 인천 예술인 수요조사

1.3. 문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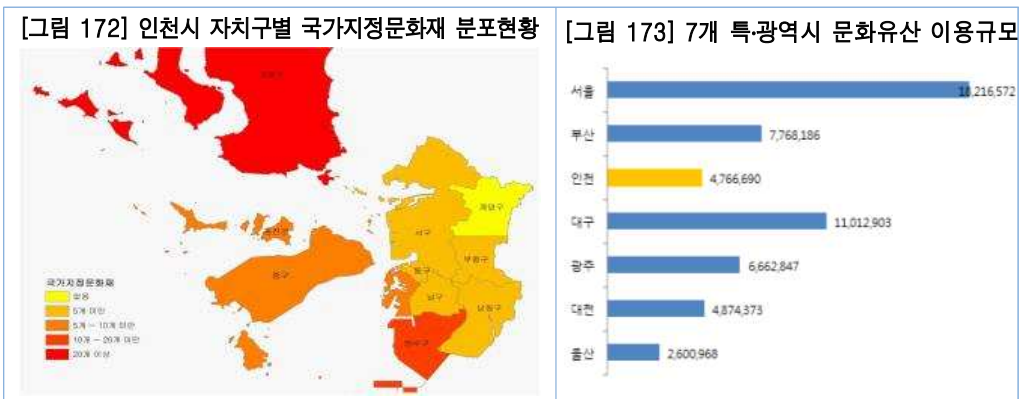
인천시에 문화재는 많지만, 편중되어 있고 종합적인 활용도가 낮습니다.

- 인천지역 내 문화재 다수 분포
 - 2016년 현재 인천시 국가지정 문화재는 75개, 시 지정 문화재 188개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현황, 인천시 내부자료(2016년 12월 31일 기준)

- 자치구 간 문화재 분포 차이 존재: 강화군, 연수구 위주 분포
- 낮은 수준의 문화유산 이용 규모: 7개 특·광역시 중 6위



출처 : 문화재청 문화재 관리현황

출처 : 2016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 선사~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보유와 활용 경험
 - 선사시대 유적부터 근현대 개항, 산업, 노동문화 자원과 함께 신도시 개발에

- 따른 미래문화 자원까지 다수 존재(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 산업유산 활용 문화시설 구축(인천 아트플랫폼, 자장면 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개항박물관) 경험(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된 노동자를 기리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이 인천에 세워진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65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 는 1일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중략)

추진위는 이날 발족식에서 “인천은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군수기지로 만든 도시이자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거대한 군수공장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지역” 이라며...(후략)

경기일보 김덕현(2017.02.02.). '강제징용 노동자상' 인천에 세워진다.

시립예술단의 역사에 걸맞은 활동을 제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전통 있는 시립예술단 존재
 - 4개 예술단 및 지원부서로 구성, 총 234명 재직 중
 - 시립교향악단은 1966년 창단, 시립극단 1990년 창단(공립극단 전국 최초)
- 시립예술단의 시민과 함께 하려는 지속적 활동
 - 가장 잦은 공연은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 2017년 운영 예산 1,344백만 원, 237회 공연 계획

<표 123> 2017 인천 시립예술단 공연계획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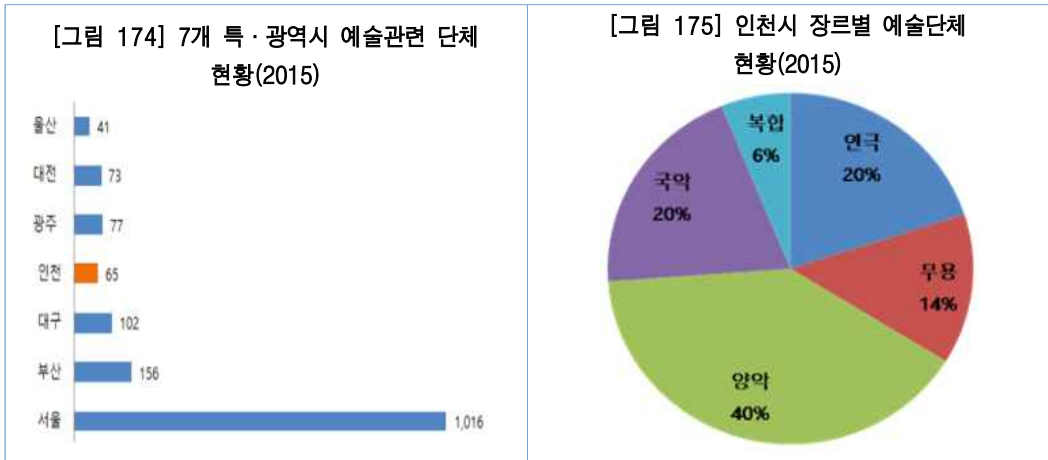
구분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	기타공연	계	창단
교향악단	9/9	11/11	22/22	8/8	50/50	1999. 6.
합창단	5/5	9/11	30/30	11/11	55/57	1981. 4.
무용단	1/2	6/24	25/25	10/10	42/61	1981. 4.
극단	3/33	2/7	25/25	2/4	32/693	1990. 7.
합계	18/49	28/53	102/102	31/33	179/237	

출처: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2017)

다양한 민간 예술단체가 존재하지만 활동은 아직 미약하고, 개선을 위해 예술인(단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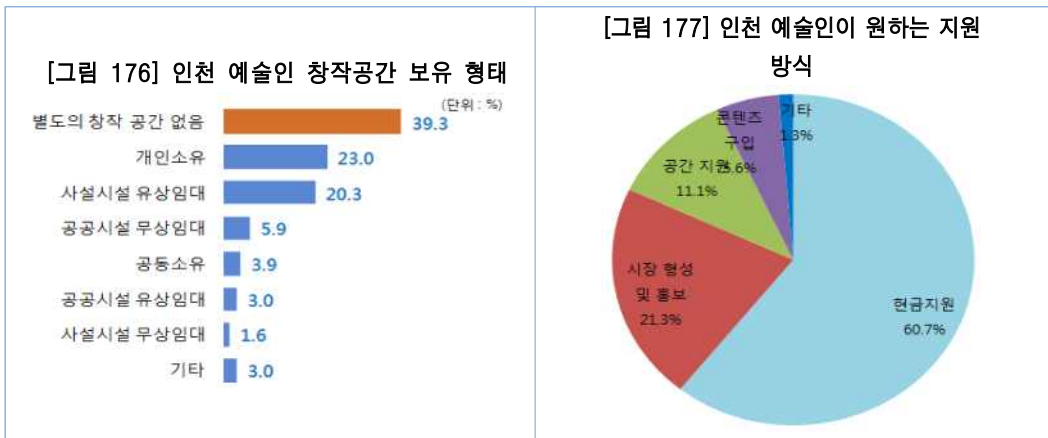
- 다양한 민간 예술단체 존재
 - 다수의 비영리 문화예술법인(173개) 중 문화예술관련 단체 86개로 높은 비중(2017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계획)

- 인천시 예술 관련 단체 65개(서울 제외 광역시 평균 86개)
- 예술 장르별 다양한 분포(양악, 연극, 국악, 무용, 복합 순)



출처 :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

- 예술인 실태와 수요에 맞는 지원 필요
 -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 희망(60.7%)
 - 창작 공간 부족(인천시 예술인의 약 40%는 별도 창작 공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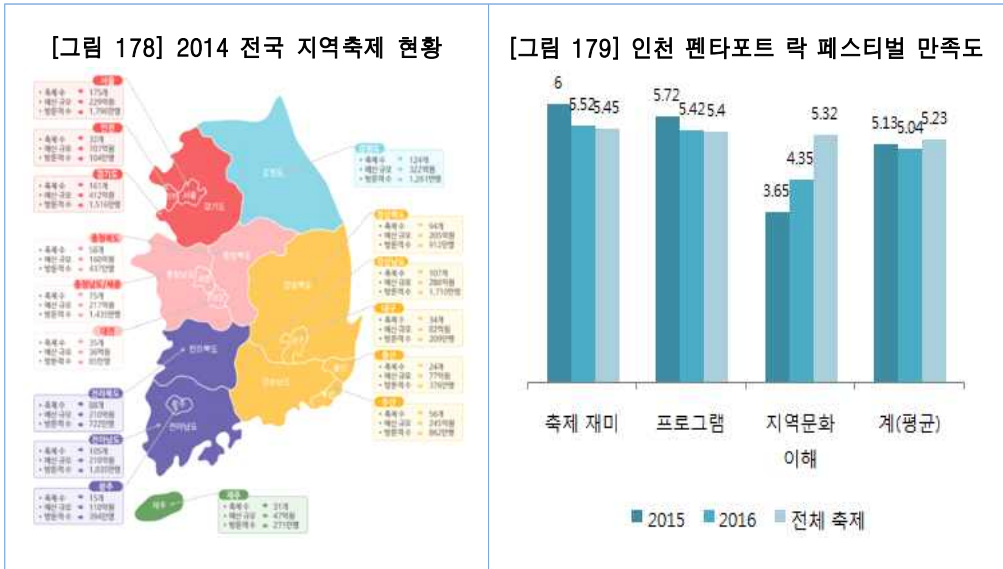
출처 : 2016 인천 예술인 수요조사

전라북도에서 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해 예술대출 시행 예정. 신용보증기금의 신분 보장을 통해 저리대출을 실행하듯이 인천에 맞는 예술인 창작지원 기반이 필요함(2017년 3월, 정책토론회)

인천에 맞는 축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인천 지역축제 현황

- 2017년 개최 예정인 전국 지역축제²⁷⁾는 733개이며, 인천시는 19개의 지역축제 개최 예정(2017년 지역축제 개최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2017년 인천시 지역축제 총 예산은 6,357백만 원(군·구·비 2,898백만 원, 시도비 1,912백만 원, 기타지원금 1,132백만 원, 국비 415백만 원)으로 자치예산 비율이 높음(2017년 지역축제 개최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2014년 인천시 지역축제 32개 개최(전국 1,214개), 방문객 104만 명(전국 1억 3,125만 명)으로 전국 대비 1% 수준
- 대표축제 강화 필요(문화관광축제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1개가 유일)
- 대외적 대표성이 다소 약한 수준



출처: 한국 지역축제 실태조사(2016)

출처: 2016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 지역축제 육성방안 필요

- 7개 특·광역시 중 지역축제 육성제도가 없는 지역은 인천 뿐(한국 지역축제 실태조사, 2016)으로, 현재 대표축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인천시 내부자료).

27) 문화체육관광부 집계 기준 2017년 지역축제 개최계획(2017)에 의한 것으로, 일정기간(2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를 집계한 자료임.

지역문화 활용이 자치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 인천시 각 자치군/구는 배경 환경에 따라 문화 사업을 추진(2017년 인천시 자치구별 주요업무계획)
 - 중구의 인천개항장 역사문화 배경 중심 문화 사업
 - 동구의 화도진, 달동네, 배다리역사문화마을 관련 사업
 - 남동구의 소래포구 관련 사업
 - 부평구의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음악도시 사업
 - 계양구의 계양산성, 부평도호부를 활용한 역사문화가치 정립 사업
 - 강화군의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선정 중심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사업 등

인천시민 85%가 인천에서 문화활동 즐기지만
여가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향후 일상적 문화활동을 바라고 있습니다.

- 인천시민의 85.7%는 인천 지역 내에서 문화활동
 - 인천시민의 84.9% 인천의 문화시설 활용
 - 인천시민의 77.1%는 인천 지역 내 문화행사 참여

[그림 180] 인천시민 지역 내 문화활동 비중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인천시민의 저조한 여가만족도
 - 5.6점으로 특·광역시 중 6위

[그림 181] 7개 특·광역시 여가활동 만족도



출처: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 주된 여가활동은 문화활동과 격리
 - TV시청(99.5%) > 쇼핑· 외식 (90.9%)> 운동(78.7%)> 휴식 낮잠 (77.4%)
- 희망 여가활동은 문화활동 위주
 - 관광/체험(64.7%) > 극장 영화관람 (60.9%)>TV시청(59.7%) >운동 (54.5%)

[그림 182] 인천시민의 최근 1년간 여가활동 경험(상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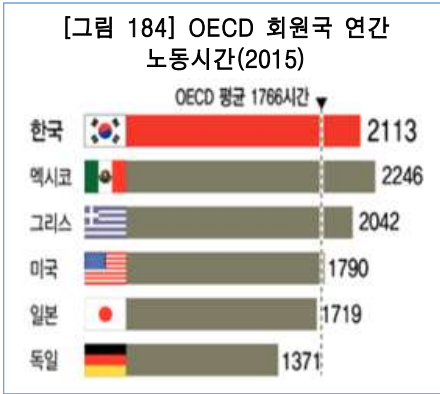


[그림 183] 인천시민의 향후 희망 여가활동(상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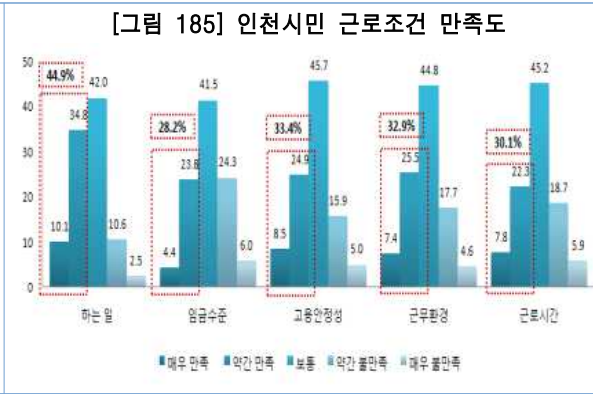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높은 노동시간으로 인한 일-여가 간 갈등 존재 가능성
 - 한국인 노동시간 OECD 2위
 - 인천 시민 근로시간 만족은 하위권(만족 응답 30.1%)
 - 시간 부족 정도에 높은 긍정 응답률(평일 68.6%, 휴일 59.1%)로 시간 압박에 시달림(2013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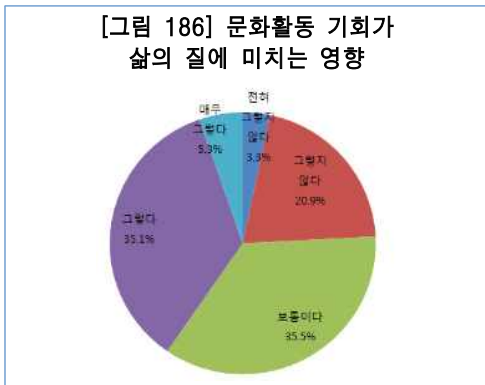
출처: 2013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인천시)

- 여가 친화기업²⁸⁾ 및 인증제도
 - 직장인의 생활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 인천시 여가친화기업 2014, 2016년 합 3개(문체부 보도자료)로 서울(21개) 다음 공동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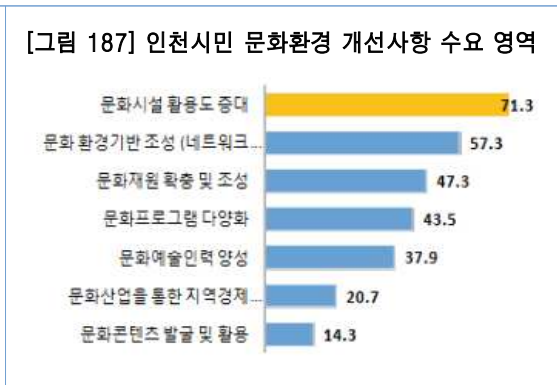
1.4. 문화공간

문화도시 진입은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합니다.

- 문화시설 증대에 대한 필요성 인식
 - 인천시민 40.4%는 문화활동 기회 제공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
 - 인천시민 71.3%는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시설 활용 증대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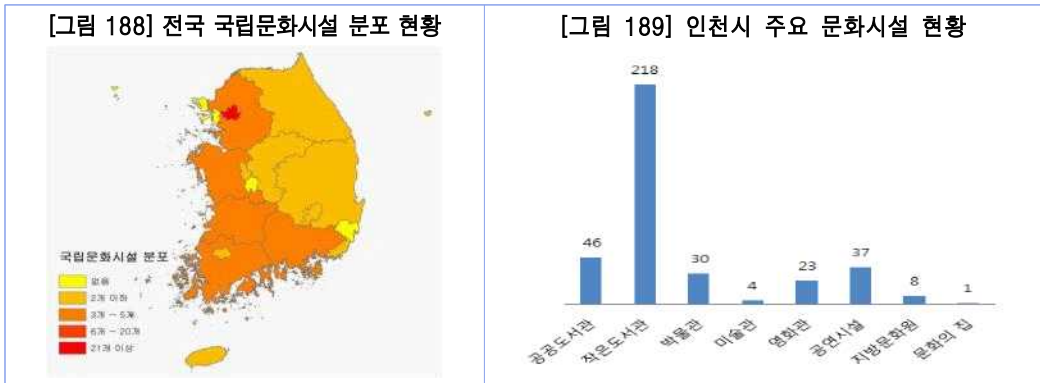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28)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은 직장인들이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직장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여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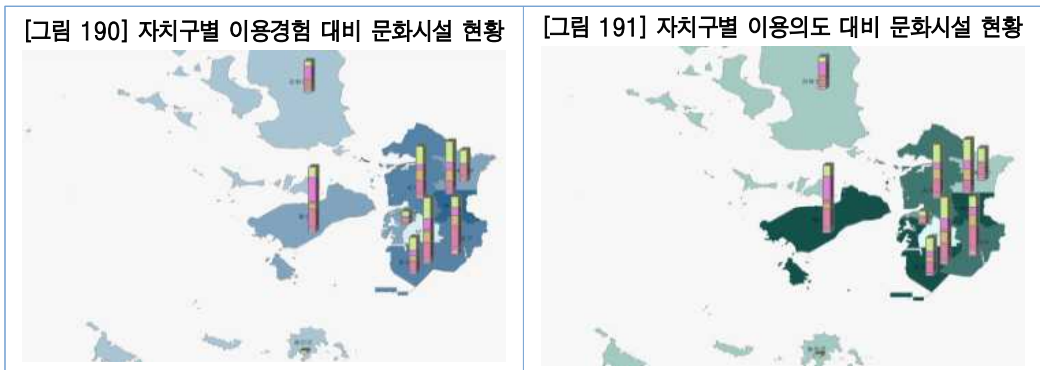
- 인천 내 다양한 문화시설 존재
 - 공공도서관(46), 작은도서관(218), 박물관(30), 미술관(4), 영화관(23), 공연시설(36) 등
- 국립문화시설 부재
 - 국립문화시설이 없는 광역시
 - 문화도시 인천으로서의 이미지 부족(언론 기반 정성분석 결과)



출처: 인천문화주관계획(2016)

출처: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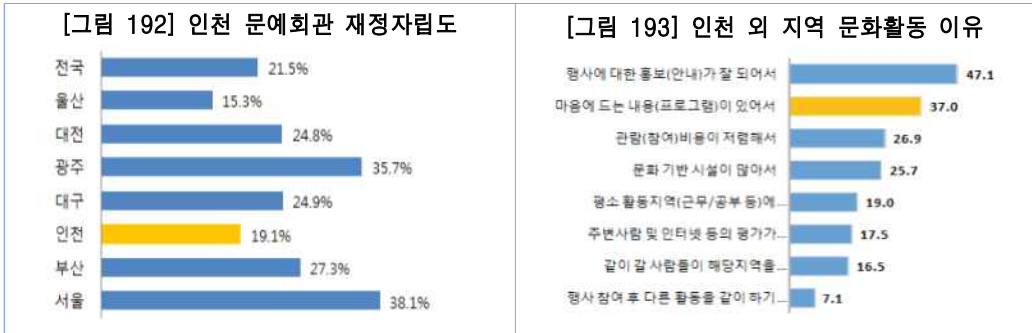
- 자치구 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및 이용의도 차이 존재
 - 자치구 간 문화시설 수 차이
 - 남동구>서구>부평구> ... >강화군>동구>옹진군
 - 자치구 간 문화시설 이용 경험 차이
 - 부평구>서구> ... >동구>계양구>강화/옹진군
 - 자치구 간 문화시설 이용 의도 차이
 - 중구>연구수>부평구> ... >계양구>강화/옹진군>남구



출처: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문화시설 운영의 개선과, 생활권 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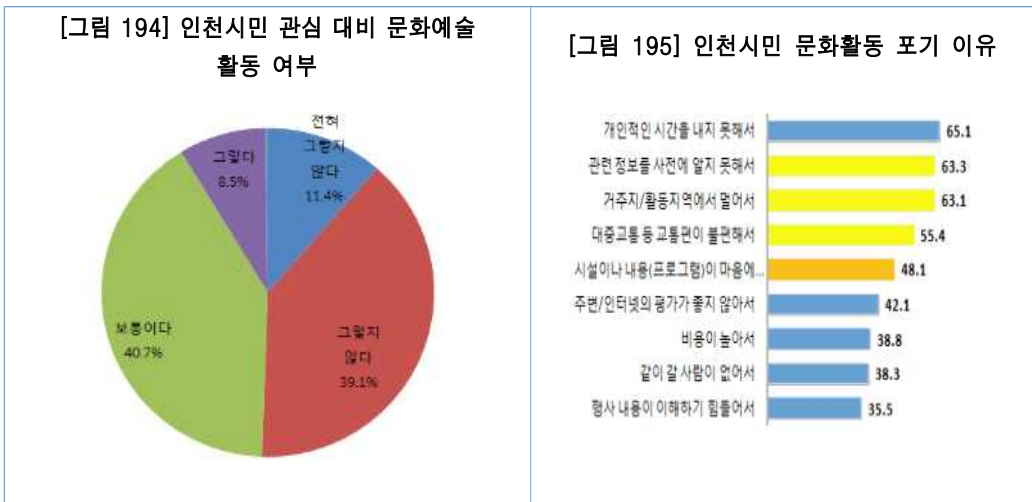
- 낮은 재정자립도
 - 인천시 문예회관 재정자립도는 19.1%(2016 공연예술실태조사)
-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내용의 질적 개선 필요
 - 인천시민의 인천 외 지역 문화활동 이유의 37.0%는 내용(프로그램) 때문



출처: 2016 공연예술 실태조사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인천시민의 50.5%는 관심에 비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지 않음.
- 인천시민의 48.1%는 시설 및 내용 불만으로 문화예술 활동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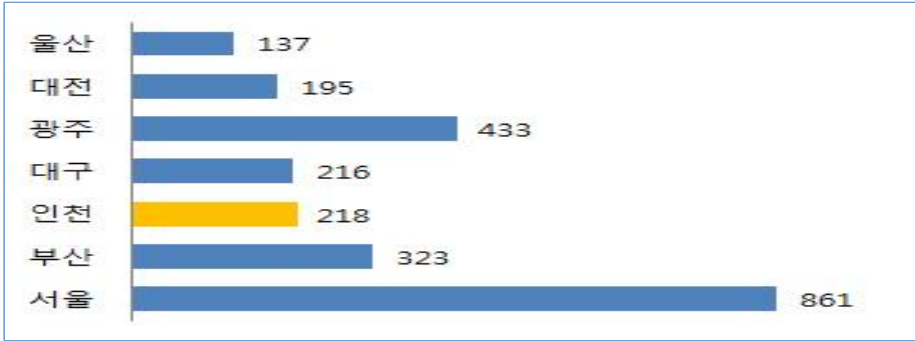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생활권 문화시설 확충 필요
 - 다른 시설 대비 수가 많은 작은 도서관도 타 지역 대비 부족

- 운영 및 조성 중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동구(2개소), 중구(2개소), 옹진군(2개소), 남구(1개소), 부평구(1개소), 연수구(1개소)로 자치구간 차이 발생

[그림 196] 7개 특·광역시 작은도서관 현황



출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1.5. 문화공동체

인천시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어주고, 맺어주는 연결이 부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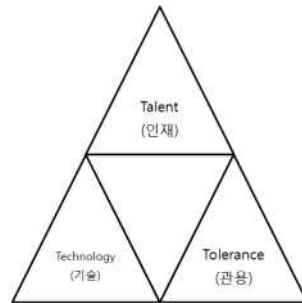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도
 - 인천 시민은 문화도시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이 중요하다고 인식 (49.1%)
 - 창의적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

[그림 197]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문화도시를 위한 중점사항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그림 198] 플로리다의 창의도시 3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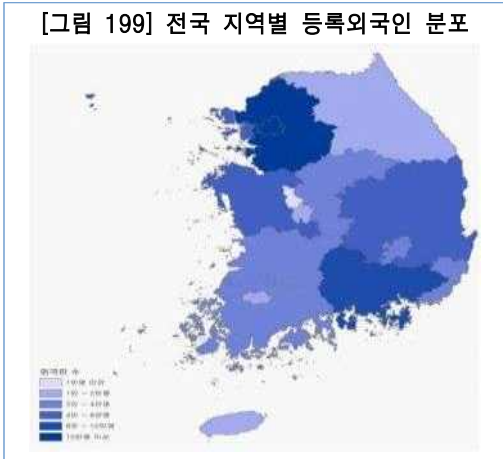


출처: Florida(2005)

-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 필요

<외국인>

- 인천시 인구의 약 2%는 외국인(국가통계포털 체류외국인 통계)
- 대한민국 성인의 31.8%는 외국인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아함(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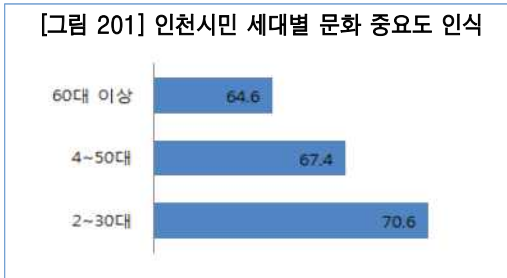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포털 체류외국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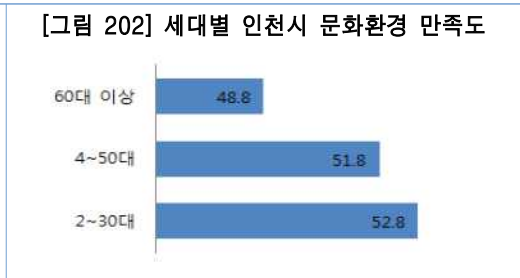
출처: 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세대(문화인식)>

- 젊은 세대일수록 문화를 중요하게 인식(7.6점), 현재 문화환경에 만족(52.8점)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세대(선호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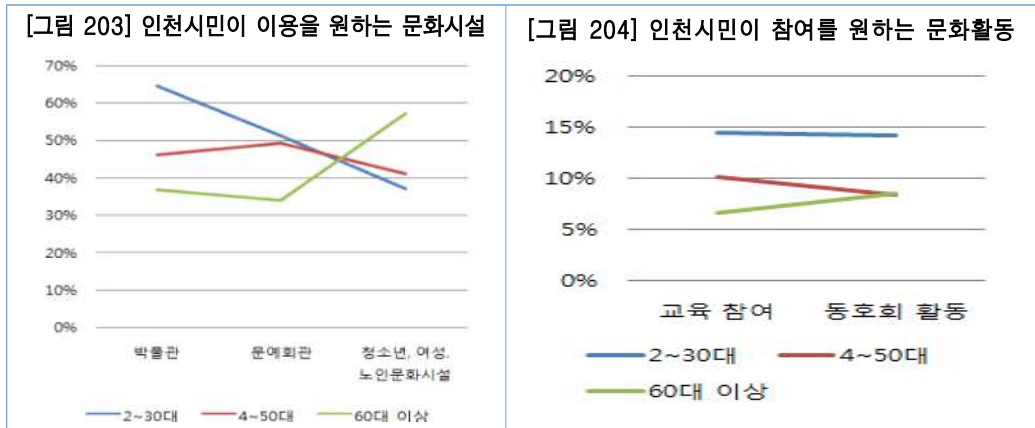
- 2~30대 박물관 1위(52.4%), 4~50대 예술회관 1위(49.3%), 60대 이상 노인문화시설 1위(57.1%)

<세대(선호행사)>

- 향후 참여하고 싶은 문화행사는 전 연령대 모두 지역축제 1위

<세대(선호 활동)>

- 2~30대(14.5%)와 4~50대(10.1%)는 교육 참여 1위, 60대 이상 동호회 활동 1위(8.5%)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문화도시 지향성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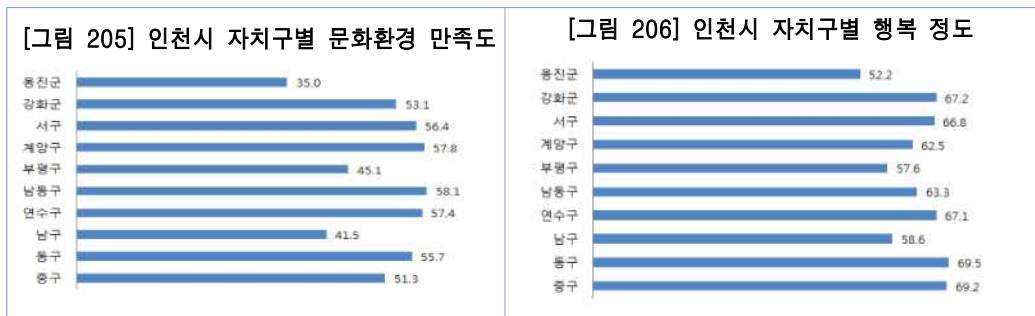
300만 인구의 인천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민관이 지속적인 협의체형식으로 구성하고 인천문화예술의 이슈 사항들에 대해 소통하고 협의,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2017년 자문회의 1차)

<자치구(문화 환경 만족도)>

- 남동구, 계양구, 연수구 등의 만족도가 높으며, 부평구, 남구, 옹진군의 만족도는 낮음

<자치구(행복도)>

- 동구, 중구 등이 높은 반면, 남구, 부평구, 옹진군의 행복도는 낮음.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행정인력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직무의 전문성 저하로 자치구 간 지속적 교류 및 정보교환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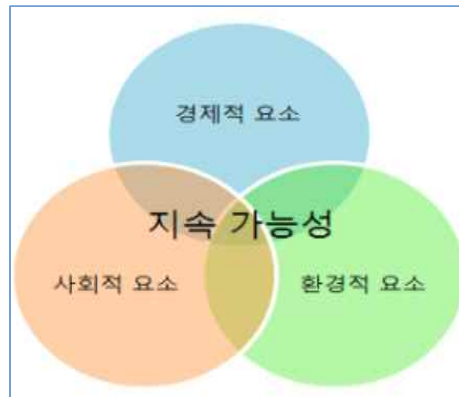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기획·입안·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성을 기반으로 이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인력의 정기적인 순환보직으로 인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2016년 자치구워크숍).

1.6. 문화산업

문화산업은 문화도시의 지속을 위한 수단입니다.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수

[그림 207] 지속가능한 개발의 3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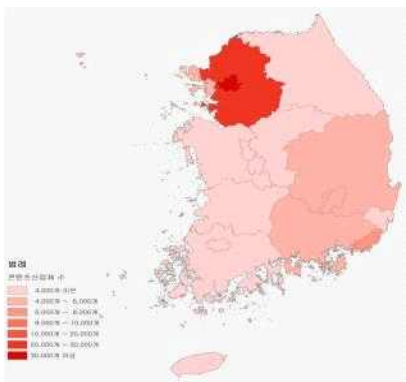


출처: UN SDGs

인천 문화산업의 잠재력은 많지만, 산업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부족합니다.

- 인천시 콘텐츠 산업체 및 매출액 장르별 상이(2016 콘텐츠산업통계)
 - 콘텐츠 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다수의 산업체들이 집중
 - 타 특·광역시 대비 매출액이 높은 장르: 캐릭터(6.10%), 영화(3.09%), 출판(3.02%) 등

[그림 208] 전국 지역별 콘텐츠산업체 수



출처: 2016 콘텐츠 산업통계

[그림 209] 인천시 장르별 콘텐츠 산업 매출액 비율



- 음악 산업은 부평을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중

부평 음악산업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 문화도시 창출'이라는 부평 음악도시로서 나아가는 비전아래 ①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를 중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 회복 ②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 및 창의적 재생산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③ 음악을 중심으로 생산·연구·지원·소비기능이 융합된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3가지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부평문화재단, 2015)

○ 콘텐츠 산업 열악(2016 콘텐츠산업통계)

- 2015년 기준 인천시 콘텐츠 산업업체는 총 4,901개로 타 특·광역시 대비 4위 수준이며 8% 비중
- 인천 콘텐츠 업계의 2015년 총 매출액은 1,430,406백만 원으로 타 특·광역시의 1.97% 수준
- 관련 산업 통계자료 구축 미비로 내밀한 현황 파악 한계
- 영상산업은 수도권의 지리적 이점 및 높은 활용도에 비해 인천 내 산업으로의 연결이 약함.

○ 콘텐츠 산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작됨

- (사)영상위원회 설립(2012년), 운영 중
- 예산 변화 _ 2015년(6.3억) → 2016년(13억) → 2017년(20억)

문화 산업 관련 정확한 지표와 데이터가 미흡함. 통계자료 구축을 통해 인력개발에 대한 선순환적 생태계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 (2017, 제4차 자문회의)
실제 인천시에 남아있는 콘텐츠 산업체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나, 통계 자료에는 확대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임. (2017, 정책토론회)

영상산업의 경우 서울과 지리적접근성에 따른 이점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것이 미흡함. 현재 모든 프로덕션들이 강남, 상암 위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 수도권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2017, 제4차 자문회의).

문화산업 업체 들이 인천시에 남아있지 않고 가까운 서울이나 판교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관련 사업체 유출 방지 및 새로운 유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2017, 정책토론회).

문화산업의 전문적, 체계적,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문 조직과 인력 양성에 주력할 시점입니다.

○ 문화 산업 장르별 전문 조직 필요

문화산업 관련된 다양한 주체와 장르별 사업들의 특성화를 할 수 있는 조직체가 부재함. 서울과 같이 장르별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2017, 4차 자문회의)

○ 문화산업 인력은 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상적

거시적으로 콘텐츠 산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인천만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 및 육성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2017, 4차 자문회의)

○ 인천시 문화시장 개발 필요

- 미술 장르 예술가 및 예술활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 관련 화랑 및 아트 페어 없음(2016 미술시장실태조사보고서)

1.7. 문화연동

문화도시는 다양한 도시계획과의 연동 속에 이루어집니다.

- 지역문화 개념은 통합적 개념이므로, 문화도시 발전계획은 다양한 주변 도시 계획과의 연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문화 개념은 지리적, 행정적 지역 기반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의 기반을 포함하는 인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범위를 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등을 망라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규정됨.

○ 한편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물리적 공간조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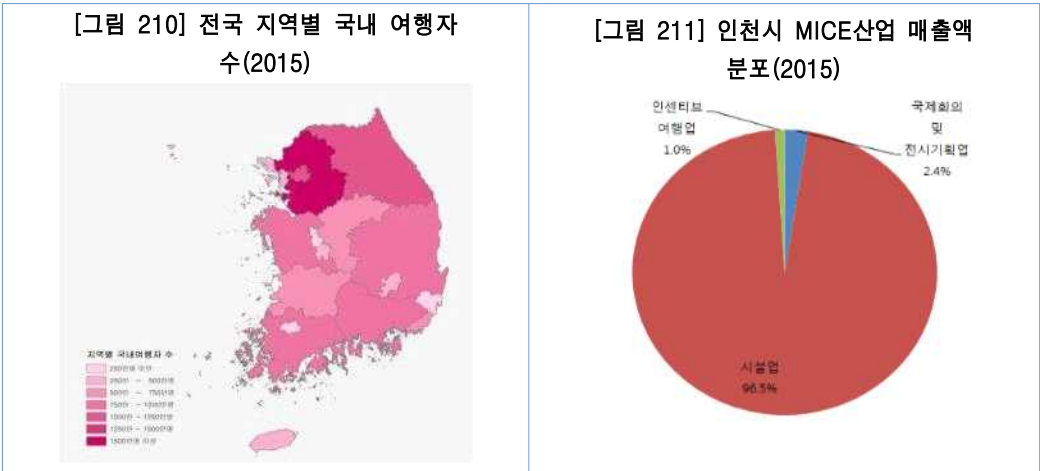
- 물리적 공간 조성이 국토의 계획과 관리체계 내의 국토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공간계획과 연동되어야 함.
- 상위 및 관련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인천도서발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인

천관광 마스터플랜 등이 있음.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2015)
 - 정책계획, 종합계획, 전략계획의 성격
 -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 비전아래 7개 분야별 정책목표를 설정
 - 문화·관광분야의 정책목표는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이며 정책 방향에 따라 실천 계획 설정

문화도시를 위해 관광 계획과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 관광산업 현황
 - 2015년 인천시를 방문한 국내관광객은 총 4,407,063명으로 특·광역시중 3위 수준이나, 주변 지역(서울, 경기)에 비해 낮은 수준(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 중국인 위주의 외래관광객(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시설업 위주(96.5%)의 MICE 산업



출처: 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출처: 2015 MICE 산업통계 · 조사연구

- 관광산업 잠재력 충분
 - 관광자원 다수 포진(역사문화자원, 산업유산, 영상 관련 자원 등)
 - 지정학적 장 _인천국제공항(하늘길), 항만(바닷길), 수도권 밀접(육지길)
 -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광만족도 _특·광역시대비 높은 수준의 당일관광만족도 (가구_당일 1위, 4.04; 개인_당일 3위, 4.01)(2015 국민여행실태조사)

- MICE산업 집중 육성 중_〈인천 8대 전략산업〉 중 핵심과제로 ‘송도 그린 스마트 MICE 시티모델 구현’ 포함, 〈인천관광 마스터플랜〉 중 ‘MICE산업 집중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
-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인천관광 마스터플랜〉 등 관광계획과의 연동 필요

문화도시를 위해 도시재생 계획과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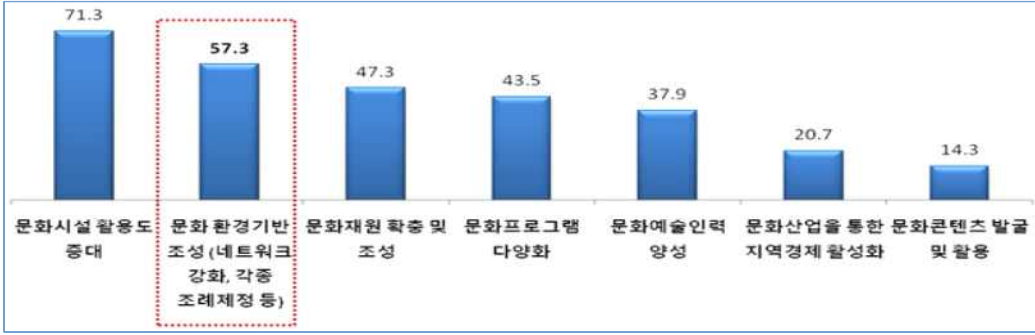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정책 비전을 통해 모두 행복한 사람중심의 인천가치 재창조를 천명
 - 총 12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 및 〈2016년 국토부 도시재생 일반지역 공모〉에 선정된 인천 개항창조도시와 강화군청 주변부를 1순위로 지정, 우선순위에 따른 재생사업 추진
 - 1순위 사업인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는 마을활동가 양성·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문화주체 역량강화사업, 공장지원·문화예술촌·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문화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상상플랫폼·근대문화길·전시관·박물관 조성 등 문화시설 확충사업 등 다수 문화관련 사업 배치
 - 문화도시 발전계획 수립 시 타 정책과의 연동 속에서 통합적 정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이유임.

1.8 문화협업

문화도시는 다양한 공공, 민간 기관들과의 협업 속에 이루어집니다.

- 문화협업의 필요성 인식
 - 인천시민의 57.3%는 〈인천시 문화정책 수립/추진 중점 사항〉으로 〈문화정책 기반환경(네트워크, 각종 조례제정 등) 조성〉이 필요하다 인식

[그림 212] 인천시민의 인천문화수립/추진 중점 우선순위 사항(1+2+3순위)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 문화정책 환경변화에 대응 필요
 - 문화 지형도의 변화, 문화 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2014) 및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시행
 - 자치구별 문화재단 증가 및 민간 문화예술단체 활동 강화(인천시 및 지자체 업무보고)
 - 문화정책 관련 공공·민간 기관들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재구조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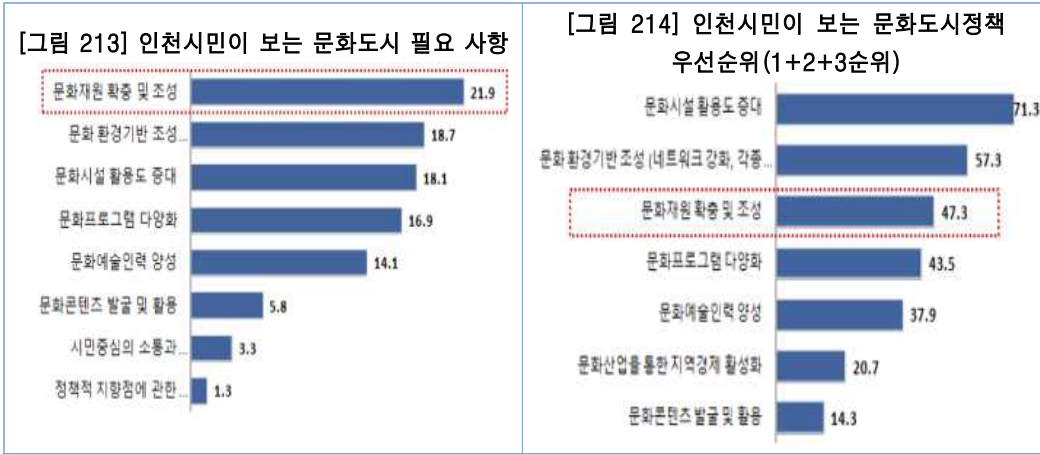
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 (2017년 2월, 1차 자문회의)

300만 인구의 인천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를 연결하는 협력체계시스템과 역할정립을 통해 정확한 업무위임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하는 시점임 (2017년 2월, 1차 자문회의)

1.9. 문화자원

문화자원 확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문화자원 확보 필요성
 -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비율은 2009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인천시민의 21.9%는 <문화자원 확충 및 조성>을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인식
 - 인천시민의 47.3%는 <문화자원 확충 및 조성>을 문화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



출처: 2016 인천시민 문화예술 수요조사

문화도시를 위한 재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전국 대비 낮은 문화예산 규모
 - 2016년 인천시 문화예산(체육부문 제외)은 총 예산의 1.9% 수준(인천시 재정공시)
 - 문화예술분야 예산비율 지속적 감소(2013년 1.55% → 2014년 1.41% → 2015년 1.39%)후 회복 국면
 - 2016년 1.9%(1,113억)으로 증가세 전환, 2017년 2.17%(1,364억)으로 전년 대비 251억 증대

[그림 215] 전국 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 부문 예산(2013~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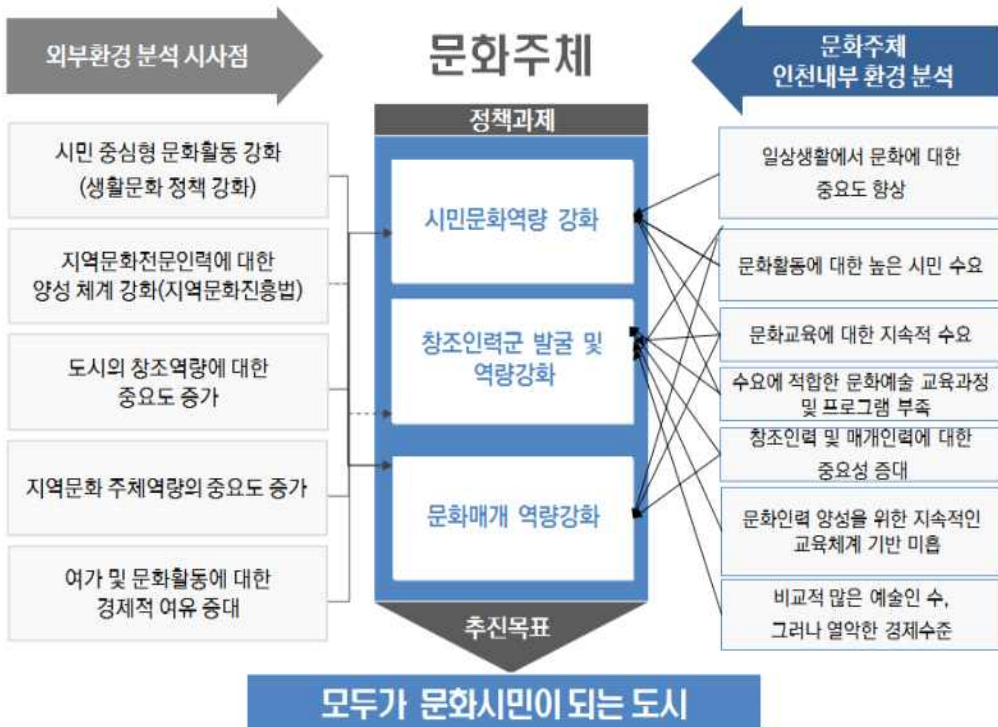


출처: 2015 인천문화예술연감

2. 범주별 종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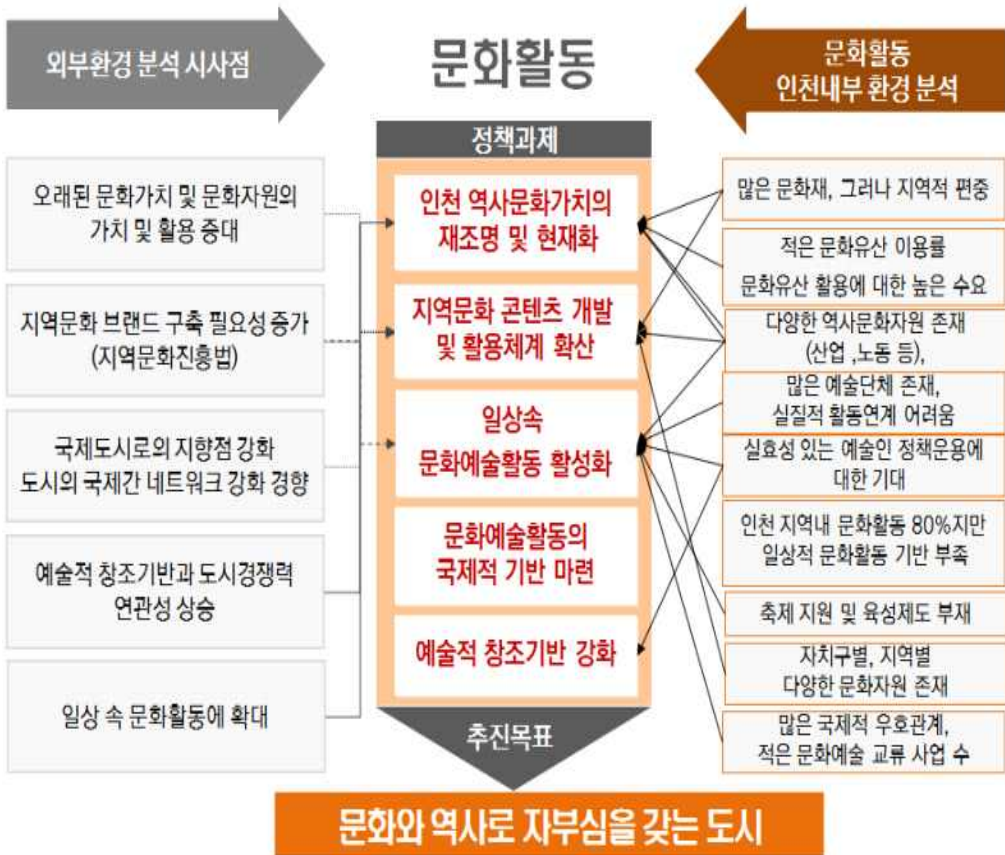
- 인천은 공업도시·해양/관문도시·수도권도시·역사도시·미래도시 등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인천의 가치는 이러한 다양성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도시 진입을 위한 단점이 아닌, 다양한 문화가 상생하는 혼합도시로서의 문화도시를 위한 장점이 될 수 있음. 인천 문화도시는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도시 이미지를 유연하게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인천의 핵심 동력인 시민, 예술가를 비롯한 창조인력, 문화매개인력으로 살펴본 문화주체 범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종합되었음.
- 현재 인천의 세 영역 문화주체 모두 그 여건과 활동력이 전반적으로 허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향후 문화도시 추진에서 문화주체의 강화는 핵심과제이자 장기적 정책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모두가 문화시민이 되는 도시’를 정책 추진목표로 설정함.

[그림 216] 문화주체 범주 종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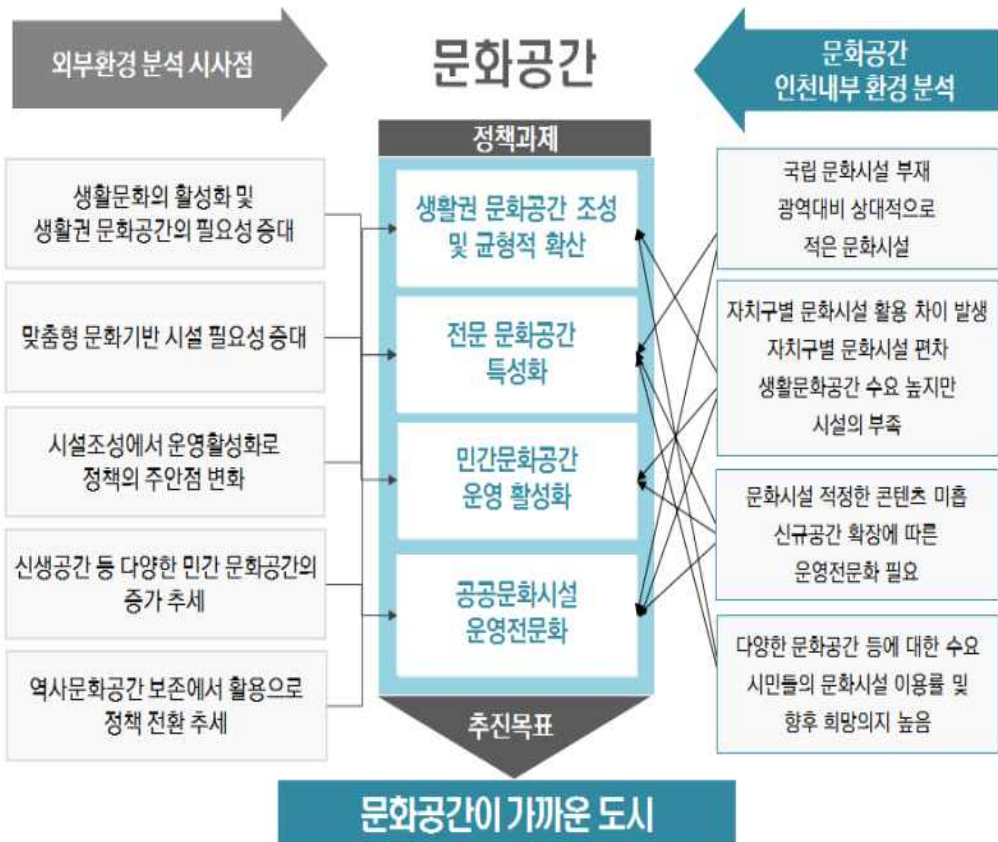
- 문화도시 인천을 표현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 도시의 예술적 역량,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국제문화교류 역량 등으로 살펴본 문화활동 범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종합되었음.
- 현재 인천은 과거로부터 형성된 풍부한 인천 역사문화 가치가 다양한 문화주체의 활동으로 충실히 표현되기에는 아직 그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시민 차원에서 일상적 문화활동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향후 문화도시 추진에서 분야별 문화활동 다각화는 전략적인 정책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문화와 역사로 자부심을 갖는 도시’를 정책 추진목표로 설정함.

[그림 217] 문화활동 범주 종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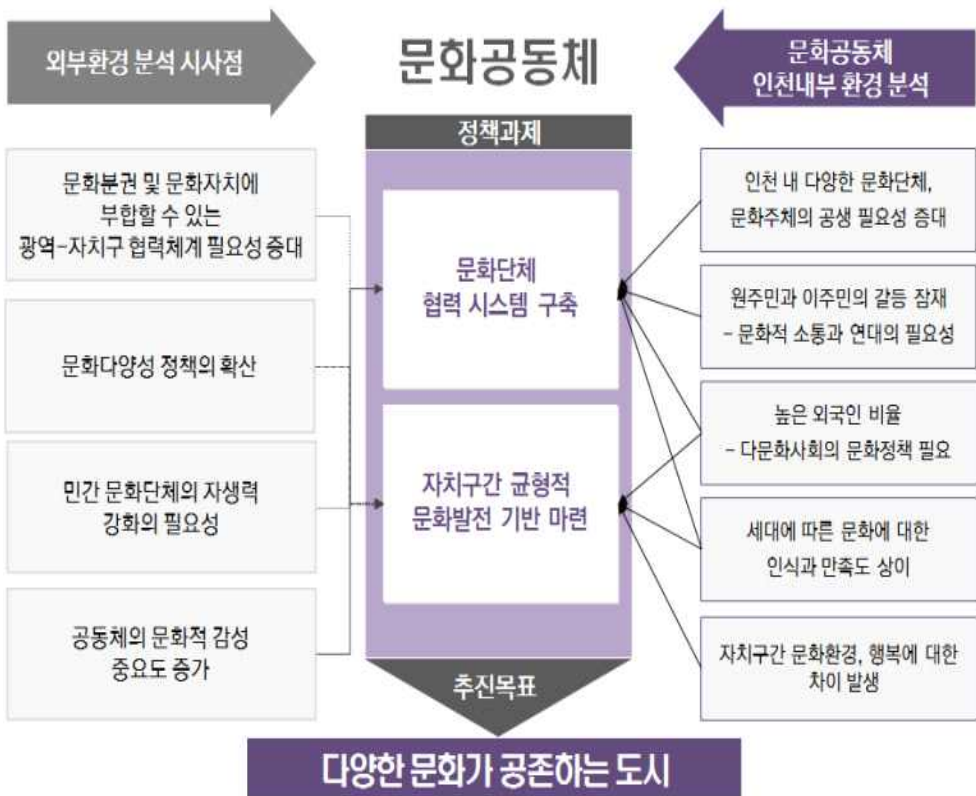
- 문화도시 인천의 물리적 환경이자 활동의 거점인 문화공간은 인천시를 대외적으로 이미지화하는 문화공간에서부터 시민들의 일상 생활권에 밀착하여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시민문화공간 영역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이슈들이 종합되었음.
- 최근 인천은 광역시를 대외적으로 이미지화하는 신규공간을 확충하는 과정에 있으나 운영 특성화 및 전문화의 과제를 안고 있고, 자치구 생활권 단위에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생활밀착형 시민문화공간은 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향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생활권 문화공간의 균형적 확산을 바탕으로 공간별 특성화, 전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공간이 가까운 도시’를 정책 추진목표로 설정함.

[그림 218] 문화공간 범주 종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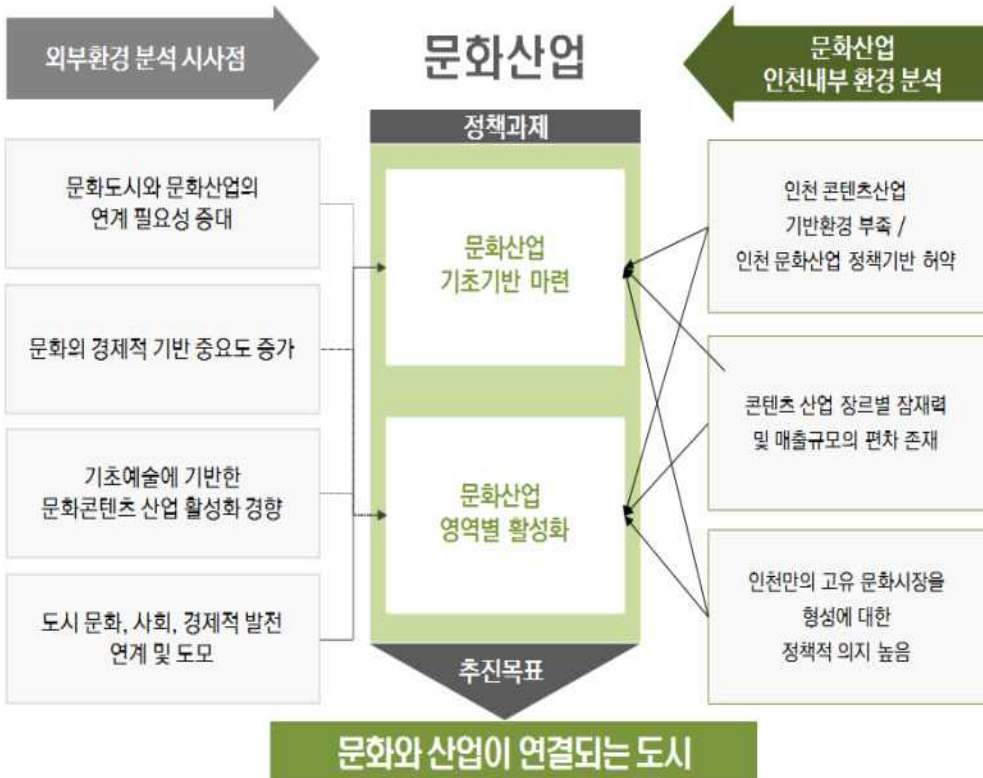
- 문화도시는 문화주체들의 다양성 발현 속에 꽃피울 수 있음. 현재 인천에는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미션을 실천하는 단체, 지역(자치구)를 중심으로 문화공동체 범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종합되었음.
- 인천에는 이주 외국인과 노동자 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며, 예술이나 문화적 활동을 조직하는 단체들이 다양한 편임. 자치구별로도 상이한 여건 속에서 문화적 수요가 다양함. 그러나 이러한 주체들 간의 소통과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플랫폼 등이 아직 미약한 편임. 향후 문화도시 추진에서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단체 자치구 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교류, 소통을 활성화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실행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정책 추진목표로 설정함.

[그림 219] 문화공동체 범주 종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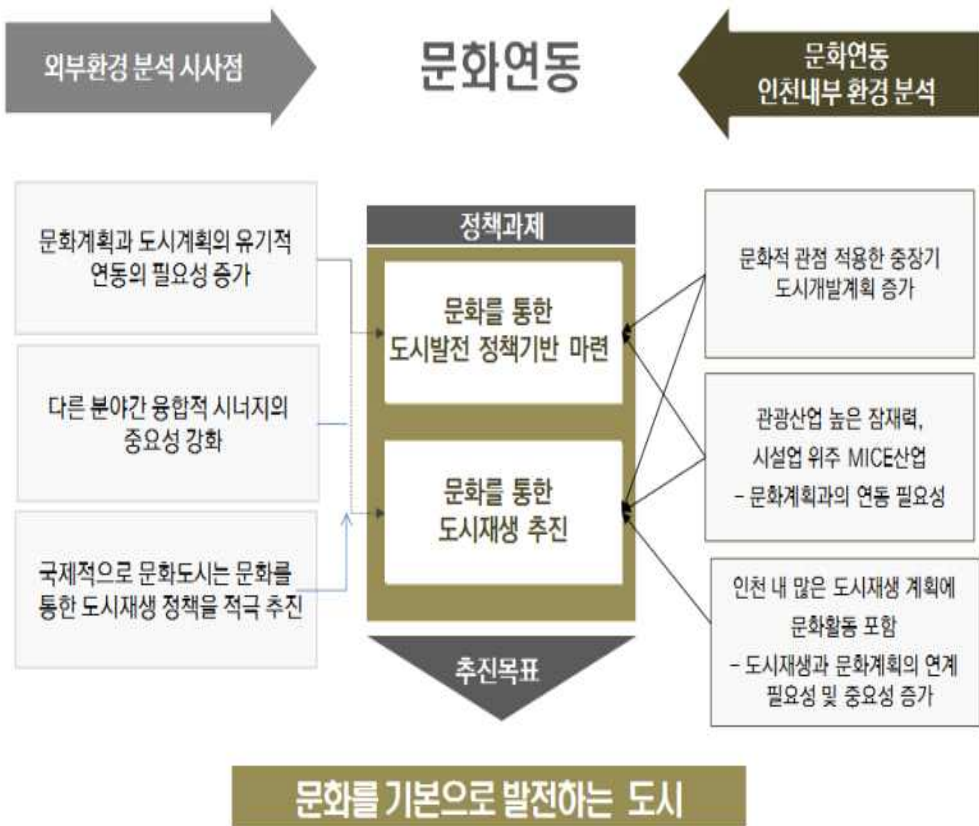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와 산업의 경제적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의 문화산업을 현재 산업적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는 콘텐츠산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종합되었음.
- 현재 인천의 문화산업은 영상, 음악 산업 등에서의 잠재력에 비해 문화산업 활성화 위한 기본 토대가 부족한 실정임. 향후 문화도시 추진에서 문화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문화산업 분야별 사업을 활성화하는 장기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정책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문화와 산업이 연결되는 도시’를 정책 추진목표로 설정함.

[그림 220] 문화산업 범주 종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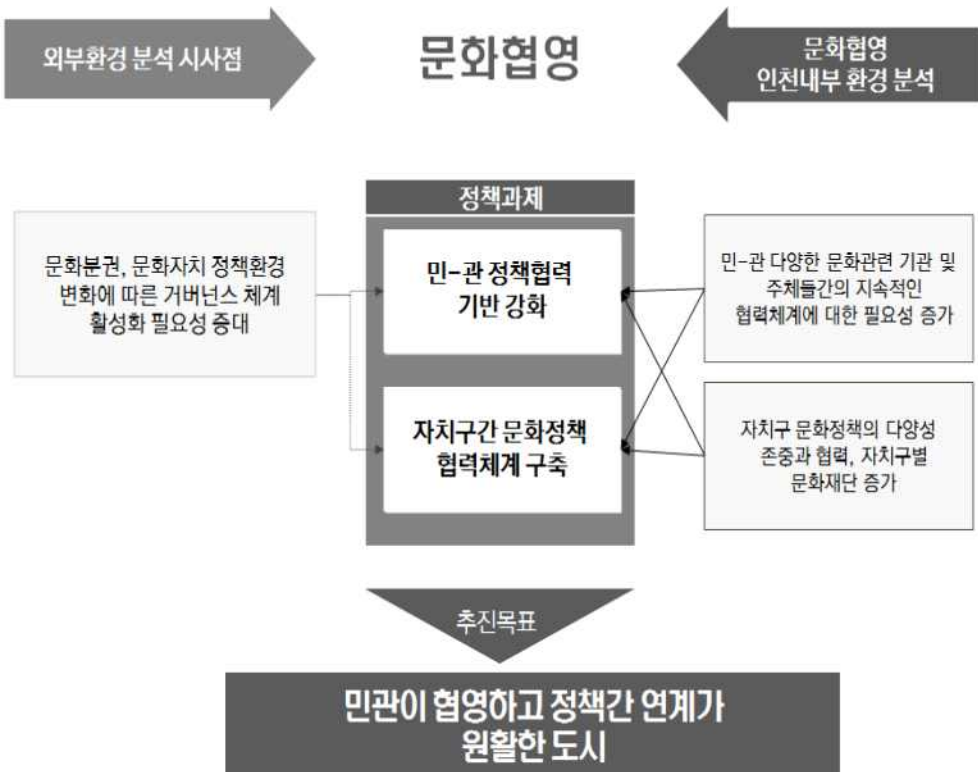
- 문화도시는 도시 전반에 문화적 관점을 적용하여 문화환경을 구축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므로 문화계획과 연관 도시계획과의 연동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시 도시재생, 관광 등의 연관계획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종합되었음.
-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문화를 통한 공간가치 재생 및 공동체 역량강화 등 구체적으로 문화적 연계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 분야의 계획들에도 문화콘텐츠화 전략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향후 문화도시 추진에서 문화계획과 도시재생계획, 관광계획, 도시경과계획 등 정책연동이 필요한 부분은 인천시 문화정책과 타 부서 정책의 연동구조로 구축해가는 제도적 정책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를 기본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정책 추진목표로 설정함.

[그림 221] 문화연동 범주 종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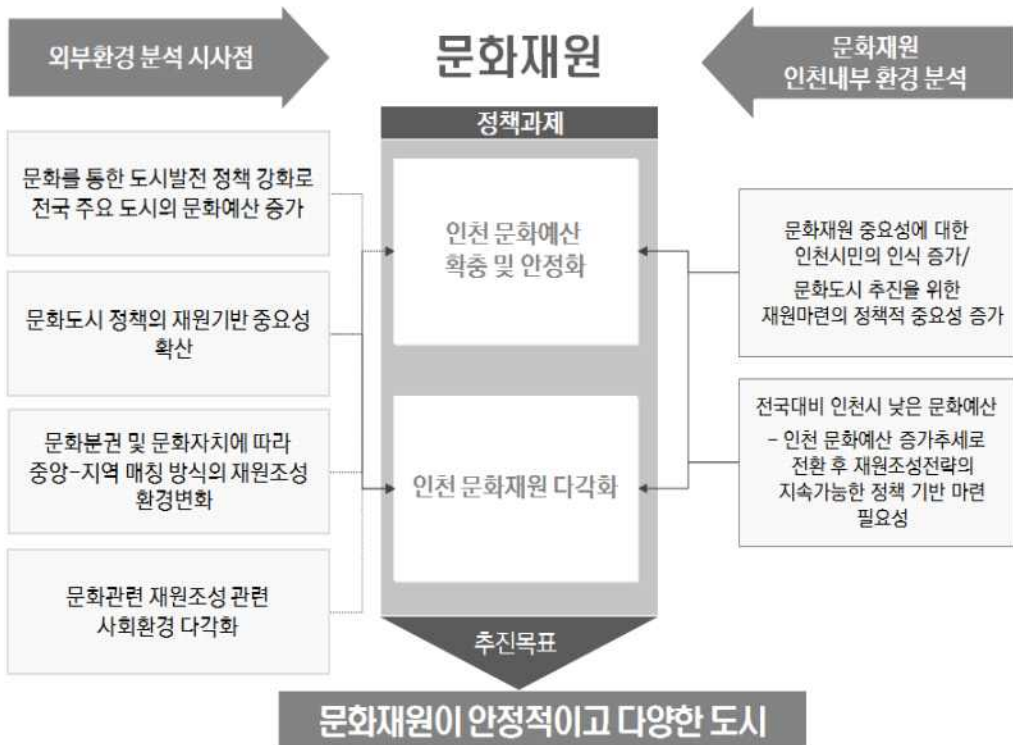
- 문화도시는 다양한 민간주체와 행정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실현가능한 전략이며, 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와의 정책협력도 중요한 기반이 됨.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시 민관협력, 자치구 정책협력 구조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종합되었음.
- 타 도시에 비해 시민 영역을 필두로 하는 다양한 민간 주체의 활동이 두드러진 인천은 민간과 행정조직의 협력관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협영(協營)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별 문화여건 및 활동수요가 상이한 자치구와의 정책협영 전략도 중요함. 향후 문화도시 추진에서 민관의 실질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자치구간 문화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정책실행이 필요하며, ‘민관이 협영하고 정책 간 연계가 원활한 도시’를 정책 추진목표로 설정함.

[그림 222] 문화협영 범주 종합 시사점



- 문화도시 정책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성패 여부는 인천시가 그에 상응하는 문화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함. 이러한 관점에서 타 특·광역시 문화예산 추이, 기업 문화예산 투자 경향, 인천시 문화예산 변화이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종합되었음.
- 인천은 도시의 내적 상황으로 인해 최근 수년 사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 문화예산이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 꾸준히 문화예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2016년 인천시가 발표한 문화주권계획에서도 문화예산 3%를 확보하고 꾸준히 증액할 것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향후 문화도시 추진에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각화하여 각 사업에 적절하게 배정하는 구체적 정책실행이 필요하며, ‘문화재원이 안정적이고 다양한 도시’를 정책 추진목표로 설정함.

[그림 223] 문화재원 범주 종합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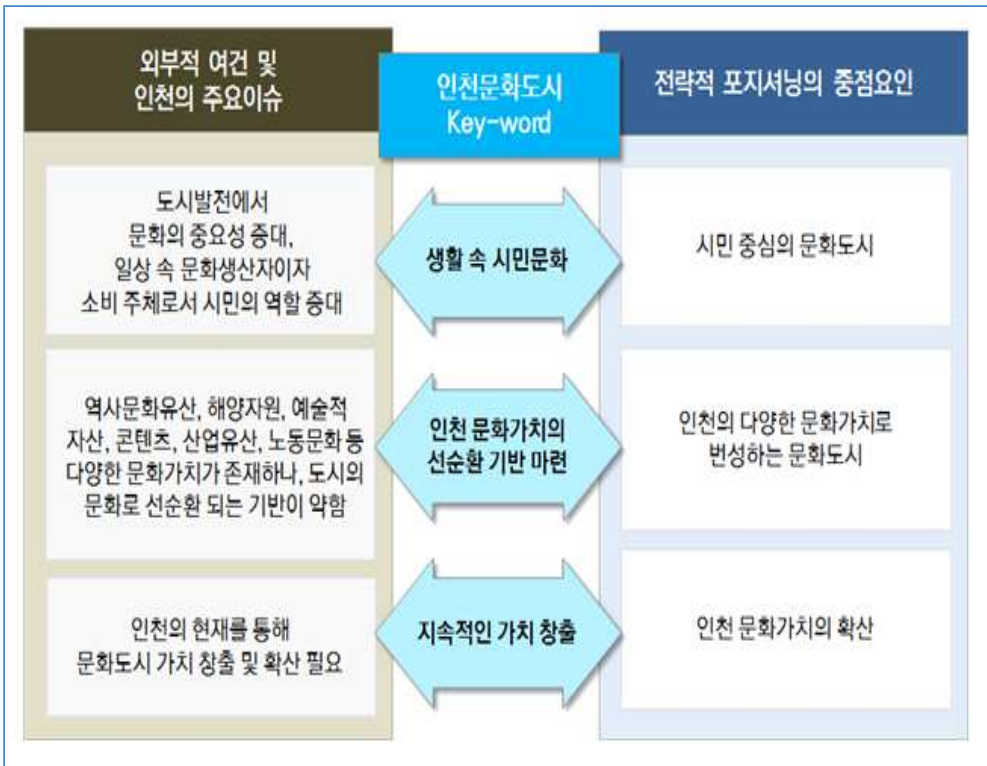
제3절 인천 문화도시 비전 및 구성체계

1. 인천 문화도시 비전 설정

1.1. 인천 문화도시 비전 설정을 위한 정책적 중점요소 도출

- 인천 문화도시 비전은 향후 5개년간 문화도시 정책 실행에서의 공통된 지향점이자 사업추진에서의 원칙을 나타냄. 그리고 비전은 5개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 추진 5개년 이후까지도 지속되어야 할 가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
- 인천 문화도시 비전은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문화도시를 둘러싼 지역문화 패러다임 변화에서의 주요 이슈를 참고하면서, 인천이 현재 보여주는 구체적인 문화환경 및 인천시민 문화수요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설정함. 인천 문화도시 비전 설정을 위해 도출된 정책적 중점요소는 다음과 같음.

[그림 224] 인천 문화도시 비전 설정을 위한 정책적 중점요소 도출



1.2. 인천 문화도시 비전

- 문화도시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과 인천 현재 문화환경 및 인천시민 문화수요 분석에서 공통적 요소로 도출되는 것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임. 즉, 시민을 문화향유 대상으로만 접근하여 문화도시의 수혜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시민들을 능동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활동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본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이 문화주체로 활동하는 문화도시”의 비전을 설정함.
- 문화도시 전략은 시민들의 능동적인 활동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려우며 정책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이 수반되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광역시가 2016년 문화주권계획을 통해 발표한 “문화성시 인천” 비전을 본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비전으로 연계하여 문화도시 정책추진의 구체성을 높이도록 함.
- “시민이 문화주체로 활동하는 문화도시” 원칙과 “문화성시 인천” 비전을 연계하여 본 인천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그림 225] 인천 문화도시 비전



2. 인천 문화도시 비전체계도

1.1. 인천 문화도시 실천범주별 추진목표

- 인천 문화도시 비전인 “**시민과 함께 행복한 문화성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가치로 “**공감·공존·공영**”을 설정함.
- 먼저, “공감(共感)”은 인천 문화도시 지향가치와 정책추진 과정에 대해 인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핵심가치로 둔다는 의미임. 두 번째, “공존(共存)”은 문화도시 인천을 위해 문화적으로 다양한 개인, 단체, 지역 간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핵심가치로 둔다는 의미임. 세 번째, “공영(共營)”은 인천 문화도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 예술가, 문화매개자,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민간주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문화도시를 함께 만드는 것을 핵심가치로 둔다는 의미임.
- 인천 문화도시 비전과 핵심가치, 그리고 인천 문화환경 및 문화수요 분석을 통해 문화도시 실천범주별로 도출된 정책 추진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26] 인천 문화도시 비전에 따른 실천범주별 추진목표



1.2. 인천 문화도시 비전체계도

- 인천 문화도시 비전과 핵심가치, 실천범주별 추진목표(추진전략)와 정책과제를 하나의 체계로 종합한 비전체계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227] 인천 문화도시 비전체계도



4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세부내용

- 제1절 문화주체
- 제2절 문화활동
- 제3절 문화공간
- 제4절 문화공동체
- 제5절 문화산업
- 제6절 문화연동
- 제7절 문화협영
- 제8절 문화재원

제1절 문화주체: 모두가 문화시민이 되는 도시

1. 계획방향

[그림 228] 문화주체 범주 계획방향



- 도시가 문화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민이 중심 주체가 되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천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를 가장 기초에 두면서 인천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나갈 창조인력의 창의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예술을 연결하고 지역문화를 매개하는 문화매개인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자체적인 동력을 만들어내도록 함.
- 인천의 문화를 만드는 세 문화주체들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자생적으로 활동력이 강화되면서 인천시민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이 향상됨을 기대할 수 있음. 문화주체 범주에서는 시민, 창조인력, 문화매개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모두가 문화시민이 되는 도시”를 지향함.

2. 정책과제

□ 시민을 문화주체로

- 인천시민이 일상 생활권에서 언제든지 문화를 만들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새로운 시민문화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시민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함. 또한 문화예술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도시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도시 시민 플랫폼을 운영함.

□ 문화매개 역량 강화

- 시민과 문화예술을 연결하고, 지역문화 활동을 매개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현장과 연계함으로써 인천의 문화매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문화매개 역량은 현장의 문화기획자 외 문화행정, 문화기반시설, 각종 문화기관에서도 중요하므로 인천의 주요 문화기관, 자치구 단체 등을 대표하는 문화 리더 및 문화행정인력에 대한 문화매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또한 인천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문화예술교육기획자를 폭넓게 양성하거나 재교육하여 문화예술교육 매개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 창작인력 역량 강화

- 인천 예술인들이 창조적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함. 예술적 창조력을 도시문화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기반이 마련되고 적절한 창작지원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해 열악한 인천 예술인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예술창작 지원방안을 담은 예술인 플랜을 수립하고, 예술인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또한 인천 지역으로 다양한 유형의 창조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천 예술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클러스터 등을 조성함.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표 124〉 문화주체 범주 세부사업 개요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기간	실행부서	구분
시민을 문화의 주체로	인천 시민문화대학 운영	2018~2022	문화재단	신규
	문화도시 시민 플랫폼 운영	2018~2022	문화도시 시민위원회	신규
	인천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기반 마련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온·오프라인 문화정보 포털 구축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인천시민문화현장 제정 및 제도화	2018~2022	문화예술과	신규
문화매개 역량 강화	인천 문화기획자 양성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인천 문화 리더십 프로그램	2018~2022	문화예술과	신규
	문화행정인력 역량 강화	2018~2022	문화예술과	신규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	2017~2022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확대
창작인력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 조성	2018~2022	문화예술과	확대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2018~2019	문화예술과	신규
	예술창작인력 맞춤형 역량 강화	2018~2022	문화예술과	신규
	창조인력의 유입 방안 강화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신규
	인천 예술인 복지지원 서비스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신규

4. 세부사업 내용

1-1 인천 시민문화대학 운영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도시 시민역량을 제고하는 창의적이고 선순환형 프로그램 필요
- 양질의 문화교육·강좌를 제공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소양 및 창의성 강화
- 인천시민의 수요에 적합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동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 사업대상: 인천시민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기존의 예술장르별 기량 중심의 교육방식을 탈피해 시민의 창의성, 예술적 감성,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문화, 예술, 역사, 도시재생 등 시민의 창의성,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성인, 세대통합 등 대상별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 제공
 - 대상별 프로그램의 다양화
 - 상반기/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총 16강좌(4개월) 커리큘럼 운영
 - 일반/심화/전문과정 3개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수준별, 생애능력별 대상에 적합한 섬세한 교육과정 설계
 - 강의, 워크숍, 퍼실리테이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법을 활용
- 인천지역 문화기획자, 예술가, 역사학자 등 지역문화 전문인력으로 강사진 구성
- 시민문화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공모지원 형식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설계

□ 추진방안

- 인천시민 연간 100명을 정원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교육생 모집
 - 2018년: 인천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문화학교 커리큘럼 개발 및 시범운영
 - 2019년: 교육생 모집을 통해 본격적인 인천시민문화학교 운영

□ 실행부서/주체: 인천문화재단 및 자치구재단

1-2 문화도시 시민 플랫폼 운영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도시 실현에 있어 시민의 주체적 참여와 상향식 정책 추진 필요성 대두
- 인천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의지 제고
- 시민이 직접 문화예술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열린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 문화자치권 확대

□ 사업대상: 인천시민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3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협력적 기반위에 시민과 지역을 잇고 인천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적 의제 발굴
-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간 문화소통,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는 시민플랫폼 운영
- 시민들로 구성된 문화도시 <100인 협의체> 등 시민으로부터 문화도시 이슈 발굴 및 다양한 의견 수렴되는 시민문화정책 토대 마련
 - 시민을 문화도시의 주체로서 문화도시 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
 - 시민플랫폼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구성이 원칙
- ‘인천문화포럼’과의 차별성 구축
 -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또는 문화예술 동아리 참가자 등이 아닌 일반시민의 참여 보장
- 이익집단이 아닌 인천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 소통과 조정을 통해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 문화도시 추진

□ 추진방안

- 문화도시 시민플랫폼 운영 준비단계
 - 인천문화도시 범주별 이슈에 대한 분기별 의견수렴
 - 인천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의 공유 및 정책의제 발굴

- 시민문화플랫폼 정기적 운영 프로세스 정립
 - 시민 100인에 대한 선정 기준 마련
 - 인천시민의 플랫폼에 대한 관심 증대와 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인천 내 시민들의 자발적 시정참여조직 등을 연계하고 활용하여 운영
 - 문화도시 시민플랫폼 운영 단계
 - 주제 선정 : 정책결정의 현안 이슈, 문화예술 주제 제안
 - 해마다 시민 100인단 선정하여 분기별 시민플랫폼 운영
 - 일종의 타운 미팅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구조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 문화도시 시민플랫폼 환류 단계
 - 시민플랫폼 모니터링 및 운영 평가를 통해 개선점 도출
 - 환류를 통해 시민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지향
- **실행부서/주체:** 문화도시 시민위원회

1-3 인천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기반 마련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일상 생활권에서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인천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시민문화역량 강화
- 학교교육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체계로 문화예술교육 전환
- 시민의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단계적 구축

□ 사업대상: 인천시민, 인천문화예술교육자, 문화기획자, 교육관련 종사자, 예술교육강사 등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0,41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체계로 문화예술교육이 확장되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전환 추진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토요일문화학교 운영지원
 - 장르별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포함)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시 지원 확대
 - 시민 문화예술교육,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인천 문화예술교육 DB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평생교육원, 문화예술교육원(대학) 등 유관기관 교육 시너지를 위한 DB화
 -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원 확보 등
- 생애주기별 시민문화예술교육체계 구성
 - 생애주기별 단계를 설정하여 연령대별 교육목표와 교육주체를 구체화
 - 예를 들면, 학교교육단계(5~19세), 청년단계(20~29세), 활동단계(30~49세), 증진단계(40~59세), 노후단계(60세 이상) 등 생애주기 단계를 구분하여 대상별 시민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과 운영방안 구성
- 교육대상, 내용, 환경, 운영주체 재구성을 통해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 **교육대상 재구성**: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학습주기에 맞춰 각 생애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내용 재구성**: 예술(기능)중심 교육에서 마을여행, 적정기술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화기술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환경 재구성**: 지역을 기반으로 전환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상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 **교육주체 재구성**: 예술가 및 교사 중심에서 일반시민 및 관심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에서 시민선순환적 교육시스템으로 재구성하여 운영

□ 추진방안

- 2018년: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인천의 실질적 문화예술교육 환경에 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
 - 지역 문화예술교육 실행 역량강화 및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 2019년~2020년까지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2022년까지 평생교육 중심으로 교육체계 개편
- 2022년까지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형성 및 기반 정착

□ **실행부서** :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및 자치구 문화재단

1-4 온·오프라인 문화정보 포털 구축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시민 문화활동 주요 장애요소인 정보 및 홍보 부족을 해소할 필요성
- 다양한 층위의 문화수요 및 지역별 문화정보 습득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쉽고 빠른 문화정보 및 혜택 제공
- 온·오프라인 정보 플랫폼에 기반을 둔 실시간 맞춤형 문화정보 제공을 통한 인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사업대상: 인천시민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쌍방향 문화정보 플랫폼 구성으로 실시간 정보획득 및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인천문화정보 앱 고도화
 - 다양한 푸쉬 알림(문자형, 음성형 등)을 통한 맞춤형 문화정보 확대
- 오프라인 상으로 문화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점점 확대
 - 지하철 역사 내 문화알림/ 대중교통 지면 및 정거장 등 다양한 문화알림 확대
 - APT 게시판을 활용한 문화행사 알림
 - 관광안내소의 복합공간화
- 문화예술인, 기획자, 공공기관 종사자, 행정인력, 교육자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유형의 문화예술정보 서비스 제공

□ 추진방안

- 인천시 문화관련 온오프라인 정보의 종합적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문화정보 포털(온라인 플랫폼) 구축
- 인천 문화예술정보 온오프라인 운영체계 전담 관리자 선정 및 운영
- 인천시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체계화 및 업데이트 체계 구축
 - 주기적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문화예술 관련 정보나 자료의 수집, 관리
 - 인천 내 다양한 문화관련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쌍방향 정보교류 플랫폼(온라인 포털) 구축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1-5 인천시민문화현장 제정 및 제도화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이를 목표로 하는 문화정책의 수립을 위해 문화현장 제정과 제도화 필요
- 인천시는 이미 ‘문화주권’ 선포를 통해 시민 문화권의 보장을 천명한 바, 이에 뒤이은 제도화, 내실화의 필요성 대두

□ 사업대상: 인천시민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추후 예산산정

□ 사업내용

- ‘문화주권’의 가치를 이어받은 인천시민문화현장의 제정
 - 인천의 새로운 발전 전망과 문화정책을 뒷받침 할 시민문화현장 제정
 - 문화도시 시민 플랫폼 등 시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
 - 시민, 시민사회, 기업, 인천시의 역할과 책임 설정
- 인천시민문화현장 실행조례 제정
 - 인천시민의 문화권을 선언적 권리에서 실질적 권리로 제도화
 - 실행조례 제정으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문화적 삶의 환경 개선
 -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개선 노력
 - 문화활동권, 참여권, 접근권, 교육받을 권리 등 시민 개인의 권리 보장

□ 추진방안

- 인천시민문화현장과 조례 제정을 위한 TFT 구성
 -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인천의 문화적 발전 모색
 - 선언으로서의 현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도시 시민 플랫폼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시행
- 인천시민 문화권 보장
 -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전문연구기관 지정, 성과관리체계 도입 등 관련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 시민 문화권 구현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1-6 인천 문화기획자 양성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현재 인천 문화기획자 양성은 초기단계로 장기적인 교육체계 구축 및 지속적 발굴, 양성 필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으로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문화기획자와 인천 문화현장의 실질적 연계로 인천의 문화활동 역량 강화
- 문화기획 아카데미 졸업생 및 인천 현장 문화기획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연계 기반 마련

□ 사업대상: 인천지역 문화기획자, 지역문화활동가 및 문화기획자를 희망하는 인천시민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운영〉

- 기존 인천문화 현장의 기획자들의 역량강화 과정과 신규 문화기획자 입문과정으로 2개 트랙 운영
- 인천 지역문화에 적합한 신규 문화기획자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개발 위주의 문화기획 아카데미 운영
- 1년 2회 과정의 2개 트랙으로 운영
- 기존 문화기획자 경력개발을 위한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운영
 - 사전에 경력 문화기획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문화기획자 플랫폼 운영〉

- 인천 문화기획자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 운영
 - 인천문화기획자들의 정기 월 1회 네트워크 파티
 - ‘우리시대의 문화기획이 가는 길’ 정례 포럼
 - ‘앞선 이에게 길을 묻다’ 아카데미 졸업생과 현장 문화기획자들의 대담
- 문화기획 사업 프로젝트 구현
 - 다양한 모임과 행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현화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운

영위원회 구성

- 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구현하고, 각 분야 현장 문화기획자들의 현실적 조언 및 공유
- (공간지원) 소통, 협업, 공유의 개방형 플랫폼 공간 운영
- (아이디어 생성) 문화기획자들의 다양한 문화아이디어를 제시 및 교류할 수 있는 「인천문화 아이디어 클라우드」 운영

□ 추진방안

〈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운영〉

- 인천형 문화기획자에 대한 직종 분류 및 필요역량 요소 도출 (분야별, 장르별, 경력단계별 등)
- 필요역량 개발을 위한 역량요소별 과정 개발 (인천 문화기획자 HRD 체계 정립)
- 문화기획 아카데미 홍보 - 과정운영 - 평가와 같은 일련의 교육 시스템 운영
- 문화기획 아카데미 졸업생 및 학생들에게 맞춤형 문화기획 커리어 패스 상담

〈현장배치 및 연계〉

- 문화공간, 인천 지역축제, 문화예술교육,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등 기획자 배치, 모니터링 평가위원 연계, 시민 동아리활동 강사지원 등
- 도시재생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의 기획, 정책연계 영역에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참여

〈문화기획자 플랫폼 운영〉

- 문화기획자 플랫폼 구축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공간)
- 문화기획자 플랫폼 참여자 모집 및 DB 축적
- 플랫폼 구현을 위한 포럼, 행사, 정기모임 등 기획 운영
- 1년 정기 행사 및 관련 세부 일정 확정 및 공유 (문화기획 사업 프로젝트 아이디어 구현 포함)
- 월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운영 (월말 아이디어 발표 등)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및 자치구 문화재단

1-7 인천 문화 리더십 프로그램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도시 인천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문화기관 및 단체, 자치단체장, 기업가의 문화리더십 필요성 증대
- 인천 문화를 이끄는 리더 그룹의 구성 및 문화리더가 갖추어야 할 문화적 소양과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문화리더십 강화

□ 사업대상: 자치단체장, 문화기관장, 기업인, 시의원 등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3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자치단체장, 문화기관장, 기업인 대상 <문화리더십> 특별강연/워크숍 운영
 - 정례화된 강연 추진
 - 인천 문화리더가 갖추어야 할 문화소양과 전문지식
 - 세계 주요 문화도시 동향 파악과 인천 문화도시 추진의지 제고
 - 인천 문화도시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전문적 이해
 - 인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과제해결 및 문화리더의 역할 공감대 형성
 - 인천 문화리더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안

- 인천 문화리더십 대상자 DB 구축 및 프로그램 수요 조사
-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한 문화리더십 교육체계 설계(문화리더십 HRD 개발)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공통, 특성화 분야별 운영/워크숍 운영)
- 문화기관 및 단체장(공공/민간), 자치구 단체장 및 시의원 대상 시범 프로그램 운영
- 문화리더십 프로그램 참여대상과 운영방법의 단계적 확산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1-8 문화행정인력 역량 강화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창의적 문화행정 환경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의 문화화 필요
- 인천 문화예술분야 행정인력의 문화역량 및 전문성 강화
- 행정인력의 문화분야 직무이해 향상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예산의 적정한 활용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 강화

□ 사업대상: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기관 행정인력, 시/자치구 행정인력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행정인력 수요를 반영한 문화행정인력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
- 문화행정인력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분야별 · 단계별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행정 담당자들이 자신의 직무와 수준을 고려한 문화행정 연수프로그램 운영
 - 연간 약 100명 이수
 - 강좌 및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공식적인 대체업무로 인정
 - 이중에 1회는 2박3일 워크숍 운영: 워크숍 운영을 통한 집중교육 및 행정인력 간 문화예술 정책방향 논의 및 공유
- 문화현장 비평 : 문화활동(전시, 공연관람) 이후 감상기술에 대한 비평문 제시할 시, 이에 대한 교육이수 연계
 - 문화체험 버스 운영 : '문화가 있는 날' 행정인력들의 단체 문화체험활동 이수
 - 문화행사 관람 시 공무원 교육점수 인정 제도화

□ 추진방안

- 행정인력 문화분야 교육 수요 조사 실시
- NCS 기반 인천 행정인력 교육과정 설계 (분야별, 직무별 역량요소 도출)
- 교육과정 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과정 지속적 활성화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1-9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시민의 높은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부합하고 생애주기적 문화예술교육 사회환경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배치 필요성 증대
- 문화예술교육기획자 발굴 및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기획역량 강화
-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제고와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대상: 인천지역 문화예술교육기획자 및 관련 지역활동가, 예술인 등

□ 사업기간: 2017년~2022년

□ 사업예산: 50백만 원(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50	10	10	10	10	10
시비	50	10	10	10	10	10

□ 사업내용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 전문 강사 구성을 통해 이론 강의, 참여자토론, 생활권 단위 작가 워크숍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실습 진행
- 인천에서 활동하는 교사, 예술가, 지역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역량을 필요로 하는 잠재 인력군의 발굴과 문화예술교육현장 연계 등

□ 추진방안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운영
- 지역특성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발굴, 양성 추진
- 초중고교 교사, 청년, 지역 내 활동가 중심의 운영 강화
 -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과 학교 간 연계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10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 조성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전문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conservatory 형식의 전문예술학교 설립을 통해 인천시 내 창조적 전업예술가 양성의 필요성 대두
- 예술대학 설립 및 국외대학 유치, 교육시설 유치를 통한 인천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 조성
- 인천 예술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사업대상: 전업 예술가 지망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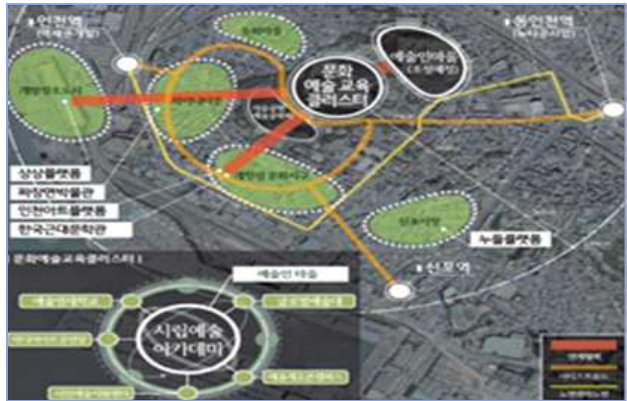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추후 예산산정

□ 사업내용

- 예술학과/예술대학 설립 및 유치
 -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 인천종합예술학교 설립 및 지역대학 합동예술대학
- 외국예술대학교 분교 유치
- 예술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림 229] 문화예술타운 조성 전략 구성도(인천시 계획(안))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1-11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현재 전국 특·광역시 대비 열악한 인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창작여건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예술인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인천 예술인의 창작역량 제고 및 다양한 예술인의 인천 유입 활성화

□ 사업대상: 인천지역 예술인/단체 및 인천 활동 국내외 예술인/단체

□ 사업기간: 2018년~2019년

□ 사업예산: 2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예술인의 창작활동 역량 제고 및 창작환경, 예술인 복지를 위한 인천형 예술인 종합 플랜 수립
 - 예술인 창작환경 관련 주요 영역별 추진목표 및 세부사업 수립
 - 예술인 복지, 창작공간 마련, 일자리 연계 등 예술인 창작기반 활성화 관련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 예시(서울예술인플랜 참조)

-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확충이 주된 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 1,000호 공급 마련. 도시재생지역, 재개발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함
- 예술인 활동기회: 예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주된 사항으로 공공미술, 거리예술·축제, 예술교육, 예술치유, 생활예술, 공공참여 등으로 확장
- 장애 없는 창작활동 촉진: 진입장벽 없는 창작활동 촉진이 주된 사항으로 공공지원금 수혜경력이 없는 예술인들을 위한 '최초 예술지원' 마련
- 예술인의 성장과 발전: 예술인 교육 및 교류 지원이 주된 사항으로 저작권, 근로계약 체결과 같은 교육과 예술인 해외교류지원 등,
- 지속 가능한 예술환경: 서울시 창작공간과 예술인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는 예술청 조성.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발표 및 예술인들을 위한 컨설팅제공까지 하는 '예술인 종합지원센터' 역할 수행

□ 추진방안

-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수요조사
 - 향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
- 인천형 예술인 플랜수립을 위한 방향성 및 방안 마련
 - 예술인 공론의 장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구성, 각 권역 또는 장르별 상세하고 체계적인 계획 구성 필요
- 2018년 예술인플랜 수립과 실행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1-12 예술창작인력 맞춤형 역량 강화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지역 예술인/단체의 질적인 예술역량 강화 및 인천시 전반의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향상 필요
- 예술가와 인천시민의 접촉면 확장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활동 강화 및 시민의 창조성 향상, 예술적 영감 발현을 위한 사회와 연결고리 제공

□ 사업대상: 인천지역 예술인/단체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0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예술인 교육과정 연구를 통한 필수역량 도출 (예술인 수요, 문화예술계의 변화, 국내외적 정세를 반영한 역량 도출)
- 분야별, 장르별, 경력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설계
 - 공통과정 : 세무, 노무, 복지 관련 일반 공통과정
 - 장르별 : 문학, 음악, 미술, 영상 등 관련 세부 장르별 예술역량 향상 과정
 - 네트워크형 오픈 과정 : '선배와의 대화' 와 같은 기존 예술인과의 만남-SNS를 활용한 문화예술 홍보마케팅 과정
- 중장기 교육과정 세부 프로세스 정립 및 연간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별 예술인 모집 : 연 100명
- 인천시 예술인들이 사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개발
 - 사회와 예술인을 연계하여 일상 속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점점 강화
 - 예시: '예술가와 마을의 연결', 예술적 영감과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운영

□ 추진방안

- 예술인 및 예술단체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인천 예술인들의 필요역량 및 사회적 수요 조사와 소통체계 마련
- 인천 예술인 분야별, 장르별, 경력별 맞춤형 역량향상 교육 과정설계 및 운영
- 시범운영을 통한 교육시스템 체계화 후 전체 예술인 교육대상 확대 및 운영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1-13 창조인력의 유입 방안 강화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외부로 유출되는 인천의 창조역량을 인천 지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인력을 지역 내 유입함으로써 문화도시 창의력 기반 확장 필요
- 인천 창조인력의 활동 및 정주기반 매력도를 강화하여 도시의 창조역량 강화

□ 사업대상: 예술인, 다양한 유형의 창조인력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창조인력이 인천시에 정주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경제적: 단계별 체계적인 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기본으로 함. 공간 무상임대, 예술창작을 위한 운영비 보조, 인천에서 창작활동 경력에 따른 필수 자금지원(최초의 경우, 다년간의 경우 등)
 - 법적: 창조인력 유입 시 세제혜택
 - 사회적: 창조인력의 유입을 위한 필요 교육체계 및 정주를 위한 사전 임시기간동안 다양한 사회활동 방안 마련, 공간 임대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 등
 - 실천적: 창조인력의 실제 활동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콘텐츠 활용 방안 등 마련
- 예술인플랜, 역량강화, 예술창작소 및 문화공간 조성, 선도사업 육성 등 관련 사업과 연계

□ 추진방안

- 인천 내 창조인력군 현황 및 활동기반 관련 수요 조사
- 경제적, 사회적, 법적적인 다양한 방안 타당성 조사
- 창조인력 정주 및 유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검증 후 확대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창조인력의 유입확대 방안 마련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및 자치구 문화재단

1-14 인천 예술인 복지지원 서비스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조례 제5710호) 시행 (2016.09.29.)에 따른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인 복지지원 기반 마련
- 예술인/단체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 서비스(예술인 권리 교육 서비스 등) 운영

□ 사업대상: 인천지역 예술인/단체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예술인 복지재단 이용 도우미 서비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가입 및 관리 도우미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발급 도우미 지원
- ‘인천 예술인 패스 활성화’ 사업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예술인 패스 대상 시설 가입 유도
 - 인천시 내 예술인 패스 대상기관 홍보
- 예술인 특례보증 사업 기반 마련
 - ※ 예향(藝鄕)전북 문예 진흥 특례보증 지원사업 계획 참조
 - 인천문화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간 MOU체결
 - 특례보증 자금지원 추천서 발급
- 예술인 권리 교육 서비스
 - 예술인 표준계약서 사용 교육
 - 예술인 노동 및 권리교육 실시

□ 추진방안

2018년

- 예술인 복지실태 현황조사

2019년

- 복지재단 이용서비스 지원체계 및 예술인 권리 교육체계 구축
- 특례보증사업 기반 구축

2020년~

- 시범사업 운영
-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 2018년: 예술인 복지실태 현황조사
- 2019년
 - 복지재단 이용서비스 지원체계 및 예술인 권리 교육체계 구축
 - 서비스 전달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 도우미 및 교육인력 확보
 - 특례보증사업 기반 구축
 - MOU체결을 위한 기관별 협의체 구성 및 논의 시작
- 2020년부터 예술인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후 일반 사업으로 확장
 -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
-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시 관련 내용 연계하여 추진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 **참고자료(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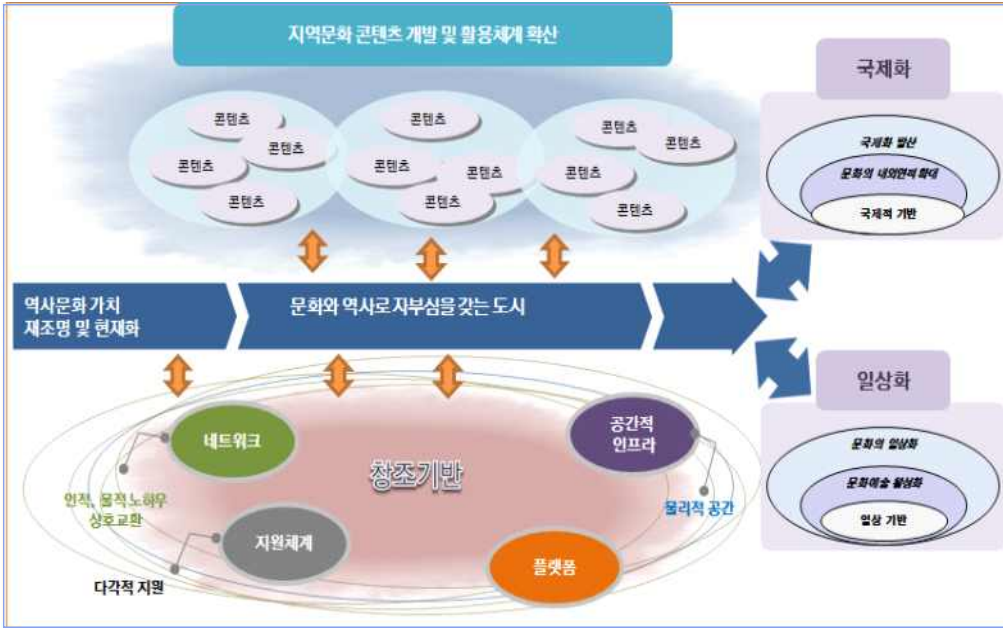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후략)

제2절 문화활동: 문화와 역사로 자부심을 갖는 도시

1. 계획방향

[그림 230] 문화활동 범주 계획방향



- 인천은 풍요로운 역사문화,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인문사회자원, 근현대를 아우르는 산업적 가치, 다양한 장르의 예술문화자원, 노동 현장에서의 삶의 경험 등 전통과 현대, 해양과 농경, 첨단과 아날로그 문화를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가치가 시민의 문화와 자부심으로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않음.
- 이에 인천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인천의 역사문화 가치를 예술적, 일상적 문화활동을 통해 현재의 가치로 표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이를 통해 인천 장소성의 발현과 함께 문화활동의 일상화 및 국제화를 도모함으로써 문화도시 면모를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도록 함
- 문화활동 범주에서는 인천 가치에 뿌리를 둔 활발한 문화활동을 통해 인천 지역문화의 일상화 및 국제화를 달성함으로써 ‘문화와 역사로 자부심을 갖는 도시’를 지향함.

2. 정책과제

□ 인천 역사문화가치의 재조명 및 현재화

- 인천 역사문화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재화 하여 인천만의 문화적 가치를 회복함. 이를 위해 인천 역사문화시설의 국립화를 비롯해 고려 역사를 복원하는 강도의 꿈 실현, 세계문화유산 도시를 추진함.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역사문화 공간의 프로그램을 현재의 가치로 특성화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활용을 다각화하는 사업을 추진함. 인천의 근현대 건축물 및 산업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함.

□ 예술적 창조기반 강화

- 예술적 창조기반의 강화를 통해 예술인이 창조적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이를 위해 예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지원으로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비롯해 맞춤형 예술창작활동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별도로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과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을 강화하는 사업, 역사가 깊은 시립예술단의 활동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천의 예술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체계 확산

- 역사문화가치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을 확산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부심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함. 이를 위해 인천이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가치를 스토리 등의 콘텐츠로 묶어내어 활용하는 사업, 인천의 입지적 여건으로 인해 풍부하게 보유한 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함. 또한 인천 및 자치구 차원에서 다양하게 개최하는 축제를 전략적으로 성장하게 도울 통합적 축제지원 시스템 구축, 자치구별 문화도시 지원 트랙을 운영하여 지역별 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

□ 일상 속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시민들이 개인, 마을, 일터 어디서든 일상 속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기반을 조성함. 이를 위해 인천시민들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마을에서의 공동체문화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며, 기업 등 일터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

□ 문화예술활동의 국제적 기반 마련

- 인천의 지리적, 사회적 입지여건은 국내외 다양한 문화교류에 적합하지만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인천이 지닌 유리한 환경을 잘 살리고 인천의 내적 문화예술역량을 국제문화교류로 연계하기 위해 문화교류 중점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업을 개발, 집중 지원하도록 함.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표 125> 문화활동 범주 세부사업 개요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연도	실행부서	단계
인천 역사문화가치의 재조명 및 현재화	인천 역사문화공간 국립화 및 국립 문화시설 건립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확대
	역사문화시설 프로그램 특성화	2018~2022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확대
	문화유산 활용 다각화	2017~2022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신규
	세계문화유산 도시	2018~2022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확대
	인천 근현대 건축물·산업유산의 재조명	2018~2022	문화재과	신규
	강도의 꿈 실현	2017~2020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확대
예술적 창조기반 강화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및 활성화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확대
	장르별, 생애주기별 예술창작 지원체계 구축	2018~2022	문화예술과	확대
	청년문화예술창작 플랫폼 지원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민간 문화예술단체 창작기반 강화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인천시립예술단	2018~2022	문화예술과,	확대

	활동기반 강화		문화예술회관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체계 확산	인천 Story Bank 운영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문화재과	확대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원 경쟁력 강화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원	확대
	인천형 축제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2018~2022	문화예술과, 인천축제위원회	신규
	자치구별 문화도시 지원 Track 구축	2018~2022	문화도시 정책협의체, 자치구	신규
	섬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지원	2018~2022	문화예술과	확대
	해양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2018~2022	문화예술과	확대
일상 속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시민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지원(개인)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마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샵터)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사회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일터)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신규
문화예술 활동의 국제적 기반 마련	문화교류 중점기구의 역할 강화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국제문화교류 브랜드 구축	2018~2022	문화예술과	확대

4. 세부사업 내용

2-1 인천 역사문화공간의 국립화 및 국립 문화시설 건립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300만 광역도시 인천시에 걸맞은 국립 문화시설이 부재한 실정을 감안, 인천 내 다양한 국립시설 확충을 통한 인천시민의 문화적 자부심 고취
- 기존 문화시설의 격상 및 국립시설 유치를 통한 인천 문화적 가치 회복

□ 사업대상: 인천 역사문화공간, 국립박물관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추후 예산산정

□ 사업내용

- 역사문화공간의 국립화 추진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역사문화공간 국립화
- 국립문화시설 유치
 - 인구 300만 도시임에도 국립문화시설이 없는 현실 반영
 - 국립문화시설 유치를 통해 인천시민의 자부심 및 삶의 질 증진과 더불어 인천의 문화적 가치 회복
- 단계별 국립시설 유치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 확보
 - 국립문화시설 유치의 단계적 확장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이은 한국대중문화기록원 등 신규 국립문화시설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및 연구용역 발주
 - 대중음악관, 해양박물관, 산업박물관, 강화고려박물관, 근대개항박물관, 노동박물관, 영화박물관 등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 세계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체험·연구·교류 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을 통해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다양성 증진에 기여
 - 사업기간: 2016 ~ 2021년
 - 부지위치: 연수구 송도동 24-8(센트럴파크 내)
 - 건립규모: 부지면적 19,418㎡, 연면적 15,650㎡내외
 - 주요시설: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회의실, 다목적강당, 카페테리아, 뮤지엄 스텝 등

- 총 사업비: 약 816억 원(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박물관 건립공사 연차별 계획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행계획	설계공모 설계착수	설계실시 공사착수	건립공사 실시 (전시공사 포함)		준공 개관

-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운영업체 등에 위임(별도 수립 시행)
-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체계적 운영 준비

□ 추진방안

- 추진과정에 있는 국립문화시설 격상, 및 유치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
- 신규 국립문화시설 유치사업의 체계적 추진
 - 국립문화시설 구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현황조사
 -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접근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등 사전절차 진행
 - 국립문화시설의 적절한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전 운영전문화계획 수립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2-2 역사문화시설 프로그램 특성화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 역사문화가치의 확산을 위해 역사문화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특성화
- 이를 통해 역사문화시설의 전문성 및 차별성 확보와 문화적 경쟁력 강화
- 역사문화시설 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역사문화가치의 다양성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시민들과의 일상적 공감대 기반 마련

□ 사업대상: 인천지역 역사문화시설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7,93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역사문화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소장 자료를 활용한 역사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교과과정 연계 및 시설별 문화예술교육 연계 상설 프로그램 개발
 - 국제세미나, 특별전시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역사문화콘텐츠 관련 공동 아카이빙 및 스토리 플랫폼 추진
 - 역사문화시설별 콘텐츠 아카이빙 및 스토리 플랫폼 구축
 - 역사문화시설 간 연계 가능한 아카이빙과 플랫폼 체계 구축으로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민간의 작은 박물관 등 다양한 유형의 작은 역사문화시설 프로그램 연계

□ 추진방안

- 역사문화시설 기관장 및 실무자 네트워크 간담회 등을 통해 프로그램 특성화 관련 워크숍 및 수요조사 추진
- 역사문화시설 수요에 맞는 관련 단위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확충
- 역사문화콘텐츠 공동 아카이빙 및 스토리 플랫폼 구축계획 마련
 - 인천문화의 다양성 유지 및 문화콘텐츠의 매력 확보
 - 역사문화시설 간 소통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지원
- 역사문화시설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마련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2-3 문화유산 활용 다각화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현재적 활용도를 높이고 인천의 역사문화가치로 확산할 필요성 증대
-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인천시에 잔존하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하고 인천시민의 문화접근성 향상 및 삶의 질 증진

□ 사업대상: 인천 소재 문화유산

□ 사업기간: 2017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권역 위주가 아닌 아이템 위주의 프로그램 발굴
 - 문화유산 간 연계를 통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 역사문화자원 프로그램 순회 시티투어 버스 운영
 - 10대 문화유산 프로그램 선정으로 홍보 극대화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내 문화유산 활용
 - story bank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내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 및 활용 프로그램 방안 모색
-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반 마련
 - 문화유산을 활용 인천 고유 문화전통의 현대적 확산
 - 무형문화재 관련 연구 확대 실시

□ 추진방안

- 2017년~2019년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활용
 - 문화유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교육, 관광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 연계
- 2018년 :문화유산의 현재화
 - 세계문화유산 등재 확대
 - 전통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 모색

<문화유산의 정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세계유산협약, UNESCO, 1972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가치를 지닌 기념물(monuments), 건축물군(groups of buildings), 유적지(sites)를 의미함.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적으로 문화유산 개념보다는 문화재(Cultural Heritage)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 2016.3.28.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2-4 세계문화유산 도시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이 보유한 유구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인천의 역사문화가치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필요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인천시 문화유산 가치 제고 및 연계 산업 활성화
- 세계문화유산 추가 지정을 통한 인천시 이미지 향상 및 시민 자부심 고양

□ 사업대상: 인천 소재 문화유산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9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인천시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등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체 구성
 - 문화유산 DB 구축 및 연구사업 수행
 -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한 문화유산 관리상태 제고
- 세계문화유산 사업 추진
 - 강화고인돌(70기) 보존 및 관리
 - 지속적·순차적 등재를 위한 체계 구축
 - 강화 해양관방유적 등재사업(강화 산성, 강화 외성, 삼랑성, 강화돈대 대상)
 - 강화 고려왕릉 등재사업(고려왕릉 4기(홍릉, 석릉, 가릉, 곤릉) 대상)
 -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연계유적으로 등재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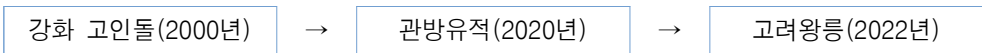
□ 추진방안

- 세계문화유산 TFT 구성
-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확대) 추진
 - 사업 예산 조달
 - 문화유적에 따라 단계별 등재 추진(잠정목록 편입 및 본등재 신청)
-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지속적 관리

※ 참고자료(세계문화유산 등재절차)

<p>잠정목록 등재</p>	<p>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에 가급적 1년 전에 등재해야 함.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 불가 특별한 심사 절차 없음 잠정목록은 당사국이 앞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유산의 예비목록성격 보유, 수시로 갱신 가능</p>
<p>본 신청서 제출</p>	<p>예비신청서 접수: 매년 9월 30일 (최종신청서 제출 전 미비사항 검토, 보완 기회 제공) 본 신청서 접수: 매년 2월 1일 (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기구에 현지실사 의뢰)</p>
<p>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p>	<p>문화유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현지조사: 통산 당해 연도 하반기에 자문기구의 전문가가 신청국 방문, 유산의 보존 현황 및 가치 현지조사</p>

○ 추진 목표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2-5 인천 근현대 건축물·산업유산의 재조명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은 다양한 근현대 역사 건축물과 산업유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역사문화가치를 재조명하여 도시문화가치로 구체화할 필요성
- 인천 근현대 산업유산 DB 구축 및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근현대 건축물 및 산업유산의 역사문화자원 인식 확산

□ 사업대상: 인천 소재 근현대 산업유산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7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인천시 근현대 산업유산 DB구축
 - 문화정책 전문연구기관 활용 근현대 산업유산 현황조사 실시
 - 시기별, 공간별, 산업별 검색과 활용이 가능한 DB구축
 - 근대건축물 대상 전수조사 실시
- 근현대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방안 마련
 - 구축된 DB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재생과 연계
 - 근현대 산업유산의 문화공간화
 - 개항장 주변 산업유산의 문화공간화외 산업유산 활용의 다각화 방안 모색
 - 부두, 공단지역 산업유산의 ‘노동문화’ 콘텐츠 중심 활용 방안 등(동일방직 의무실 등 산업유산 활용)
 -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으로의 활용을 통해 인천 문화 브랜드로 구축

※ 산업유산의 정의

산업유산보존국제위원회(TICCIH,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the Conservation of the Industrial Heritage), 2003

산업유산은 역사적, 기술적, 사회적, 건축적 또는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는 문화산업유적으로 구성되며, 이 같은 유적은 건물과 기계, 작업장, 제분소, 공장, 광산 제련소, 상점 그리고 에너지 발전과 송전, 이용 및 수송에 관련된 장소 또는 이에 관한 모든 기반시설, 아울러 주거, 종교, 교육 등에 관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장소들로 구성.

스페인 문화유산 기구, 2008

사회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산업의 총체적인 것

일본 경제산업성, 2007

(근대화산업유산) 에도막부 말기, 메이지부터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공장, 탄광 등의 산업 건조물, 제조품, 제조기와 교육 매뉴얼 등 일본 산업 근대화에 공헌한 유산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정의

개화기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건축물, 기념물, 구조물 등 우리의 삶과 함께 했던 근현대 시기의 문화적 소산

추진방안

- 2017년~2018년: 인천시 근현대 산업유산의 현황조사를 통한 DB구축
- 2019년: 근현대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방안 수립
- 2020년 이후: 근현대 산업유산 활용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재과

2-6 강도의 꿈 실현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경주-신라, 부여-백제에 비해 강화가 가지는 고려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부족으로 고려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연구, 발굴, 재건이 시급
- 고려의 고도(古都)인 강화도성(江都)의 모습을 실현함으로써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역사도시 강화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확산
- 고려의 역사성 재조명 및 인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 강화도 소재 고려시대 문화유산

□ 사업기간: 2017년~2022년

□ 사업예산: 12,440백만 원(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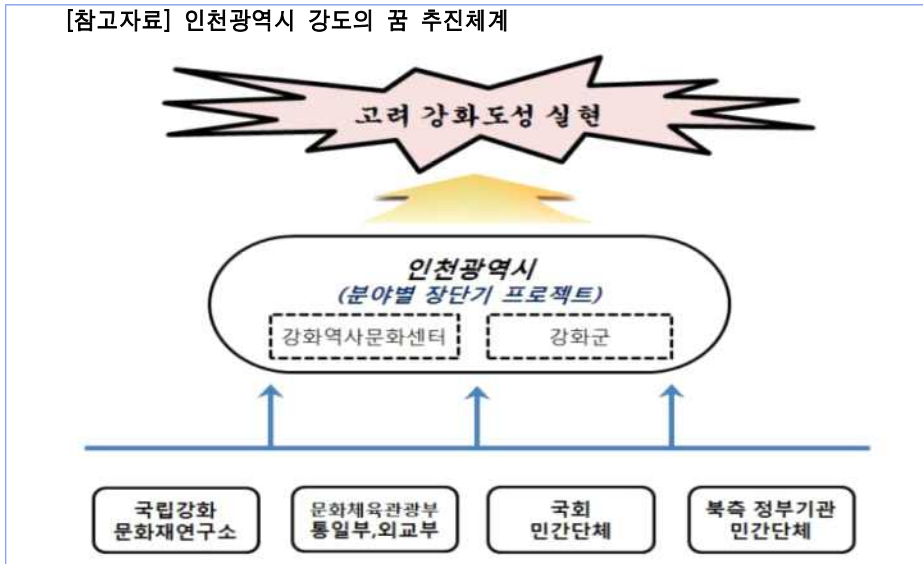
□ 사업내용

- ‘강도의 꿈’ 사업 지원체계 확립
- 고려궁궐 재건 및 활용
 - 고려강도 전시관 조성: 고려시대 강화 모습 재현을 통한 전시·관광상품화
 - 고려궁지 정궁 발굴 및 재건
 - 고려역사문화단지 조성: 강화산성 내부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
- 고려 기록유산 활용
 - 팔만대장경 판당(보관터) 학술조사
 - 평화대장경 간경: 고려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역사관광콘텐츠 확보
 - 고려 강도시기 저작물인 상정고금예문 금속활자본 다큐멘터리 제작
 - 강화 세계기록유산 자료관 운영
- 강화 역사건조물 활용
 - 지붕 없는 국립강화박물관 설립 및 운영
 - 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해 근대건축물 활용가치 도모
 - 인천 대표 역사인물 송암(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
- 강화 역사유적 가치창조
 -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사업과 연계 추진
 - 중요 문화재 ‘국보’ 승격 추진
-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사업
 - 국내 최대의 고려 유적 보유 도시 인천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 강화 고려궁지 범위 조사
- 고려왕릉 및 고분 학술조사
- 강화-개성 교류
- 국제학술회의 개최

□ 추진방안

- 관련 기관과 부서별 협업체계 마련과 협업에 따른 사업 추진
 - 시 주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강화군,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외교부, 국회, 민간단체, 북측 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원화한 사업 추진
- 단계별 사업 추진
 - 수업추진 시 프로젝트별 구분을 통해 단계별 사업 추진
- 환류체계 구축
 - 지표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운영 → 사업 평가 후 반영 및 수정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의 구축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확보



출처: 강도의 꿈 실현계획(안)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2-7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및 활성화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 내 부족한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대하여 문화도시 창작기반 강화 필요
-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및 활동여건 마련
- 예술인의 정착기반 강화를 통한 예술창작의 자립성 강화

□ 사업대상: 문화예술창작소로 활용 가능한 공간, 신규 조성 지역 등

□ 사업기간: 2018년~2020년

□ 사업예산: 14,1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청년문화창작소의 조성 및 활성화(1단계)
-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을 위한 여건 확보
 - 자치구별 수요에 따라 문화예술창작소 조성공간 및 지역 검토
 - 자치구 내 유휴공간, 산업유산, 민간자치공간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문화 예술창작소 공간으로 연계
- 문화예술창작소 조성계획(조성 및 운영방안 포함) 수립 후 조성추진
 - 자치구 단위 지역예술활동의 거점공간으로 활용
 - 예술인 연습공간, 창작공간, 공동작업 공간 등 복합적 용도로 활용
 - 문화예술창작소 공간지원체계 마련
 - 문화예술창작소 공간조성시 자치구, 민간 기업 등 다양한 협력체계 연계
- 문화예술창작소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문화예술창작소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주체 : 인천문화재단
 - 자치구별 창작소 구축 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예술인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예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 참고자료(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2016))

- ① 자치구 예산을 통한 공간 구성
 - : 자치구 내 노후건축물, 산업유산 리모델링 등을 통한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지원
 - : 지역문화예술발전의 거점공간으로 운영
- ② 예술인 운영 창작 및 연습 공간 조성 지원
 - : 다양한 형태의 창작 공간 형성 유도
 - : 일정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공동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합리적 운영

③ 기업 및 민간문화시설 조성 지원

: 각 기업 및 민간문화시설 등이 창작 공간 조성 후 공공 운영

: 일정 한도 내에서 조성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방식

□ 추진방안

- 지역예술인 대상 수요조사 및 창작공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예술창작소 조성계획 수립
-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사업 추진
- 문화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 지원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 모델 구축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2-8 장르별, 생애주기별 예술창작 지원체계 구축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장르의 균형적 발전 및 생애주기별 예술창작 기반 조성을 통해 인천 문화도시의 예술적 창조역량 제고 필요
- 인천 예술인들의 장르적 분포, 세대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예술인 창작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증진에 기여

□ 사업대상: 인천지역 예술인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9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에 맞춰 장르별, 생애주기별 예술창작 지원체계 마련
- 장르별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 장르별 예술인 창작지원 현황조사를 통한 지원체계 재설계
 - 인천의 강점 장르는 선도적 지원을 통한 강점 강화
 - 인천의 약점 장르는 충실한 지원을 통한 예술 기반 조성
- 생애주기별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 예술창작 성장단계에 따라 예술인 세대 구분(신진, 중견, 원로)
 -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시작단계에 있으며 예술적 정체성 형성 중인 예술인
 - 지원체계 예시; ‘생애 첫 예술지원’, ‘멘토링 서비스’, ‘청년문화예술창작 플랫폼’ 등 작품발표의 기회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중견 예술인: 활발한 예술 활동을 통해 성숙단계에 있는 예술인
 - 지원체계 예시; ‘작품활동비 지원’, ‘아트페어 개최’, ‘예술 활동 홍보’ 등 작품시장 형성 및 홍보 등 예술활동의 사회적 소통 및 마케팅 기회 제공
 - 원로 예술인: 30년 이상 예술 활동을 지속한 노년층의 예술인
 - 지원체계 예시; 예술활동 성과의 아카이브 작업 등 맞춤형 지원사업 개발

□ 추진방안

- 장르별, 세대별 예술인 현황 및 창작지원 현황 및 수요조사 추진
- 예술인 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장르별, 생애주기별 예술지원체계 재구축
- 지원사업의 적용과 모니터링을 통해 인천형 예술인 지원체계로 운영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2-9 청년문화예술창작 플랫폼 지원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 청년 예술인들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자생적 활동기반 마련 필요
- 청년 예술인 수요에 맞는 활동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인천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대상: 인천시 청년 예술인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청년 예술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 예술인 인력 파악 및 DB 구축
 - 인천 청년문화인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홈페이지 개설 및 정례모임 개최/청년 예술인 예술경력 정보 교류와 소통
 - 선배 예술인과 교류의 기회 제공; 멘토링 서비스 등
-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공간 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 생계 곤란으로 인한 예술 활동 포기상황 구제
 - 청년문화창작소(가칭) 조성사업(옛 인천여고 건물 리모델링)
 - 창작공간 지원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의견 수렴
- 융복합 예술활동 및 협력활동 지원
 - 공동 창작과 교류의 공간 지원/ 융복합 예술 활동을 위한 정보 및 기회 제공
 -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

□ 추진방안

- 청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DB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조성 등 지원계획에 따른 정책의 단계적 실행 및 청년 협의체 구성
- 사업 실시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 환류체계 구축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2-10 민간 문화예술단체 창작기반 강화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예술활동 기반이 열악한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창작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인천 문화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
-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창작기반 강화 및 질적인 창작 활동 향상
- 예술단체의 활동력 강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 사업대상: 인천시 민간 예술단체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7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민간 문화예술단체 활동현황 조사 및 창작기반 수요조사
- 현장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민간 문화예술단체 수요조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를 통한 창작의욕 고취
 - 마케팅 대행사업, 축제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실시
 -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단계적 예산 지원 확대
 - 미 지원 및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고른 수혜 기회 제공

□ 추진방안

- 민간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창작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 민간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간담회 및 워크숍 운영
 -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체계 재설계
-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및 단계적 지원 확대
 - 현장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 후 지속적 모니터링
 - 지원예산의 단계적 확대 2016년 8.2억 원 → 2017년 12.5억 원 지원
- 민간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2-11 인천시립예술단 활동기반 강화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시 대표 예술단체인 시립예술단의 활동력 강화로 문화도시 인천의 예술적 위상 제고 필요
- 시립예술단 역사에 걸맞은 내적 역량 강화 및 대외적 활동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체계 강화

□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시립예술단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4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시립예술단의 인천시 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브랜드 구축 지원
 - 인천 역사문화자원 활용, 인천 가치와 연계된 레퍼토리 개발 및 시연
 - 인천 Story bank 조성 사업과 연계
 - 인천 고유성을 토대로 시립예술단 공연의 브랜드화 추진 → 시립예술단의 국내외적 위상 강화
- 시립예술단 역량 강화 지원방안 구축
 - 단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공연 강화
- 시립예술단 신규 설립 시 운영방안 수립
 - 인천시립예술단 내 국악단 확충을 통한 위상 강화

□ 추진방안

- 인천시립예술단 발전방안 연구 추진
- 인천시립예술단의 단계별 역량 강화
- 인천시립예술단 지원 및 운영관리 체계 강화
 - 인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레퍼토리 브랜드 강화 등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

2-12 인천 Story Bank 운영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 고유 문화콘텐츠의 아카이브 조성 및 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해 인천 가치 발굴 및 활용
- 문화예술 창작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 원천을 개발하여 예술인들에게 제공, 문화예술 콘텐츠의 활용체계 확산에 기여

□ 사업대상: 인천시 콘텐츠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인천 고유 문화콘텐츠 스토리 뱅크 조성
 - 인천 역사, 문화, 도시, 인물, 생태 등 체계적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인천 고유 문화콘텐츠 재조명(인천 최초·최고 아카이브 구축 포함)
 - 인천 역사인물 재조명
 - 생가(기념관) 복원사업, 인물 박물관 등
 - 문화가(한하운 등), 음악인(송창식 등), 연극인(함세덕 등), 독립운동가(김구 등)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인천 문화콘텐츠 공모전 개최
 - 인천 스토리 창작사업 추진
 - 구축된 아카이브를 토대로 인천의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발굴, 연극·문학 뮤지컬·무용·영화 등 문화예술로 변형될 수 있는 스토리 창작
 - 문화예술인과 스토리텔러의 공동 작업체계 구축
 - 스토리 공모전 개최 및 발굴된 스토리의 편찬/출판 지원
- 인천 문화유산활용 다각화 사업과 연계

□ 추진방안

- 인천 Story Bank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아카이브 조성: 사실 기반 아카이브 구축 및 스토리 지도 구축
- 스토리텔링 및 스토리 창작사업 추진 및 다각화
-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계획의 환류체계 구성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문화재과

2-13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원 경쟁력 강화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자치구별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자치구 문화원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
- 문화원만의 특화사업 실행을 통해 문화원 정체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자치구 문화원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인천 문화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적 협의체 운영
 -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 역할 재정립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
 - 시·자치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문화원의 위상 정립
 - 인천시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시-자치구 문화협력체계에 참여
 -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 재정립
 -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적 구조 개편
 - 문화원 본연의 역할(지방문화원 진흥법 참조) 재정립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0조(지방문화원의 사업)

-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전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6.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7.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8.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9.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
10.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11.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문화원 특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다각화
 - 지역문화원형가치의 발굴과 활용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특성화
 - 지역문화원형 DB 구축사업 진행으로 향토문화가치의 원형 발굴
 - 향토문화사업 다각화
 -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 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 추진방안

- 인천 문화원 위상재정립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문화원 정체성에 따른 특성화 전략 및 지속적 사업기반 마련
 -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원 원장(사무국장), 자치구 문화재단, 자치구 지역문화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 운영
- 인천 문화원 특화사업 추진
 - 특화사업 예시
 - 중구(섬의 곶 이야기와 서해안 별신 곶), 화도진(근대산업유산 공간과 사람), 학산(원도심 콘텐츠 마을영화 제작), 연수(갯벌 소재 콘텐츠 사업), 남동(숨어있는 설화), 부평(부평토굴, 은광), 계양(계양산 설화, 계양사직단 발굴), 서구(서구의 보물지도), 강화(가라저가는 항구와 포구)
-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원

2-14 인천형 축제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시를 대표하는 축제 및 자치구 축제의 질적 성장 및 대외적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 축제지원 및 관리체계 필요(인천시를 제외한 타 특·광역시는 자체 축제육성제도를 통해 지역축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우수 지역축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축제지원으로 지역문화역량 제고

□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지역축제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가칭)인천축제위원회 설치
 -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중 축제지원 업무 위탁운영
 - 인천 지역문화전문가, 축제전문가, 자치구 축제정책 전문가, 외부 축제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인천 지역축제 발전방향 및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인천축제위원회 설치 근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 3061호)

제10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 및 지원

제36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으로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축제의 사무위탁) ①시장은 시 대표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제2조제3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에서 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8조(군·구 축제의 지원) 시장은 제2조제4호의 군·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축제의 평가) ①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제37조에 따른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 인천 지역축제 지원 및 컨설팅 체계 구축
 - 인천 지역축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과 컨설팅 추진
 - 축제 DB구축 : 개별 축제 자료를 통합 관리
 - 축제 DB 관리를 통해 통합 홍보체계 구축 및 마케팅 지원, 연동 관리
 - 시민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역축제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운용
 - 축제 평가체계 도입과 환류체계 구축
 - 지역축제 활성화 및 평가, 우수축제 선정(추천)
 - 축제평가 모니터링 제도 운영: 인천 청년기획자 및 활동가 양성배치 연계
- 인천 지역축제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안

- 인천형 축제지원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가칭)인천축제위원회 설치
 - 축제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 운영
- 인천형 축제지원 통합시스템 가동 및 활성화
 - 축제 DB구축 및 축제지원·컨설팅 체계 운영
 - 축제평가모니터링 시행 및 우수축제 선정을 통한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 축제인력 양성 및 재교육, 인천지역문화기획자 축제연계 프로그램 운영

※ 참고자료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축제지원센터)

미션

서울시 축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한다.

비전

서울축제 육성지원을 통한 행복한 문화서울 구현

주요 사업

평가 및 심사: 서울시 축제 평가연구

상시 자문 및 컨설팅: 축제멘토링 지원제

인력 육성 및 교육 지원: 시·자치구 축제담당자 대상 분기별 세미나, 축제모니터링단 토론

식 교육 및 축제답사, 심화워크숍 운영

DB구축 및 연구조사: 서울시 개최 축제 현황 조사

네트워크 및 정보화: 서울시 축제 온라인 플랫폼 기능 구축, 축제 워크숍·포럼 등 정기 개최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가칭)인천축제위원회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도시 인천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별 문화도시 정책 활성화 필요
- 자치구별 문화도시 핵심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자치구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인천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연계를 통해 자치구별 문화도시 정책추진 활성화

□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군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자치구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2015년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1차 수립
 -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실행을 지원하는 교육워크숍 및 코칭워크숍 운영
- 자치구의 문화도시 계획수립 지원
 - 자치구 차원에서 문화도시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 문화도시 교육사업, 콘텐츠 구축 사업 지원
 -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지원 체계 구축
 - 자치구 문화정책 협력체계 활용 자치구간 네트워크 소통 체계 마련

□ 추진방안

- 자치구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및 문화도시 사업추진 현황 조사
- 자치구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사업 지원체계 수립
 -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추진자문단 구성
 - 인천시 정책관계자 및 군구 관계자 대상 <교육워크숍> 및 전문컨설팅과 코칭을 제공하는 <코칭워크숍> 운영
 - 별도 문화도시 추진계획 원하는 자치구에 따라 단계적 지원
-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시-자치구 정례적 정책협의구조 마련

□ 실행부서/주체: 문화도시 정책협의체, 자치구

2-16 섬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지원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섬과 해양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섬 문화콘텐츠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필요
- 섬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인천 해양문화자원의 가치 확산 및 문화다양성 증대

□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자치구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강화(인천 내 최대 문화재 보유), 옹진(164개 섬 도서지역)의 섬 문화콘텐츠 발굴 지원
- 섬 문화특화지역 선정 및 예산 지원
 - Story bank 조성사업과 연계, 다양하고 개성 있는 스토리 발굴
 - 섬 문화특화지역 선정 및 예산 지원(우선 5개 지역 지원; 50백만 원)
 - 예시; 신도·모도 등의 조각의 섬 조성/ 무의도 연극·춤의 섬 지정(무의도 여름 연극제, 무용제)/강화도의 박물관의 섬, 미술관의 섬 추진
- 도서지역 해양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해양문화자원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섬 지역의 문화관광화 사업(안)
- 예술 섬 프로젝트 지원
 -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음악회(주섬주섬 음악회) 등 개최
 - 도서지역 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작 공간 지원, 예술 활동비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 추진방안

- 도서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현황조사 및 개발연구
- 섬 문화콘텐츠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섬 문화특화지역, 예술섬, 도서지역 해양관광 등)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체계화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2-17 해양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바다와 내륙의 접점에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인천은 역사적으로 항만과 물류의 중심으로써 기능하였으며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보유
- 이러한 해양문화 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 필요

□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해안지역 자치구/군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해양설화 발굴 및 재조명
 - 장봉도(인어 이야기), 백령도(심청 설화), 대청도(기황후 설화) 등
 - 인천상륙작전 시 상륙지점 기념화 사업
- 해안가 개방 추진 및 문화공간 조성
 - 내항, 도서 항·포구 등 유희시설 문화공간 조성 및 해안가 개방 등
 - 인천의 바다를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해양관광산업과 연계
 - 한국이민사박물관의 기능 강화
- 해양문화 상징(등대 등)화 사업 추진
 - 해양관련 인천 최초 재조명
 - 각국 조약 체결지, 팔미도 등대, 인천해관, 갑문, 해운업, 염전, 조선수사해방학당, 군함(양무호, 광제호), 인천무선전신소, 조탕, 해수욕장, 해외이민 등
-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 인천의 해양사와 해양민속사, 정신문화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해안지역 사람들의 삶과 모습을 콘텐츠로 구성
 - 서해안 및 인천의 교역과 항만, 해운 역사 정리 등

□ 추진방안

- 항만과 물류 중심의 해양문화 역사 조사 및 재조명
- 해양문화 상징화사업 추진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2-18 시민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지원(개인)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생활문화정책의 확산 및 인천시민의 높은 일상적 문화수요에 맞추어 인천 내 생활문화 활동기반 확산 필요
-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동호회 지원을 통한 시민 개개인 삶의 만족도 향상

□ 사업대상: 인천시민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3,01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생활기반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발굴 육성 및 지원사업 운영
 - 2020년 인천시민 30만 동호회/동아리 활동 목표
 - ※ 2017년 4월 기준 생활문화동호회 참여인원 3,986명(인천광역시청 내부자료), 생활문화에 한정되어 있어 집계된 동호회수의 전체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동호회로 일부 표본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간적 측면: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및 발표 가능한 기회 제공
 - 교육적 측면: 동호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경제적 측면: 동호회 활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장비 무상임대 및 일부 운영비 지원 등
-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한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 기회제공
 - 연간 250회 공연 지원
 - 찾아가는 문화공연 30회/무형문화재 공연 42회/인천시립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107회/인문학강의 47회 등
- 생활문화축제 활성화

□ 추진방안

- 인천시 시민중심 동호회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DB구축)
- 분야별, 장르별, 동호회 운영 경험 별로 공간, 교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찾아가는 문화공연, 도심 속 상설공연 등 사업 운영
- 모니터링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운영의 체계화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2-19 마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삶터)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도시의 기반이 되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문화 활성화 필요성
- 문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및 주민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마을단위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참여발현과 마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 추진 확대

□ 사업대상: 인천시민을 포함한 마을활동가 및 마을 공동체 참여자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마을단위 주민공동체 문화활동 현황 및 수요조사
- 마을문화공동체 지원사업 개발 및 운영
 - 1차 년도는 4~5개 마을을 선발하여 파일럿 프로젝트로 출발, 연차별로 마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확대
 - 마을의 문화자원 발굴부터 마을 이야기, 마을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생활예술 측면에서 마을 축제, 궁극적으로 마을단위 공동체에서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문화마을 공동체로 지속하기 위한 공동체활동 지원
 - 마을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은 문화를 콘텐츠로 지역주민간의 유대감을 확산하고 실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일부 예산, 컨설팅, 문화 분야 기획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필요 사항을 지원

□ 추진방안

- 마을 문화활동 현황조사 및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마을문화공동체 지원사업 시범운영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체계 운영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활성화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2-20 사회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일터)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시민의 일상적 문화수요가 높은 것에 비해 개인적 여가시간 부족으로 참여가 어려우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활동 여건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성
- 일터에서 여가 및 문화활동을 접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인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 사업대상: 인천시 소재 기업 및 근로자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예술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 예술강사 파견 : 문화재단, 예총, 문화원, 시립예술단 등 인천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인력 풀을 구성한 후 기업 내 문화예술활동 연계 지원
- 직장 내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업의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업 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인천형 여가친환경기업 인증제도의 시행
 -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문화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인천의 기업에게 여가친환경기업으로 등록하게 하여 인센티브 지원(문화예술복지기금 지원, 인증기업 문화티켓 구매 시 할인 제도 등)

□ 추진방안

- 기업 내 문화예술활동 현황 및 수요조사
 - 사내 문화예술동아리 및 문화예술교육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 DB 구축
- 사회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기업 문화예술동아리 예술강사 파견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범운영
-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체계화 및 확대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2-21 문화교류 중점기구의 역할 강화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국내외적으로 도시 간 지역 간 문화교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지적 유리한 여건을 보유한 인천의 문화교류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 인천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및 국내문화교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문화교류 중점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

□ 사업대상: 인천시 국제문화교류 지원기구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7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인천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교류 중점기구의 위상 재정립
 - 문화재단 내 문화교류본부 설치 등의 전담조직체계 설립
 - 인천 국내외 문화교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마련
 - 타 지역과 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한 우호 및 자매결연 강화
- 문화교류 중점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확대
 - 인천형 국내외 문화교류 사업구조의 체계화 및 모델링
 -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술단체 통번역 지원, 국제문화행사 진출 노하우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범위 확대 및 체계화

□ 추진방안

- 인천 국내외 문화교류 실태점검 및 중장기 방향성 정립
 - 인천 예술단체 및 예술인 대상 국내외 문화교류 수요조사
 -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초청, 정기적 네트워크 모임 실행
-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개발 및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사적 성과관리환류체계 도입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2-22 국제문화교류 브랜드 구축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은 양적으로 많은 자매 및 우호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지만 타 특·광역시 대비 실제 문화예술교류가 부족하므로 인천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필요
- 전략적 관점에서 인천을 국제문화교류의 중심도시로 활성화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인천의 문화도시 브랜드 강화

□ 사업대상: 인천시 국제문화교류 관련 단체 및 개인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7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 국제문화행사 지원을 통한 국제문화교류의 브랜드 사업으로 강화
 - 현재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중 발전가능성이 높은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활성화
- 국제적 문화교류를 선도할 수 있는 대표 문화교류 사업 개발 및 운용
 - '아시아 문화교류의 Core, Incheon': 아시아 문화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네트워크 및 공동 사업 개발 (정례포럼, 네트워크, 학회, 융복합 공동 예술 사업 기획 및 운영)

□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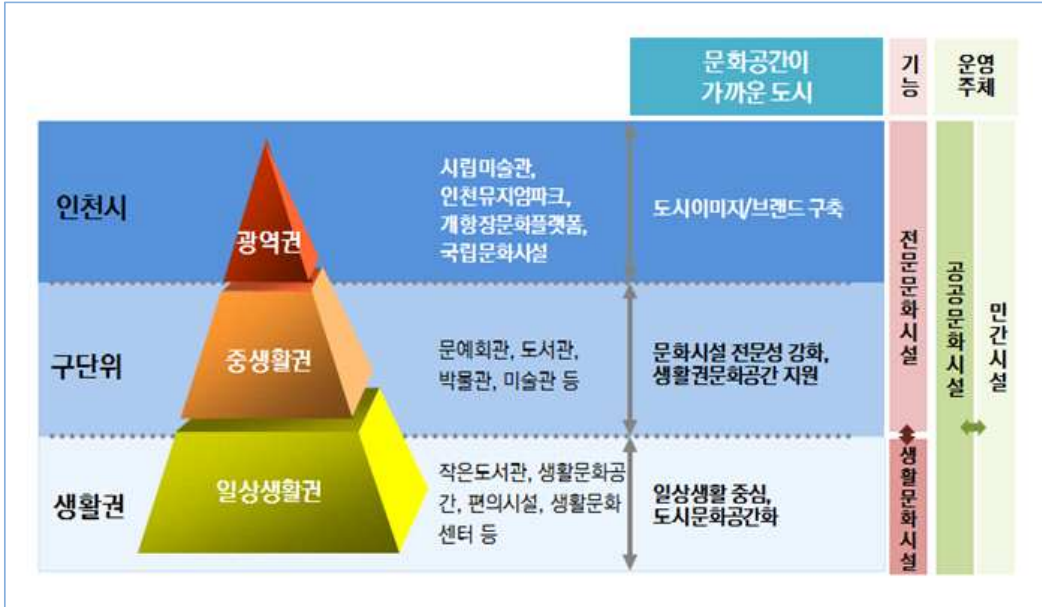
- 문화도시 인천에 부합하는 국제문화교류 브랜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현행 국제문화교류 사업현황(디아스포라 영화제 포함) 현황분석을 통한 성과와 과제의 분석/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인천 국제문화교류 브랜드 사업 개발
- 디아스포라 영화제 지원 및 활성화
-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브랜드 사업 발굴 및 강화
-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사업관리 체계화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제3절 문화공간: 문화공간이 가까운 도시

1. 계획방향

[그림 231] 문화공간 범주 계획방향



- 인천은 고유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 구축, 문화공간의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임. 최근 신규 문화공간을 설립하면서 이러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문화공간의 운영 활성화를 비롯해 자치구별 문화공간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인천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 문화공간 범주에서는 시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중심과제로 설정하되,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 활용될 전문 문화공간의 운영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둬.
- 인천 문화공간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광역권, 중생활권, 일상생활권)에 따라 문화공간을 구분하고, 도시공간 곳곳이 문화공간으로 변화하여 시민의 문화접근성이 향상되는 “문화공간이 가까운 도시”를 지향함.

2. 정책과제

□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 및 균형적 확산

- 시민이 원하면 언제라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문화공간을 촘촘히 마련함.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자치구별로 균형적으로 조성하여 활성화하고, 인천 도심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간 및 유휴공간 등을 작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천개의 문화공간 사업을 추진함.

□ 민간 문화공간의 운영 활성화

- 문화공간을 골고루 배치하여 자치구별 문화격차를 최소화 하고, 문화시설의 특성화를 통해 운영을 활성화 함. 이를 위해 자치구별 지역문화 특성에 맞추어 공간배치를 정책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고, 민간 문화공간의 운영 특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함.

□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 전문화

- 인천 대표 문화공간의 전문적 운영을 통해 인천만의 고유 문화공간 브랜드를 구축함. 인천뮤지엄파크, 개항장플랫폼, 아트센터 인천 등 광역권 문화공간의 랜드마크화를 위해 조성계획과 함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함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표 126〉 문화공간 범주 세부사업 개요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연도	실행부서	단계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 및 균형적 확산	인천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2017~2022	문화콘텐츠과	확대
	‘천개의 문화공간’ 조성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문화재과	신규
민간 문화공간의 운영 활성화	자치구별 Hot 지구 구축, 균형적 문화 인프라 확대	2018~2022	문화콘텐츠과	확대
	문화시설 특성화 및 운영 전문성 강화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인천문화예술회관	확대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 전문화	인천뮤지엄파크(IMP) 운영방안 마련	2019~2022	문화콘텐츠과	신규
	개항장 플랫폼 활성화방안 마련	2017~2022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신규
	아트센터 인천 운영방안 마련	2018~2022	아트센터 인천 운영준비단	신규
	인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신규

4. 세부사업 내용

3-1 인천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생활문화정책 확산에 따라 중앙정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환경을 반영
- 자치구별 생활문화 수요에 부합하는 인천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접근성 확대 및 문화복지 제고

□ 사업대상: 자치구별 생활문화센터 및 조성 예정지

□ 사업기간: 2017년~2022년

□ 사업예산: 4,866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군구별 거점형,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 및 운영 지원
 - 기존 문화시설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거점 플랫폼으로 주민 소통·교류 공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지원
- 2017년까지 9개소 건립, 2022년까지 20개소 건립 추진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생활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운영 컨설팅 지원
 - 인천형 생활문화센터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지원방안 마련
- 생활문화센터 간 다양한 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 연계·활용 시스템 지원

□ 추진방안

- 2015년부터 자치구별 생활문화센터 조성비(리모델링비, 기자재 비 등) 지원
 - 2015년(3개소): 동구(솔마루), 남구(학산), 인천아트플랫폼(칠통마당)
 - 2016년(4개소): 중구(개항장), 동구(송림골), 부평구(아트하우스), 연수구(청학지하)

- 2017년(2개소): 용진군(북도면, 자월면) 예정
- 자치구별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후 운영 지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 체계 마련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컨설팅 사업
 - 생활문화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콘텐츠과

3-2 '천 개의 문화공간' 조성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시민의 일상적 문화수요를 반영하여 생활권 내 쉽게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일상 속 문화공간 필요성 증대
- 일상공간의 문화화와 생활권 문화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생활권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 사업대상: 인천시 생활공간 및 문화공간화 될 수 있는 잠재 공간 등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3,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민간 작은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 소규모 민간 문화공간인 작은 도서관·박물관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추진 중(2022년까지 5,800백만 원)
 - 작은박물관 운영 지원 사업 추진 중(2022년까지 1,010백만 원)

※ 참고자료 (인천문화주권 실현계획, 2016)

작은 문화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정적·장기적 정책 추진체계 도입

- '천 개의 문화공간' 발굴 및 지원
 - 섬 지역 폐교, 구도심 공가폐교 등
 - 지하철, 광장, 휴게공원, 관공서·병원 복도 및 로비 등 일상 속 다양한 생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한 개의 공간 당 공간 재구성을 위한 5백만 원 지원
 - 일상권 작은 문화공간 발굴을 위한 시민공모사업 추진
 - 연간 자치구별 20개의 작은 문화공간 선정 및 장소 리모델링/공간 디자인 지원
- 수변지역의 문화공간화
 - 1, 8부두의 수변 문화공간화, 문화지구 조성
 - 문화산책로, 조각공원, 야외무대 설치 등
 - 북성포구의 문화명소화

※ 참고자료(생활권 작은 문화공간 예시)



〈작은 마을회관 (작은미술관)〉



〈정다방 프로젝트(서울 문래동)〉



〈지하철 북카페(부산 장천역)〉



〈병원로비 문화공간 (명지대병원)〉

○ 생활문화예술공간 창업지원 방안 마련

- 서점, 테마카페(북, 디자인, 그림, 만화, 음악 등), 이야기 편의점, 캘리 세탁방 등 지역민과 지역 내 예술가의 협업으로 조성하는 생활문화공간 창업지원

※ 참고자료(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생활문화공간)



〈디자인카페 야콥(디자인작업실 겸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독립문화공간)〉

- 인천 문화지표 조사를 통해 문화취약지역 및 노령화지역,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 대상 생활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원
- 수요에 따라 주민과 지역공동체, 지역예술가들의 매칭을 통한 생활문화활동 및 창업활동 발굴 추진

- 공모지원사업으로 추진
 - 지역공동체 협력사업(지역주민/예술가/지역공동체/동아리(동호회) 우선지원 방식으로 추진

□ 추진방안

- 시민문화공간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 공간확보계획 및 시설 운영계획 수립(세부 예산안 포함)
- 시민문화공간 발굴 사업 추진(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 추진)
- 시민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생동감 있는 사업 운영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문화재과

3-3 자치구별 Hot 지구 구축, 균형적 문화 인프라 확대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자치구별 문화 인프라 격차에 따른 시민의 문화시설 접근성 차이가 발생
- 자치구별 상이한 특성에 기반을 둔 문화 인프라의 균형적 확대를 통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 사업대상: 인천시 자치구/군 문화 인프라 관련 지역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추후 예산산정

□ 사업내용

- 문화 인프라 우선확충지역 선정
 - 인천 문화지표 조사를 통해 자치구 별 문화시설 이용경험 및 의도와 문화시설 확충 현황 비교 분석
 - 지역별 문화시설 확충 우선순위 도출 및 우선순위에 따른 문화 인프라 확충 지원
- 문화시설 이전사업 추진
 - 문화시설 부족 지역에 기존 문화시설 이전 계획 추진
 - 문화시설 이전 시 시설 간 결합 및 지역문화 특성화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추진방안

- 인천시 문화 인프라에 대한 공간분석 및 수요조사
 - 자치구별 인구 현황 분석 및 수요분석, 공간분석 기반으로 문화 인프라 취약 지역 및 문화 인프라 우선지역 설정
- 지역별 문화 인프라 구축 지원체계 수립 및 정책 조정
- 지역별 문화 Hot 지구 구축으로 문화의 균형적 확산 도모
 - 중구: 개항장 플랫폼 등 개항장 문화지구
 - 동구: 배다리 책방거리(문화마을) 등
 - 남구: 뮤지엄파크 인근 등
 -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등
 - 연수구: 아트센터 등 센트럴파크 일대

- 부평구: 부평아트센터, 미군부대 등
- 남동구: 문화예술회관 인근
- 계양구: 경인 아라뱃길 등
- 강화군: 고려궁지 등
- 옹진군: 섬 지역 활용

※ 참고자료(문화 Hot지구 예시)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콘텐츠과

3-4 문화시설 특성화 및 운영 전문성 강화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시민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문화시설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및 운영활성화 필요성 증대
- 자치구별 문화시설의 지역 특성화 및 운영 전문성 강화를 통해 문화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대상: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박물관 등 인천시내 문화시설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7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도서관 통합 운영주체 마련
 - 미추홀도서관, 도서관발전진흥원, 교육청, 군/구 등 운영주체가 상이한 도서관의 운영 단일화를 위한 방안 모색
 - 다양한 운영 주체 간 협력을 통한 단일화 시스템 구축
 - 공공도서관 협의회(22개 회원기관)의 확대를 통해 민간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하는 통합 운영주체 마련
 - 공동 보존서고 설립, 도서관 공동대출 시스템 등 운영체계 개선과 시설 접근성 강화
 - 도서관 장서확충 사업 추진, 인천 공공도서관 100주년 기념사업
- 문화시설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
 - Story bank 조성 사업과 연계, 문화시설에 자치구별 지역문화 특성 연계
 - 자치구별 문화시설 프로그램 개선으로 이용 만족도 향상
- 지구별 특성화 사업 추진
 - 제물포 문화예술인타운 조성 프로젝트
 - 문화예술인 거주환경 조성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집적효과 유도
 - 단순 기숙 기능이 아닌, 공방 등 특화된 문화적 기능 중심
- 인천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인천 시립예술단 활동 및 위상강화 계획과 연동, 인천문화예술회관 우수 프로그램 발굴

- 인천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서비스 확충
 - 연회비 카드납부 체계 구축
 - 모바일 환경개선을 통해 유료회원 인증 및 예매절차 간소화
- 15.1%인 재정자립도를 전국 평균 수준인 21.5%로 향상
-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문화 Hot Spot 조성
 -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을 시작으로 문화광장 조성, 랜드마크화

□ 추진방안

- 인천시내 문화시설 운영현황 분석
- 시설별 특성화 및 운영전문화 지원방안 구축
 - 시설별 고유(대표) 프로그램 구성 지원
 - 시설 내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에 따른 단계별 사업 확대
- 지속적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질적 제고 및 브랜드화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인천문화예술회관

3-5 인천뮤지엄파크(IMP) 운영방안 마련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을 통해 인천의 대표적 문화예술 랜드마크 구축
- 대규모 시설 조성을 넘어 공간에 필요한 전문적 운영방안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및 효율적 예산활용

□ 사업대상: 인천뮤지엄파크

□ 사업기간: 2019년~2022년

□ 사업예산: 284,06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계획 수립
 - 미술관 건립 및 박물관 이전,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박물관·미술관·예술공원에 문화산업 개념 도입, 인천 문화예술 랜드마크 조성
 - 문화예술 전문가 포함된 추진조직 확보 및 운영
 - 시민, 예술가 등 지속적 의견 수렴 및 반영 체계 구축
- 시립미술관 운영 전문화
 - 시민 숙원사업인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전략추진조직 구성
 - 인천 1호 시립미술관 특성화 전략계획 수립
 - 공공성 강화에 집중, 미술관 자료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에 노력
 - 시립미술관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 인천미술은행 사업과 연계, 인천 고유 가치를 내포한 특성화 전략 수립
- 인천뮤지엄파크 운영계획 수립
 - 미술관, 박물관, 문화산업 시설의 유기적 운영체계 마련
 - 조성계획 뿐 아니라 운영계획에도 문화예술 전문가 포함
 -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시민 접근성 확보를 우선으로 한 운영계획 수립
 - 인천 고유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운영방향 및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수립

□ 추진방안

- 인천뮤지엄파크 마스터플랜 수립
 -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구상 및 운영 계획안 도출
 - 운영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인력 교육 등 세부 내용 포함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콘텐츠과

3-6 개항장플랫폼 활성화방안 마련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지구 조성 과 시설 건립은 단순 조성보다는 전문화된 운영을 통해 실천적인 목적 달성이 중요
- 개항장플랫폼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문화예술거점 중심의 복합문화관광벨트 조성, 문화적 관점에서 원도심 재생에 기여

□ 사업대상: 인천 개항장플랫폼

□ 사업기간: 2017년~2022년

□ 사업예산: 27,500배만 원(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3,800	3,500	10,800	13,400	4,700	5,400	6,000	
사 비	아트플랫폼	16,500	2,000	2,300	2,600	2,900	3,200	3,500
	북플랫폼	15,500	1,500	4,500	6,800	800	900	1,000
	뮤직플랫폼	11,800	-	4,000	4,000	1,000	1,300	1,500

출처: 인천 문화주권 실현계획(2016)

□ 사업내용

- 북플랫폼 확장(한국근대문학관)
 - 근대건축물 및 문학관 인근 건물 우선 매입을 통해 공간 확충 및 다변화
 - 연령대, 수요층에 적합한 주제가 있는 전시실 운영
 - 문학레지던시 운영(국제 레지던시로 특화)
 - 가족단위 방문객 확보를 위한 에듀테인먼트 기능 확충
 - 재원 조달 계획 및 특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 수립
- 뮤직플랫폼 신규 조성
 - 뮤직플랫폼 신규 조성을 위한 기획 팀 운영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사업 진행 타당성 확보
 - 인천시 음악활동 질적 활성화와 다각화에 기여
 - 녹음실, 연습실, 강의실 등 운영을 통해 인천시 청년음악가 양성 및 창작 활동 지원
 - 전문공연장 운영을 통해 시민음악활동 지원 및 대중음악 공연 개최
 - 대중음악 관련 기록물 수집 및 전시 등을 통해 ‘대중음악박물관’ 근간 형성에 기여

- 재원조달계획 및 특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 수립
- 아트플랫폼 기능 확대
 - 국제 규모 레지던시 확대 운영
 - 기획전시 및 기획공연 개최사업 강화
 - 국제 규모의 기획전시 운영(비엔날레 또는 트리엔날레)
 - 시민과의 접점 강화
 - 문화교육프로그램 강화, 주말 야외 프리마켓 개최 등 관련 사업 추진
 - 재원조달계획 및 특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 수립
- 시설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개항장 플랫폼 등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 아트플랫폼, 북플랫폼, 뮤직플랫폼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 운영 체계 구축
 - 통합운영을 위한 세부운영계획 수립으로 시설 간 선순환구조 구축
 - 북플랫폼, 뮤직플랫폼 운영 전문화를 위해 관련 조례 신설 및 개정
 - 인접 지역 유사 시설의 자발적 조성 유도를 통해 주변부로의 기능 확장

□ 추진방안

- 사업 수요조사 및 현황조사 실시
- 개항장플랫폼 세부 조성계획 수립
 -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구성
- 단계별 사업 추진에 의한 원도심 개항장 주변지역 복합문화벨트 조성
 - 아트플랫폼 기능 확대, 북플랫폼 확장, 뮤직플랫폼 신규 조성 등 단계별 사업 진행
- 시설별 운영 전문화 및 통합운영 실시
-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융통성 있는 운영체계 구축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3-7 아트센터 인천 운영방안 마련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개관에 맞춘 운영 전문화를 통해 국가적 클래식 전용극장으로 랜드마크화
- 운영전문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로 주변지역의 문화적·경제적 가치실현에 기여

□ 사업대상: 아트센터 인천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추후 예산산정

□ 사업내용

-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 제정
 - 현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아트센터 인천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독립, 개별 조례 제정
 - 「아트센터 인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일원화된 시설 운영
- 아트센터 인천 특성화 및 운영 전문화
 - 운영준비단에 문화예술인/단체 참여로 시설 중심이 아닌 문화예술 콘텐츠 중심의 아트센터 개관 준비
 - 문화수요 조사 및 공모전을 통해 인천 특화 콘텐츠 발굴하여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
 - 인천역사문화와 인천가치를 반영한 공연 프로그램 기획
 - 국제화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연 프로그램 기획
 - 인천시민 수요에 적합한 공연 프로그램 기획
 - 자원 조달 계획 및 특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 수립
 - 공간 조성 중심이 아닌 공간 운영 중심으로 관점 이동

□ 추진방안

- 아트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 중장기 운영계획, 단계별 추진체계 및 인력, 예산 등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인 참여를 통해 예술공간 특성화 달성

- 공간 창출보다는 공간 운영 중심으로 관점 이동
 - 행정지원체계 구축
 - 관련 조례 제정 등 일원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인천 특화 콘텐츠 발굴 등 활성화 지원
 - 단계별 아트센터인천 가동
 -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가능성 확보
- **실행부서/주체:** 아트센터 인천 운영준비단

3-8 인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의 다양한 역사문화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확산할 필요성
- 새로운 관점에서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가치를 확산할 공간 건립을 통해 인천 도시가치 상승 및 역사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인천 역사문화적 가치 제고를 통해 시민 자부심 함양 및 삶의 질 개선

□ 사업대상: 인천 역사문화공간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4,74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새로운 관점의 인천 역사문화공간 건립 및 복원 지원
 - 장수동 이승훈 묘역 일대 역사공원 조성
 - 개방형 역사체험 순례성지로 조성, 국제적 순례관광 명소화
 - 계양산성 복원 및 박물관 건립
 - 문학산성 복원 및 활용(산상 음악회)
- 역사문화공간의 운영 전문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공간개발 중심이 아닌 운영 중심으로의 개발계획 관점 이동이 중요
 - 문화가치 발현에 대한 고민을 시설 운용에 반영
 - 재원조달계획 및 특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 수립
- 산업화 시대의 역사성을 소재로 한 전시·공연·체험·영상 등 전문 문화공간 조성
 - 예시: 서울 화력발전소(당인리), 마포 석유비축기지(상암지구), 영상문화단지(부평구)

□ 추진방안

- 인천 역사문화공간 운영현황 분석: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조사
- 역사문화공간 운영 프로세스 정립 및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역사문화공간 운영활성화 지원
- 운영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축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제4절 문화공동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1. 계획방향

[그림 232] 문화공동체 범주 계획방향



- 인천은 어느 도시보다 이주 외국인 및 노동자 등 인구 분포가 다양하며,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도 자치구별로 역사성, 지리적 여건, 사회적 특성 등에서 매우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본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 문화공동체 범주에서는 문화적 가치와 미션이 다양한 문화단체와 역사문화적 여건 등이 상이한 자치구 지역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체적 상생을 모색하고자함.
-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공동체 감성을 구축할 수 있는 협력과 공존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함.

2. 정책과제

□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협력

- 다양하고 이질적 문화들 간의 접점을 발견하고 이어주며,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위해 공공-민간 문화단체의 소통과 협력기반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구축사업, 소수이지만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는 다원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강화, 인천 시민들의 세대적 감성을 이어줄 세대잇기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인천시민의 문화다양성 협약과 실행계획의 수립을 추진함.

□ 지역 간 문화협력

- 인천 자치구는 어느 도시보다 지역적 문화 특성이 상이하고 여건도 차이가 많음. 이에 서로 다른 지역 간 문화가치를 공유, 소통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모색하면서 지역 간 문화협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자치구 문화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함.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표 127〉 문화공동체 범주 세부사업 개요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연도	실행부서	단계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협력	공공-민간 문화단체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신규
	다원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신규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및 액션 플랜 수립	2017~2022	문화예술과	확대
	인천 세대잇기 프로젝트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신규
지역 간 문화협력	자치구 문화정책 협력체계 구축	2018~2022	문화예술과, 자치구, 문화재단	신규

4. 세부사업 내용

4-1 공공-민간 문화단체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문화단체 간 협력과 소통체계 강화 필요
- 공공-민간 문화단체에 속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공유 및 정책 협의를 통해 상호이해 확대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사업대상: 인천시, 문화관련 기관(문화재단, 인천발전연구원 등), 문화예술 민간 단체, 문화예술 관계자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공공-민간 문화단체 네트워크 구축
 -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군·구문화재단, 민간 문화재단, 민간 문화예술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인천형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단체(예총, 민예총 등) 문화예술 본산 집적화
- 공공-민간 문화단체 협력 플랫폼 운영
 - 민간-공공 문화단체 문화예술현안 협의와 공동사업 추진
 - 인천시 문화예술 정책 방향 및 이슈에 관한 열린 공론의 장 마련
 - 방식: 열린집담회, 온라인 서베이, 개별 자문, 인천시민 의견수렴 등
 - 인천 문화예술현안에 대한 인천시 주최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 예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등 민간 문화예술현장 의견 청취
 - 공공과 민간의 공동사업 운영 : 공동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후 추진
 - 공동 프로젝트 실현 (예: 캠페인, 마을 만들기 등) 및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및 유대감 형성

□ 추진방안

- 협의체 구성을 통한 플랫폼 구축
-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한 공동의 목표 설정
- 공동사업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 지속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4-2 다원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 비주류, 대안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 필요
- 민간 영역의 다원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한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및 문화다양성 풍토 확산

□ 사업대상: 인천시 민간 영역 다원문화예술단체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다원문화예술단체가 필요한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 추진
 - 정책적 지원: 다원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 및 장기적 발전 방향성 정립, 필요한 지원체계 재설정
 - 사회적 지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감대 확산, 단체 간 협업과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현
 - 경제적 지원: 다원문화예술 활동과 일자리 연계 (마을과 예술단체가 같이 공생하며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
- 다원문화예술단체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다원문화예술단체와 및 타 문화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안

- 인천시 다원문화예술단체의 운영현황 및 수요조사
- 다원문화예술단체 실질적 수요에 맞춘 단체별 지원체계 개발
- 다원예술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모니터링 평가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사업 체계화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4-3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및 액션 플랜 수립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고령화와 핵가족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다문화 인구의 증가, 소수자의 문제 등에 직면하여, 다양한 집단의 표현과 권리가 보장되고 공존하는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 필요
- 다양한 문화가 융합하는 플랫폼으로서 인천시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

□ 사업기간: 2017년~2022년

□ 사업예산: 2,0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다양성법)>(2014)을 근거하여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제정과 실천을 위한 액션 플랜 수립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수를 측정하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행

※ 참고자료: 문화다양성법

제2조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추진방안



-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된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 공모사업 지속 추진
- 2018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 및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제정
 - 문화다양성 구성요소, 문화다양성에 관한 의식수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2018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추진)
 - 문화다양성법에 근거한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제정
- 2019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천시 현안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문화다양성 액션플랜〉 수립
- 중앙정부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4-4 인천 세대잇기 프로젝트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고령화 인구가 늘어가면서 인천시 세대별 정서적, 문화적 격차 해소 필요
- 다양한 문화활동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별, 세대 간 공감 및 교류 확대, 소통체계 확대

□ 사업대상: 인천시 노년, 중장년, 청년 및 청소년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를 통한 세대 간 교류 협력 캠페인 추진
 - 세대에 따른 종적, 횡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류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
- 다양한 세대잇기 프로젝트 개발 지원
 - 고령화 시대에 대응, 노인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 창의적 아동·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 예시: 청소년 노년 교류 사진 메모리얼 : 노년의 사진을 그대로 청소년들이 동일한 배경을 구현하여 사진전 ‘나 어렸을적...’

□ 추진방안

- 인천시 세대별 문화활동 실태조사 및 세대 간 문화예술활동 수요조사
- 인천시 노인종합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청년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세대잇기 프로젝트 운영 컨소시엄 구성
- 세대잇기 프로젝트 캠페인 및 프로젝트 개발 시범사업 운영
-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4-5 자치구 문화정책 협력체계 구축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시 내 자치구간 문화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도시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필요
- 문화재단 네트워크 기반 공동사업 추진으로 수평적 정책소통체계 강화
- 자치구 문화재단 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인력과 조직의 역량 강화

□ 사업대상: 자치구 문화재단, 자치구 포함(재단이 없는 경우)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5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인천시 자치구간 문화정책 협의체 구성
 - 인천시 문화재단협의회, 자치구 문화재단 실무위원회의 등 다양한 방식의 협의체를 구성
- 자치구 문화정책 협의체 운영
 - 인천시의 공통된 문화예술 이슈, 자치구간 문화예술의 현안 공유를 통한 향후 인천시 문화예술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
 - 인천 문화재단 협의체 운영 : 월 1회 실무위원회의, 연 2회 대표자회의 등 운영
 - 네트워크 포럼 및 비정기적 모임 등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운영
 - 자치구간 공동사업 개발 및 실행(문화재단이 없는 경우)

□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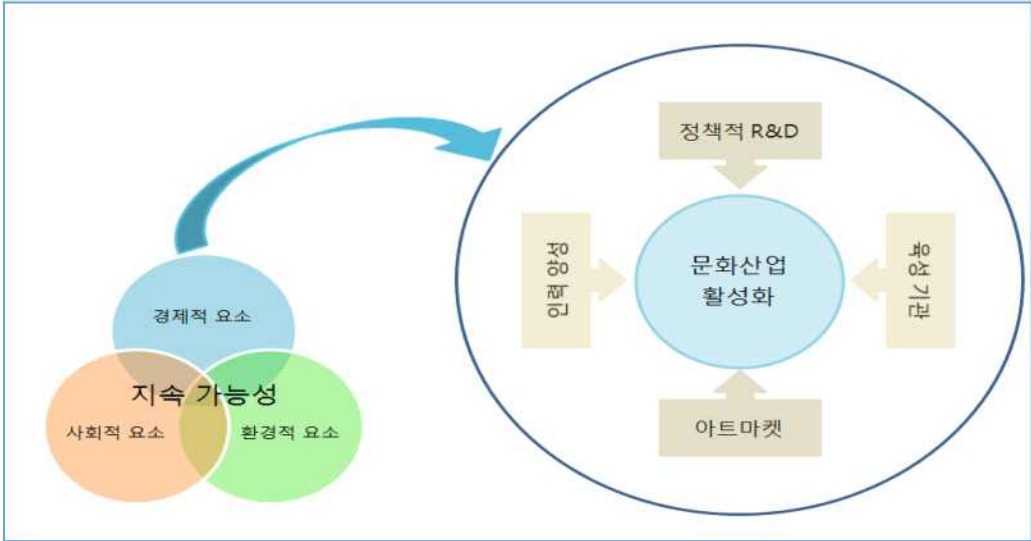
- 자치구간 협력을 통합 공동의견 수렴 및 협의회 구성
- 공동의 인천문화발전 방향성 모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대표자 회의 운영
- 공동의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구성 및 운영
- 자치구 간 협업 문화예술 프로젝트 실행을 통한 정책협력 강화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자치구, 문화재단

제5절 문화산업: 문화와 산업이 연결되는 도시

1. 계획방향

[그림 233] 문화산업 범주 계획방향



-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적 요소, 사회적 요소, 환경적 요소와 함께 경제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 문화산업은 문화도시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경제적 요소로 중요하지만 인천의 경우 문화산업 기반이 매우 약한 단계임. 인천에서 음악산업, 영상산업, 관광산업 등 다양한 문화산업 분야의 자원 및 역량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산업적 기반이 약한 편임.
- 이에 인천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인천 문화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 요소로서 문화산업 기초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며, 선도 문화산업의 강화를 통해 문화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와 산업이 연결되는 도시”를 지향함.

2. 정책과제

□ 문화산업 기초기반 마련

-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적 기반인 문화산업의 씨앗을 골고루 심어 인천형 문화산업 기틀을 구축함. 이를 위해 인천 내 문화산업 관련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아트마켓 활성화, 선도 문화산업 강화 등 핵심 마중물 사업을 추진함.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표 128〉 문화산업 범주 세부사업 개요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연도	실행부서	단계
문화산업 기초기반 마련	문화산업 정책적 R&D 강화	2018, 2021	문화콘텐츠과	신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2018~2022	문화콘텐츠과, 마이스산업과	확대
	문화산업 전문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2017~2022	문화콘텐츠과	확대
	인천 아트마켓 활성화	2018~2022	문화콘텐츠과	신규
	선도 문화산업 (영상,음악) 강화 및 문학 육성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확대

4. 세부사업 내용

5-1 문화산업 정책적 R&D 강화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도시로서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 정책환경 구축 필요
- 인천 문화산업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현황 조사에서 장르별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연구조사 필요
- 문화산업 관련 기초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문화산업정책 추진기반 마련

□ 사업대상: 문화산업 전반적 영역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4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인천 문화산업지표조사 정례적 추진
 - 인천문화지표 조사와 연동
- 인천형 문화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 문화산업 영역별 기본계획 수립 지원: 콘텐츠산업/영상산업/음악산업/융복합산업 등
 - 2018년부터 연간 2개 영역 지원
- 인천문화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마련
 - 인천문화산업 관련 세미나 정기 개최 및 연구자 연구 지원
- 문화산업 장르별 산업 현장과 밀착한 정책개발 연구
 - 외부위탁 용역 점진적 축소, 내부 수행연구 확대
 - 문화 산업별 맞춤형 진흥정책 연구 및 지속적 지원강화

□ 추진방안

- 문화산업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의 체계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 문화산업 R&D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
- 문화산업 연차별 R&D 우선순위대로 사업추진 및 확대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콘텐츠과

- 2018년: 문화산업 크리에이터 인력군 발굴 및 양성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 문화산업 전문기관/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한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 운영
- 문화산업 기획·유통 전문인력 양성
 - 콘텐츠창작자(특문화창작지대) 양성 전문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유통 전문인력/다양한 문화산업 신인력군 발굴 및 양성
 -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통한 단계별 사업화 추진 지원 및 장르 간 협력, 인력간의 네트워크 플랫폼 지원
- 문화산업 분야 및 관련 분야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직업군 발굴 및 사회와 연계

□ 추진방안

- 인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설계 및 중장기 양성방안 마련
-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특 문화창작지대 활용 전문인력 육성
-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단계별 시범사업 운영
-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사업의 체계화 및 확산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콘텐츠과, 마이스산업과

5-3 문화산업 전문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
- 문화산업 전문육성 기관 및 문화콘텐츠과 신설을 통해 인천 문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산업 육성의 사회적 기반 마련

□ 사업대상: 인천시

□ 사업기간: 2017년~2022년

□ 사업예산: 추후 예산산정

□ 사업내용

〈문화산업 전문육성 기관 운영〉

- 인천 문화콘텐츠진흥원 분리신설 및 전문화
- 전문육성기관의 주요 역할 및 기능
 - 문화산업 연구조사 총괄기획 조정체계 구축
 - 장르별 문화산업 전담인력 확충과 재배치
 - 기능조직과 장르조직의 R&R 명확화
 - 문화산업의 전반 유관기관과의 총괄 및 조정기능
 - 문화산업별 발전전략 강화 : 한류수출지원, 금융투자 기능 전문화, 문화기술 기능 연계 강화, 창업/창작 중심 산업 지원강화, 기술 및 인프라 지원강화 등
 - 인력양성 및 연구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기능 내실화
 - 문화산업 특화영역 전문육성지원기관 배치

〈문화산업과 신설〉

- 영상·음악·지식정보(VR)산업 등 콘텐츠산업 생산-소비-유통 체계 구축
- 현재 인천 문화산업은 높은 성장률(연 8% 이상)과 고용창출효과(매출 10억 당 10.4명/제조업 5.9명)가 매우 큼. 문화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추진
- 현재 1과 5팀으로 구성되어있는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과로 나누어 2과 8팀으로 직제 개편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문화(콘텐츠)산업과 별도 운영

※ 참고자료 (문화산업 분야 조직 개편 내용)

구분	현 행	개 편	
직제	1과 5담당	2과 8담당	
명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문화정책 문화진흥 문화산업 뮤지엄파크 도서관정책	문화정책 문화진흥 생활문화 뮤지엄파크(시설) 도서관정책	문화산업정책 문화콘텐츠 대중문화산업

- 직제 개편(안)에 따른 부서 간 주요업무와 비전·목표 명확화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 문화진흥, 축제 육성, 생활문화 진흥, 도서관정책 육성·발전, 문화복지, 문화시설, 종무 등
 - 문화콘텐츠과: 문화산업정책, 콘텐츠산업, 대중문화산업, 저작권 등

□ 추진방안

- 문화산업 전문육성기관 운영을 위한 논의 및 협의체 마련
- 문화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및 효율적 조직설계안 마련
- 전문육성기관 및 조직의 운영
 - 업무 조정 및 신설
- 업무효율성 진단 및 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콘텐츠과

5-4 인천 아트마켓 활성화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의 문화산업 내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문화산업 시장 확대 및 활성화 도모
- 인천형 아트마켓 활성화를 통해 문화산업 내수시장 선순환 기반 마련

□ 사업대상: 인천 문화산업 및 관련업계 종사자(인천시 예술인, 공방 등 문화에 스킨콘텐츠 가게 운영자, 창업예정자, 문화기획자 등)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3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유통 플랫폼, 투자지원서비스, 투자 유치 전반에 대한 멘토링,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한 아트마켓 기반 마련
- 문화산업시장 외연적 확대를 위한 아트 페어, 컬처 마켓 오픈 등
- 문화산업 관련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투자 상담, 융복합 문화산업 아카데미와 같은 일련의 문화산업 창업 플랫폼 기반 마련
 - IN 스타트업 벨리: 창업아카데미
 - 융복합 문화산업 아카데미: 문화와 산업 융합한 분야 네트워킹 모임 등

□ 추진방안

- 인천아트마켓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발전방안 마련
- 문화산업 중점 지역을 중심으로 아트마켓 파일럿 프로젝트 구현
- 자치구별 문화지구 아트마켓 운영, 점차적인 정례화로 아트마켓 활성화 유도
 - 관련 심포지엄 운영을 통한 플랫폼 구현
-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체계화 및 확대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콘텐츠과

5-5 선도 문화산업(영상, 음악) 강화 및 문학 육성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 문화산업 영역별 상이한 여건/잠재성에 따른 차별적 활성화 방안 필요
- 인천 문화산업 분야 중 선도 사업 분야 지정, 집중 강화로 인천 문화산업 경쟁력 및 인천 문화산업 브랜드화 제고

□ 사업대상: 인천 문화산업 및 관련업계 종사자 및 인천시민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7,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영상산업 육성 및 강화
 -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적 예산 확대
 - 2018년 30억 → 2019년 40억 → 2020년 50억
 - 인천영상위원회 기능 강화 (예산지원 확대)
 - 사단법인 형태의 현행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 기금 확보 등을 통한 기능 및 위상 강화
 - 영화촬영소 건립
 - 남양주 영화촬영소의 부산 이전에 따른 수도권 영화촬영 수요에 대응
 - 로케이션 중심에서 탈피
 - 영화사 유치
 - 인천국제영상콘텐츠 페어 추진
 - 영상미디어 거리 조성
 - 심정동 주안산단(발로) 인근, 폐공장을 활용한 영상미디어 거리 조성
 - 디아스포라 영화제 확대
 -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다양성 영화제로 육성(국비지원 확대 등)
 - 영화제 개최를 위한 전용 영화관(150석 규모) 건립
- 음악산업 육성 및 강화
 - 인천시 음악의 역사성 반영, 도시 브랜드화 실현
 - 부평음악도시 활성화
 - 개항장플랫폼사업 내 뮤직플랫폼 조성/개항장 음악축제 실시
 - 악기, 음반 축제 개최/ 락, 합창, EDM, INK 등 글로벌 음악축제 개최
 - 지역 음악인 재조명으로 지역 가치 강화

- 윤학원, 송창식, 한상익, 최영섭 등
- 음악대학 유치사업 추진
- 문학 분야 육성 및 진흥 방안 마련
 - 문화산업의 “씨앗”인 문학을 육성하여 문화산업의 기반 강화
 - 근대 한국문학관의 국립기관화
 - 숨겨진 문학 스토리 발굴
 - 인천 배경의 시, 소설 등 문학작품 구입 및 활용이 가능한 지원조례 마련
 - 인천시 문학진흥 지원계획 수립
 - 문학동호회 활성화
 - 생애주기별(씨앗, 청소년, 병영, 노인 문학) 문학창작 활성화
 - 문학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문학 경관 조성사업(문학인의 거리 등)
 - 국립수준(1,000㎡) 문학관 확대
 - 인천 문학답사지도 발간 및 배포
 - 신진 작가 발굴 육성을 위한 문학 오디션 개최/ 문학인 레지던시 확충
 - 공공도서관 내 인천문학 코너 마련
 - 문학축제(국제교류, 문학상 운영 등) 발굴
 - 남북 문학교류 및 통일문학 지원
 -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 개항장플랫폼사업 내 북플랫폼 확장사업과 연계

□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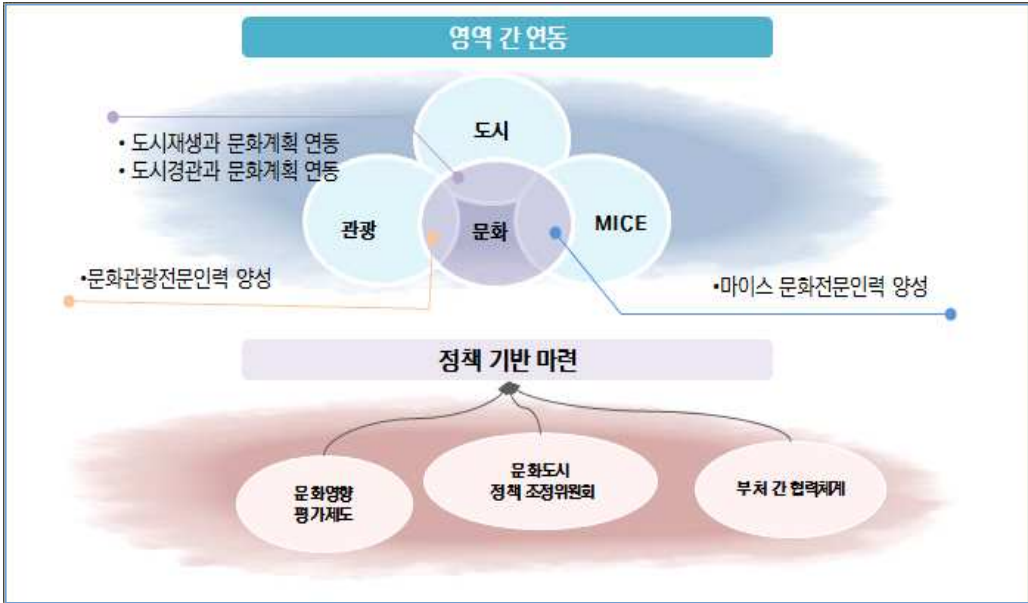
- 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 문화지표 조사 시 병행 조사
 -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
- 선도 문화산업 지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단계별 계획안 수립을 통해 선도 문화산업 지원체계 구축
- 선도 문화산업 운영 및 모니터링
 - 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선도 산업 운영 및 모니터링
 -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평가 및 지속성 마련
 - 선도 산업 운영 경험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 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의거, 후발사업 지원 실시
 - 문화산업의 전반적 활성화 달성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제6절 문화연동: 문화를 기본으로 발전하는 도시

1. 계획방향

[그림 234] 문화연동 범주 계획방향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세심하게 연동되고 통합되어 도시 전반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문화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 특히 도시재생, 도시경관, 관광 등의 영역과는 내용적으로 연동되는 사업들이 많아 정책 간 연동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현재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계획, 경관조성계획, 관광활성화 계획은 문화를 활용한 사업내용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도 긴밀하게 연결됨. 이에 본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 문화연동 범주에서는 도시재생, 도시경관, 관광 등의 영역과 연동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었음.
- 문화연동 범주에서는 문화도시 계획과 관련된 타 영역의 정책 및 실행의 연동을 통해 도시 전반에 문화적 관점이 적용되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문화를 기본으로 발전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함.

2. 정책과제

□ 영역 간 연동

- 본 5개년 문화도시계획과 연동되어야 할 영역은 현재 구체적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도시재생, 도시경관, 관광 영역임. 도시재생계획의 실질적 연동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등 정책기구에 문화예술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도시경관계획과의 연동을 위해서도 관련 정책기구에 문화예술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규정을 추진함. 관광 및 마이스산업 계획과의 연동은 관광전문인력 및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운영계획에 문화예술 관련 역량교육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함.

□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정책기반 마련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과 타 영역과의 연동이 실질적 힘을 가지고 위해 시정책 차원에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운영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함. 또한 문화기본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전반에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실행하고 문화도시 사업추진의 지속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함.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표 129〉 문화연동 범주 세부사업 개요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연도	실행부서	단계
영역 간 연동	도시재생과 문화계획의 연동	2018~2022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정책관	신규
	도시경관과 문화계획의 연동	2018~2022	문화예술과, 도시경관과	신규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2018~2020	문화콘텐츠과, 관광진흥과	확대
	마이스 문화전문인력 양성	2018~2022	문화콘텐츠과, 마이스산업과	확대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정책기반 마련	인천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실행	2018~2022	문화예술과	신규
	인천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운영	2018~2022	문화예술과	신규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018~2022	문화예술과	신규

4. 세부사업 내용

6-1 도시재생과 문화계획의 연동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사업에 문화예술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 회복 및 도시 문화환경 제고
-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기반 마련 및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 사업대상: 인천시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주민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도시재생위원회 문화예술전문가 참여제도 시행
 -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참여율 20% 확보”를 통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원도심재생의 기반 확보
 - 참고: 도시재생위원회 개요
 - 역할: 도시재생 관련 시책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자문
 - 구성: 광역차원 25~30인 이내로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도시재생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설치근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실행주체 구성)



출처: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2016)

- 도시재생 행정지원협의회 내 문화정책 위상 강화
 - 도시재생 행정지원협의회 내 문화관광체육국 담당자 배치(국장)로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참여시 문화관광체육국 위상 강화
-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예술전문가 참여
 -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책자문단 내 문화예술전문가 참여율 20% 확보를 통해 문화를 통한 재생사업 추진
 - 참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요
 - 역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총괄 지원기능 수행
 - 센터 내에 정책제안, 재생사업 추진 등 사업 자문활동을 위한 자문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
 - 시민대표, 전문가,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 15인 내외로 구성 및 운영
 - 문화예술 전문가
- 문화공동체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참여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문화공동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문화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 추진
- 문화주체 참여를 위한 조례 변경
 -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시 문화공동체 및 문화예술전문가 참여 규정 삽입(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2016)
- 실행(예정) 사업에 문화예술전문가 참여제도 반영
 -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각종 개발사업 법정위원회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20% 구성 원칙 수립 및 제도 정착
 - 인천개항창조도시 사업/강화군청 주변부 재생 사업/폐산업 부지 활용 재생 사업/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등에 반영

□ 추진방안

- 부처 간 정책협의
 - 도시재생 실행 주체에 문화예술 전문가 참여 가능토록 협의
- 시범사업 운영 후 단계적 사업 확대
-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 및 사업 확산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정책관

6-2 도시경관과 문화계획의 연동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에 문화예술 관점 적용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경관 질적 제고 및 문화도시 이미지 구현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도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문화예술 전문가 참여
 - 일체화된 문화도시 실현
- 신도시조성 경관계획에 문화예술 전문가 참여로 건축예술도시 지향
 - 새로운 건축물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건축협의회 구성
- 공공미술작품 설치로 도시경관 개선

※ 참고자료 (인천시 경관유형별 목표)

유형	목 표		
시가지	국제 도시의 매력있는 경관연출	주거지	지역을 정체성으로 연계하는 아름다운 주거지경관 형성
		상업지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상업지경관창출
		공업지	밝고 활기찬 공업지역 경관창출
야간	Feel Good city		
수변	친수공간의 확대와 친환경적 개발유도		
역사·문화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함께 기억과 경험을 담는 경관창출		
도서	서해연안도서만의 특색을 살린 경관창출		
자연녹지	자연녹지의 보존과 단절녹지축의 연결		
공공디자인	다양한 특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있는 도시환경 창출		
색채	인천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인천시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고유의 색채환경 조성		

출처: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2010)

□ 추진방안

- 부처 간 정책협의-도시경관사업 실행주체에 문화예술전문가 참여 협의
- 시범사업 운영 후 단계적 사업 확대
-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도시경관과

6-3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기획자와 관광을 연계하여, 질 높은 문화관광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천지역 전문적 관광기획자 체계적 양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 문화기획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관광콘텐츠 전문인력 발굴
 - 문화기획자가 관광기획자가 될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
 - 문화자원을 관광경험과 결합되는 콘텐츠로 전환하여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문화관광콘텐츠 전문인력 발굴
 - 예술대학 내 관광관련 커리큘럼 개설
 - 예술대학과 관광사업체 간 산학연계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문화예술 소양교육 강화
 - 현행 기본소양(해설사의 의미와 역할, 관광서비스마인드)교육내용 개선
 - 문화예술 관광자원 집중교육을 통해 질 높은 해설 서비스 제공
 -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객 대상 평가 실시, 교육 환류체계 구축
- 틈 문화창작지대 활용 전문인력 육성
 -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서비스 교육 실시
 - 문화예술과 관광의 접점 마련을 통해 창작활동의 산업화 지원
 - 「인천광역시 틈 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교육 관련 내용 추가 및 교육 참여 시 사용료 감면 정책 추진

□ 추진방안

- 문화관광 전문인력 수요 및 시장 조사
-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시범운영 후 평가, 환류
- 피드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수정 후 확산 실시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콘텐츠과, 관광진흥과

6-4 마이스 문화전문인력 양성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MICE 산업과 문화예술의 결합을 통해 MICE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인천 특화 MICE산업 육성
- 문화예술과 결합하여 특화된 인천 MICE산업을 통해 인천시 위상 강화

□ 사업대상: MICE 분야 교육 인력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MICE분야 전문인력 대상 문화예술교육
 - 대상: 인천대, 인하공전, 재능대, 경인여대 MICE분야 전문인력
 - 내용: 문화예술 관련 커리큘럼 개설
 - 산학연계 추진 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내용 공유 및 합의
- 영 마이스 리더 양성 사업 연계
 - 영 마이스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문화예술 소양교육 포함
- 인천 특화 MICE 산업 육성
 - 문화예술 코드를 내재한 MICE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천 특화 MICE 산업 발전
 - MICE 인력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 관광객 접점에 있는 MICE 산업 종사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 마이스 도시 진입에 대비한 마이스 문화전문인력 확보
 - 국제회의 개최 2016년 국내 4위 → 2022년 국내 2위 진입 목표
 -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영종복합리조트 확대에 부응

□ 추진방안

- 마이스 문화전문인력 수요 및 시장 조사
- 마이스 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시범운영 후 평가
- 피드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수정 후 확산 실시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콘텐츠과, 마이스산업과

6-5 인천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실행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시 정책계획 및 실행 시 문화적 영향을 제고하고 시민문화권을 보장하는 문화영향평가제 도입·실행을 통해 사업의 질적 강화 및 문화도시 구현 기여
- 문화영향평가제 실행으로 인천시의 문화경쟁력 상승효과 기대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동 법에 기초하여 수행하되, 인천시 여건에 맞게 인천형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 2018년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범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환원하고, 2019년부터 본격 실행
- 시/자치구의 주요 사업계획, 정책계획 실행에 앞서 문화영향평가 실행, 그 결과 환류를 통해 문화적 영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획의 수정·보완한 후 사업 실행

※ 참고자료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제 시행(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조사대상: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조사시행: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문화영향평가제 시행

조사요청: <문화체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요청, 요청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대상 계획, 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 제출 필요)

평가기관 지정: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 추진방안

- 문화영향평가모델 개발(평가지표/평가방법)
 - 문화영향평가 전문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모델 개발
 - 문화영향평가 대상 인천시 사업계획/정책계획 선정: 인천시가 발표한 5대 주권분야(복지, 문화, 해양, 교통, 환경) 관련 계획에 중점
-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및 평가결과 검토
 - 문화영향평가제 시범 운영 및 결과를 반영한 평가모델 수정·보완
 - 인천시/자치구 관련 담당자 대상 문화영향평가 모델 공유·확산을 위한 <공유 워크숍> 운영
- 문화영향평가 본격 실행
 - 문화영향평가제 실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6-6 인천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운영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통합적·효과적인 문화도시 사업 추진
-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정책추진 및 지속적인 소통체계 마련

□ 사업대상: 인천시 각 부처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목적: 실제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확립
 - 대상: 문화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인천시 11개 국 부처
 -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현안 발생 시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문화도시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협의, 자원조달계획 수립 등 사업지원방안 마련
 - 시장(부시장) 직속 기구로 편성하는 등 조직 활동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TFT 형식 등 협력체계 구체화 노력 병행
-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조례 설치 운영
 - 문화도시 조례 제정 시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항목 추가
 - 문화와 연동되는 도시영역 간 문화도시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도시재생, 건축, 조정 등의 도시개발영역과 문화도시 정책간의 연동 및 정책방향 조정
 - 부처 간 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항목을 통해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조례 지정 예시〉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와 연동되는 도시 영역 간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영역과 문화도시 정책의 연동에 관한 사항
4. 부처 간 협력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정책 연동에 관한 중요사항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③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③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전문 의원 ① 위원회 내 전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 ② 전문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③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추진방안

- 인천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책합의안 도출 및 조례 제정
- 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가동을 통한 문화도시 계획과 도시계획 간 연동 구현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6-7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도시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천 문화도시 실현 구체화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의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사업대상: 문화도시 세부사업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5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도시 정책추진에서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진하고 과제 추진과정과 실적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 ‘각 연도별 인천 문화도시 추진사업 성과평가 연구’ 사업 팀 운영
 - 2018년 이후 연도별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세부사업 추진실적 평가, 핵심성과지표 점검 및 분석
 - 용역에 의한 사업 팀 운영으로 사업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연도별 시행과제의 각 부처별 자체 평가보고서, 결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등 평가
 - 성과 부진 과제의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 평가
 - 평가결과 분야별(영역별) 총괄평가 및 종합분석을 통해 성과 및 한계점 도출
 - 부진 과제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해 향후 정책 개선방향 제시
 - 세부 내용
 - 성과평가 및 분석 설계(전문가 의견조사 및 간담회 개최)
 - 정책성과에 대한 분석
 - 핵심성과지표 분석
 -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FGI, 간담회 등 개최)
- ‘인천 문화도시 종합평가’ 추진
 - 2022년도 사업 종료 이후 종합 평가 실시
 -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문화도시 계획 수립 시 반영을 위함
 - 부진사업에 대한 사후 이행관리·점검 등 사후 성과관리체계 구축

- 문화도시 정책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등에 이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제6항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추진방안

- 2018년도 이후 매해 성과평가 연구 수행
- 2022년 계획년도 종료 후 종합평가 연구 수행
- 연구사업 용역에 의한 전문성, 효율성 확보

※ 참고자료 (성과관리체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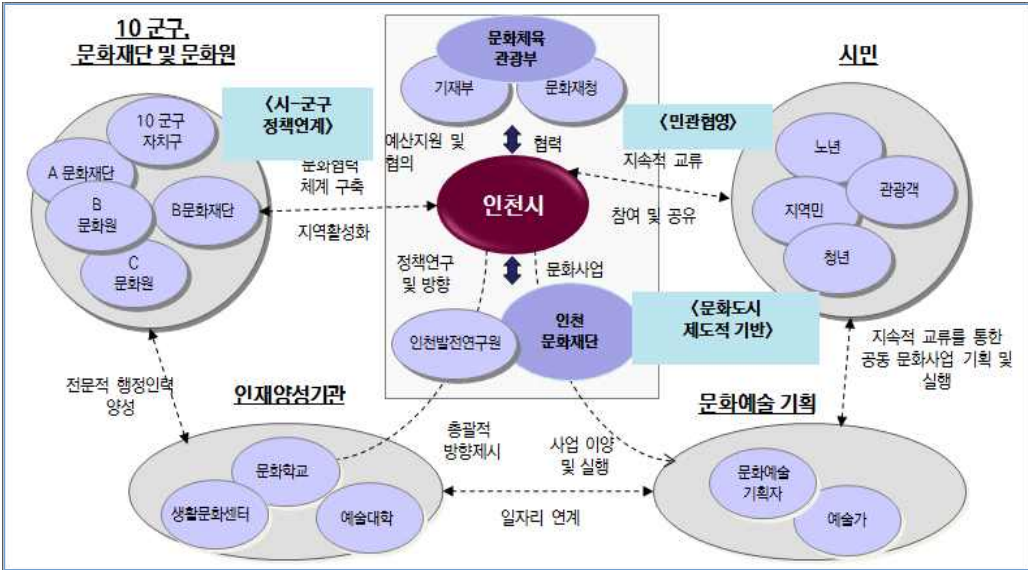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제7절 문화협영: 민관이 협영하고 정책간 연계가 원활한 도시

1. 계획방향

[그림 235] 문화협영 범주 계획방향



- 문화도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민관 정책추진 주체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본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에서는 ‘협치’보다 적극적 개념을 새롭게 적용하여 ‘협영’의 관점에서 시-자치구 간 정책 연계, 민관 정책협력 및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더불어 문화주체의 중심인 인천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축에도 주안점을 둬.
- 문화협영 범주에서는 다양한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인천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 안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민관이 협영하고 정책 간 연계가 원활한 문화도시”를 지향함.

2. 정책과제

□ 민관 협업

- 민관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향식 문화도시 정책추진의 경험적 기반을 조성함. 이를 위해 시민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문화도시 정책 아젠다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문화포럼을 운영하고, 시, 군구,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정책 실행 주체들의 문화도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함.

□ 시-군구 정책 연계

- 자치구별 문화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해 지역문화진흥을 매개할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 자치구별 문화재단 설립에 맞추어 조례 제정,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규명,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되어 수직적 정책체계가 아닌 수평적 소통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결정 구조를 마련함.

□ 문화도시 추진 정책적 제도 마련

- 문화도시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립함.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정책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문화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표 130〉 문화협업 범주 세부사업 개요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연도	실행부서	단계
민관 협업	문화도시 정책협의체 구축	2018~2022	문화예술과	신규
	인천문화포럼 운영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시-군구 정책연계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2018~2022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문화도시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 문화도시 조례 제정	2018	문화예술과	신규
	문화정책 전문연구기관 지정	2018~2022	문화예술과	신규

4. 세부사업 내용

7-1 문화도시 정책협의체 구축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시의 다양한 정책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협력 및 교류 시스템 마련으로 문화도시 추진력 강화
- 광역과 기초 간 원활한 정책적 소통을 위한 채널확대로 문화정책의 체계성·연계성 확보 및 정책 공감대 확산
- 다양한 사업들과 관련 주체들의 상호이해를 통해 인천문화도시로서의 방향성 및 관련 사업들의 효율성 향상

□ 사업대상: 시, 자치구, 인천문화재단, 인천발전연구원 등 인천 주요 문화연구기관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5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도시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 자치구, 인천문화재단, 인천발전연구원, 문화콘텐츠진흥원(가칭) 등 유관기관들로 정책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공유감 확산을 위한 포럼 (예시-‘인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길’) 운영
- 분기별 문화도시 정책협의회 운영
 - 분기별 협의회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 문화도시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구현을 위한 다양한 협조체제 구성
 - 연 4회, 분기별 정책협의회 개최
 - 문화도시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예술계 현안에 대한 담론과 논의

□ 추진방안

- 시, 자치구, 인천문화재단, 인천발전연구원 등 인천 주요문화연구기관 간 정책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공조체제 구현을 위한 MOU 체결
- 문화도시 정책협의체 운영세칙 마련 및 운영 체계화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7-2 인천문화포럼 운영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문화주권 사업의 분과(그룹) 형성으로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액션 플랜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
- 현장감 있는 소통을 통해 시민과 문화계가 함께하는 협력형 문화정책 네트워크 기반 마련 및 문화도시 정책개발 및 추진의 담론의 장 구축

□ 사업대상: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인천시 문화예술 종사자 및 관계자, 청년문화기획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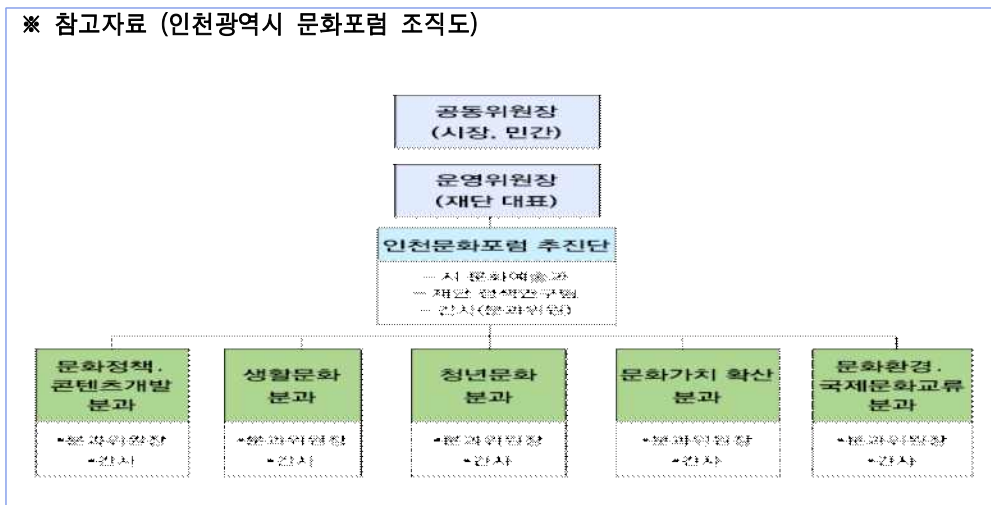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3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문화예술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 문화주권 사업의 실천방안 논의 및 분과위원회별 네트워크 구축
 - 5개 분과 구성: ① 문화정책·콘텐츠개발 분과, ② 생활문화 분과, ③ 청년문화 분과, ④ 문화가치 확산 분과, ⑤ 문화환경·국제교류 분과
 - ※ 시민문화현장, 청년세대 문화포럼 등 포함
- 인천 문화도시 거버넌스의 소통체계 역할 수행

※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문화포럼 조직도)



□ 추진방안

- 인천문화포럼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
 - 문화포럼 설립·운영 지원근거(조례) 마련 및 활성화
- 인천문화포럼 지속적 운영
-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방향의 조정 및 보완 지속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7-3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자치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예술진흥 거점기관 육성 필요
- 자치구 문화정책 추진의 전문성 제고 및 문화 일자리 창출 효과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9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자치구별 기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등 중간지원조직 전문화 지원
- 군구 단위 기초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광역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 문화정책개발) 및 기초문화재단(생활문화 활성화)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구분을 위한 지원

□ 추진방안

- 군구 단위 기초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기초문화재단 설립지원: 설립을 위한 컨설팅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 기초문화재단 설립지원체계 구축 및 기초문화재단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지원
- 기초문화재단 운영지원: 기초문화재단 운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1:1 맞춤형 운영 컨설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기초문화재단 운영모델개발 연구 추진
-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인력 교류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7-4 인천 문화도시 조례 제정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연속성을 담보한 담당 공무원의 배치가 필수적임.
- 문화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인천시는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도시 협영(협력경영) 기반 마련

□ 사업기간: 2018년

□ 사업예산: 추후 예산산정

※ 부천의 지역문화진흥 ‘문화법제 체계화’ 사업 중 다양한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와 법제화 예산(약 30백만 원)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 있음.

□ 사업내용

- 인천시민 문화주권 보장, 시민의 생활문화진흥,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자치 기반 구축의 주요내용을 담은 문화도시 조례 제정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법>,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주요 내용 구성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p.122 이미지 발체

※ 인천 문화도시 조례 주요내용

- 시민문화권 보장 및 창조인력군의 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 보장
-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과 활성화/소수자를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
- 인천형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및 실행
- 인천문화지표조사 및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정례 추진
- 문화도시 시민플랫폼 운영 및 다양한 플랫폼 활성화 지원
- 문화도시 정책협의체 구성 및 문화도시 정책담당관 배치

- 문화도시 정책담당관 배치
 - 문화도시 계획 실행을 위해 5개년 근속 전담 정책담당관 배치
 - 문화도시 정책실행 총괄 관리직 수행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TFT구성 및 운영

□ 추진방안

- 2018년 상반기: 인천 문화도시 조례제정위원회 구성 및 발의
 - 문화도시 정책추진 관련 민간/기관/학계 50인으로 구성된 ‘조례제정위원회’를 통해 문화도시 조례 제정
 - 문화부시장 제도에 대한 논의 및 현실화 방안 고려
- 2018년 중반기: 인천 문화도시 조례 공포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7-5 문화정책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인천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화된 연구기관 지정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전사적인 연구수행 기반 마련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5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전문기구 설치 또는 지정을 통한 인천문화정책 연구의 전문화 및 다양하고 실질적인 연구 수행
 - 인천 문화지표조사 정례적 추진 및 DB관리
 - 인천 문화 분야 통계·현황 등 통합적 정보관리
 - 자치구 문화지표조사 추진 지원 및 인천지역 문화현황 결과 통합
 - 문화도시 연계 사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실효성 있는 지원
 - 인천문화정책의 조사, 연구, 모니터링, 평가

□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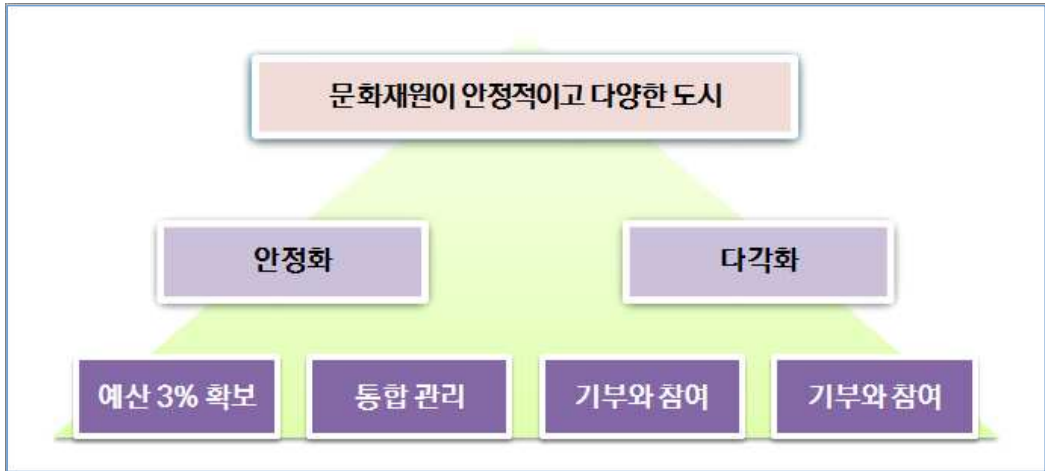
- 현재 인천 문화연구 수행조직의 타당성 및 역량 검토
- 전문연구기관 간 역할과 기능의 중복성 검토를 통한 정체성 정립
- 전문연구기관 설치 또는 지정
- 전문연구기관 미션과 비전 설정 및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후 공감대 확산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제8절 문화자원: 문화재원이 안정적이고 다양한 도시

1. 계획방향

[그림 236] 문화자원 범주 계획방향



- 문화도시 비전 실현에 있어 문화재원은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국내외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타 도시들은 꾸준히 재원을 늘여가고 있음. 인천시 또한 지속적인 재원확충을 통해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사안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본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에서는 인천 문화주권계획이 제시한 <문화시민 3.0 도시> 재원확보 계획과의 연계선상에서 문화도시 재원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재원 다각화 방안의 적극적 모색과 문화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수립함.
- 문화도시 정책추진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문화재원이 안정적이고 다양한 도시”를 지향함.

2. 정책과제

□ 인천 문화예산 확충 및 안정화

- 인천 문화주권계획에 연장선상에서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을 확대함. 인천 시시 차원에서 문화재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단계적으로 문화예산 3.2% 도시를 추진함. 또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문화관련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모색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인천 문화재원 다각화

- 인천의 문화적 자부심 고취를 통해 문화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기업과 예술의 상호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인천 메세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

3.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표 131〉 문화재원 범주 세부사업 개요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연도	실행부서	단계
인천 문화예산 확충 및 안정화	문화예산 3.2% 도시	2017~2021	문화예술과	확대
	인천 문화관련 예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8~2022	문화예술과	신규
인천 문화재원 다각화	문화기부 참여 1위 도시	2018~2022	문화재단	확대
	메세나사업 활성화 방안 구축	2018~2022	문화재단	확대

4. 세부사업 내용

8-1 문화예산 3.2% 도시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타 특·광역시 대비 낮은 문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은 문화예산 확보
- 전국 최소 3위 수준의 문화예산을 확보한 광역시로 자리매김

□ 사업기간: 2017년~2021년

□ 사업내용

- 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 재정공시 기준,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인 문화예산 수준을 2022년까지 3.2%대로 확대하여 3순위대로 진입
 - ※ 문화예산이란, 체육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 문화산업, 예술회관, 도서관·박물관, 문화재와 관광/MICE 분야 포함 예산

※ 참고자료 (2016년 특·광역시 문화관광 예산 비율 순위)

순위	구분	전체 예산	문화관광 예산	비율
1	광주	31,281	1,149	3.67
2	대전	28,007	862	3.08
3	울산	24,075	737	3.06
4	부산	75,913	2,287	3.01
5	대구	51,427	1,244	2.42
6	서울	275,037	5,498	2.00
7	인천	58,573	1,113	1.90

□ 추진방안

- 단계적 문화예산 확대를 통해 2022년 문화예산 3.2% 달성
 - 1단계: 2020년까지 문화예산 3.0% 달성(문화주권계획)
 - 2단계: 2022년까지 문화예산 3.2% 달성
 - 문화재단 기금 지속적 확대 및 기금 다양화 방안 마련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예산비율	2.2%	2.5%	2.8%	3.0%	3.2%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8-2 인천 문화관련 예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통합 문화예산관리를 통한 재정 운영으로 전략적인 문화사업 추진
- 향후 문화예술분야 예산 확보 및 증대를 통한 재정 안정성 강화

□ 사업대상: 인천시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및 문화원, 인천 영상위원회,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 문화예술관련 부서 등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각 부처별, 기관별 문화예술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통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
- 국가 지역문화예산 정책에 대응하는 지자체 예산 계획 마련
- 문화재정 종합 검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 문화 분야 총액예산제, 기금 도입 등 주요 예산 운영 방안 협의/마련
 - 예산 통합관리를 위한 워크숍, 토론회 약 12회

□ 추진방안

- 각 부처별 문화관련 예산에 대한 조사
- 통합 예산 구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
- 통합예산 시범 운영 실시
- 문화분야 예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지속적 성과관리

□ 실행부서/주체: 인천시 문화예술과

8-3 문화기부 참여 1위 도시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주체들의 후원 및 기부 활성화를 통한 인천 문화재원 다각화
- 기부 참여방법의 다양화·다각화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기부문화 가치 확산

□ 사업대상: 인천시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21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다양한 사업 및 캠페인 운영으로 문화기부 후원을 확대
 -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소셜 펀딩 운영
 - 2022년 문화기부 시민 1000명, 기업참여율 전국 1위 달성
 - 예술프로젝트와 기업 사회공헌 사업 결연 프로그램 추진
- 단계별 기부금 사업프로그램 개발
 -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기부 펀딩 제도 마련, 소액다건 ARS기부 및 기부금 모금함 배치, 일정금액 이상 기부한 회원에게 등급을 나누어 특별 예우, 문화기부 기업에 인증서 등
 -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커뮤니티사업 기획·개발
- 인천소재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목표액 1000억 달성
- 아트레인 멤버십 활성화
- 문화재단 기금 운영의 효율화 방안(조례 개정) 수립

□ 추진방안

- 인천문화예술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한 기부, 후원, 모금 계획 수립
-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실시
- 기부금 모금 관련 중간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방향성에 대한 모색

□ 실행부서/주체: 인천문화재단

8-4 메세나 사업 활성화 방안 구축

확대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기업 기부 확산을 통한 예술인/단체의 민간재원 유치, 기업 기부문화 확산 및 풍부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인천 문화예술의 질적 발전 도모
- 인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다각화와 문화예술인/단체의 자생력 강화 방안 마련

□ 사업대상: 인천시 거주 문화예술인, 예술단체, 기부 의사가 있는 기업 등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사업예산: 1,000백만 원(추정)

□ 사업내용

- 기업의 기부가 확정된 예술단체에 기부금만큼 1:1 매칭 지원 확대
- 기부프로그램 지속운동을 위한 문화기부 전문단체 조직 내실화
- 민관 연계·협력의 <인천문화기부 네트워크> 운영
 - 인천문화후원의집(기부참여업체/업소), 지정기부플랫폼, 인천문화재단 아트레인, 소셜펀딩플랫폼 등이 모두 연계되는 기부문화플랫폼 구축



□ 추진방안

- 기업 메세나 프로그램 기획 개발
- 민관협업을 통한 지역특성화 매칭 펀드 개발
- 인천문화기부 네트워크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정립

□ 실행부서/주체: 인천문화재단

5 추진 로드맵 및 재원조성 계획(안)

-
- 제1절 인천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구축을 위한 사례검토
 - 제2절 인천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 제3절 인천 문화도시 재원조성 계획(안)

제1절 인천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구축을 위한 사례검토

1. 요코하마 창조도시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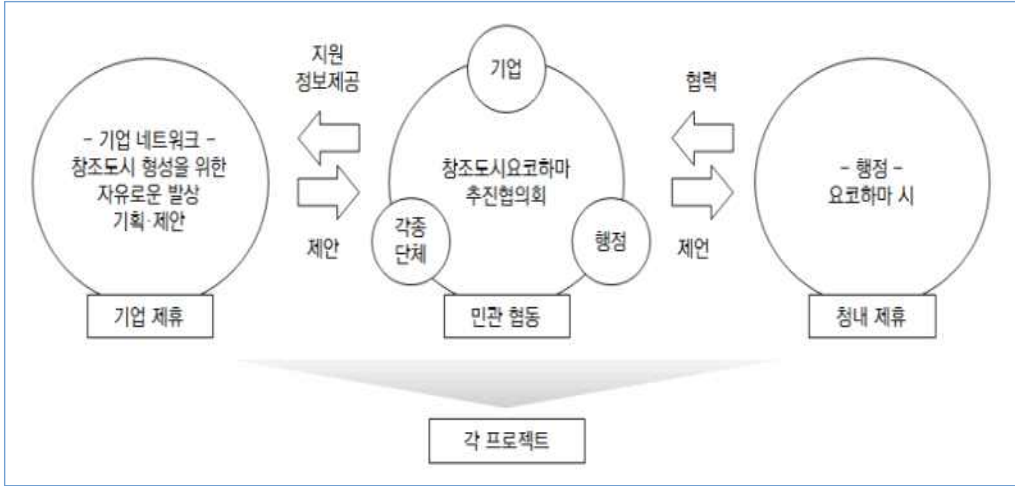
□ 요코하마 창조도시 사업 개요

- 일본 최초로 개항한 물류, 항구도시인 일본 요코하마시는 문화·경제적 측면에서 감소하고 있던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자 2004년부터 근대역사건축물과 많은 산업시설을 보존, 활용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의 창조적 역량을 높이는 창조도시 정책을 추진하였음.
- 요코하마시는 창조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창조지구 건설, 예술가 지원 및 차세대 육성,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도시 전역에 걸친 예술축제 개최, 문화예술 허브 도시 등의 전략을 추진함. 그리고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과 ‘경제진흥’ 등의 비물리적 시책과 ‘마을만들기’와 같은 물리적 시책을 동시에 실시함. 주요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창조지구 건설: 누구나 도보로 즐길 수 있고, 개성 있고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에 위치한 다양한 주체가 주도하는 창조지구의 건설
 - 예술가 지원 및 차세대 육성: 재능 있는 예술가와 창작자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요코하마의 미래를 담당할 차세대의 풍부한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을 통한 예술가 및 창작자의 육성·지원과 차세대 육성
 -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예술가·창작자 등 창조인력과 기업·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창조적 산업 진흥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 예술축제 개최: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국제전으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풍요로운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트리엔날레를 도시 전체의 축제로 개최
 - 문화예술 허브 도시: 창조도시 요코하마의 국내외 홍보와 교류를 통해 세계의 예술가와 창작자가 모이는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로 발돋움

□ 창조도시 요코하마 사업 추진체계: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협의회

- 요코하마시는 창조도시 요코하마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업 및 단체와 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둔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음.

[그림 237] 창조도시 요코하마 사업 추진체계



출처: 크리에이티브시티·요코하마의 형성을目指した推進体制·提言書(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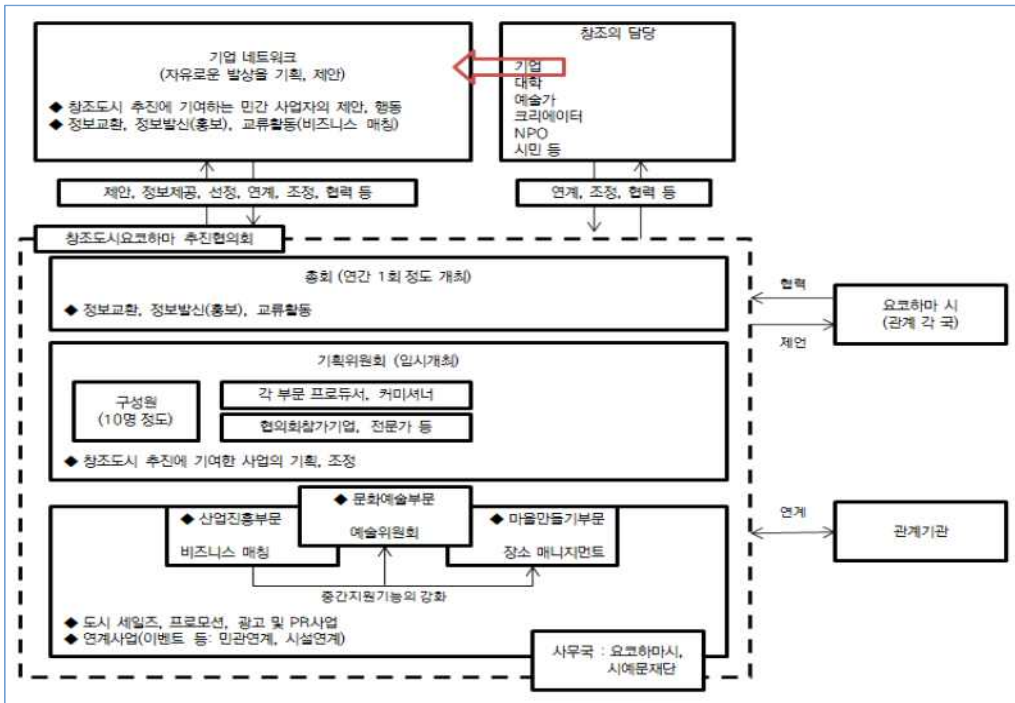
-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협의회(2007 ~ 2010)’는 창조도시 추진의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며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기업 네트워크 및 요코하마시 행정과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함.
 - 창조도시 형성과 관련된 기업·각종단체·행정 간 상호연계의 중심이 됨.
 - 사업의 기획·조정, 포괄적 홍보 등을 수행하며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창조도시 추진을 도모함.

-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협의회’는 요코하마 창조도시 사업추진의 계획과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임.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창조도시 사업의 추진력 강화, 관계자들 간의 정보교류와 적재적소에서 사업 추진 및 담당자 지원, 전문 프로듀서제 사업 추진을 통한 문화예술·산업진흥·마을만들기의 일체적·종합적 사업 실시, 열린 행정을 통한 투명성 높은 프로젝트 운영, 선진적 도시와의 연계 및 시민 공감과 참여기회 확보 등이 있음.

- 연간 1회 개최되는 총회에는 기업, 정부, 각급 단체(요코하마 시, 칸나가와 현, 요코하마 상공회의소, (주)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21, 요코하마시 예술문화진흥재단, 공익기업(도쿄전력, 도쿄가스, NTT동일본), 기업 네트워크 등)의 대표자가 참가하여 정보의 교환·발신·교류활동과 함께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함.

- 또한 수시 개최되는 기획위원회는 각 부문의 프로듀서·코디네이터 및 참가 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각 부문 관련 사업 등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함. 사무국에서는 기업의 제안 등 각 추진 사업의 일상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 내 조정, 정보제공, 사업연계 등을 수행함.
- 창조도시 요코하마 도시정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기업 네트워크에서는 기업 간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가 이루어짐. 이를 통해 창의적 활동과 사업이 기획·제휴·실행됨으로써 요코하마를 무대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함.
 - 다양한 기업의 참가 유도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해 감.
 - 민간의 입장에서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협의회에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해당 제안 사업을 실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그림 238] 창조도시 요코하마 거버넌스 체계



출처: 크리에이티브시티·요코하마의 형성을目指した推進体制·提言書(2007)

- 한편 2004년, 2010년, 2012년에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협의회’에서 제출한 정책보고서를 살펴보면 창조도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시민생활 향상으로, 물리적 환경 조성에서 비물리적 환경 조성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빌바오(Bilbao) 도시재생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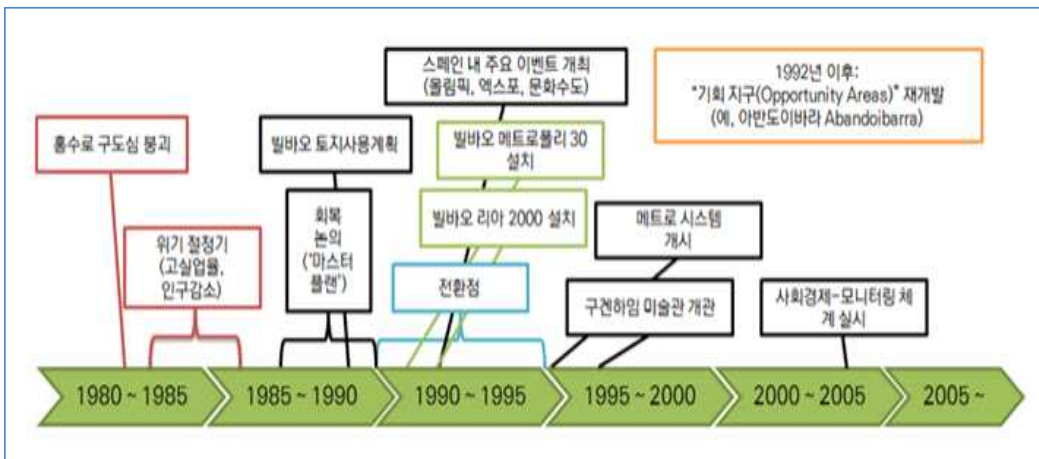
□ 빌바오 도시재생 사업 개요

- 스페인 빌바오시는 역사적으로 풍부한 철광석 생산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중심지이자 항구도시로 1980년대까지 스페인의 금융 및 철강산업 중심지로서 바스크(Basque)주 전체의 경제 중심지였음. 그러나 철강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급속히 경쟁력을 잃음에 따라 도시 실업률 24%를 기록할 정도로 도시가 쇠퇴하고 1983년에는 유래 없는 대홍수로 심각한 위기에 처함.
- 이에 빌바오시는 1983년 홍수피해 복구를 비롯해 도심을 복원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도시재생사업 실시하게 됨. 1985년 15명의 법률가, 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빌바오 도시재생협회가 설립되고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1991년 기존의 철강 등 전통산업기반이 아닌 문화적 접근방법의 도시재생 전략안을 수립함(Strategic Plan for the Rvitalisation of Metropolitan Bilbao).
- 1991년 빌바오시는 도시재생 전략안의 효율적·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전문 기구로 빌바오 도시전략을 연구하는 민관 합동 연구소인 ‘빌바오 메트로폴리-30(Bilbao Metropoli-30)’과 각급 정부가 모여 설립한 도시재생 추진공사 ‘빌바오 리아 2000(Bilbao Ria 2000)’을 설치하여 운영함.
- 빌바오시의 도시재생 전략은 빌바오를 21세기에 걸맞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리적 재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사회, 환경의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차원으로 접근함.
- 총 4개의 ‘기회 지구(Opportunity Areas)²⁹⁾’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되었으며, 빌바오 리아 2000을 통해 560백만 유로의 자금이 투입되어 사업이 수행되었음. 아반도이바라(Abandoibara)는 가장 상징적인 지역으로 빌바오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은 약 184백만 유로의 투자를 통해 지역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이었음. 1997년 완공된 구겐하임 미술관이 가장 대표적인 공공사업으로 약 144백만 유로가 소요되었으며 바스크정부와 빌바오시가 전체 자금을 조달함(김우영, 2012).

29)Abandoibarra, Zorrozaure, Ametzola/Eskurtze, Miribilla and Morro의 4개 지구.

- 빌바오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강을 정화하고 강변을 따라 도심의 문화공간과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빌바오를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로 바꾸었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적 건축가들이 참여한 도시 건축물들에 힘입어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게 됨.
- 빌바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이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국제적 랜드마크 효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주목해야 함. 빌바오 박람회장, 우스깔두나 콩그레스 뮤직홀, 사무디오 기술단지, 파인아트 뮤지엄, 빌바오 국제공항 등 수많은 개·신축에서 빌바오 지하철, 아반도이바라, 소로사우레 등 지구단위 개발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오랜 과정을 통해 빌바오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가 구축되었기 때문임.

[그림 239] 빌바오 도시재생의 연도별 주요 사건



출처: Bilbao City Report(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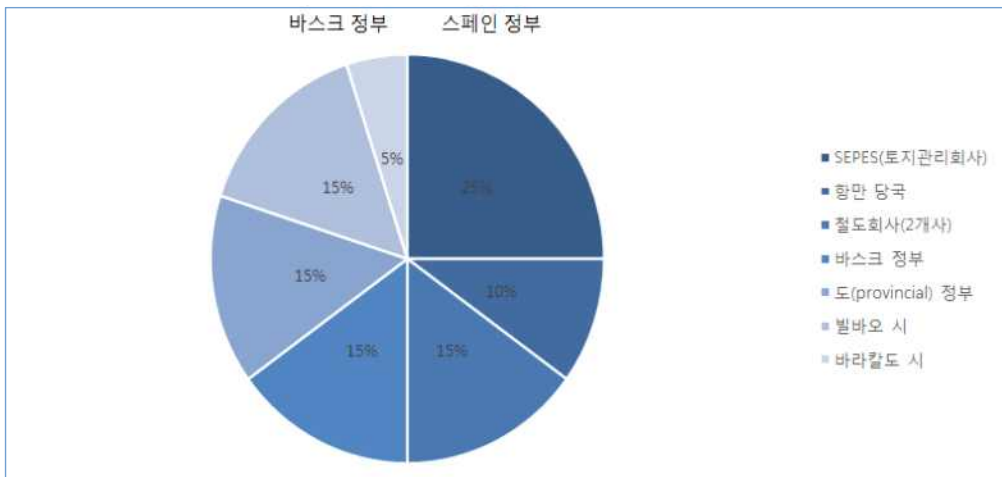
- 빌바오 도시재생 사업 추진체계: 빌바오 메트로폴리-30과 빌바오 리아 2000
- 빌바오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체계의 핵심인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빌바오 도시전략을 연구하는 민관 합동 연구소로서 싱크탱크이며 로비 조직이자 투자 촉진자임. 공공과 민간의 연결, 빌바오의 새로운 이미지 홍보, 미래 청사진 제시 등의 역할을 통해 빌바오 도시재생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함.
- 시 정부, 은행, 대학, 정유회사, 철강회사, 철도공사, 건설회사, 미술관, 항공사 등이 포함된 19개 회원조직으로 시작하여 현재 140개 단체회원에 80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음. 빌바오 시청 역시 140개 회원의 일부로서 참여할 뿐, 민간을 위한 행정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 빌바오 메트로폴리-30은 민관이 50대 50으로 회비를 부담하며, 관련 연구 주제에 따라 실무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메트로폴리-30의 연구 성과는 메트로폴리-30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시행하는 회원단체의 계획안으로 진행되며, 이는 연구와 수행의 성과를 참여 회원 단체에게 돌리는 것임.
- 빌바오 리아 2000은 1992년 ‘기회지구’의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각급 정부가 모여 설립한 도시재생 추진공사이며 초기 자금은 중앙 및 지방정부, 유럽 연합에서 출연되었음. 초기 자금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빌바오시 재생사업의 주요 계획과 사업 실행의 사업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

[그림 240] 빌바오 리아 2000의 점유율 분포

(단위: %)



출처: Bilbao City Report(2007)

- 빌바오 리아 2000에서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 역시 공사의 이름으로 완공되어 어느 정부나 정당의 치적이 되지 않음. 이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들이 빌바오 시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과 합의를 이뤄내는 모델을 제시해 준 것임(이남표, 2015).

3. 인천 문화도시 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시사점

□ 사업추진의 총괄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문화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정책실행이 가능한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일본 요코하마시에서는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추진하였고 빌바오시에서도 도시재생협의회에서 시작해 보다 확장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기구로 설립한 ‘빌바오 메트로폴리-30’과 ‘빌바오 리아 2000’을 통해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민관을 중심으로 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

- 문화도시, 창조도시 또는 도시재생 등은 특정한 장르, 분야, 영역을 특화하여 발전시키는 차원을 넘어 도시 전반의 발전을 지향하는 전략임. 때문에 사업을 추진에 있어 특정 단위의 조직체계가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에 기반을 둔 다양한 민간 영역과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유형의 관 영역이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요코하마 창조도시 사업과 빌바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인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민간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 체계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민간 거버넌스 조직은 총괄 관리체계에서부터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다양한 단위사업의 실행체계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꾸준히 전개될 때 시민이 주축이 되는 문화도시로 성장해갈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 및 독자적 역할의 중요성

- 요코하마시나 빌바오시의 사업 추진체계를 통해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사업추진 과정에 다양한 민간 주체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독자적 역할을 존중하였다는 점임.
- 요코하마시는 시민 주도의 창조도시 만들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시민, 기업, 대학 등) 참여를 다양하게 구축하였고 빌바오시도 시 정부, 은행, 대학, 정유회사, 철강회사, 철도공사, 건설회사, 미술관, 항공사 등이 포함된 19개 회원조직으로 시작하여 현재 140개 단체회원에 80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문화도시 추진체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긴 호흡의 추진과정 필요

- 요코하마시와 빌바오시 등 창조도시 및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사업 추진체계를 단계에 따라 확장하면서 긴 호흡으로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음. 인천 문화도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절차적, 점진적으로 사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범위와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장해가는 것이 필요함.

□ 종합: 인천 문화도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서의 원칙들

- 첫째, 거버넌스 체계에 직접적인 시민 참여구조를 다양하게 확보하도록 함.
- 둘째, 문화도시 사업내용에 따라 절차적, 점진적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범위와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장하도록 함.
- 셋째, 일반시민, 예술가, 문화기획자, 연구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민간 단위를 싱크탱크로 유인하며 성과 공유를 통해 소모가 아닌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
- 넷째, 실행력 높은 추진단위의 창설 또는 운영을 통해(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협의회, 빌바오 리아 2000의 예) 사업의 추진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인천시와 자치구 등 각급 정부의 수평적 관계 구축을 통해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설정해야 함.
- 여섯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합리성과 유연성을 담보해야 함.

제2절 인천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1.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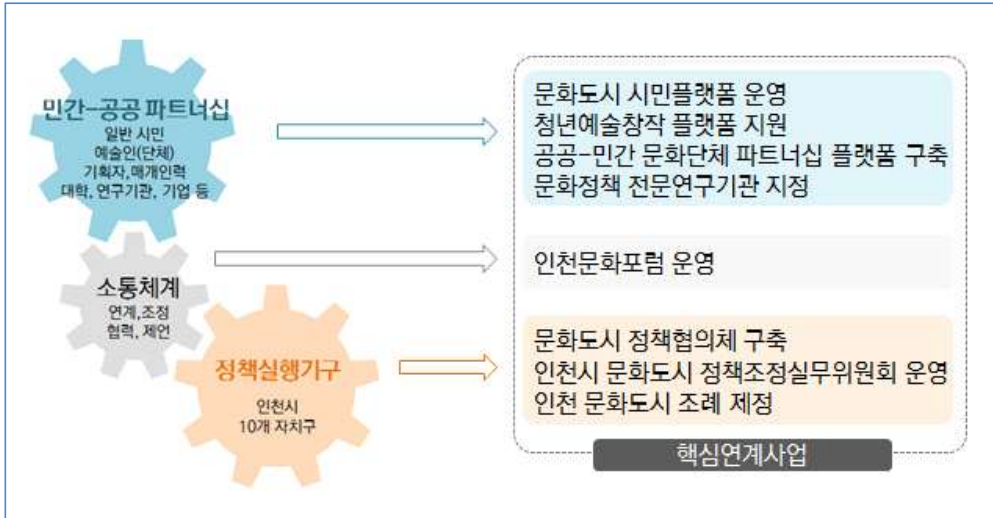
-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는 5개년간 문화도시 정책을 실행할 추진구조를 도시 전반에 확산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 영역의 참여와 협력, 민간-공공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 책임 있는 문화도시 정책실행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임. 이러한 전반적 과정을 통해 인천형 문화도시 추진협약체가 인천 내부로부터 구체화되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 특히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인천 문화도시의 핵심은 문화주체인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과 참여로 실현되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바, 인천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의 활동기반 구축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견고한 문화도시 생태계가 생동할 수 있는 정책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단위사업 실행에 국한되지 않고 인천의 지역문화 환경변화와 현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세부사업들의 선별과 변용이 상시 가능할 수 있는 자율적 운영에 기반을 둔 다각적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인천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2.1.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축

-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실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 따라서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다양한 현장 주체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민간-공공 파트너십, 인천시-자치구 간의 정책협약체를 기반으로 한 정책실행체계, 그리고 양 추진체계를 쌍방향으로 연계하는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체계가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으로 제시된 다양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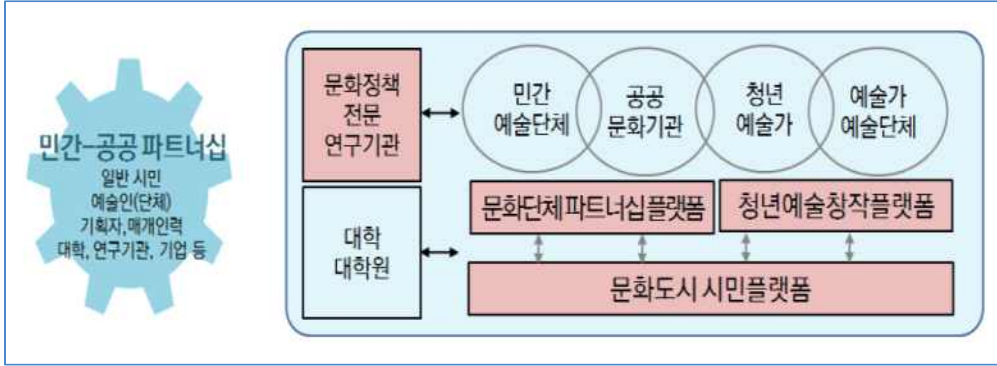
[그림 241] 인천 문화도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 추진체계 1: 민간-공공 파트너십

- 인천 문화도시 첫 번째 추진체계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기구로 인천 문화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공공 거버넌스 체계임.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핵심 주체인 인천시민을 중심으로 민간영역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민간-공공의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 민간-공공 거버넌스 체계는 문화도시 계획의 점검과 의제를 발굴하는 기구로, 인천 문화도시 관련 지속적인 연구의 추진과 더불어 시민과 민간부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은 <문화도시 시민플랫폼>, <청년예술창작 플랫폼>, <문화단체 파트너십 플랫폼>을 통해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추진하며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와 의제를 발굴, 제안하는 자생적 활동영역을 구축하게 됨.
- 주요 참여주체로는 인천시민을 중심으로, 예술가(단체), 문화기획자, 인천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전문연구기관, 대학, 인천문화재단, 사회적 기업 등의 민간기업들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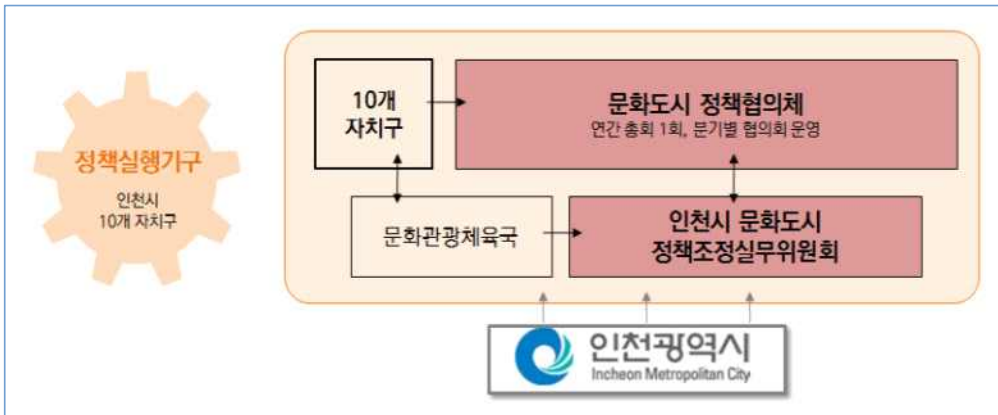
[그림 242]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1: 민간-공공 파트너십



□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2: 정책실행기구

- 인천 문화도시 두 번째 추진체계는 인천 문화도시 정책의 실행과 재정을 관리하는 예산의 권한을 가진 정책실행조직으로, 인천시 범부처 문화도시 정책 조정 및 실행을 주도하는 <인천시 문화도시 정책조정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천시-10개 자치구 간 문화도시 정책적 협력을 실행을 위한 <문화도시 정책협의체>운영이 이에 해당됨.
- 정책실행체계는 인천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단계별, 추진사업별 정례적인 성과평가를 실행하여 문화도시 추진성과의 관리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문화도시 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예산의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됨.

[그림 243]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2: 정책실행체계



□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3: 소통협력체계

- 인천 문화도시 세 번째 추진체계는 민간-공공 파트너십과 정책실행기구 두 추진체계를 연계하는 소통협력체계로 <인천문화포럼>과 더불어 2017년 5월 발족한 <인천미래정책포럼>이 이에 해당됨.
- 이 소통협력체계는 민간-공공 파트너십과 정책실행기구에서 진행되는 문화도시 관련 논의와 실행에 대한 소통과 협력구조를 만들어감으로써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논의의 확산과 실행에 대한 점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총 5개 분과 150여명의 인천 문화주체들이 참여하는 소통협력체계는 연 2회의 정책포럼과 분기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 지역문화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확산함으로써 문화도시 관련 담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다양한 문화현장에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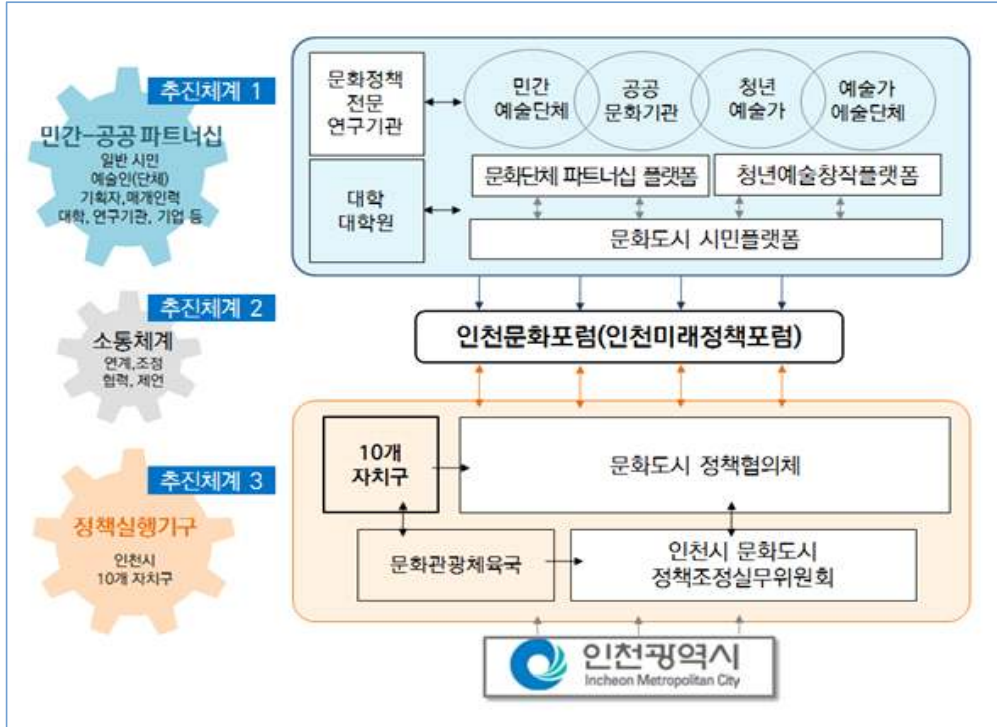
[그림 244]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 3: 소통협력체계



- 이와 같이 세 차원에서 운영되는 인천 문화도시 추진체계는 종합발전계획의 관련 사업들과 연계되어 인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다각적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됨.
- 민간-공공 파트너십 체계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영역별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하고 실행에서의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임. 정책실행기구는 인천시와 자치구의 정책실행 협의체로 정책 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소통협력체계는 민간-공공 각 영역에서 추진되는 문화도시 정책 및 실행에 대한 전반적 소통과 논의의 확산, 이를 통한 민간-공공 정책 연계와 협력 등을 모색하고 문화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을 수행함. 각각의 추진체계는 긴밀한 상호 연계를 통해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작동하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

[그림 245] 인천 문화도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2.2. 인천 문화도시 실천범주별 사업추진 우선순위 제안

- 인천 문화도시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총 70개 사업 중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36개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안함. 이는 개별 사업이 가지는 중요도에 따른 객관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인천 문화도시 비전 및 지향가치, 문화도시 추진체계와 긴밀하게 연계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임.

□ 문화주체 범주

- 문화주체 범주는 총 14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9개로 가장 많음. 사업추진 우선순위는 인천 내부에서 외부로, 시민에서 전문인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가는 방향으로 제안함. 따라서 문화주체 범주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음 순으로는 문화주

체 역량강화 및 지원사업, 외부 창조인력의 유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

[그림 246] 문화주체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 문화활동 범주

- 문화활동 범주는 총 22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6개가 제시되었는데, 자치구별 문화도시 추진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 시민문화수요를 반영한 사회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 되는 사업을 후순위에 배치함.

[그림 247] 문화활동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 문화공간 범주

- 문화공간 범주는 총 8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4개가 제시됨. 이 사업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규 문화공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이자 시급한 영역임. 때문에 현재 진행 중

인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도시 계획실행과 동시에 착수할 것을 제안함.

[그림 248] 문화공간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 문화공동체 범주

- 문화공동체 범주는 총 5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4개가 제시됨. 공공-민간 상호교류와 파트너십 및 자치구 간,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실행함.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전제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인천 세대 잇기 프로그램 및 다원문화예술단체 지원강화와 같은 사업들은 파트너십 및 정책협력 체계 구축사업의 기반 위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그림 249] 문화공동체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 문화산업 범주

- 문화산업 범주는 총 5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4개가 제시됨. 선도문화산업을 강화·육성하는 기존의 확대사업과 더불어 4개의 신규사업은 인천 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이후 관련 전문인력군의 양성과 지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점진적, 단계적 순서에 따라 추진할 것을 제안함.

[그림 250] 문화산업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 문화연동 범주

- 문화연동 범주는 총 7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5개가 제시됨. 이 중에서 특히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구성,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문화도시 계획 실행에서 중요한 영역이므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과 도시재생, 도시경관 등의 정책 연동은 범부처 정책조정실무위원회가 구성, 운영된 후에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임.
-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은 문화도시 세부사업 실행의 일차적인 성과와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들의 세부실행계획들이 구체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그림 251] 문화연동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 문화협영 범주

- 문화협영 범주는 총 5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3개가 제시됨. 문화도시 정책협의체 구축과 문화도시 조례 제정은 문화도시 추진 및 실행 기반 조성 및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므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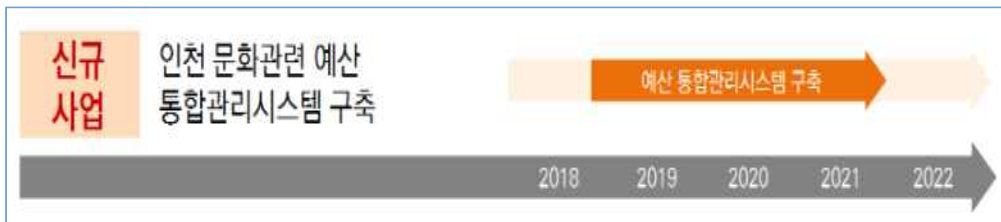
[그림 252] 문화협영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 문화재원 범주

- 문화재원 범주는 총 4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1개가 제시됨. 확대 추진되는 기존 3개 추진사업 외에 문화관련 예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신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부처별 협력구조 안에서 실행할 것을 제안함.

[그림 253] 문화재원 범주 신규사업 추진 우선순위



2.3. 인천 문화도시 사업추진 실행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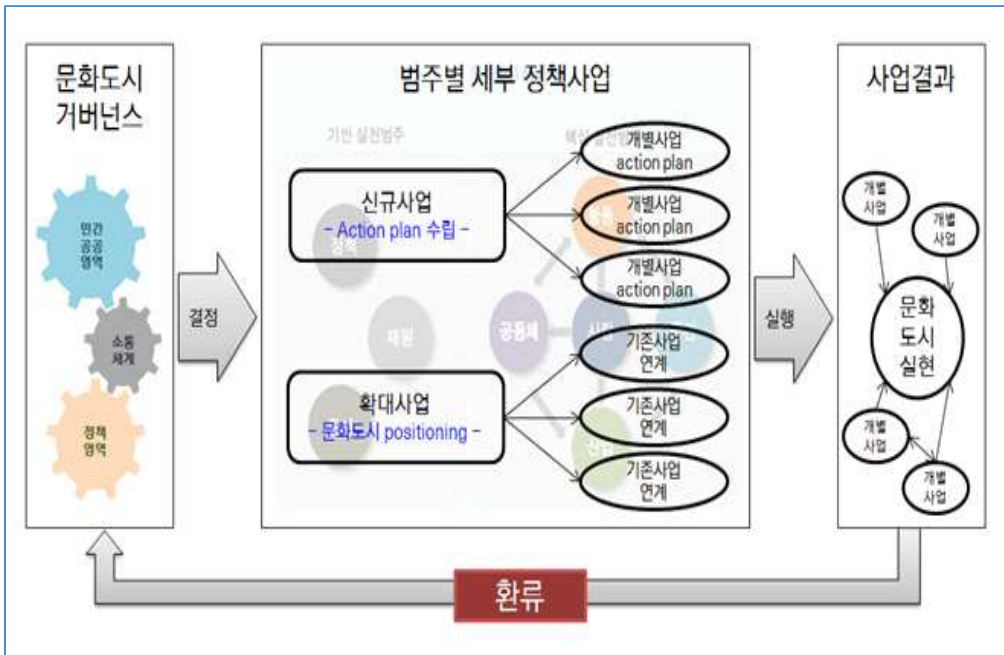
□ 문화도시 확대사업/신규사업별 차별화된 추진 프로세스 구축

-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세부 사업계획은 실천범주별로 크게 기존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확대한 영역과 문화도시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기존사업의 확대 영역이나 새롭게 개발된 신규 영역은 사업의 중요도가 확대와 신규로 규정되지 않고 그와 상관없이 사업별 중요도가 각각 존재함. 때문에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확대사업과 새롭게 제안된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행구조는 각 사업영역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
- 신규사업의 경우, 인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새롭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본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을 삼아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신규사업 유형에 따라 ‘문화정책 전문연구기관 지정’, ‘문화도시 정책협의체 구성’ 등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인천 아트센터 운영계획 수립’ 등과 같이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서 매우 정교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확대한 확대사업의 경우, 이미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 사업추진 구조 안에 적절하게 포지셔닝(Positioning) 하는 것이 필요함. 확대사업은 기존 사업과 그 연계성을 검토하여 진행하되, 인천 문화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 정책 비전에 맞게 사업들을 재배치하고 보다 섬세한 프로세스로 운영하는 것이 관건임.
- 전체 사업들은 정책 추진단위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추진하되, 사업들의 개별성보다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환류체계를 통해 운영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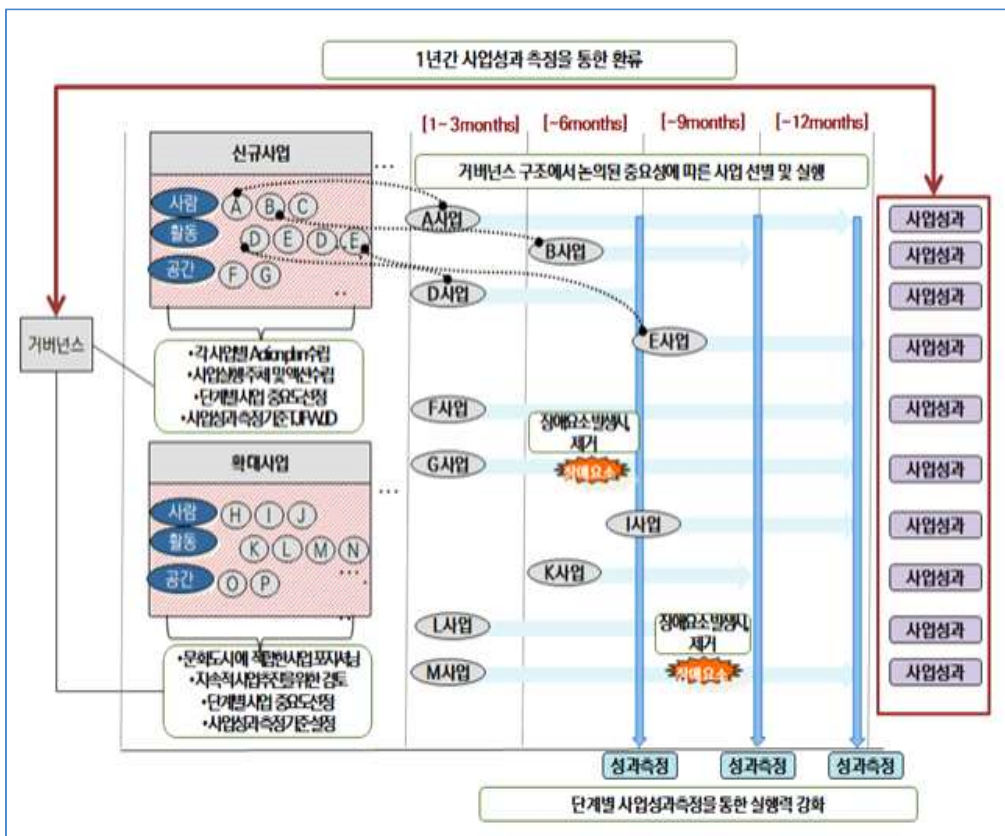
[그림 254] 인천 문화도시 신규/확대 사업 실행구조



□ 문화도시 사업추진 성과관리와 환류 시스템 구축

- 문화도시 사업추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한 지점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와 적절한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개별사업들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나 다각적으로 작동되는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에서 논의, 소통되는 흐름에 따라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추진기간, 추진주체 등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적용하는 성과관리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각 사업들은 중간 점검을 통해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중간 점검을 통해 드러난 장애요소를 제거하거나 사업목적이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폐기하여 사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성과관리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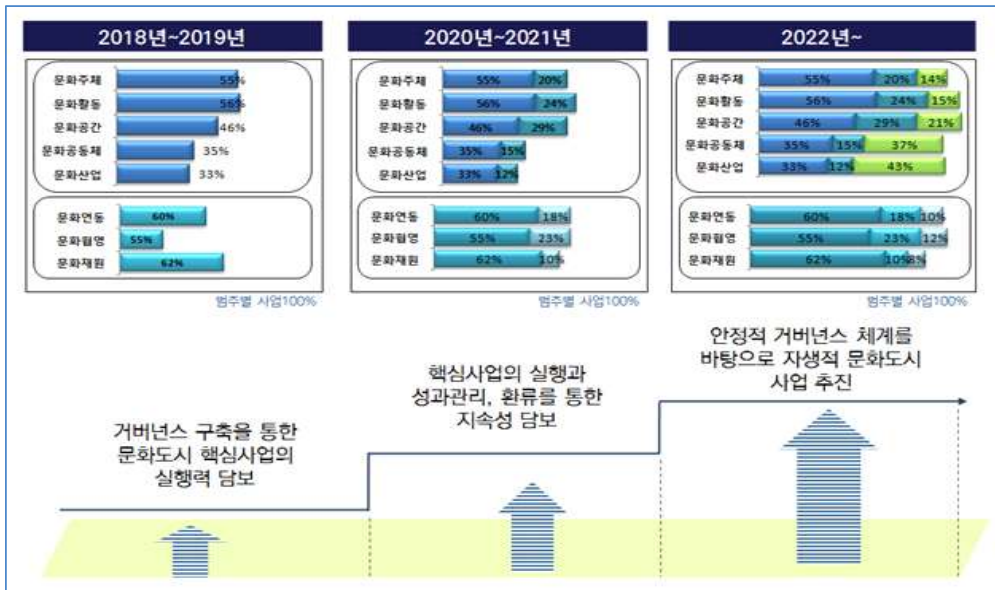
[그림 255] 인천 문화도시 추진사업 성과관리 프로세스



□ 인천 문화도시 5개년(2018년~2022년) 단계별 추진 로드맵

- 인천 문화도시 5개년 종합발전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함.
- 2018년~2019년까지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도시 핵심사업의 실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임. 이 시기는 문화도시 사업의 중추적인 거버넌스 조직체 구현을 통해 각 개별사업들의 중점적인 단계별 계획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사업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이 운용될 수 있게 하는 시기임.
- 2020년~2021년까지 첫 번째 단계에서 구축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핵심사업의 실행과 지속적 성과관리 환류를 통한 문화도시 사업들의 지속성을 담보함. 이 시기는 핵심사업의 실행에 초점을 두어 운용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 체계 안에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원활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환류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2022년부터 안정적 민관 거버넌스 기반과 핵심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개별사업들의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추진의 자율성 기반을 만들어가는 단계임.

[그림 256] 인천 문화도시 5개년(2018~2022년) 단계별 추진 로드맵



제3절 인천 문화도시 자원조성 계획(안)

1. 인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자원조성 계획(안)

□ 인천 문화도시 추경예산(안) 수립

- 인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은 사업의 범위, 신규/확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예산책정의 기준은 확대사업의 경우, 연차별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기존 예산으로 대체하였음. 총 70개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은 36개, 확대사업은 34개로 확정되었음.
- 기존사업 중 새로운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와 신규사업의 경우, 타 광역시의 유사 사업예산을 참조하고 새로운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개별 예산을 추정하여 산정함.
- 이에 총 예산은 440,196백만 원으로 산정, 이중 확대사업을 위한 예산은 84,716백만 원,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은 355,480백만 원이 산정됨. 아래의 표는 신규와 확대사업별, 범주에 따른 연도별 사업 총 예산임.

〈표 132〉 인천 문화도시 신규사업 및 확대사업 추진예산(안)

단위: 백만 원

구분	총 예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당 평균 예산
신규(34개)	355,480	20,802	29,506	102,466	102,242	100,464	10,455
확대(36개)	84,716	19,169	19,889	16,064	15,030	14,564	2,353
총 (70개)	440,196	39,971	49,395	118,530	117,272	115,028	6,289

- 그러나 문화도시 달성을 위한 총 예산안은 추정적 예산이므로 향후 사업의 진행정도,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실행, 사업실행에 있어 장애요소 발생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사업별 예산은 유동적임.

○ 인천 문화도시 범주별 추정 수립된 자원조성 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표 133〉 인천 문화도시 범주별 추정예산(안)

단위: 백만 원

구분	총 예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주체	15,590	3,262	3,082	3,082	3,082	3,082
문화활동	51,930	12,667	13,537	9,542	8,042	8,142
문화공간	345,416	18,592	27,376	100,486	100,528	98,434
문화공동체	3,065	643	593	593	593	643
문화산업	17,700	3,500	3,500	3,500	3,700	3,500
문화연동	3,900	780	780	780	780	780
문화협영	1,375	295	295	295	295	195
문화재원	1,220	232	232	252	252	252
총예산	440,196	39,971	49,395	118,530	117,272	115,028

2. 인천 문화도시 범주별 재원조성 계획(안)

- 세부 사업별 예산안 및 각 범주별 사업별 예산의 범주와 사업의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표 134〉 문화주체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단위: 백만 원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부서	유형	총 예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민을 문화의 주체로	인천 시민문화대학 운영	문화재단	신규	1,500	300	300	300	300	300
	문화도시 시민 플랫폼 운영	문화도시 시민위원회	신규	300	60	60	60	60	60
	인천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기반 마련	문화예술과/문화재단	확대	10,410	2,082	2,082	2,082	2,082	2,082
	온·오프라인 문화정보 포털 구축	문화예술과/문화재단	확대	250	50	50	50	50	50
	인천시민문화현장 제정 및 제도화	문화예술과	신규	미정	-	-	-	-	-
문화매개 역량강화	인천 문화기획자 양성	문화예술과/문화재단	확대	500	100	100	100	100	100
	인천 문화 리더십 프로그램	문화예술과	신규	230	30	50	50	50	50
	문화행정인력 역량 강화	문화예술과	신규	150	30	30	30	30	30
창조인력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클러스터 조성	문화예술과	확대	미정	-	-	-	-	-
	인천 예술인 플랜 수립	문화예술과	신규	200	200	-	-	-	-
	예술창작인력 맞춤형 역량 강화	문화예술과	신규	1,000	200	200	200	200	200
	창조인력의 유입 방안 강화	문화예술과/문화재단	신규	500	100	100	100	100	100
	인천 예술인 복지지원 서비스	문화예술과/문화재단	신규	500	100	100	100	100	100
문화주체 예산				15,590	3,262	3,082	3,082	3,082	3,082

〈표 135〉 문화활동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단위: 백만 원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부서	유형	총 예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천 역사문화 및 현재화	인천 역사문화공간 국립화 및 국립박물관 건립	문화예술과, 문화재과	확대	미정	-	-	-	-	-
	역사문화시설 프로그램 특성화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확대	7,930	1,565	1,565	1,600	1,600	1,600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문화유산 활용 다각화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신규	500	100	100	100	100	100
	세계문화유산 도시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확대	2,900	700	700	500	500	500
	인천 근현대 건축물·산업유산의 재조명	문화재과	신규	750	150	150	150	150	150
	강도의 꿈 실현	문화재과, 강화역사문화센터	확대	12,440	7,610	3,330	1,500	-	-
예술적 창조기반 강화	문화예술창작소 조성 및 활성화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확대	14,100	100	5,000	3,000	3,000	3,000
	장르별, 생애주기별 예술창작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과	확대	900	100	200	200	200	200
	청년문화예술창작 플랫폼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500	100	100	100	100	100
	민간 문화예술단체 창작기반 강화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700	100	100	150	150	200
	인천시립예술단의 활동기반 강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회관	확대	400	80	80	80	80	80
지역문화 콘텐츠개발 및 활용체계 확산	인천 Story Bank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문화재과	확대	500	100	100	100	100	100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원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과	확대	2,500	500	500	500	500	500
	인천형 축제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과, 인천축제위원회	신규	500	100	100	100	100	100
	자치구별 문화도시 지원 Track 구축	문화도시정책협의체, 각 자치구	신규	150	50	50	-	-	50
	섬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과	확대	500	100	100	100	100	100
	해양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	문화예술과	확대	500	100	100	100	100	100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시민 생활문화활동 활성화 지원(개인)	문화예술과	확대	3,010	562	612	612	612	612
	마을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샵터)	문화예술과	확대	500	100	100	100	100	100
	사회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일터)	문화예술과	신규	250	50	50	50	50	50
문화예술 활동의 국제적	문화교류 중점기구의 역할 강화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700	100	150	150	150	150

기반 마련	국제문화교류 브랜드 구축	문화예술과	확대	1,700	300	350	350	350	350
문화활동 예산				51,930	12,667	13,537	9,542	8,042	8,142

〈표 136〉 문화공간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단위: 백만 원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부서	유형	총 예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 및 균형적 확산	인천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문화콘텐츠과	확대	4,866	900	800	900	1,366	900
	‘천 개의 문화공간’ 조성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문화재과	확대	3,500	700	700	700	700	700
민간 문화공간의 운영 활성화	자치구별 Hot 지구 구축, 균형적 문화 인프라 확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확대	미정	-	-	-	-	-
	문화시설 특성화 및 운영 전문성 강화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인천문화예술단	확대	750	150	150	150	150	150
공공문화 시설의 운영 전문화	인천뮤지엄파크(IMP) 운영 방안 마련	문화콘텐츠과	신규	284,060	-	8,585	91,826	91,825	91,824
	개항장 플랫폼 활성화방안 마련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신규	27,500	7,300	7,600	3,900	4,200	4,500
	아트센터 인천 운영방안 마련	아트센터 인천 운영준비단	신규	미정	-	-	-	-	-
	인천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	문화예술과/문화재과	신규	24,740	9,542	9,541	3,010	2,287	360
문화공간 예산				345,416	18,592	27,376	100,486	100,528	98,434

〈표 137〉 문화공동체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단위: 백만 원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부서	유형	총 예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협력	공공-민간 문화단체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과	신규	250	50	50	50	50	50
	다원문화예술 단체 지원 강화	문화예술과	신규	250	50	50	50	50	50
	문화다양성 시민협약 및 액션 플랜 수립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2,050	440	390	390	390	440
	인천 세대잇기 프로젝트	문화예술과	신규	500	100	100	100	100	100
지역 간 문화 협력	자치구 문화정책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과	신규	15	3	3	3	3	3
문화공동체 예산				3,065	643	593	593	593	643

〈표 138〉 문화산업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단위: 백만 원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부서	유형	총 예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문화산업 기초기반 마련	문화산업 정책적 R&D 강화	문화콘텐츠과	신규	400	200	-	-	200	-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과, 마이스산업과	신규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문화산업 전문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문화콘텐츠과	신규	미정	-	-	-	-	-
	인천 아트마켓 활성화	문화콘텐츠과	신규	2300	300	500	500	500	500
	선도 문화산업(영상, 음악) 강화 및 문학 육성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확대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문화산업 예산				17,700	3,500	3,500	3,500	3,700	3,500

〈표 139〉 문화연동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단위: 백만 원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부서	유형	총 예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영역간 연동	도시재생과 문화계획의 연동	문화예술과, 도시재생정책관	신규	100	20	20	20	20	20
	도시경관과 문화계획의 연동	문화예술과, 도시경관과	신규	100	20	20	20	20	20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과, 관광진흥과	확대	2,500	500	500	500	500	500
	마이스 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과, 마이스산업과	확대	150	30	30	30	30	30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정책 기반마련	인천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실행	문화예술과	신규	500	100	100	100	100	100
	인천시 문화도시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운영	문화예술과	신규	50	10	10	10	10	10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문화예술과	신규	500	100	100	100	100	100
문화연동 예산				3,900	780	780	780	780	780

〈표 140〉 문화협영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단위: 백만 원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부서	유형	총 예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민관협영	문화도시 정책협의체 구축	문화예술과	신규	25	5	5	5	5	5
	인천문화포럼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300	60	60	60	60	60
시-군구 정책 연계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확대	900	200	200	200	200	100
문화도시 추진 제도적 기반마련	인천 문화도시 조례 제정	문화예술과	신규	미정	-	-	-	-	-
	문화정책 전문연구기관 지정	문화예술과	신규	150	30	30	30	30	30
문화협영 예산				1,375	295	295	295	295	195

〈표 141〉 문화재원 범주 세부사업 추정예산(안)

단위: 백만 원

정책과제	세부사업	실행부서	유형	총 예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천문화 예산 확충 및 안정화	문화예산 3.2% 도시	문화예술과	확대	-	-	-	-	-	-
	인천 문화관련 예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과	신규	10	2	2	2	2	2
인천 문화재원 다각화	문화기부 참여 1위 도시	문화재단	확대	210	30	30	50	50	50
	메세나사업 활성화 방안 구축	문화재단	확대	1,000	200	200	200	200	200
문화재원 예산				1,220	232	232	252	252	252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광(2011), 『2010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 강광(2012), 『2009~2011 섬 공공예술 프로젝트, 3년의 기억과 기록』, 인천문화재단.
- 강광(2012), 『2011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 강광(2012), 『인천 문화매개자 문화예술 민간 거버넌스 실행사례 탐방』, 인천문화재단
- 강광(2013), 『2012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 고정민 외(2010), 『주요국가 문화예술통계 실태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규원 외(2007),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 사례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도희(2012), 『울산광역시 남구의 문화도시정책 추진성과의 정책적 함의: 남구의 문화 도시정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pp.7~29.
- 김숙경(2016), 『문화기반의 도시재생에 관한 비교연구-글래스고와 가나자와를 사례 로』, 로컬리티 인문학, 15, pp.123~156.
- 김연진 외(2011), 『문화지구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용하 외(2004), 『인천의 도시계획』, 인천광역시.
- 김윤식(2014), 『2013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 김윤식(2014), 『2014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 인천문화재단.
- 김윤식(2015), 『114년의 기억, 한국인천화교중산중소화 1902-2015』, 인천문화재단.
- 김윤식(2015), 『2014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 김윤식(2015), 『낭만인천, 도시를 보다』, 인천문화재단.
- 김윤식(2015), 『인천문화재단 10주년 백서』, 인천문화재단.
- 김윤희 외(2015),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김정희 외(2008), 『초·중등학교 통합형 문화예술교육 모형개발 연구』, 인천문화재단.
- 김준홍(2012), 『Richard Florida의 창조 도시 이론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창조 계층의 장소 선택을 중심』, 문화정책논총, 26(1), pp.31~51.
- 김창수 외(2012), 『2012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인천문화재단.
- 김창수 외(2014), 『인천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문화예술동호회를 중 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김효정 외(2004), 『문화도시 육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노영순 외(2014),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문화체육관광부.
- 문휘운 외(2014), 『문화적 다양성과 도시재생의 쟁점과 함의』, 도시정책연구, 5(1), pp.51~62.
- 민지은 외(2014),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도시 구축에 관한 연구-프랑스 '예술과 역 사의 도시'인증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8(2), pp.26~47.
- 박재민·성종상(2012),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1), pp.65~81.

- 박진한 외(2013), 『근대산업유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과 인천지역학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철희 외(2010), 『역사문화도시로서 부여의 도시이미지 형성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2), pp.95~108.
- 백지운 외(2006), 『인천 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1)- 강화』, 인천문화재단.
- 백지운 외(2006), 『인천의 문화예술 축제모형 개발 연구,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인천문화재단.
- 서영대 외(2011), 『인천의 전통놀이』, 인천문화재단.
- 신성희(2009), 『인천지역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재활용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신왕식(2013), 『인천 도시변화 자료집』, 인천광역시.
- 심갑섭(2007), 『2007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 심갑섭(2009), 『2008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 심갑섭(2010), 『2009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 심갑섭(2010),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 심갑섭(2010), 『인천문화재단 5주년 백서』, 인천문화재단.
- 안상수(2009), 『인천 개장항 역사 도보 여행』, 인천문화재단.
- 윤용중 외(2001), 『지역별 문화산업 육성정책 비교연구-지방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윤혜영 외(2016), 『개항장 일대 보행친화 가로 공간 구상』, 인천발전연구원.
- 이가림(2002), 『하늘길 바닷길 기차길로 오가는 도시 인천』, 문화예술, 6월호, pp. 124~129.
- 이순자 외(2012),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과제』, 국토연구원.
- 이병민(2011), 『창조적 문화중심도시 조성전략과 문화정책 방향』, 문화정책, 25(1), pp.7~36.
- 이승환(2013), 『인천도시연구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이연주 외(2012), 『밀양시 이미지 형성요소가 브랜드이미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 -도시소비자 설문예 기초한 밀양시 브랜드이미지 전략 제안』,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2), pp.115~122.
- 이용식 외(1998), 『인천의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구상』, 인천발전연구원.
- 이재준 외(201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분석 연구-일본 나오시마와 수원시 행궁동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7(1), pp.23~35.
- 이종현 외(2012), 『누구나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도시 인천』을 창조하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인천광역시.
- 이종현 외(2015),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

- 이현식(2009), 『지역문화와 창조도시론-서울과 성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35), pp.315~341.
- 이호상 외(2012),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부산 감천문화마을과 나오시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 임고은 외(2008), 『2008 인천광역시 문화지표 조사연구』, 인천문화재단.
- 임학순 외(1999), 『문화지구 조성모델 개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인사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남지 외(2016), 『개항문화지구 내 문화자본 현황분석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인천발전연구원.
- 정성훈(2012),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문적 비판』, 시대와 철학, 23(1), pp.385~408.
- 정정숙 외(2008), 『아시아 문화수도 도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지원·최종화(2016), 『인천의 도시가치자원 현황과 자원화 방안: 산업유산의 가치화』, 인천발전연구원.
- 정진원 외(2010), 『문화도시 조성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사례로』, 2010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종합 학술대회, pp.173~185.
- 정헌일 외(2011), 『지역문화산업정책의 변천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용훈 외(2008),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경기장 증·개축 방안 및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추미경 외(201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최보연 외(2008),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봉문 외(2010),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인천광역시.
- 최원식(2006), 『2005 인천문화예술백서』, 인천문화재단.
- 최원식(2007) 『2006 인천문화예술연감』, 인천문화재단.
- 추미경 외(2012)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허은광 외(2005),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지원·심의·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 인천문화재단.
- 허은광 외(2005), 『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인천문화재단.
- 허은광 외(2005), 『한류의 파급효과와 인천 연계 방안』, 인천문화재단.
- 허은광 외(2006), 『인천영상위원회 설립방안 및 역할』, 인천문화재단.
- 허은광 외(2006), 『인천지역 문화예술지원 실태조사』, 인천문화재단.
- 황동열 외(2001), 『장충동 문화단지 조성계획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2006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비평활성화사업 결과보고 자료집』, (2007), 인천문화재단.

- 『2007 인천문화예술연감』 , (2007), 인천문화재단.
- 『2008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 , (2008), 인천문화재단.
- 『2012 인천왈츠 시민뮤지컬 <어떤 여행> 3개월의 기록』 , (2013), 인천문화재단.
- 『2013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결과자료집』 , (2014), 인천문화재단.
-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2013), 문화체육관광부.
- 『2013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2014), 문화체육관광부.
- 『2014 공연예술 실태조사』 , (2014), 문화체육관광부.
-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 (2014), 문화체육관광부.
- 『2014 국민여행 실태조사』 , (2015), 문화체육관광부.
-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 (2014), 문화체육관광부.
- 『2014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백서』 , (2015),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2014 지역공동체 문화계획 경기장 보물찾기』 , (2014), 인천문화재단.
- 『2014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결과자료집』 , (2014), 인천문화재단.
- 『2014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2015), 문화체육관광부.
-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2015), 문화체육관광부.
- 『2014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 , (2015), 문화체육관광부.
- 『2015 공연예술 실태조사』 , (2015), 문화체육관광부.
- 『2015 인천문화재단 ANNUAL REPORT』 , (2016), 인천문화재단.
- 『2015 인천통계연보』 , (2015), 인천광역시.
-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2016),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2011), 서울특별시.
- 『What & How』 , (2016),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실.
- 『공공미술 술래』 , (2014),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마을문화 계획하기』 , (2013), 인천문화재단.
- 『문예연감』 ,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2012), 문화체육관광부.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 (2016), 서울특별시(문화본부).
- 『외국인을 위한 인천생활가이드북』 , (2015), 인천광역시청 다문화정책과.
- 『우리동네 한바퀴』 , (2013), 인천문화재단.
- 『월간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 , (2016), 문화체육관광부.
-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 , (2010), 인천문화재단.
- 『인천 문화예술인의 도시재생 사례탐방-런던, 버밍엄, 리버풀 6박 8일』 , (2011), 인천 문화재단.
-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한 인천도서발전기본계획』 , (2016), 인천광역시 해양도서정책과.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 (2013),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 (2007), 인천광역시.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0), 국토해양부, 한국교통연구원.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 대한민국정부.
 『제 54회 2014 인천광역시 통계연보』, (2015),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지역문화지표 개발 및 시범연구』, (2013), 문화체육관광부.

국외문헌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MA: MIT Press.
 P. Jörg. (2007). *Bilbao City Report, Case*.
 『文化藝術創造都市-クリエイティブシティ・ヨコハマの形成に向けた提言』, (2004), 文化藝術・観光振興による道心部活性化検討委員会.
 『クリエイティブシティ・ヨコハマの形成を目指した推進体制・提言書』, (2007), クリエイティブシティ・ヨコハマ研究会.
 『提言書 「クリエイティブシティ・ヨコハマの新たな展開に向けて」 ~ 2010年からの方向性 ~』, (2010), 創造都市横浜推進協議会.
 『創造都市横浜』, (2014), ヨコハマ創造都市センター.

포럼, 토론회 자료

- 『“강화의 문화예술지역으로서의 특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숍』 (2006.12.11), 인천문화재단.
 『2006 공공미술 세미나 “인천 공공미술의 방향”』 (2006.08.29), 인천문화재단.
 『2006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육성지원금사업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2005.10.25), 인천문화재단, 경인일보.
 『2007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공교육에서 예술교육의 위상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과제 토론회”』 (2007.08.30), 인천문화재단.
 『2010 동아시아 문화진흥기관 심포지엄 “동아시아 연대와 시민문화의 재발견”』 (2010.10.01), 인천문화재단.
 『2010 동아시아 문화진흥기관 심포지엄 “시민문화예술 프리젠테이션 파티”』 (2010.10.02), 인천문화재단.
 『2010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관 연계 방안”』 (2010.12.04), 인천문화재단.
 『2013 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 포럼 “분절된 정책, 분리될 수 없는 삶”』 (2013.12.17), 인천문화재단.

- 『2013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공동체 포럼 “지금, 여기 커뮤니티아트”』 (2013.11.26), 인천문화재단.
- 『2014 문화복지 포럼 “복지를 넘어서는 문화복지”』 (2014.12.15), 인천문화재단.
- 『2014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공동체포럼 “이곳에 함께 살기 위하여”』 (2014.11.19), 인천문화재단.
- 『2015 부평문화포럼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 (2015.10.13),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 『검여 유희장 서거 30주년 기념 특별전 학술 심포지엄』 (2006.11.11), 인천문화재단.
- 『국내 개항도시 워크숍 “근대 식민도시 부산의 형성과 발전”』 (2007), 인천문화재단.
- 『동아시아 문화진흥기관 교류협력회의 “한·중·일 도시 간 문화예술협력모델 창안을 위하여”』 (2008.11.27), 인천문화재단.
- 『문화도시·문화마을 경주포럼 “문화도시의 발현을 위한 기본구조”』 (2013.05.2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도시·문화마을 공주, 부여포럼 “문화도시의 실현가능을 위하여”』 (2013.06.1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도시·문화마을 서울포럼 발족식』 (2013.04.1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도시·문화마을 전주포럼 “2013. 문화도시란?”』 (2013.04.3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복지포럼 “지역과 문화복지, 어떻게 만날까?”』 (2013.10.15), 인천문화재단.
- 『바로 그 포럼 “비물질예술,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나”』 (2015.12.22), 인천문화재단.
- 『부평 음악·융합 도시 포럼 “홍대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본 부평 음악 융합 도시 계획의 지역성, 자생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2016.06.09), 부평구 문화재단.
- 『우현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동아시아 근대미학의 기원”』 (2005.08.12), 인천문화재단.
- 『인천 ‘중국의 날’ 축제 및 차이나타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06.12.05), 인천문화재단.
- 『인천 미술은행 세미나 “시민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인천 미술은행의 역할”』 (2006.06.20), 인천문화재단.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중장기종합발전계획 공청회』 (2003.04.03), 인천광역시.
- 『인천대 문화대학원 세미나 “생활문화와 새로운 문화 인력의 등장”』 (2015.06.16), 인천대학교 대학원.
- 『인천문화재단 문화정책토론회 “인천의 문화적 가치 창조”』 (2015.03.05), 인천문화재단.
- 『인천의 문화예술 관련 기금지원사업 방향에 대한 포럼』 (2005.10.06), 인천문화재단.

-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 비전 2050” 시민토론회』 (2016.03.22),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의 바람직한 도시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2010), 인천광역시.
- 『제 18회 목요문화포럼 “인천지역 문화매개자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2009.03.26), 인천문화재단.
- 『제 1차 수다포럼 “외부와 내부의 시선: 인천의 공간 문화를 말하다”』 (2006), 인천문화재단.
- 『제 2차 수다포럼 “공동체와 마을”』 (2006.07.06), 인천문화재단.
- 『제 35회 목요문화포럼 “지금, 어떤 지역문화를 꿈꾸십니까”』 (2012.03.29), 인천문화재단.
- 『제 39회 목요문화포럼 “지역문화진흥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2.08.29), 인천문화재단.
- 『제 3차 수다포럼 “지역 특수적 유희 공간의 활용”』 (2006.), 인천문화재단.
- 『제 40회 목요문화포럼 “협동조합에 길을 묻다-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은 가능한가?”』 (2012.10.16), 인천문화재단.
- 『제 41회 목요문화포럼 “문화, 도시를 살리다-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2013.04.18), 인천문화재단.
- 『제 42회 목요문화포럼 “문화, 도시를 살리다Ⅱ-인천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 (2013.06.27), 인천문화재단.
- 『제 43회 목요문화포럼 “그을린 예술, 삶의 예술”』 (2013.09.12), 인천문화재단.
- 『제 44회 목요문화포럼 “철학, 더러움에 빠지다”』 (2013.11.27), 인천문화재단.
- 『제 45회 목요문화포럼 “인천, 책 읽는 도시로 가기 위한 창조적 전략”』 (2013.12.19), 인천문화재단.
- 『제 47회 목요문화포럼 “사회적 사건과 예술적 재구성”』 (2014.06.26), 인천문화재단.
- 『제 48회 목요문화포럼 “예술가 사이의 소통 가능성”』 (2014.10.01), 인천문화재단.
- 『제 49회 목요문화포럼 “하위문화와 문화공공성”』 (2014.12.04), 인천문화재단.
- 『제 55회 목요문화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016.06.30), 인천문화재단.
- 『제 7회 도시인문학세미나 “문화관련법 재정과 인천문화정책-문화기본점법·지역문화진흥법”』 (2014.02.19), 인천발전연구원.
- 『제3회 인천 AALA 문화포럼 “지역에서 세계를 찾다”』 (2012.04.26), 인천문화재단.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2015.11.26),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 『한국의 지역문화 발전실태 심포지엄 “문화지표에 나타난 인천문화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 (2007.05.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도자료 및 브리핑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02.06), 「2013 지역문화지표 분석' 결과, 수원시 전국 최고」 .
인천광역시(2016.10.03), 「3백만 시민행복을 위한 「문화성시 인천」 문화주권 발표」 .
인천광역시(2016.10.18), 「인천의 도시브랜드 “all ways Incheon”」 .
함께서울(2016.06.29), 「20년 서울에 세계인이 찾는 공예박물관 등 5대 문화시설」 .

웹사이트

인천광역시청 www.incheon.go.kr/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www.elis.go.kr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www.gokams.or.kr/artssdb

전통시장 www.sijangtong.or.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정보 www.korean.visitkorea.or.kr

TICCIH www.ticcih.org

요코하마시 문화관광국 www.city.yokohama.lg.jp/bunka

부 록

<인천 문화도시 판>에 참여한 사람들

□ 관계자 심층인터뷰

- 인천 문화계 주요 인사들과의 개별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천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지향가치,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한 고견 수렴
- 인천의 내재적인 역사문화가치의 원형, 인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통시적 흐름 속에서의 도시 인천의 발자취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성 도출

일정	인터뷰 대상
2016.8. 2.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
2016.8. 2.	정진철 부평문화원장/부평역사박물관장 이성진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2016.8.10.	강옥엽 인천시역사자료관 전문위원 강덕우 인천시역사자료관 전문위원/인천시 문화재과 주무관
2016.9. 1.	김학철 인천예총 사무처장



□ 자치구 워크숍

- 인천 10개 자치구의 문화예술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인천 문화도시 추진의 정책적 공감대 및 협력 기반 마련
- 인천 문화도시 비전 및 정책 추진방향, 자치구별 정책과제 도출

- 강연, 공유워크숍으로 구성된 1박 2일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치구별 문화정책 추진현황 공유 및 4가지 주요 키워드(사람, 역사, 예술, 공간)를 중심으로 자치구별 주요 현안과 이슈 도출
- 자치구별 발표와 공유를 통한 이슈 공감 및 향후 시-자치구 간 정례적 소통과 논의구조 필요성 확인



구분	세부내용	
일정	2016.8.25. ~ 2016.8.26. (1박2일)	
프로그램	강연	[여는강연] 인천 문화도시 비전과 가치 [특별강연] 도시계획과 연동되는 문화도시 계획 [맺음강연] 문화도시를 향한 인천의 비상
	공유워크숍	[1]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자치구의 과제: 자치구 현안 및 이슈 공유, 과제 도출 [2] 문화도시 비전: 문화도시를 위한 추진방향 공유
	기타	강화도 역사투어
참여자	인천시 관계자	김재익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인수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임미선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주무관 오현주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주무관 박인준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주무관 강홍일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주무관 윤보라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강연자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장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자치구 담당자	김동기 동구 관광개발과 문화예술팀장 한성희 남구 문화예술과장 조소영 연수구 문화체육과 성수진 남동구 문화체육과 한영도 부평구 문화체육과 남궁인철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이석원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이창호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배흥규 강화군 문화관광과

		김지은 강화군 문화관광과
	문화원 관계자	유영섭 인천시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강명국 인천남동고 남동문화원 이성진 인천부평구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서덕현 인천서구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 열린 집담회

- 문화도시 관련 다양한 층위, 다양한 영역의 문화주체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주제별 문화도시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논의와 토론 진행
- 문화도시 비전 및 가치, 자치구, 공공문화기관, 영역별 문화도시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 도출
 - 주제별 5차례 열린 집담회 운영
 - 총 26명의 발제자와 사전신청을 통한 인천시민 참여



일정	주제	발제자
1차 2016.9.6.	인천의 문화가치와 비전 1	김윤식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덕우 인천시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정세훈 인천민예총 이사장 김칭우 인천일보 문화부장 임성훈 경인일보 문화체육부장 박정환 기호일보 사회부장 김상원 인천시 문화특보/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장
2차 2016.9.8.	인천의 문화가치와 비전 2	이강민 몬스터레코드 대표 백지현 문화자치연구소 거리울림/공유공간 팩토리얼 대표 이영은 청년문화기획 하다보니 조윤상 라벨대표/그린빌라 레지던시 기획자 권근영 극단 앤드씨어터/15분 연극제 기획자
3차 2016.9.20.	인천 문화도시 현황 및 이슈	곽경전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박성희 남구 학산문화원 사무국장 이슬기 응진군 관광문화과

		강영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차 2016.9.22.	문화도시 영역별 이슈 1	이찬영 풍물패 더늠 대표/인천 자바르떼 대표 여 백 인천독립영화협회 대표/다큐멘터리 감독 정상희 스페이스 아도 대표/아도크리에이션 공동대표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정책연구팀장 최경숙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사무국장
5차 2016.9.30.	문화도시 영역별 이슈 2	배준환 인천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장 안택균 인천재능대 호텔관광과 조교수 백승국 인하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황영삼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교수 김상원 인천광역시 문화특보/인하대 문화경영학과장

□ 자문회의

- 인천 문화도시 비전체계도 및 주요 범주별 관계자 중심의 자문회의를 통해 문화도시 범주별 주요 정책과제 및 세부내용 도출
 - 인천 자치구 문화정책 담당자, 자치구 문화원, 예술인 및 문화기획자, 문화산업 관계자 대상 4차례 자문회의 운영



일정	참여자	
1차 2017.1.17.	자치구 문화원 관계자	강은주 강화문화원 사무국장 이성진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조영주 연수문화원 사무국장 서덕현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최범자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박성희 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장 최영주 남동문화원 사무국장 허 연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
2차 2017.1.20.	자치구 정책담당자	김경은 중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모정현 동구 관광개발과 주무관 한성희 남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조소영 연수구 문화체육과 주무관 한영도 부평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이석원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팀장
3차 2017.2.24.	인천 예술인/문화기획자	김선찬 (사)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장 채은영 독립기획자/임시공간 대표 신운섭 감독 윤종필 구물구물 문화학교 대표/ 컬렉티브 커뮤니티 스튜디오 525 디렉터 오석근 사진/설치작가 황유경 창조연구소 삶 대표 우사라 부평아트센터 큐레이터
4차 2017.2.24.	문화산업 분야 관계자	이진형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진흥센터 과장 이지은 인천영상위원회 영상산업팀장 양경민 인천영상위원회 기획홍보팀장

□ 정책토론회

- 인천 문화도시 개념 및 비전체계도, 주요 범주별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계획 초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관점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세부 추진내용 도출
 - 문화도시 관련 외부 전문가, 인천지역 전문가 10인 참여
 - 인천시 관계자, 연구진과의 논의 및 토론 진행



구분	내용	
일정	2017.3.28.	
참여자	인천시 관계자	김재익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인수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임미선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주무관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라도삼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안이영노 문화기획자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장세길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연구위원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인천지역	김락기 강화역사문화센터장

전문가	김창길 인천민예총 감사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문화교육팀장 이진형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센터 과장 임승관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	---

□ 시민공청회

- 인천 문화도시 개념 및 비전,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 공표 및 인천 시민의 문화도시 추진의 공감대 형성, 최종적인 의견수렴 자리
 - 인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발표
 - 유정복 인천시장의 문화주권계획 추진현황 브리핑, 인천시의 문화도시 정책 추진 의지 표명 및 인천시민의 참여 독려
 - <인천문화포럼> 발족식과 연계 진행, 인천문화포럼 위원회 및 5개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총 100여명 참여



구분	내용
일정	2017.5.17.
참여자	<인천문화포럼> 발족식과 연계 진행 인천시민, 정책관계자, 문화기관 종사자, 인천예술인/단체, 청년예술가 등 총 100여명 참여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2018~2022

발행일 2017년 6월

발행처 인천광역시청 www.incheon.go.kr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032) 120

연구기관 사단법인 문화다움 www.daumian.org

책자의 판매, 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